발 간 등 록 번 호
72-6420883-000003-01



GANGWON FIRE HEADQUARTER

Ⅱ

강원소방 100년사



강원도소방본부



강원소방 100년사

표지설명(앞)

1. 춘천시 후평동 상수도공사 매몰자 구조(2006.10.20.)
2. 정선군 신동읍 교통사고 차량화재(2006.8.14.)
3. 제29회 강원도소방기술경연대회 최강소방관분야(2006.6.22.)
4. 제29회 강원도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분야(2006.6.22.)

표지설명(뒤)

1. 춘천시 남산면 플라스틱공장 화재 (2007.2.22.)
2. 양양 산불로 번진 낙산사 요사체 화재(2005.4.5.)
3.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인명구조(2011.7.27.)
4. 정선알파인경기장 스키 FOP응급구조사(2017.2.21.)

Ⅱ

강원소방 100년사

Contents

제4편 재난과 강원소방

제1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제1절 자연재난 ····· 10
1. 태풍 ····· 11
2. 호우(豪雨) ····· 16
3. 강풍 ····· 25
4. 폭염 ····· 28
5. 대설 ····· 30
6. 기타 자연재난 ····· 34

제2절 사회재난 ····· 38
1. 산불 ····· 38
2. 화재 ····· 45
3. 교통사고 ····· 56
4. 기타 사회재난 ····· 59

제2장 민방위체제 속의 강원소방

제1절 국가 민방위체제 ····· 72
1. 민방위체제 이전의 재난관리 ····· 72
2. 민방위본부와 소방국 ····· 73
3. 소방국의 직제 변화 ····· 73

제2절 강원도 민방위국 체제 ····· 75
1. 도 민방위국과 강원소방 ····· 75
2. 강원도소방본부의 설치 ····· 76
3. 구조·구급업무의 법제화 ····· 77

제3장 강원소방과 민간조직

제1절 시대흐름 속에 사라진 조직 ····· 80
1. 소방조 해체와 경방단 ····· 80
2. 소방대 ····· 81
3. 방공단 ····· 81
4. 청원소방원 ····· 82

제2절 의용소방대 ····· 84
1. 유래 ····· 84
2. 조직 ····· 84

제3절 소방관련 산하단체 ····· 86
1. 대한소방공제회 ····· 86
2. 한국소방안전원 ····· 88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91
4. 한국소방시설협회 ····· 93
5.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95

제5편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소방

제1장 올림픽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

제1절 우리나라의 올림픽 역사 ····· 100
1. 올림픽 출전 ····· 100
2.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 ····· 102

제2절 동계올림픽을 향한 열정 ····· 104
1. 동계올림픽과 두 번의 눈물 ····· 104
2. 세 번째 도전 평창의 꿈 ····· 107

제2장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의의

제1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 112
1. 동계올림픽의 유래 및 발전과정 ····· 112
2. 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목표 및 상징 ····· 113

제2절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 115
1. 패럴림픽대회의 발전과정 및 어원 ····· 115
2. 2018평창동계패럴림대회 의의 및 상징 ····· 116

제3장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안전대책

제1절 대테러·안전환경 분석 ····· 118
1. 동계올림픽을 향한 노력과 결실 ····· 118
2. 정부의 안전활동 대폭 강화 ····· 120

제2절 경호·대테러 안전대책 추진 ····· 122
1. 안전대책 사전준비 ····· 122
2. 대테러안전대책 ····· 126

제3절 소방안전기획단 구성·운영 ····· 132
1. 소방안전기획단 구성 ····· 132
2. 소방안전기획단 운영 ····· 133

제4절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134
1. 조직위원회 구성 및 참여활동 …… 134
2. 소방력 파견 및 부서별 추진사항 …… 137

제4장 (예방) 올림픽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제1절 대회관련시설 현지 확인 …… 142
1. 경기장별 현지 확인 …… 142
2. 대회관련 주요시설 현지 확인 …… 145
3.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현장점검 …… 146

제2절 화재안전대책 및 소방특별조사 …… 148
1. 동계올림픽 대비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 148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추진 …… 150
3. 소방본부 주관 합동소방특별조사 …… 153
4. 대회관련시설 정부합동안전점검 …… 153

제3절 대테러 합동안전검측 …… 155
1. 대회관련시설 합동안전검측 …… 155
2. 테러대상시설 합동점검 …… 156

제5장 (대비) 소방인프라 구축 및 대응능력 향상

제1절 올림픽 유치 이후 소방환경의 변화 … 160
1. 소방력 확충 및 청사 확보 …… 160
2.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 161
3. 119구조·구급 인프라 구축 …… 162

제2절 강원도 소방상황관제센터 …… 166
1.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운영 …… 166
2. 통역시스템 및 119신고앱 구축 …… 167
3. 동계올림픽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 169

제3절 올림픽 주요시설 소방훈련 …… 171
1.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종합훈련 …… 171
2. 경기장 및 대회지원시설 합동소방훈련 …… 172
3. KTX 역사 및 터널 현지적응훈련 …… 173
4. 동계올림픽 관련시설 비상대피훈련 …… 174

제4절 대응매뉴얼 제작 …… 175
1. 소방안전인력 현장교육 …… 175
2.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수칙 제작 …… 176

제5절 헬기격납고 구축 및 119출정식 …… 178
1. 헬기 임시 격납고 구축 …… 178
2. 올림픽 성공개최 119출정식 …… 180

제6장 (대응) 완벽한 현장대응활동

제1절 테스트이벤트 및 소방안전대책 …… 182
1. 테스트이벤트 개요 …… 182
2. 테스트이벤트 소방안전대책 …… 184

제2절 성화봉송 소방안전대책 …… 188
1.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 188
2.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 192

제3절 개·폐회식 소방안전대책 …… 195
1. 모의개회식 …… 195
2.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 197
3.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 203

제4절 소방안전대책 및 서포터즈 활동 …… 208
1. 대회기간 특별경계근무 …… 208
2.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소방안전대책 …… 209
3. 의용소방대 서포터즈 운영 …… 214

제5절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주요성과 … 215
1. 단계별 안전대책 및 활동실적 …… 215
2.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 …… 216
3.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주요성과 …… 218

부 록

1. 역대 소방관서장 현황 …… 223
2. 강원소방 연표 …… 259
3. 강원도소방본부 주요성과 …… 283
4. 신문기사로 보는 강원소방 …… 323
5. 감사의 글 …… 345
6. 강원소방인 현황 …… 409

강원소방
100년사

제4편
재난과 강원소방



Contents

제4편 재난과 강원소방

제1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제1절 자연재난 ····· 10

제2절 사회재난 ····· 38

제2장 민방위체제 속의 강원소방

제1절 국가 민방위체제 ····· 72

제2절 강원도 민방위국 체제 ····· 75

제3장 강원소방과 민간조직

제1절 시대흐름 속에 사라진 조직 ····· 80

제2절 의용소방대 ····· 84

제3절 소방관련 산하단체 ····· 86

강원소방 100년사

강원소방 100년사

제 1 장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제1절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태풍, 호우, 폭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물과 관련된 기상재난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로서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연재난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 현상으로 저지대가 증가했고, 경사지 이용도가 증가했으며, 홍수조절시설의 빈약성과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지진발생 관측 횟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하구조물 및 공업단지, 화학공장, 대형구조물, 핵 폐기장, 원자력 발전소 등과 연계되어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태풍은 적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 풍속이 17m/sec 이상 되는 열대성 폭풍을 말하며, 여름철인 7~9월에 많이 발생한다. 그동안 피해가 컸던 풍수해를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1998년 집중호우, 1999년 태풍 올가, 1995년 태풍 제니스, 1987년 태풍 셀마 등을 꼽을 수 있다.

매년 5~7월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1988년과 1994년에는 그 정도가 극심하였지만 기존 댐의 저수량과 지하수의 개발로 일부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

눈은 보통 12월 중에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지역적으로는 1~2월 또는 3~4월에 생기는 폭설로 인해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비닐하우스·축사 등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며, 특히 1990년과 2001년, 2004년에 그 피해가 컸다.



태풍 엘리스로 인하여 침수된 양양지역(1982)



폭설로 인하여 도로에 고립된 대관령 지역(2001)

1. 태풍

1) 태풍 루사(RUSA)

제15호 태풍 루사(RUSA)는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재민 8만8천여명, 사망·실종 246명, 재산피해 5조1,419억여원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태풍은 8월 23일 09시경 괌 섬 동북동쪽 약 1,800㎞부근 해상(16.5°N, 161.0°E)에서 발생하여 8월 26일 15시경 TY[1]급으로 발달한 후 일본 남쪽해상을 거쳐 제주도 서귀포 동쪽 해상으로 진출하였으며, 8월 31일 15시30경 전라남도 고흥반도 남부해안으로 상륙하였고, 9월 1일 한반도를 관통하여 같은 날 15시경 속초 부근의 동해북부 해상으로 빠져나갔다.

이 태풍의 특징은 우리나라로 상륙한 태풍 중에서 그 세력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되며 강한 폭풍과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었다.

특히 강릉지역의 8월 31일 일강수량은 870.5㎜(종전 305㎜, 1954.9.14.)를 기록하여 연평균 강우량(1,401.9㎜)의 62%를 보였으며 전국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강한 호우가 집중된 지역은 강원 영동지방, 지리산 중심의 남부 내륙산간, 김천, 추풍령 등 중부내륙 산간지방이며 50~100㎜/h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2002년 8월 31일 강릉지역은 100.5㎜/h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 원인은 제15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한 강원도 영동지방에 저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 습윤역이 형성되었고, 850hPa 부근에서 찬공기와 열대해상의 더운 공기가 만나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태풍 루사 당시 강릉시 모습(2002.8.31.)



태풍 루사로 인해 떠내려가는 차량(2002.9.1.)

1)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33㎧이상인 것을 태풍(Typhoon, TY), 25~32㎧인 것을 강한열대폭풍(Severe Tropical Storm, STS), 17~24㎧인 것을 열대폭풍(Tropical Storm, TS)이라고 한다.

〈표Ⅳ-1-1〉 강수량(2002.8.31.)

(단위 : ㎜)

구분	영동지방					영서지방			
지 역	강릉	대관령	속초	동해	태백	춘천	원주	인제	홍천
강수량	870.5	712.5	294.5	319.5	273.0	36.5	85.5	43.0	62.5

자료 : 강릉시, 2005, 『2002 제15호 태풍 'RUSA'· 2003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백서』, 101쪽.

강릉소방서 최복규 소방위가 2008년 11월 9일 46주년 소방의 날 행사 시 『소방방재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 폭우로 인해 동해안에서 겪기 힘들었던 물난리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소방관들이 고생한 것을 말로 표현조차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지역주민들이 수마에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했으며, 그는 또 "그 후 거의 1개월 동안 실종자 수색과 급수지원 등 당·비번없이 복구 작업에 매달려 한 달 이상 집에도 못 가고 일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피곤함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었고, 그 이듬해 복구 작업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매미가 또 다시 쓸고 갈 때는 정말로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국민들의 성원이 대단했기에 성금모금과 봉사활동 등 온갖 도움이 있어 무사히 복구 작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라고 설명했다.

2002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태백 등 강원영동지역 6개 시·군에 205명(사망 132, 실종 11, 부상 62)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주택 22,920동 802억3천50만원, 상하수도 328개소 619억7천608만6천원 등 총 피해액 2조5천305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파손된 평창지역 교량(2002)



태풍 루사 피해지역 양양의용소방대 활동(2002)

〈표Ⅳ-1-2〉 도내 지역별 인명피해현황(2002.10.31.)

(단위 : 명)

구분	계	강릉	동해	태백	속초	고성	양양	삼척	정선	평창
계	205	69	10	3	20	12	42	39	9	1
사망	132	51	9	3	9	9	22	21	8	
실종	11	1	1			2	2	4	1	
부상	62	17			11	1	18	14		1

자료 : 강원도, 『2006 수해백서』.

2) 태풍 매미(MAEMI)

제14호 태풍 매미(MAEMI)는 2003년 9월 12일 17시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고 20시경 경상남도 사천시 부근으로 상륙한 후 경상남도 함안을 거쳐 13일 02시 30분경 울진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131명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4조2천225억여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6일 15시경 괌 섬 북서쪽 약 400㎞ 부근 해상(16.0˚N, 141.5˚E)에서 TS급으로 발달하였다. 9월 8일 03시경에는 강한열대폭풍(STS)으로 발달하였고, 9일 09시경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인 TY급(중심기압 960HPa)로 크게 발달하면서 최성기를 이루었고, 09시경 전향한 후 11일 15시경 22㎞/h의 속도로 점차 빠르게 북진하였다. 21시경 이 태풍은 점차 약화되면서 12일 06시경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420㎞ 부근 해상에서 3㎞/h의 빠른 속도로 북북동진하였다. 9월 12일 15시경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75㎞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여 17시경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최대순간풍속이 60㎧로 우리나라 관측(1904년)이래 최대 순간풍속 극값(종전 흑산도 58.3㎧, 2000.8.31.)을 경신하였다.

또한 이 태풍이 빠른 속도로 경상남도 남해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19시경 여수의 최대순간풍속은 49.2㎧로 여수기상대 창설 이후 극값을 경신하였다. 9월 12일 20시경 태풍은 경상남도 사천시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였으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였다. 이때의 추정 중심기압은 약 954hPa였고 중심부근 최대풍속은 약 40㎧였으며, 특히 거제도 부이[2]의 파고는 약 17m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남해 내륙에 상륙한 태풍은 북북동진하여 경상남도 함안을 거쳐 13일 02시30분경 울진 부근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2) 부이(buoy) : 해상의 기상 상황을 관측하는 장비로 풍향·풍속·온도·습도·수온·기압·파고·파주기·파향 등을 관측한다.


태풍 매미로 인한 동해시 발한동 ○○찻집 매몰자 수색(2003)


태풍 매미로 인한 태백 철암시장 수해복구(2003)

한편 강원도에서는 전체 이재민이 849세대 2,709명이 발생하였고, 24명(사망 11, 실종 3, 부상 10)의 인명피해와 6,144동(유실·전파 83, 반파 233, 침수 5,828)의 건물피해가 발생하였다. 농경지는 3,094.8㏊가 침수되었고 1,778.17㏊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이로 인한 피해액만도 517억9천만원에 이르렀다.

공공시설물은 하천, 도로, 사방, 철도 순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에서의 피해규모는 1,851억원으로 공공시설물 피해 중 약 27%를 차지하였으며, 도로는 약 21.4%인 1,467.9억원, 사방시설 476억원(6.9%), 철도시설 452억원(6.6%), 수리시설 447억원(6.5%)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외 사방시설 476억원,(6.9%), 철도시설 452억원(6.6%), 수리시설 447억원(6.5%)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3)]

〈표Ⅳ-1-3〉 태풍 매미로 인한 강원도 시·군별 피해현황(2003)

(단위 : 명 / 천원)

구분	총이재민 (세대/명)	사망자	농경지	공공시설	사유시설
계	849/2,709	11	51,790,159	686,188,979	17,099,327
강릉	353/1292	2	25,005,580	203,892,709	4,795,958
동해	21/60	2	246,887	15,442.935	335,990
태백	62/214	2	1,768,430	45,889.103	1,019,371
속초	-	-	28,046	8,338,985	-
삼척	258/611	3	11,075,000	201,193,950	5,392,407
인제	-	-	-	1,602,311	-
고성	1/1	-	544,529	33,234,450	3,254
양양	3/9	-	1,791,960	38,725,456	2,000
영월	1/1	-	312,852	4,205,220	29,011
평창	3/11	-	716,002	10,774,556	45,744
정선	147/510	2	10,300,873	122,693,612	5,475,592

자료 :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3, 『2003 태풍 매미 피해 현장조사서』, 33~36쪽.
※ 공공시설은 도로, 하천, 소하천, 수도, 항만, 어항, 수리, 시방시설임.

3)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2003, 『2003 태풍 매미 피해 현장조사서』, 30쪽.

〈표Ⅳ-1-4〉 전국에 영향을 미친 태풍현황(1992~2010)

(단위 : hPa / knot)

태풍 번호	태풍명	발생일	발생위치		중심 최저기압	중심 최대풍속	영향기간	피해지역
			북위	동경				
9307	ROBYN	1993.08.01.	7.0	154.0	940	88	8.8~11	강원·남부
9411	BREEAN	1994.07.25.	14.3	129.5	992	46	7.31~8.1	전국
9429	SETH	1994.10.02.	8.5	160.0	910	114	10.10~12	전국 (제주 제외)
9905	NEIL	1999.07.25.	17.4	128.8	980	52	7.26~28	전국
9907	OLGA	1999.07.30.	12.3	134.5	970	66	8.2~4	전국
9918	BART	1999.09.19.	20.2	129.5	930	92	9.23~24	전국
0012	PRAPIROON	2000.08.27.	12.4	136.0	965	72	8.31~9.1	전국
0014	SAOMAI	2000.09.03.	13.5	156.9	925	98	9.12~16	전국
0205	RAMMASUN	2002.06.29.	9.8	138.0	945	88	7.4~6	전국
0215	RUSA	2002.08.23.	14.9	163.8	950	82	8.30~9.1	전국
0314	MAEMI	2003.09.05.	9.9	153.1	910	108	9.12~13	전국
0415	MEGI	2004.08.16.	14.7	140.9	970	66	8.17~19	전국
1007	KOMPASU	2010.08.29.	21.2	134.4	960	80	9.1~2	전국

자료 : 국가태풍센터, 2011, 『태풍백서』.

〈표Ⅳ-1-5〉 태풍 피해 순위(1904~2011)

(단위 : 명 / 억원)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순위	피해발생기간	태풍명	사망·실종	순위	피해발생기간	태풍명	피해액
1위	'36.08.20.~08.28.	3693호	1,232	1위	'02.08.30.~09.01.	루사(RUSA)	51,479
2위	'23.08.11.~08.14.	2353호	1,157	2위	'03.09.12.~09.13.	매미(MAEMI)	42,225
3위	'59.09.15.~09.18.	사라(SARAH)	849	3위	'99.07.23.~08.04.	올가(OLGA)	10,490
4위	'72.08.19.~08.20.	베티(BETTY)	550	4위	'95.08.19.~8.30.	재니스(JANIS)	4,563
5위	'25.07.15.~07.18.	2560호	516	5위	'87.07.15.~07.16.	셀마(THELMA)	3,913
6위	'14.09.07.~09.13.	1428호	432	6위	'98.09.29.~10.01.	예니(YANNI)	2,749
7위	'33.08.03.~08.05.	3383호	415	7위	'00.08.23.~09.01.	쁘라삐룬(PRAPIROON)	2,520
8위	'87.07.15.~07.16.	셀마(THELMA)	343	8위	'04.08.17.~08.20.	메기(MEGI)	2,508
9위	'34.07.20.~07.24.	3486호	265	9위	'91.08.22.~08.26.	글래디스(GLADYS)	2,357
10위	'02.08.30.~09.01.	루사(RUSA)	246	10위	11.07.28.~08.09.	무이파(MUIFA)	2,183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를 인용했으며, 재산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기준임.
*1999년올가, 1995년재니스, 2000년쁘라삐룬, 2011년 무이파의 피해액은 호우와 태풍의 중복 피해액임.

2. 호우(豪雨)

호우(豪雨, heavy rain)란 보통 한 시간에 30㎜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하루에 80㎜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간 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호우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집중호우(集中豪雨, torrential heavy rain)라 하며[4] 「기상법」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 등 특보를 발표한다.

〈표Ⅳ-1-6〉 호우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의보	경 보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자료 :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별표 7.

1) 1996년 철원 수해(1996.7.26.)

1996년 7월 26일부터 28일 아침시각까지 철원군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6만여 철원군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군 평균 715㎜의 강우량을 나타냄으로써 광복 이전 1925년의 을축년 대홍수 이후 실로 71년만에 나타난 호우로 철원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재해였다.

특히, 이번 호우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산사태를 유발시켰고 산사태로 인해 함께 떠내려온 수목과 토석 등이 하천을 범람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국유림 및 사유림의 조림을 위한 간벌목이 사태와 함께 떠내려 오다가 크고 작은 교량에 걸리게 되어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었고 유로의 변경을 촉진하여 하천이나 강변의 저지대 가옥과 농경지를 휩쓸었다.

철원군 전역을 강타한 억수같은 집중호우는 당시 연평균 강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양이 3일동안에 쏟아진 것이다. 그중에도 근남면과 김화읍, 서면지역은 산간계곡이 많고 협곡에 주거 및 농경지가 있어서 피해의 정도가 타 지역보다 컸으며, 이 지역은 하천수계상 상류에 위치하여 하류지점인 갈말읍 정연리와 동막리, 동송읍 이길리 마을은 완전히 침수되는 등 저지대가 바다같이 대호수를 이루는 상황이 수시간 동안 전개되었다.

4) 이병설, 1992, 『기상학 사전』.



현재의 고석바위 모습(2018)



꼭데기의 소나무만 보이는 고석바위(1996)

〈표Ⅳ-1-7〉 철원지역 읍면별 시우량(1996.7.27.)

(단위 : ㎜/h)

구 분	철원	김화	갈말	동송	서면	근남
최대시우량	107	66	60	75	67	74

자료 : 철원군, 1997, 『철원 수해백서』.

〈표Ⅳ-1-8〉 철원지역 읍면별 강우량

(단위 : ㎜)

구 분	철원	김화	갈말	동송	서면	근남
소 계	736	728	637	732	729	732
7. 26.	237	248	247	239	241	244
7. 27.	466	405	303	459	399	377
7. 28.	33	75	87	34	89	111

자료 : 철원군, 1997, 『철원 수해백서』.

1996년 7월 27일부터 3일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8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1,143세대 4,24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산사태와 하천범람으로 3,062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택이 390동, 반파 80동, 완전 침수된 주택 2,018동, 일부침수된 주택이 574동이나 되었으며, 이번 수해는 제방까지 쓸고 가버려 집터를 하천바닥으로 바꾸어 놓아 처음와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원래부터 하천부지이거나 하천바닥일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수해로 인한 가로수 및 자동차 피해(1996)



수해지역 시찰 중인 김영삼 대통령(1996)

2) 화천 삼일계곡 산사태(1999.8.2.)

1999년 8월 2일 10시 30분 경 화천군 사내면 삼일계곡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방갈로에 있던 피서객 14명이 매몰되었다. 산사태가 방갈로를 덮치자 4명은 흙더미를 밀어내고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10명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흙더미에 묻혀 계곡으로 휩쓸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과 경찰, 인근 장병들이 긴급 투입되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산사태로 발생한 토사가 대부분 물에 떠내려갔고 매몰자들도 흙더미와 함께 휩쓸려 실종되었다.

소방대원 및 경찰 등 260여명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8월 3일 09시 25분 경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주변 춘천호 및 산사태 지점 50m 아래 바위틈에 걸려있던 시신 4구를 인양했다. 또한 8월 4일 09시 15분 경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인근 춘천호에서 실종자를 추가 발견했으며, 8월 7일과 8일 춘천호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여 유가족에게 인도하였으며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이들은 인천지역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 부부 6쌍 등 14명으로 개인택시 6대 등을 이용하여 7월 31일 오전 11시경 삼일계곡에 도착해 방갈로 7개 전체를 빌렸으며 이날 점심식사 후 귀가할 예정이었다.



화천 삼일계곡(2018)

화천 삼일계곡서 피서객 10명 매몰(종합)

(화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 집중호우가 내린 강원도 화천 산간계곡에서 산사태가 발생, 부부 등 10명이 매몰됐다.

2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천군 사내면 삼일 1리 삼일계곡에서 산사태가 발생, 이 마을 김석환씨가 운영하는 방갈로에 있던 피서객 14명이 매몰됐다.

산사태가 방갈로를 덮치자 김○○(51.인천시 남동구)씨와 한○○(53.인천시 남구)씨, 박○○(나이미상.인천시 남동구)씨 등 남자 3명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자 1명 등 4명은 흙더미를 밀어내고 빠져나왔다.

그러나 남자 4명과 여자 6명 등 10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흙더미에 묻혀 계곡으로 휩쓸려 인명피해가 클 전망이다.

사고가 나자 인근 육군 이기자부대에서 굴착기 등 중장비 5대와 앰뷸런스 2대, 군의관 및 위생병 등 20여명을 긴급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토사가 계속 밀리고 빗발이 거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사고자는 인천지역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운전기사 부부 7쌍 14명으로 지난달 31일께부터 삼일계곡에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1999.8.2.)

3) 2006년 집중호우

2006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미국 괌 남서쪽 약 1,010㎞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중심기압 985hPa, 최대풍속 31㎧의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전하였고 경남 및 전남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국지적인 집중호우를 내렸다. 이 기간 동안 남해 401㎜, 거제 373.5㎜, 산청 366.0㎜, 진주 306.5㎜, 여수 296㎜, 고흥 276㎜의 비가 내렸다.

7월 11일은 북한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중국에 상륙한 제4호 태풍 '빌리스'의 영향으로 수증기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산악지인 강원 영서지역에 500~900㎜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7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횡성 921㎜, 평창 870㎜, 홍천 851㎜, 동해 729㎜, 정선 716㎜, 인제 679㎜의 비가 내렸다. 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강원도에서는 756세대 2,07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사망·실종 44명[5] , 재산피해는 1조3천97억여원이 발생하였다. 특히, 인제군 북면 한계리 지역의 산사태와 덕적리·가리산리 지역의 주민 실종 및 주택 침수 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립되었고, 인제소방파출소를 포함한 관할 홍천소방서에서는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제지역의 사망·실종자는 29명에 이르렀으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홍천소방서, 춘천소방서 직원들을 비롯한 인제군, 군장병,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2,000여명과 헬기, 수상보트, 굴착기, 탐지기, 인명구조견 등의 장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다. 계속되는 실종자 수색으로 2006년 7월 26일 오전 11시 10분 양구군 남면 인근 소양강 상류지점에서 실종자 1구를 발견하였고, 8월 25일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내린천변 부유물 나무더미 속에서 실종자 1구를 추가 발견했다.



인제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구조(2006)



인제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구조(2006)

5) 인제군 29명(사망 17, 실종 12), 평창군 11명(사망 10, 실종 1), 원주시 사망 1명, 횡성군 실종 1명, 영월군 사망 2명



집중호우에 따른 소양호 실종자 수색(2006)



양구대교 인근 실종자 발견(2006)

2007년 5월 19일 인제군 남면 관대리 양구대교 인근 소양호에서 또 한명의 실종자가 발견되었는데 2006년 7월 15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인제읍 고사리에 워크숍을 왔다가 집중호우로 실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7월 26일에는 인제군 남면 신월리 소양호 인근에서 2006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 당시 실종되었던 인제군 북면 한계리 주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인제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실종된 15명 가운데 6명을 발견했고 현재는 9명이 실종자로 남아있다.[6)]

한편 평창군 일대에서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도로,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평창강 지역은 소하천보다는 하천 만곡부위에 대한 피해가 컸다. 평창강 중류부에 위치한 방림면 구포동 일대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제방 후면의 농경지 역시 침수되었으며 평수위보다 6.18m나 상승하였고 침수된 경작지의 면적은 약 13만㎡였다.

오대천은 평창군 내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곳인 진부면을 통과하며 산지하천과 같은 소하천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곳이다. 특히 오대천의 지천인 쉴터골천, 거문천, 호면천등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 쉴터골천은 평소 유량이 작은 소하천인데 갑작스런 폭우로 유량이 증가하여 하천제방이 파괴되고 주변지역을 침수시켰다. 거문천은 진부면 거문리 거문초등학교 앞에 흐르는 하천으로 거문리 지역의 도로와 경작지로 월류하여 침수피해를 입혔다. 평창군 방림면·대화면·용평면·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사태 및 사면 붕괴가 발생하였고 도로와 농경지로 토사가 유입되었다. 특히 용평면 이목정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산사태는



하늘에서 내려다 본 평창 진부(2006.7.18.)
(출처:연합뉴스)

6) 2007.7.23.『노컷뉴스』.

토사의 이동거리가 약 500m에 달하였으며 토사유출폭도 50m였으며 심도 또한 2m에 달했다.

진부면 발왕리의 경우 깊은 계곡에서 발생한 토사의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과 도로가 피해를 입었으며, 상진부리와 하진부리의 경우 넓은 유역 반경에서 발생한 지표수가 계곡부로 이동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송정리와 거문리 지역에서도 모든 계곡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송정리의 경우 가옥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7)]



평창군 진부면 집중호우 수해 실종자 수색(2006)



(평창=뉴시스) 18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 골목길이 온통 자갈돌로 뒤덮여 있고 가옥과 전봇대가 파괴돼 있다.(2006.7.18.)

4)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2011.7.27.)

2011년 7월 27일 00시 08분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마적산 아래 마을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인하대 학생 10명과 주민 1명, 여행객 2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날은 인하대학교 학생들 31명이 춘천에 와서 사회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 발명캠프'를 개최한 날로써 그날의 봉사를 마치고 단잠을 자던 중이었다.

사고 전날인 2011년 7월 26일 20시경 춘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연이어 23시경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근무발령에 따라 비번자의 3분의 1이 각 과, 센터에 대기 중이었고 춘천시내 곳곳으로 배수지원 출동을 하고 있었다.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현장(2011.7.27.)

7) 국토교통부, 2006년, 『2006년 7월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조사』.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현장(2011.7.27.)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구조현장(2011.7.27.)

자정을 막 넘긴 2011년 7월 27일 00시 08분 천전리 산사태에 대한 최초의 신고가 접보되었다. "산사태로 집이 쓸려간다"는 내용으로 신고했으며, 인명피해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고 현장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다급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였고 목소리만으로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구조출동, 구조출동" 종합상황실에서는 '춘천구조', '효자펌프', '춘천지휘'에 대해 출동지령을 내리고 이어서 '춘천구급1'에 출동지령을 내렸다. 춘천시 재난방재과 상황실에 천전리 산사태 접보상황을 통보하였고 소방인력 2명이 현장으로 추가 출동하였다.

춘천소방서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선착대는 순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고 종합상황실에 추가 출동대를 요청하였다.

춘천소방서에서는 전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였고 강원대학교병원 등 춘천관내 8개 병원의 구급차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화천군에 배치되어 있는 구급차량 3대를 추가로 현장으로 출동시켰으며 1339에도 구급차를 요청하였다.

01시 23분에는 2군단사령부 공병부대에 출동을 요청하였으며, 비상소집 응소자 27명 및 춘천소방서 굴삭기를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01시 30분에는 강원도소방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총괄지휘를 하였고 한림성심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인성병원, 강남병원 등 4개의 병원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상자를 파악하였다. 매몰현장에서는 굴삭기 3대가 작업을 하였고 소방공무원들도 삽과 들것을 이용하여 산사태로 인하여 떠내려 온 흙을 걷어내었다.


산사태 현장을 확인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2011.7.27.)

2011년 7월 27일 04시 48분에 실종자 2명이 추가 발견되었고 07시 22분, 37분, 08시 22분, 38분에 각각 실종자가 1명씩 발견되었다. 또한 11시 03분과 11시 38분에 실종자를 발견하였고 11시49분에 실종자 2명을 발견하면서 실종 추정인원 전원이 발견되어 2011년 7월 27일 17시 매몰자 수색작업을 종료했다.

당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하여 강원도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였고 구조작업에 829명의 인력과 45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사망자 13명을 포함한 39명의 인명을 구조했고 주민 및 학생 65명의 대피를 유도했다.

2012년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도내 전 소방공무원은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로 인해 봉사활동 중 희생된 인하대학교 발명동아리 학생들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하였고 총 1천163만2천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관계기관 합동 매몰자 수색(2011.7.27.)



긴급구조통제단 상황보고(2011.7.27.)

〈표Ⅳ-1-9〉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 인명구조현황

(단위 : 명)

인명구조				대피유도		
계	사망	중상	경상	계	주민	학생
39	13	5	21	65	60	5

자료 : 강원도소방본부, 2011, 방호구조과-11465호『춘천시 신북읍 산사태에 따른 강원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결과보고』.

〈표Ⅳ-1-10〉 강원도 긴급구조통제단 동원인력·장비현황

(단위 : 명 / 대)

구분	계	소방	의소대	군·경	공무원	기타
인원	829	273	50	300	100	106

구분	계	구조	구급	굴삭기	덤프	기타
장비	45	5	14	10	5	11

자료 : 강원도소방본부, 2011, 방호구조과-11465호『춘천시 신북읍 산사태에 따른 강원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결과보고』.

〈표Ⅳ-1-11〉 현장활동 시간대별 조치 및 활동사항(2011.7.27.)

○ 00:08 – 신북읍 천전리 집이 쓸려갔다는 신고접수
○ 00:09 – 춘천구조 보트장 구조작업 중, 후평펌프 배수작업 중, 춘천지휘 확인출동
○ 00:24 – 춘천지휘(2명) 현장 도착, 첫 번째 매몰주택 요구조자 유무 확인 : 사람이 없다는 답변 받음
○ 00:26 – 춘천구급1 현장도착
○ 00:27 – 붕괴건물 인근 확인 중 건너편에서 구조 요청하는 것을 발견 후 접근 춘천민박에 다수의 요구조자 발생사실 확인
○ 00:28 – 상황실에 추가출동 유·무선 지원요청, 토사물 매몰자 3명 구조
○ 00:30 – 춘천조사 현장도착, 상황전파 및 인명구조 실시
○ 00:42 – 전 직원 비상소집
○ 00:45 – 춘천구조(4명) 현장 도착, 토사 매몰 1명(생존) 구조
○ 00:55 – 춘천민박 붕괴된 건물외벽 아래 매몰 2명(생존) 구조
○ 01:00 – 실종자 2구(사망) 발견, 이송
○ 01:10 – 매몰 1명(생존) 구조
○ 01:14 – 춘천소방서장 현장 도착 및 현장지휘, 비상소집 응소자(10명) 현장 도착
○ 01:20 – 춘천민박 2층 고립자 12명 안전구조, 현장지휘소 설치완료
○ 01:30 – 소방본부장 현장 도착 및 현장지휘, 차량인근 실종자 1명 발견
○ 01:45 – 비상소집 응소자(27명) 현장 도착
○ 01:50 – 인근 피해건물 투숙객 대피조치
○ 02:50 – 비상소집응소자(18명) 추가 현장 도착
○ 03:00 – 굴삭기 현장 인명수색 작업 실시
○ 04:18 – 매표소 인근 대피시민 안전조치
○ 04:48 – 실종자 2명 추가발견(총 29명, 사망5, 실종8)
○ 07:22 – 실종자 1명 추가발견
○ 07:37 – 실종자 1명 추가발견
○ 08:22 – 실종자 1명 추가발견
○ 08:38 – 실종자 1명 추가발견
○ 09:00 – 현장 근무교대(32명)
○ 11:03 – 실종자 1명 추가발견
○ 11:38 – 실종자 1명 추가발견
○ 11:49 – 실종자 2명 추가발견(실종추정인원 전원 발견)
○ 13:00 – 현장인력 일부 철수(최초 출동대 철수)
○ 17:00 – 매몰자 수색작업 종료, 수색장비 및 인원 철수
○ 18:00 – 사고현장 인근주민 11가구 22명 대피(추가붕괴우려)
○ 19:00 – 상황요원 3명 제외한 전원 철수(현장지휘소, 지휘버스)

3. 강풍

2004년 기상청에서 간행한 자료 『강풍과 풍랑』에 의하면 "강풍은 강하게 부는 바람으로 특히 기상특보 측면에서 볼 때 육상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하게 피해를 줄 만한 강한 바람으로 '폭풍' 이란 용어가 있으며 이는 최대풍속 13.9㎧ 이상인 바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했다.

현행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따른 강풍과 태풍은 서로 다른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기상학적 현상으로서의 강풍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바람현상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태풍의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현상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현행 우리나라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Ⅳ-1-12〉 기상청 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 풍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태 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자료 :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별표 7.

1) 남산면 돌풍

2005년 7월 1일 새벽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방곡리·창촌리 일대 7개리에 우박을 동반한 최대풍속 32.6㎧의 돌풍과 207㎜의 폭우로 315ha의 산림에 생립한 20~30년생 잣나무, 낙엽송 등 2만3천㎡의 나무가 뿌리 채 뽑혀 피해를 입었다.

돌풍으로 인하여 지붕이 수십미터를 날아가 이웃집을 덮쳤으며 조립식 주택은 심하게 구겨졌고 벼락 맞은 나무는 산산조각이 났다. 전기, 전화, 수도까지 끊겨 6개 마을 3천여명이 밤새 공포에 떨기도 했다. 시간당 70㎜가 넘는 폭우와 32.6㎧의 바람은 새벽 1시경 단 10분만에 남산면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남산면 창촌리 일대에 몰아친 돌풍은 유사 이래 처음 겪는 일이었다. 100여채의 주택이 되었고 창촌초등학교의 거목들이 힘없이 뿌리채 뽑혔으며, 산의 나무들이 일부러 베어 놓은 것 같이 부러졌다. 담이 무너지고 지붕과 간판이 수십미터나 날아가 나뒹굴었으며 전봇대가 뽑히고 정전이 되어 주민들은 끔찍한 밤을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악몽같은 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주민들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밤에 돌풍이 불었고 주택가가 아닌 인근 야산을 직접 강타하여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국지성 돌풍은 강촌119안전센터의 전신인 남산119지역대가 폐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돌풍으로 쓰러진 창촌초등학교 가로수(2005)



돌풍에 잘려나간 야산의 나무들(2005)

2) 태백시 강풍

2016년 5월 3일 17시부터 5월 4일 20시까지 약 27시간 동안 태백지역에서만 강풍으로 인한 출동건수가 82건이나 되었다. 태백소방서 119구조대 및 119안전센터의 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하여 바람에 날리는 지붕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으며, 강풍으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또한 낙하할 위험성이 있는 유리창을 제거하였고 80도로 기울어진 전신주의 안전을 확보하였고 도로에 방치된 가벽을 제거하는가 하면 바람에 날리는 입간판으로부터 행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조치하기도 하였다.



(태백=연합뉴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4일 태백시의 한 연립주택 양철 지붕이 강풍에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주차 차량을 덮쳤다. 2016.5.4.


강풍에 떨어진 지붕구조물 처리 현장(2016.5.4.)


현장안전점검관 안전관리실태 개선

2016년 5월 4일 01시 26분경 태백시 동태백로에서 강풍에 떨어진 지붕 구조물을 처리하던 구급대원 2명에게 또 다른 지붕구조물이 날아들었으며 허○○(남,46세)대원이 구조물에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허 대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중환자실에서 8일 동안 사경을 헤메다 결국 2016년 5월 12일 오전 8시 16분에 순직하였고, 허 대원과 같이 활동하던 강○○(남,45세) 대원도 전신타박 및 안면부 찰과상으로 태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일선 소방서의 근무형태를 보면, 119구조대에는 구조대원이 구조관련 업무를 하며, 119안전센터에서는 진압대원은 화재진압업무를, 구급대원은 구급관련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자연재난의 특성상 생활안전구조 전담팀을 따로 편성하여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번 강풍의 경우에도 구조대원은 물론 진압대원, 구급대원, 의무소방원 등 모든 대원이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산악구조차량 등을 이용하여 현장출동을 하였다. 강풍에 떨어진 지붕 구조물을 처리하던 이 대원들도 인원부족으로 인해 구급대원임에도 현장으로 출동할 수 밖에 없었고 안전조치 활동 중 사상을 당하게 되었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사고 이후 도내 전 직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관리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수를 증설하였다. 또한 119안전센터 출동대별 단위출동인력을 1명씩 증원하여 총 198명을 증원하였고, 소방서별 재난현장 및 생활안전구조대 전담팀을 운영(총 144명, 16개관서×9명)하였다. 또한, 현장활동대원의 실질적인 현장안전관리를 통하여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2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장안전점검관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하였다.


실시간 현장 파악이 가능한 재난영상전송시스템 구축

또한 소방본부는 도내 출동차량 및 구조정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재난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의 구축으로 재난현장의 진행상황, 출동로, 출동인력 등 현장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전송된 현장정보를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폭염

1) 개요


「MBC NEWS」 사진발췌(2018.8.1.)

폭염(暴炎, heat wave)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로서 폭서, 불볕더위 등과 뜻이 같다.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보는 쪽과 대기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쪽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폭염에 대한 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특보이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려지는 폭염특보이다.

2018년 극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폭염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여름철마다 폭염 피해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회의원들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며 지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8)]

2018년 8월 1일에는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였다. 오후 4시 강원도 홍천은 40.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전국적으로 가장 높

8) 「MK뉴스」, 2018.7.22. 「정부, '폭염도 자연재난' 결론, 국가 차원 폭염 대처 강화」.

은 기온이었다. 그동안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40도를 초과한 것은 다수 있었지만 공식 기록으로 간주되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로 40도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종전 최고기온은 1942년 8월 1일 대구에서 측정된 40℃였으나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0.6℃가 측정되면서 76년 만에 기록이 깨졌다. 2018년 8월 1일 오후 3시 36분 서울의 기온도 39.6℃를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 기록인 1994년 7월 24일의 38.4℃를 넘어섰고 1907년 서울에서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1년 만에 가장 높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9)]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심각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은 7월 18일 낮 최고 기온이 5년 만에 40℃를 넘겼다. 미국의 경우에도 로스엔젤레스 시내 최고 기온은 42.2℃인데, 이는 지난해 동기까지의 최고 기록이었던 36.6℃에 비해 5℃ 이상 높은 기록이었다.

대한민국보다 위도가 높은 북유럽 스웨덴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Sustainable Energy for All,SE4ALL)는 냉각 장치가 없어 위험에 처한 인구가 11억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10)]

2) 안전대책

35℃ 이상의 폭염이 전국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였고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에서도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그 내용으로는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축·토목 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 민간부문 작업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특히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③ 농어민 등도 폭염이 계속되는 며칠동안 낮 시간대 작업을 하지 말도록 적극 안내할 것 등이다.



어르신 건강돌보미 운영



사랑의 비 뿌리기 운영(춘천소방서)

9) 『중앙일보』, 2018.8.1. 「홍천 41도 국내 관측 사상 최고 기록...서울도 역대 최고」.
10) 『연합뉴스』, 2018.7.20. 「세계는 '폭염과 전쟁중', 日·캐나다·北유럽서 사망자 줄이어」.

강원도소방본부에서도 취약계층 보호활동의 일원으로 사랑의 비 뿌리기[11] 및 어르신 건강돌보미를 운영[12]하였으며 옥외저장탱크, 자연발화 옥외 적치물, LPG 저장탱크 차광막 설치 안내 등 폭염에 취약한 제조소 등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장활동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얼음조끼 및 얼음물을 제공하였고, 냉방버스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였다. 폭염기간 야외훈련 시간을 조정하는 등 일과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차량타이어 점검을 철저히 하여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표Ⅳ-1-13〉 2018년 폭염관련 119구급활동현황

(단위 : 명 / 건)

구 분	출동건수	이 송		미 이 송				구급상황센터 의료지도·상담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소계	사망	현장처치	기타	
계	127	124	124	3	-	2	1	9
5월	1	1	1	-	-	-	-	-
6월	10	10	10	-	-	-	-	-
7월	68	67	67	1	-	1		6
8월	48	46	46	2	-	1	1	3

자료 : 강원도소방본부, 2018, 『방호구조과-19078호』.

5. 대설

대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는 시간당 1~3㎝ 이상 또는 24시간 이내 5~20㎝ 이상의 눈이 내리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에서는 24시간 신적설[13]이 5㎝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며, 24시간 신적설이 20㎝ 이상 예상될 때(산지는 30㎝ 이상)에는 대설경보를 발령한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대설은 상대적으로 온난한 동해안의 해면을 따라 변질된 기단이 영동 지

11) 주택가 골목, 노숙인, 취약계층 마을을 센터별 1개소 적의 선정하여 폭염주의보 발령 시 1회/일, 폭염경보 발령 시 2회/일 소화전 또는 소방차를 활용하여 물을 뿌려 열을 식히는 폭염피해예방대책.

12) 마을경로당에 구급대원이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체온 및 혈압을 체크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이송함.

방의 산악 지형과 교차하면서 형성되는 지형적 요인의 강설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대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대설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Ⅳ-1-14〉 연도별 대설피해현황(2008~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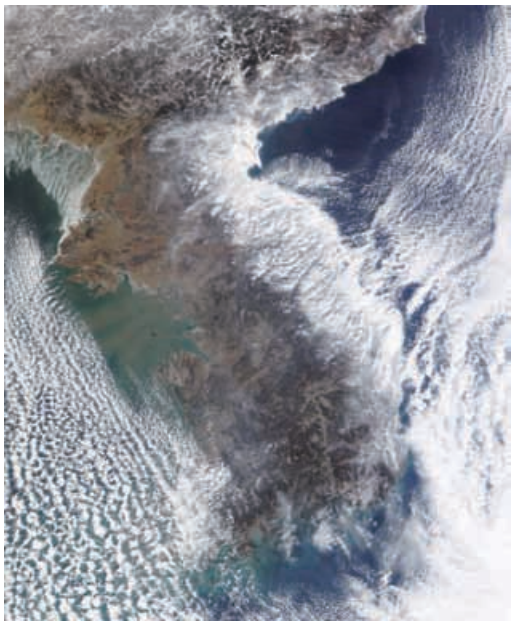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피해액	57,964	1,567	3,436	5,637	27,010	-	8,053	12,244	-	-	17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재해연보』. ※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이며, 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삭제.

1) 2011년 대설

1904년부터 우리나라의 근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되었으며 1937년부터는 신적설에 대한 관측이 시작되었다. 2011년 이전까지의 적설량을 보면 울릉도 150.9㎝(1995.1.20.), 대관령 92㎝(1992.1.31.), 속초 89.6㎝(1969.2.20.)순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우리나라 위성사진(2011.2.12.)

2011년 2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2일 동안 영동지역에는 기상 관측이래 가장 많은 일최심신적설을 기록하였는데 기상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월 11일 하루 동안에 강릉지역은 77.7㎝의 일최심신적설을 보여 2010년 2월 12일의 49.0㎝의 극값을 경신하였고, 동해지역도 70.2㎝로 기록되어 기존의 극값을 경신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 2011년 2월 11일의 폭설은 북쪽 상공의 영하 30℃ 안팎의 찬 공기가 동해안으로 확장하면서 북동기류가 유입되는 기압계가 형성되었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10~13℃ 분포의 따뜻한 해수면 위를 통과하면서 기온 차에 의한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전형적인 영동 지방의 폭설 원인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영동지방에 내린 눈은 다음날인 2월 12일까지 계속해서 내렸고 더구나 습기를 많이 먹으며 내리는 습설

13) 신적설 : 매일 0시 이후 새로 내린 눈의 깊이로 24시에 털어내고 다시 측정하며, 하루 (0~24시) 중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의 깊이를 최심신적설이라고 함.

이라서 무거운데다 녹지도 않고 계속해서 쌓였다.

당시 동해시의 경우는 1m가 넘는 적설량을 보였고 대부분의 영동지역에는 7~80㎝의 엄청난 눈이 쌓였다. 삼척시는 110㎝, 강릉시도 120㎝의 눈이 쌓여서 교통대란으로 이어졌다. 영동의 등줄기인 7번 국도가 완전히 막혀버렸고 당시 차량들은 최소 6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 이상 고립되었으며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걸어서 빠져 나오기도 하였다.

농가의 피해도 심했다. 쌓인 눈 탓에 비닐하우스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많은 화훼가 동사했고 축사가 눈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지기도 하였다.

강원도소방본부는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붕괴, 고립 등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였으며 도내 모든 소방서에서는 필수 소방력을 제외한 가용 소방력 대다수를 영동지역에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폭설로 무너진 비닐하우스(2011)



원주소방서 영동지역 제설작업(2011.2.11.~2.12.)

2) 2014년 대설

2014년 2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평균기온보다 1.4℃ 높은 2.5℃로 비교적 따뜻한 겨울을 유지하였으나 2월 6일부터 14일까지, 17일부터 18일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영동지방에 폭설이 내렸다.

폭설의 발생원인은 베링해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형성되어 고위도 지역의 대기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한반도 부근 지상에 북고남저형의 기압배치가 형성되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기록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이다. 북강릉 지역의 일최심신적설량은 9일에는

14) 최대로 깊었던 적설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루에 다 내린게 아니고 며칠씩 쌓이고 쌓인게 최대인 적설량을 뜻한다.

45.7㎝, 10일 45.9㎝을 기록하였으며 10일부터 14일까지 내린 일최심적설량은[14] 1위(11일, 110㎝)부터 5위(12일, 83.5㎝)까지 새롭게 극값이 갱신되었다.

이번 폭설로 삼척 하장초교 체육관, 군부대 창고,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등 9개 시·군 864개소의 공공시설 및 농업시설, 임업시설, 수산시설, 주택 등이 파손되었고, 14,465두의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4개 시·군 19개 마을 171가구가 교통이 두절되었고, 6개 시·군 207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졸업식을 연기하였다.

당시 강원도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소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소방헬기 및 특수구조단을 전진·배치하였고, 영서지역의 소방력(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을 영동지역에 투입하여 붕괴우려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도로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고립지역 구조를 위한 폭설구조팀을 운영하였다.

특히, 2014년 2월 11일 10시 59분 삼척시 중마읍길 소재 주택에 홀로 갇힌 김○○(여, 59세)를 삼척소방서 대원들이 300m의 길을 뚫어 구조하였다. 김씨는 부산에서 암 치료를 위해 삼척으로 요양 차 왔다가 폭설로 인하여 고립되었고 홀로 갇힌 상태에서 119에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14년 2월 7일부터 25일까지의 폭설로 인하여 12건의 항공구조를 포함한 98건의 구조활동으로 요구조자를 구조하였고, 164건의 구급출동으로 165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또한 의용소방대와 더불어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로 인한 주택 붕괴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폭설피해를 입은 지역에 소방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제설 작업하는 홍천소방서 직원들(2014)



삼척시 중마읍길 암투병 고립 환자 구조(2014.2.11.)

6. 기타 자연재난

1) 풍랑과 너울

풍랑은 바람의 작용으로 해면에 생긴 파(波)로서 풍랑의 발달은 풍속, 취송거리(바람이 불어온 거리) 및 취송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먼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짧은 주기의 표면파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파고가 높아지면서 장주기의 파로 변해간다.

풍랑주의보 및 경보의 발령기준은 해상에서 풍속 14㎧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를 발령하고, 해상에서 풍속 21㎧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경보를 발령한다.

〈표Ⅳ-1-15〉 강원도 연도별 풍랑피해현황(2008~2017)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피해액	2,820,118	16,700	81,060	-	-	-	-	-	-	2,707,358	17,689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재해연보』. ※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임.

너울은 해당 지역에 바람이 불어 생긴 파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풍랑파가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거나 바람이 잔 다음에 해면에 남아있는 물결로서 일반적으로 그 장소의 바람과는 다름 방향을 취한다. 또한 너울은 해면 멀리서 전해져오는 이유로 오는 사이에 물결머리가 둥그렇고 긴 파장을 가지게 되며,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서 대양을 가로질러 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바람이 불지 않은 해수면에서도 큰 파랑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바람이 없는 잔잔한 바다에 예기치 않게 방파제를 넘는 너울이 발생하여 갑작스런 재산 및 인명피해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에서 200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강원 동해안 너울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1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40명이 구조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연평균 5.5명이 인명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망·실종은 2005년 1명에서 2016년 2017년에는 8월까지 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11일 속초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해변을 걷던 A(10)군 형제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다. 사고가 나자 인근에 있던 방모(26) 육군대위 등이 동생(8)을 구조했다. 그러나 해경에 의해 구조된 A군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15분쯤 고성 천진해변에서 스쿠버 교육을 받던 김모(50)씨 등 3명이 너울성 파도에 떠밀려 연안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표류했다. 이들은 긴급 출동한 속초해경 122구조대에 의해 15분 만에 구조됐다. 이날 해상에는 파고 1.5~2m의 너울성 파도가 일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15)]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관광객 구조
(동해 망상해수욕장, 2017.6.3.)



너울성파도에 휩쓸린 스쿠버다이버 교육생 구조
(고성 천진항, 2016.9.10.)

2) 지진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안쪽에 위치하여 판 내부지진의 특성을 보인다. 판 내부지진의 특성은 지진 발생빈도가 낮고, 시간적 주기성이 약하며 공간적으로 발생위치가 분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며 지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5.8의 우리나라 계기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100억원에 가까운 재산피해 및 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 인근에서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 벽이 허물어져서 차가 부서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였고, 2017년 11월 16일에 예정된 2018년도 대입수능시험이 1주일 연기되기도 하였다.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다세대주택 피로티
(2017.11.15.)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의 범위도 강화되었다.

15) 『한국일보』, 2016.9.11. 「강원 동해안 너울성 파도 '비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1988년까지는 '연면적 10만㎡이거나 6층 이상인 건물'이었다가 2016년에는 '연면적 5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는 또 다시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만약 지진으로 인하여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축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이 파손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초기 진압이 불가능해지고 화재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더 큰 피해와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에 2016년 1월 25일부터 지진에 대한 화재 등 2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에도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표Ⅳ-1-16〉 최근 10년간 지진발생 세부 현황(2008~2017)

(단위 : 회)

지역	계	연도별 지진발생 횟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917	46	60	42	52	56	93	49	44	252	223
서울	0										
부산	4		1			1		1		1	
대구	5				1	1		3			
인천	51	2	5		6	5	18	2	5	2	6
광주	4						1			1	2
대전	1									1	
울산	32	1		1	3	5	2	5	3	6	6
세종	0										
경기	9	3	1	1			1	1	1	1	
강원	25		1	3	3	1	4	1	1	3	8
충북	8				1	1	3		1		2
충남	80	2	5	7	3	4	33	6	4	6	10
전북	29	5	5	1	4	7		1	1	1	4
전남	52	6	5	4	5	2	4	5	3	4	14
경북	396	8	13	8	9	13	15	7	11	185	127
경남	29	5	2		1	4	2		3	7	5
제주	69	2	7	7	6	5	3	7	8	11	13
북한	123	12	15	10	10	7	7	10	3	23	26

자료 : 행정자치부, 『2017 재해연보』.

〈표Ⅳ-1-17〉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대 지진 발생 현황

(단위 : ML)

구분	날짜	규모	지역
2008	5.31.	4.2	제주 제주시 서쪽 78㎞ 해역
2009	5. 2.	4.0	경북 안동시 서남서쪽 2㎞ 지역
2010	2.16.	3.3	울산 동구 동북동쪽 64㎞ 해역
2011	6.17.	4.0	인천 백령도 동남동쪽 13㎞ 해역
2012	5.11.	3.9	전북 무주군 동북동쪽 5㎞ 지역
2013	4.21.	4.9	전남 신안군 흑산면 북서쪽 101㎞ 해역
	5.18.	4.9	인천 백령도 남쪽 31㎞ 해역
2014	4. 1.	5.1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
2015	12.22.	3.9	전북 익산시 북쪽 8㎞ 지역
2016	9.12.	5.8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역
2017	11.15.	5.4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

자료 : 행정자치부, 『2017 재해연보』.

〈표Ⅳ-1-18〉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 현황(1978~2017)

(단위 : ML)

순위	날짜	규모	지역
1	2016.09.12.	5.8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역
2	2017.11.15.	5.4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
3	1980.01.08.	5.3	북한 평안북도 삭주 남남서쪽 20㎞ 지역
4	2004.05.29.	5.2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74㎞ 해역
	1978.09.16.	5.2	경북 상주시 북서쪽 32㎞ 지역
6	2016.09.12.	5.1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 지역
	2014.04.01	5.1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해역
8	2016.07.05.	5.0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
	2003.03.03.	5.0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88㎞ 해역
	1978.10.07.	5.0	충남 홍성군 동쪽 3㎞ 지역

자료 : 행정자치부, 『2017 재해연보』.

제2절 사회재난

1. 산불

산불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자연현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산림 내에 존재하는 낙엽, 낙지, 고사목, 초류, 임목 등 각종 연료를 연소시키는 화재라고 할 수 있다.

산불을 발생 원인에 따라 살펴보면 인위적 원인과 자연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위적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실화, 고의적인 방화, 폭발물 등이 있으며 자연적 원인으로는 기상변화에 의한 마른 낙뢰와 수간과 수간의 마찰 등이 있는데 이런 자연발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으며 북부 캐나다,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지의 한대침엽수림에서 70~10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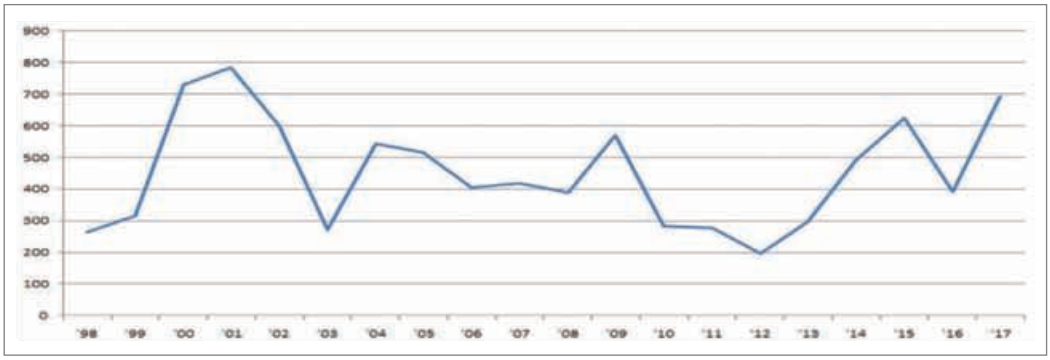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산불의 77%가 봄철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륙성 계절풍의 영향으로 3~4월에 기후가 건조해지고 상대습도가 낮아지며 바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이 이때 많이 이루어지고 봄철을 맞아 등산객이 많아지는 것도 주요원인이 된다.[16]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03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예방과 관리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17]

우리나라 산불도 점점 대형화되고 점차 도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표적 사례로는 1996년 강원도 고성산불, 2000년 강원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등을 들 수 있다.

〈그림Ⅳ-1-1〉 강원도 산불발생 건수(1998~2017)

(단위 : 건)



자료 : 산림청, 『2017년 산불통계연보』.

16) 강원도, 2001, 『2000 동해안 산불백서』.
17) 산림청, 2018, 『2017 산불통계연보』.

1) 고성산불(1996.4.23.)

1996년 4월 23일 12시 22분경 발생한 고성산불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에 위치한 8군단 산하 58탄약대대에서 발생했다. 불량·불발탄 및 유기탄 처리업무를 맡고 있는 ○○○ 중사가 3군 합동사격장 내에서 불량 판정된 TNT 525발을 폭파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불량 판정된 TNT는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책임 관리자는 기폭 처리하였고, 기폭 처리 중에 신호킷이 TNT의 폭발력에 의해 발사되면서 100여m 정도 떨어져 있는 마른 풀더미에 떨어져 발화되었다.

당시 날씨는 최고기온 24℃, 평균기온 19℃, 습도 27%이하의 맑은 상태였으며 북서풍은 10.0㎧, 평균 순간 최대 풍속은 18.5㎧의 건조하고 더운 전형적 동해안 지역의 봄철 기상상태였다. 이처럼 산불이 쉽게 인화하여 확산되기 좋은 기상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1996년 4월 23일 12시 22분에 발화된 산불은 불발된 폭발물이 남아있는 사격장에서 발화했으므로 초기에 확산을 막을 수 없었고, 다음날인 4월 24일 새벽 2시경 풍속 20㎧의 강풍으로 인하여 삽시간에 죽왕면 일대로 확산되었다. 4월 25일 새벽4시 날이 밝아오자마자 진화대원들이 등짐펌프 등 수동식 진화장비를 갖추고 지구별로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4월 25일 오전 바람이 잠잠해지면서 산림청 헬기 5대와 군용헬기 7대가 투입되었으며, 소방, 경찰, 공무원, 군장병, 주민들이 진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불길이 서서히 잡혀가기 시작했으며 오후 6시에 진화가 종료되었다.

산불진화에 참여한 인력은 모두 17,502명이고 헬기 46대(산림청 19, 군 26, 경찰 1)가 산불진화에 참여하였다. 이 산불로 인하여 건축물 227동이 전소되어 45억2천8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주택이 92동, 부속사가 89동, 축사가 46동이 전소되었고, 농기계 17,745점, 가축 718두 등이 잿더미로 변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동산은 총 5만3천여점에 이르고 피해액도 29억2천1백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49세대 140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다.



고성산불(1996)



화마가 쓸고 간 고성산불 현장(1996)

〈표Ⅳ-1-19〉 건축물 및 동산 산불피해 조사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량	피해액	구분		수량	피해액
건축물	소 계	227동	4,528	동산	소 계	52,423점	2,921
	주 택	92동	3,684		집기류	12,133점	1,617
	부속사	89동	471		농기계	17,745점	595
	축 사	46동	373		가 축	718두	178
					유실수	21,952본	485
					기 타	1,775점	46

자료 : 강원도, 2001, 『2000 동해안 산불백서』.

산림피해는 총 3,762ha의 산림이 불에 타 152억6천8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피해액의 67%에 해당될 정도로 그 피해가 컸고 특히 이 지역의 특산물인 자연산 송이 생산지 약 438ha가 소실되었다.

〈표Ⅳ-1-20〉 산림피해 조사결과

(단위 : ha)

구분	계	사유림	공유림	국유림
면 적	3,762	2,742	383	637

자료 : 강원도, 2001, 『2000 동해안 산불백서』.

2) 동해안 산불(2000.4.7.)

2000년 4월 7일 새벽 1시 38분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강릉, 동해, 삼척 등 4개 시·군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으며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고성지역에서는 토성면과 현내면, 거진읍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2000년 4월 7일 01시 38분 토성면 학야리에 위치한 22사단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잔불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죽왕면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10개 마을 936세대 2,905명이 긴급 대피하였으며 4월 8일 17시10분경 진화되었다.

4월 7일 새벽 4시경 현내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발화된 산불은 계속 남쪽으로 확산되었고 4월 8일 명파리 부근에서 진화되었으나 4월 11일 13시50분경 다시 발화되었고 4월 14일 11시20분에 진화되었다.

거진읍에서는 4월 11일 12시18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민간인의 담뱃불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4월 11일 16시14분경 진화되었다.

강릉지역에서는 사천면과 홍제동, 대전동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4월 7일 08시25분경 사천면 석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천면 10개 마을과 연곡면, 경포 등으로 확산되면서 13개 마을 700여명이 대피하였으며 4월 8일 06시55분경에 진화되었다.

동해지역에서는 삼화동과 천곡동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4월 12일 09시20분경 삼화동 달방댐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시내방향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산불로 95세대 280여명이 대피하였고 4월 15일 09시경 진화되었다. 한편, 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4월 12일 07시30분에 발생하여 4월 12일 07시52분경 진화되었다.

삼척지역에서는 4월 7일 10시32분 근덕면 양지마을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곡리, 궁촌리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4월 8일 16시45분경 진화되었으나 4월 10일 06시30분 다시 발화되었고 경북 울진 방향 등 4개 방향으로 확산되었다. 이 산불은 4월 15일 09시경 진화되었으며 화재의 원인은 궁촌리 주민의 소각행위로 밝혀졌다.

삼척시 건지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4월 12일 03시20분에 발생하여 당일 06시15분경 진화되었고, 미로면 내미로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4월 12일 05시26분 발생하였고 동해시 방향으로 확산되었으며 4월 15일 09시경 진화되었다. 또한 삼척시 도계읍에서 발생한 산불은 4월 13일 15시 30분 발화되었으나 당일 23시경 진화되었다.[18)]

2000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등 동해안지역 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17명의 인명피해(사망2, 부상15)가 발생하였다. 전체 피해면적은 23,138ha이며 299세대 85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 산불로 인하여 건물 808동이 소실되었으며, 소·닭 등 6,068마리의 가축과 1,328대의 농기계가 잿더미로 변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고성군 동해안산불(2000)



강릉시 홍제동 산불(2000)

18) 강원도, 2001『2000 동해안 산불백서』.

〈표Ⅳ-1-21〉 산림 및 인명피해현황

(단위 : ha / 명)

구분	산림면적	인명피해		이재민	
		사망	부상	세대	인원
계	23,138	2	15	299	850
강릉	1,447	1	5	159	465
동해	2,244			16	47
삼척	16,751	1	9	54	132
고성	2,696		1	70	206

자료 : 강원도, 2001, 『2000 동해안 산불백서』.

〈표Ⅳ-1-22〉 재산피해현황

(단위 : 동 / 마리 / 대)

구분	건축물					가축					농기계
	계	주택	부속사	축사	기타	계	소	돼지	꿀벌	기타	
계	808	390	283	128	7	6,068	30	129	3,538	2,371	1,328
강릉	277	164	80	26	7	458	10			448	533
동해	59	20	28	11		2,449	1	27	1,838	583	120
삼척	224	94	84	46		2,633	2	29	1,438	1,164	207
고성	248	112	91	45		528	17	73	262	176	468

자료 : 강원도, 2001, 『2000 동해안 산불백서』.
※ 건축물 중 기타는 공장 등 피해현황이며, 가축 중 기타는 염소, 개, 닭 등 피해현황임.

2000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 삼척 등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현황은 소방, 軍, 공무원, 예비군 등 연인원 12만5천535명과 헬기 및 소방차량 934대가 동원되었다.

〈표Ⅳ-1-23〉 동원인력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소방	의소대	경찰	군병력	공무원	민방위	예비군	기타
계	125,535	2,645	8,683	876	44,433	18,226	28,931	8,620	13,121
강릉	20,025	425	1,534	316	7,111	4,570	4,882	1,043	144
동해	28,206	427	400	142	9,775	1,590	8,800	3,684	3,388
삼척	55,213	1,384	5,538	206	14,662	9,792	13,564	3,893	6,174
고성	22,091	409	1,211	212	12,885	2,274	1,685	-	3.415

자료 : 강원도, 2001, 『2000 동해안 산불백서』.

3) 양양 산불(2005.4.4.)


양양산불 현장(2005)

2005년 4월 4일 23시53분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에서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하였고, 발생한지 32시간 만에 주택 163동과 신라시대에 세워진 낙산사를 불태웠으며, 973ha의 산림을 순식간에 황폐화시켰다.

산불이 확산될 당시에는 순간최대풍속 27㎧의 강풍이 불어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상대습도 또한 25% 내외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산불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발전하였다.

양양산불의 확산과정은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4월 4일 23시53분에 산불이 발생 한 때부터 4월 5일 11시20분 양양산불진화대책본부의 진화선언시점까지이다. 두 번째 단계는 4월 5일 12시50분경 산불이 재발화한 시점부터 4월 6일 08시경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발화지점으로부터 동해안까지 동쪽을 향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거의 직선 형태에 가까운 좁고 긴 타원형으로 확산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최저습도가 20% 미만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였으며, 평균풍속 12~13㎧, 순간최대풍속 27㎧의 바람이 불어 헬기가 진화작업을 못할 정도의 서풍, 서남서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의 풍향은 서풍과 남서풍 등이 불규칙하게 불었고 더 이상 확산될 공간이 없는 동쪽을 제외한 남쪽, 서쪽, 북쪽 세 방향으로 산불이 확산되었다.

이 산불로 인하여 165세대 42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총 23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163동의 주택이 소실되었고, 30동의 축사, 19동의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천년고찰인 낙산사가 피해를 입으면서 국가문화재(보물)인 동종이 소실되었고 칠층석탑 일부가 훼손되었으며 낙산사 전각인 원통보전과 무설전, 심검당 등이 소실되는 등 문화재에 대한 피해액이 88억여원에 달했다.

산림피해로는 국유림 62ha, 공유림 37ha, 사유림 874ha 등 총 973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수종별로 살펴보면 소나무림이 959ha로써 대부분의 피해면적을 차지하였고 낙엽송 6ha, 잣나무 6ha, 활엽수림 2ha 순이었다.



양양산불에 동원된 각 시도 소방차량(2005)



양양 낙산사 화재진압 도중 피해를 입은 소방차(2005)

〈표Ⅳ-1-24〉 양양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내역

(단위 : 동 / 개소 / 백만원)

구 분	계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사방시설	문화재	군사시설	기타
물 량	295	163	30	19	22	17	39	5
피해액	23,009	5,364	124	10	3,486	8,885	1,843	3,297

자료 : 산림청, 2006, 『봄철 대형산불백서 2005』.

2005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양양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 및 장비현황은 소방, 군(軍), 공무원 등 21,181명의 인력과 65대의 진화헬기, 384대의 소방차(진화차)가 동원되었다.

〈표Ⅳ-1-24〉 양양산불로 인한 재산피해 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	소방	경찰	군병력	공무원	기타
인 원	21,181	2,317	2,497	12,611	1,104	2,652

자료 : 산림청, 2006, 『봄철 대형산불백서 2005』.

〈표Ⅳ-1-26〉 동원장비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헬기						소방차	진화차 (살수차)	등짐펌프 등
		소계	소방	산림청	임차	군	국립공원			
장 비	15,449	65	12	39	3	10	1	345	39	15,000

자료 : 산림청, 2006, 『봄철 대형산불백서 2005』.

2. 화재

대형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에 따라 '사망 5명이상 또는 사상자 10명이상이 발생한 화재이거나 재산피해가 50억원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재'를 말한다. 1992년 이후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 3명 또는 사상자가 10명이상이거나, 재산피해가 10억원이상인 화재현황을 보면 1990년대 1건, 2000년대 4건, 2010년대 9건으로 총 14건이 발생하였다.

〈표Ⅳ-1-27〉 강원도 주요 화재 발생 현황

(단위 : 명 / 천원)

구 분	발생일자	발 생 장 소	화재원인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1990년대	1992.10.04.	원주 우산동 ○○회관	방화	14	25	5,360
2000년대	2001.07.22.	횡성군 횡성읍 공장	기타			1,298,450
	2007.04.30.	양구군 해안면 컨네이너	전기적요인	3		3,851
	2007.09.17.	철원군 갈말읍 공장	부주의(담배꽁초)			1,170,212
	2009.04.30.	영월군 남면 광천리	쓰레기 소각	3		31,652
2010년대	2010.12.03.	삼척 미로면 스틸하우스	전기적요인			2,000,705
	2012.07.15.	삼척 도계읍 ○○교회	가스누출(폭발)		10	4,177
	2012.08.17.	삼척 남양동 ○○노래타운	가스누출(폭발)		45	1,530,790
	2013.08.24.	춘천시 후평동 공장	용접작업			1,317,639
	2015.03.20.	원주시 호저면 공장	미상			1,551,041
	2016.07.18.	춘천 퇴계동 춘천○○교회	미상			1,488,956
	2017.04.29.	삼척 원덕읍 한국남부발전	자연발화			1,386,819
	2017.09.16.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	방화의심	2	1	76,573
	2018.01.09.	강릉시 포남동 주택	가스누출(폭발)		11	200,187

1) 원주 우산동 ○○회관 화재(1992.10.4.)

1992년 10월 4일 오후 2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의 한 건물 2층 ○○회관 출입문을 누군가 박차고 들어왔다. 한국○○공사 직원인 원○○씨(당시 35세)였다. 예배당에는 90여 명의 신도들이 순회강사의 성경강해를 듣고 있었다. 원씨는 다짜고짜 "내 아내를 내놓아라!"며 연거푸 세 번 소리쳤다.

갑작스러운 원씨의 등장에 놀란 신도들은 "부인은 오지 않았다"며 모른 체했다. 그러자 격

분한 원씨는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휘발유통을 거꾸로 세우고는 예배당 계단과 안쪽에 마구 뿌렸다. 그래도 신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원씨는 "끝내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교회를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삽시간에 교회 내부로 번지기 시작했다. 벽과 천장이 목재인데다 바닥에 깔린 카펫에 불이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27평의 좁은 교회인데다 출입문마저 쪽문 하나밖에 없었다. 더욱이 바닥에 깔린 카펫이 타면서 악취와 연기를 내뿜었다. 신도들은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으나 문과 계단이 좁고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대피가 어려웠다.

교회 안은 서로 먼저 빠져나오려고 밀치고 당기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연단 쪽의 신도들은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채 서로 엉켜 까맣게 타 죽어갔다. 창문 쪽에 있던 신도 10여명은 당황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일부는 쪽문을 통해 1층 슬레이트지붕으로 올라갔으나 슬레이트가 깨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다.

화재 발생 10분 후 경찰과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불길이 워낙 맹렬해 쉽게 잡히지 않았다. 불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40여분 만에 간신히 진화됐다. ○○회관 내부가 완전히 소실되면서 사망자들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탔다. 교회 측은 뒤늦게 신원확인에 나섰으나 사망자를 확인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당시 최종 집계된 사망자는 14명, 그리고 25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10살 이하 2명, 10대 4명, 20대 5명, 60대 1명 등이었다. 가족과 함께 온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된 것이다. ○○회관에 불을 지른 원씨는 재빨리 뛰어나온 신도 5~6명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원씨는 이들을 뿌리치고 우산동 파출소 쪽으로 달아난 뒤 자수했다.[19]

이 화재는 90년대 초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한국 역사상 대형화재 사례로 꼽히며 사망 14명 부상 25명이 발생한 대형화재였다.


"아내 내놔라" 술취해 犯行

카핏 불붙어 연기속 '수라장'

출입구 1개뿐 창문깨고 뛰다

『경향신문』(1992.10.5.)


원주시 우산동 ○○회관 화재 현장

19) 『시사저널』, 2016. 10. 29. 「한국의 사형수들 "내 아내 나놔라!" 예배당 불질러 15명 사망」.

2) 철원군 갈말읍 공장 화재(2007.9.17.)


『철원신문』(2007.9.17.)

2007년 9월 17일 01시42분 철원군 갈말읍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날 화재는 김○○(남,58세)이 신철원에서 갈말읍 자택방향으로 귀가 중 야적장의 강한 화염과 불에 달궈진 조립식 벽체를 목격하고 신고하였다. 9대의 펌프차를 포함한 13대의 장비와 98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02시32분 진화되었다. 최초의 발화지점은 목격자의 진술과 조립식 패널 벽체의 수열흔, 화염의 이동경로로 볼 때 건물 외부 종이박스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당시 ㈜○○육가공 측은 이날 화재로 추석을 앞두고 쌓아둔 20톤가량의 한우고기가 불에 타 약 1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데다 21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다시 건립해야 한다며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당장 우편물 주문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등 매출계획에도 차질을 빚어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인 32명의 직원이 당분간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던 화재였다.

3) 영월군 남면 주택 화재(2007.4.30.)

2009년 4월 30일 23시42분 영월군 남면 광천리 김○○(47세, 고물수집업)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였다. 차량을 이용하여 화재현장을 지나던 신고자는 "주택에서 화재가 난 것 같고 가스통이 계속 터지면서 불길이 치솟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영월소방서에서는 펌프차 6대, 구조차 1대, 물탱크 1대, 구급차 2대, 화재조사차 1대가 출동하였으며 23시 52분 영월펌프 및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화재는 최성기상태였고 화염으로 인하여 현관문으로의 진입을 할 수 없었다.

구조대원들은 건물 뒤쪽 창문을 뜯고 건물로 진입하여 인명검색을 실시하였고 작은방에서 김씨와 그의 아들을 발견하였으며, 거실에서는 김씨의 딸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다.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위해 2009년 5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과의 합동조사를 실시한바 최초의 발화는 건물 외부에서 시작되었고 건물 내부로 연소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소경로를 고려할 때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불티가 주택 옆에 쌓아둔 재활용의류 및 폐지 등에 착화되어 주택 내부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월군 남면 광천리 김○○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연소된 탄화흔

4) 삼척시 미로면 스틸하우스 화재(2010.12.3.)

2010년 12월 3일 11시36분 삼척시 미로면 상사전리 서○○(여,79세)의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서씨의 주택과 창고를 모두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다. 당시 주택 내부에는 서씨와 그녀의 손녀가 있었고 주택 외부에서 발생한 '펑' 소리를 듣고 서씨와 손녀는 밖으로 대피했다. 최초 신고자인 산불감시원 한○○(여,55세)은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를 듣고 서씨의 주택으로 달려가 보니 주택 우측면 기름보일러실에서 화염이 분출하고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건물의 수열흔 및 화재 진행방향을 볼 때 기름보일러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기름보일러실에서 화목보일러실로 분기되는 비닐코드배선의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화재는 주변의 창고 및 공가를 태우고 주변으로 번져 삼척시 미로면 일대 68㏊의 산림을 훼손하였으며 당시 동원된 인원과 장비는 2,244명, 90대가 동원되었다.

〈표Ⅳ-1-27〉 동원인력 및 장비현황

(단위 : 명 / 대)

구 분	계	소방	의소대	시청공무원	군인	기타
인 원	2,244	222	409	480	700	433

구 분	계	펌프	헬기	구조차	산불진화차	기타
장 비	90	32	15	2	20	21



현장 도착 시 화재진행상황



화재 진압 후 주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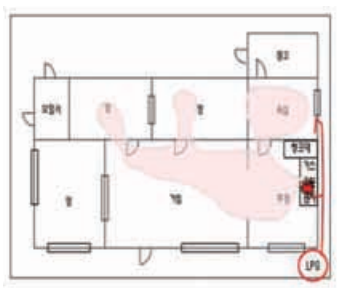
5) 삼척시 도계읍 ○○교회 생활관 폭발(2012.7.15.)

2012년 7월 15일 09시47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교회 생활관에서 가스폭발이 일어났다. 주일학교에 온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찐빵을 쪄주기 위해 김○○사모(55세, 여)가 가스불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이 폭발로 인하여 김 사모와 김○○(11세, 남)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8명의 아이들 역시 2~3도의 화상을 입는 등 총 10명이 화상을 입었다.

가스폭발이 발생한 이유는 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가스렌지, 가스온수기, LP가스통을 철거하여 이사를 갔고, 목사는 본인의 가스오븐렌지와 LP가스통을 직접 연결하였는데, 화장실에 있던 가스온수기용으로 사용하던 호스를 마감하지 않아 그 호스를 통해 LP가스가 방출되었고 찐빵을 찌기위해 가스오븐렌지를 작동하는 순간 호스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스파크에 착화되어 가스폭발이 일어났다.

폭발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김 사모와 어린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피부 이식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비용이 상당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 피해자들의 의료비로 지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사모는 2012년 9월 1일 서울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에서 치료 중 패혈증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림Ⅳ-1-2〉 삼척시 도계읍 가스폭발 현장



건물 내부 평면도



거실 내부
(폭발로 인해 반자가 떨어짐)



주방 바닥
(장판이 모두 소실됨)



LP가스 하단부에 성에가 낀 상태



막음장치가 없는 고무호스

6) 삼척 남양동 가스폭발사고(2012.8.17.)

2012년 8월 17일 새벽 6시 57분경 삼척시 남양동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노래타운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했다. 이 가스폭발로 4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6억7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가스폭발이 발생한 건물은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 618.31㎡ 규모의 콘크리트조 슬라브가 건축물로 LP가스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였으며 이 폭발로 인하여 181개소의 건물과 28대의 자동차가 파손되었으며 피해액은 36억7천만원에 달하였다. 한편 건물주인 김○○(남, 67세)은 폭발 당시 지하1층에서 구조되어 소방헬기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화상치료 중 사망하였다.

남양동 가스폭발로 동원된 인원과 장비는 소방, 의용소방대, 경찰, 군장병 등 650명이 동원되었으며 소방차, 구급차, 굴삭기 등 48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삼척시청에서는 피해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융자지원을 하였고 18억5천만원(2012.10.31.현재)의 성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남양동 가스폭발 현장(2012)



국과수 및 소방본부 합동조사(2012)

7) 춘천시 후평동 샌드위치패널 공장 화재(2013.8.24.)

2013년 8월 24일 11시33분 춘천시 후평동 공단에 위치한 샌드위치패널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춘천소방서에서는 소방헬기를 비롯하여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 19대의 장비와 241명의 인원을 투입하였으나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이 타면서 순식간에 불이 확산되었고 유독가스가 건물에 가득차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당시 공장 2층에서는 오전 8시부터 보수업체 직원 5명이 바닥 보강공사를 위해 용접작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용접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옆에 쌓여있는 스티로폼에 착화되었고, 착화된 스티로폼이 급격히 연소되면서 초기진화에 실패했으며 공장 내에 다량의 인화성물질이 산재하여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대되었다.

춘천시 후평동 샌드위치패널 공장 화재 시 동원된 인원과 장비는 소방, 의용소방대, 경찰 등 241명이 동원되었으며 소방차, 구급차, 소방헬기 등 19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이 화재로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4,473㎡가 소실되었고 13억1천76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표Ⅳ-1-28〉 동원인력 및 장비현황

(단위 : 명 / 대)

구 분	계	소방	의소대	경찰	한전	가스	기타
인 원	241	145	42	20	2	2	30

구 분	계	펌프	물탱크	사다리	화학	구급	지휘	조사	헬기	기타
장 비	19	4	2	1	1	1	1	1	1	7



춘천시 후평동 샌드위치패널 공장 화재(2013.8.24.)



화재진압 후의 공장 모습

8) 춘천시 퇴계동 춘천○○교회 화재(2016.7.18.)


춘천○○교회 화재진압

2016년 7월 18일 17시 29분 춘천시 퇴계동 춘천○○교회 본관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의 발화지점은 4층 방송실 우측 약 15~30m지점 반자위로 추정되었으며 반자 위에 설치된 전등, 전기기구, 전선 등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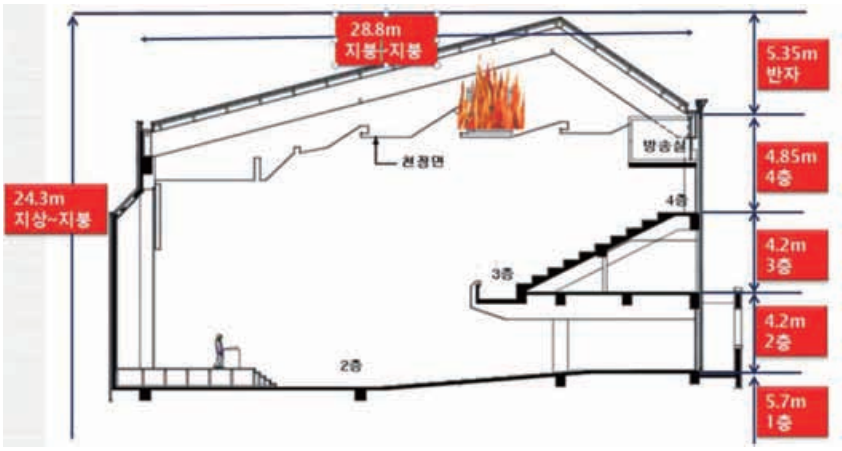
이 교회는 1998년 7월 2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1년 6월 1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지하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었지만 지상층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 당시의 「소방법」에도 지상층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규정이 없었다.

건물 내부구조는 지상 2~4층까지 개방된 구조의 복층 예배당으로서 층고가 13.25m이고 경사지붕과 반자사이에 5.35~3m의 공간이 있으며 그 내부에 조명, 방송, 통신 등 다량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창문구조는 대리석과 붙박이창으로 되어있어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차를 이용하여 방수를 하여도 창문을 파괴하기 전에는 내부에 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였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대응2단계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였으며 소방, 의용소방대, 경찰 등 307명의 인원과 소방헬기를 포함한 35대의 장비가 투입되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 4,119.84㎡가 소실되었고 14억8천895만6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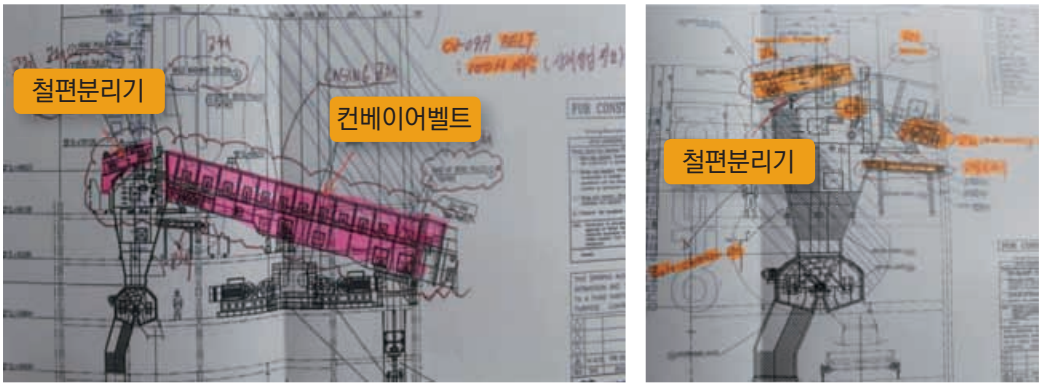
〈그림Ⅳ-1-3〉 건물 단면도



9) 삼척시 원덕읍 한국남부발전 화재(2017.4.29.)

2017년 4월 29일 10시32분에 삼척시 원덕읍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발전본부 석탄취급설비 Blending Bin[20] 상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컨베이어벨트 일부가 소실되었다. 삼척소방서에서는 경찰, 광역수사대와 합동감식을 실시한 결과, 철편분리기[21], Blending Bin 집진시설 내부, 잔탄을 제거하는 수세설비 그리고 컨베이어벨트가 심하게 소실된 점 등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 작업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연탄 분진이 내리쌓인 미분에서 자연발화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Ⅳ-1-4〉 화재현장 내부시설 평면도





삼척발전본부 B/B구조물 화재진압



삼척발전본부 B/B구조물 내부

20) Blending Bin(석탄연료혼합설비) : 유연탄 종류가 다를 경우 이 설비에서 혼합하여 상탄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함.

21) 철편분리기 : 연료나 연료 따위에 섞여 있는 쇳조각 따위를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제거하는 기기.

2015년 이후 삼척발전본부에서는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총 4차례나 발생했으며, 한국남부발전(주)에서는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석탄취급설비 화재 대응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소관부서에 시정요구 및 주의를 통보했다.

〈표Ⅳ-1-29〉 석탄취급설비 화재 발생 현황

횟수	발생일	발생위치	화재원인	피해규모
1차	2015.12.10.	석탄이송타워 (TT-02)	자연발화추정	Conveyor Belt 300m 소손 등
2차	2016.12.31.	석탄이송타워 (TT-08)	자연발화추정	Conveyor Belt 15m 소손 등
3차	2017.04.14.	상탄계통 Conveyor(CV-13)	자연발화추정	Conveyor Belt 3m 소손 등
4차	2017.04.29.	혼탄조 상부 (CV-09)	자연발화추정	Conveyor Belt 200m 소손 등

자료 : 한국남부발전(주), 2017,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10) 강릉시 석란정 화재(2017.9.17.)

2017년 9월 17일 04시26분쯤 강릉시 강문동 석란정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경포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이 정자의 붕괴로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10여분 만에 구조되었으나 심정지 상태였고 이○○ 소방위는 05시33분에, 이○○ 소방사는 06시35분에 순직하였다.

이 화재는 2017년 9월 16일 21시45분경 발생하였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되었다. 당시 선착대인 경포119안전센터는 화재 진압 후 다음날 17일 01시58분까지 현장에 대기하며 잔불을 감시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어 센터로 귀소하였다.

하지만 약 2시간 경과 후인 03시51분경 석란정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신고자에 의해 다시 화재신고가 접보되었고, 현장에 출동해 03시59분 진화하였으나 잔화 정리 중 정자가 붕괴되면서 소방공무원 2명이 매몰되었다.



최초 신고자가 제공한 현장사진(2017.9.16.)

석란정은 동갑계원 21명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56년 신축한 목조지붕틀 한식기와가 1층 42.54㎡의 건축물로서 2008년 강릉시로부터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정자는 화재 발생 전부터 외벽에 금이 가고 기우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건물 이

전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하였고, 실제로도 석란정 외벽의 균열로 30㎝가량의 틈이 벌어져 파이프로 보강조치를 하였으며 지붕은 비닐 천막으로 덮고 주변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석란정 정면사진(디지털강릉문화대전 참조)


화재로 연소되는 석란정 모습

11) 강릉시 포남동 다가구 주택 가스폭발(2018.1.9.)

2018년 1월 9일 18시50분 강릉시 포남동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201호에 거주하는 공○○(58세)이 물을 끓이려고 휴대용 버너를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하였다. 폭발과 동시에 화염이 사라졌지만 이 폭발로 인하여 공씨가 화상을 입었으며 1~4층에 거주하는 주민 10명이 부상을 입어 강릉아산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공씨는 2년 동안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았고 휴대용버너만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201호 내부를 조사한 결과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사이에 호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201호의 LP가스를 교체한 관동가스산업 김○○과장은 201호에서 가스용기를 교체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오전11시경 용기를 교체하였고 평상시처럼 가스밸브를 1바퀴 돌려놓았다고 진술했다.

강릉소방서에서는 다가구주택 1층 외부에 위치한 LPG 용기들을 파악하였으며 201호와 연결된 가스용기 하단부에서 응결현상이 나타났고, 가스는 배관을 따라 201호에서 누출되었고 휴대용버너의 불꽃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가스폭발 건물의 1층 외부 필로티 부분


가스폭발로 인한 건축물의 외벽 모습

3. 교통사고

1) 단풍관광 버스 추락사고(2004.10.20.)

2004년 10월 20일 15시45분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2리 군도8호선 내리막길에서 단풍놀이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던 관광버스가 15m 언덕아래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33명의 탑승자 중 1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날 사고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을 태운 버스가 오대산 관광을 마치고 신약수 방면으로 가던 중 S자형 도로에서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추락 직전 버스가 균형을 잃고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는 탑승자들의 진술과 변속기가 2단 상태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려져있던 점을 토대로 현장 확인한 바 이 사고는 브레이크 파열이 원인이었다. 특히 15명의 사망자 가운데 6명이 차량 밑에 깔려 숨졌고 나머지 9명도 차량 앞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차량에서 튕겨져 나갔거나 앞쪽쏠림현상에 의해 뒤엉키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당시 소방서가 설치된 강릉과 영월소방서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60, 78km 떨어진 데다 도로사정이 열악해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구조대가 도착하였고 구조대원 및 경찰 등 5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활동을 벌였고 소방헬기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현장 인근에서는 버스를 견인할 대형크레인을 동원할 수 없었고 강릉지역으로부터 동원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22]



(평창=연합뉴스) 20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2리 '신약수' 부근에서 배드민턴 동우회 회원 등 34명이 탄 ㈜미진 소속 버스가 15m 도로 아래로 추락한 사고 현장(2004.10.20.)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관광버스 사고 현장 (2004.10.20.)

22) 세계일보 및 동아일보.(2004.10.21.)

2) 졸업 앞둔 고교생 차량 사고(2010.1.29.)


교통사고 구조현장

2010년 1월 29일 01시15분쯤 홍천군 남면 화전리 인근 494번 지방도에서 A군(19) 등 5명이 타고 있던 갤로퍼 승용차가 도로 왼쪽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B군(19)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C군(19)도 이날 오전 10시쯤 끝내 숨졌다.

이들은 홍천군 소재 모 고등학교 친구들로서 A군이 자신의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1차로로 운행하던 중 커브를 틀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23] 라고 『뉴시스』는 밝혔다.

3) 서울~춘천고속도로 5중 추돌(2010.4.19.)

2010년 4월 19일 14시04분쯤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터널 인근(서울방면 43㎞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앞서가던 그랜저와 갤로퍼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남성1, 여성4)이 숨지고 갤로퍼와 카렌스 운전자 등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교통사고현장(홍천=뉴시스)

사고 버스는 이날 의정부의 한 중학교 학생들을 강원도 인제의 수련원으로 이송한 뒤 차고지가 있는 서울로 복귀 중이었으며 경찰은 사고 버스가 그랜저를 들이받아 앞바퀴로 깔아뭉갠 상태에서 15~20m가량을 진행하여 차량 4대를 추가로 들이받은 것으로 운전사 이모씨(남,53)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졸음운전을 했으며 앞서가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4]

23) 『뉴시스』 (2010.1.29.)
24) 『연합뉴스』 (2010.4.19.) 및 『노컷뉴스』 (2010.4.20.)

4)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사고(2016.7.17.)


영동고속도로(봉평터널) 교통사고 현장

2016년 7월 17일 17시54분에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봉평터널 입구에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광버스가 1차로에서 주행하면서 앞에 정차되어 있는 K5렌터카를 그대로 받아버렸고 차량 위로 올라타면서 그 앞에 정차되어 있는 아우디, 그랜저, SM5, GT까지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버스 바로 앞에 있던 K5렌터카에 탑승한 여대생 4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운전자 김모씨(25, 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인 김모씨(34, 남) 등 4명의 운전자와 탑승자 10명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버스기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했으며 버스기사는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숙소가 아닌 버스 안에서 잠을 잔 뒤 오전 6시부터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지역 관광지를 운전했으며, 사고가 나기 전 7~9㎞지점부터 눈이 감기고 잠이 쏟아져 껌을 씹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버스기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16년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행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5) 영동고속도로 추돌사고(2017.5.11.)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2017년 5월 11일 오후 3시 28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73㎞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를 낸 관광버스는 봉평터널 전 오르막구간 2차로를 시속 91㎞로 질주해 앞서가던 승합차를 그대로 추돌했다.

CCTV에 포착된 사고영상을 보면 영동고속도로 173.6㎞지점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 3~4대는 오르막구간의 2차로를 서행하고 있었으나 같은 차로를 주행하던 고속버스는 서행차량과는 달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다가 60~70대 노인 등 9명이 탄 스타렉스를 들이받았고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20~30m 끌고 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경찰은 "CCTV 동영상 등을 토대로 고속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했다"며 "고속버스 운전자가 사실상 졸음운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4. 기타 사회재난

1) 가축전염병

(1) 조류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는(AI, 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AI는 폐사율 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고병원성은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차량을 소독하는 음성지역 방역초소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국내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이후 2~3주 동안에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남 등에서 1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방역조치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국가의 가금육을 반송·폐기하였고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강화하였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한 위험지역(3㎞) 및 경계지역(3~10㎞)을 설정하고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가축이동, 출입차량·인원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인근 농장의 닭·오리 등 392농가 528만5천수를 살처분·매몰 조치하였다.

약 100일간에 걸쳐 전국 10개 시·군에서 총 19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

류만 500만수에 이르는 등 발생지역의 농가는 물론 우리나라 가금산업 전반에 걸쳐 큰 손실을 입혔으나, 중앙과 지역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농가와 생산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 질병을 근절할 수 있었다.

2003~2004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H5N1'형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철새에 의한 유입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파요인은 감염된 생축의 이동(직접전파)보다는 사람 및 차량(분뇨·사료)의 이동과 오염된 종란의 이동 등 기계적인 전파(간접전파)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에는 11월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장에서 발생한 이후 12월 10일에는 김제 메추리농장에서, 다음날인 12월 11일에는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에서 추가 발생했으며 2007년 3월 6일에는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근절하였다.

〈표Ⅳ-1-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현황(2006~2007)

(단위 : 수)

번호	소재지	축종	사육규모	신고일자	판정일자	결과	비고
1차	전북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닭	13,000	2006.11.22.	2006.11.25.	양성	병성감정
2차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닭	12,240	2006.11.27.	2006.11.28.	양성	신고
3차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메추리	290,000	2006.12.10.	2006.12.11.	양성	신고
4차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오리	10,000	2006.12.11.	2006.12.21.	양성	병성감정
5차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닭	30,000	2007.01.19.	2007.01.20.	양성	신고
6차	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닭	133,000	2007.02.09.	2007.02.10.	양성	신고
7차	충남 천안시 동면 화계리	오리	13,521	2007.03.06.	2007.03.08.	양성	신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서』.

2008년에는 4월 1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한 이후 2008년 5월 12일까지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HPAI 발생은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발생양상을 보였다.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던 HPAI가 처음으로 봄철에 발생하였고 과거 사례에 비해 오리의 폐사율이 높았으며, 토종닭의 경우도 33건 중 12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가든형 식당이나 도시지역의 일반가정, 자연학습장 등 소규모 사육시설에서도 AI가 발생되었다.

이번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요인 및 경로는 2가지 경로인데, 첫째는 사료차량, 유통업자, 수송차량 등을 통하여 전파된 것으로 주로 닭·오리 사육농장에서 발생하였고, 발생지역은 전북 김제·정읍, 전남 영암, 충남 논산, 경기 평택·안성, 경북 경산 및 경남 양산 지역으로 총 23

건이며 전체 발생의 70%를 차지했다.

둘째는 재래시장에서 오염된 닭·오리를 구입했거나 영세수집상을 통하여 전파된 것으로 주로 가든식당·가정·동물사 등에서 발생하였고, 발생지역은 경기 안성, 울산 울주, 경북 영천, 대구 수성, 서울 광진·송파, 강원 춘천 및 부산 강서·해운대·기장 지역으로 총 10건이며 전체 발생의 30%를 차지했다.



강원소방, 겨울축제 개막따라 'AI방역 비상급수 지원' 총력 2017.1.12.(춘천=뉴시스)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매뉴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방역조치는 AI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살처분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 정책에 따라 AI발생지역의 닭·오리 등 가금류 1천20만수를 매몰 처분하였으며 42일 만에 AI를 조기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후 2010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다시 발생하였고 방역조치와 가금류의 살처분으로 종식시킬 수 있었다.

2016년 12월에는 AI방역조치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계란 공급량이 줄어 계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 또한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등 계란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계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캐나다 등 AI가 발생하지 않은 5개 국가로부터 계란을 수입하기도 하였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역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중심으로 비상급수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급수지원한 현황을 보면 총 4만8천367톤을 지원하였고 이중 12.1%인 5,859톤이 AI 및 구제역 방역에 사용되었다.

〈표Ⅳ-1-31〉 강원도소방본부 급수지원 현황(2013~2018)

(단위 : 건 / 톤)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수	11,462	1,228	2,417	3,302	1,213	3,302	1,459
급수량	48,367.2	5,369.6	10,242.6	13,981	4,793	13,981	5,599

자료 : 강원도소방본부, 『2018 소방행정통계연보』.

(2) 구제역

구제역(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혀·잇몸·코·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데 포유중인 어린 돼지의 경우 치사율 5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최초의 기록은 1911년이며, 그 후에는 소규모로 지속되다가 1934년을 마지막으로 종식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국내에서 종식되었던 구제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경기도 파주·화성·용인, 충북 충주, 충남 홍성·보령 등 6개 지역 15개 농가에서 발생하였으며 구제역에 감염된 양성축은 한우 62마리, 젖소 19마리 등 총 81마리였고 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182개 농가의 우제류 2,216마리를 모두 매몰·처분하였다.

2002년에는 5월 2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신고된 이후 6월 23일까지 총 16건이 발생하였다. 이 중에서 경기도 안성의 젖소 구제역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경기도 용인·평택, 충북 진천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하였고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과는 다르게 돼지중심으로 질병이 확산되었으며, 반경 500m(돼지는 반경 3㎞)이내에 위치한 162개 농가 16만155마리(돼지 158,708, 한우 286, 젖소 1,086, 염소 42, 사슴 33)를 모두 매몰·처분하였다.

2010년 1월에는 포천과 연천에서 6건의 소 구제역이 발생하여 총 5,956마리를 살처분하였고, 같은 해 4월 8일부터 5월 6일 기간에는 4개 시·군(강화·김포·충주·청양)에서 11건(소 7, 돼지 4)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총 4만9천874마리를 살처분하였다.

〈표Ⅳ-1-32〉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 현황(2010~2011)

(단위 : 두)

축 종	계	소	돼지	염소	사슴
대상농가	6,241	3,750	2,103	232	156
매몰 마리수	3,479,962	150,864	3,318,298	7,557	3,243

자료 : 한국농촌경제진흥원, 2011, 『2010 ~ 2011 구제역 백서』.
※ 가축 매몰 현황의 기간은 2011.11.28 ~ 2011.4월 말까지임.



구제역 방역초소 급수지원(2011)



구제역 방역초소 위문방문(동해의용소방대연합회)

2) 신종바이러스

(1) 사스(2003)

2003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폐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질병 발생에 대한 경보를 전 세계에 발표하였다. 2002년 11월부터 중국 광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이 질병은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이하 사스)으로 사망위험이 뒤따르고 전염성이 높아 불과 몇 주 만에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사스는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데, 주로 비말(작은 침방울)을 통해 감염된다. 즉 사스 환자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배출되는 호흡기 비말에 병원체가 포함되어 있어 눈, 코, 입 등을 통해 감염되며, 비행기 여행에 의한 2차 감염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증상 및 증후로는 38℃ 이상의 발열이 초기 증상이며, 고열인 경우가 흔하고, 오한이나 경직, 두통, 전신 쇠약감,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3~7일 후에는 객담이 없는 마른기침, 호흡곤란, 빈호흡이 발생하여 저산소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 때 80~90%의 대부분의 환자는 6~7일째 증상이 호전되나, 10%의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어 기계호흡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발전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02년 11월 중순 중국 광동지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사스는 2003년 8월 7일까지 총 환자수가 8,422명이었으며 이중 사망자가 916명(치사율 11%)이며, 회복환자수가 7,422명, 당시 입원중인 환자가 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 사스 확진 대상자는 총 3명이었고 3명 모두 회복되었다.

〈표Ⅳ-1-33〉 사스발생현황

(단위 : 명 / %)

지역	총환자수	상 태				해외유입 환 자	의료인	최초환자 발생일자	마지막환자 발생일자
		입원중	회복	사망	치사율				
계	8,422	64	7,422	916	11	175	1,725		
호주	6	0	6	0	0	6	0	'03.03.24.	'03.04.01.
브라질	1	0	1	0	0	0	0	'03.04.03.	'03.04.03.
캐나다	251	10	200	41	17	5	108	'03.02.23.	'03.06.12.
중국	5,327	29	4,949	349	7	0	1,002	'02.11.16.	'03.06.25.
홍콩	1,755	7	1,448	300	17	0	386	'03.02.15.	'03.05.31.
마카오	1	0	1	0	0	1	0	'03.05.05.	'03.05.05.
대만	665	10	475	180	27	50	86	'03.02.25.	'03.06.15.
콜롬비아	1	0	1	0	0	1	0	'03.04.02.	'03.04.02.
핀란드	1	0	1	0	0	1	0	'03.04.30.	'03.04.30.
프랑스	7	0	6	1	14	7	2	'03.03.21.	'03.05.03.
독일	9	0	9	0	0	9	1	'03.03.09.	'03.05.06.
인도	3	0	3	0	0	3	0	'03.04.25.	'03.05.06.
인도네시아	2	0	2	0	0	2	0	'03.04.06.	'03.04.17.
이탈리아	4	0	4	0	0	4	0	'03.03.12.	'03.04.20.
쿠웨이트	1	0	1	0	0	1	0	'03.04.09.	'03.04.09.
말레이시아	5	0	3	2	40	5	0	'03.03.14.	'03.04.22.
몽골	9	0	9	0	0	8	1	'03.03.31.	'03.05.06.
뉴질랜드	1	0	1	0	0	1	0	'03.04.20.	'03.04.20.
필리핀	14	0	12	2	14	7	4	'03.02.25.	'03.05.05.
아일랜드	1	0	1	0	0	1	0	'03.02.27.	'03.02.27.
대한민국	3	0	3	0	0	3	0	'03.04.25.	'03.05.10.
루마니아	1	0	1	0	0	1	0	'03.03.19.	'03.03.19.
러시아	1	1	0	0	0	0	0	'03.05.05.	'03.05.05.
싱가폴	238	0	205	33	14	8	97	'03.02.25.	'03.05.05.
남아프리카 공화국	1	0	0	1	100	1	0	'03.04.03.	'03.04.03.
스페인	1	0	1	0	0	1	0	'03.03.26	'03.03.26.
스웨덴	3	0	3	0	0	3	0		
스위스	1	0	1	0	0	1	0	'03.03.09	'03.03.09.
태국	9	0	7	2	22	9	12	'03.03.11	'03.05.27.
영국	4	0	4	0	0	4	0	'03.03.01	'03.04.01.
미국	33	7	26	0	0	31	1	'03.01.09	'03.07.13.
베트남	63	0	58	5	8	1	36	'03.02.23	'03.04.14.

자료 : WHO, 2002.11.1.~2003.8.7.「세계 사스 발생현황」.

(2) 신종인플루엔자(2009)

인플루엔자는 보통 독감이라고 불리는 감염성 질환으로 그 병원체인 오소믹스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하여 갑자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인플루엔자의 일반적인 증상은 오한, 발열, 인후염, 근육통, 두통, 기침, 무력감과 불쾌감이며, 발열과 기침같이 가벼운 증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으나, 종종 치명적일 수 있는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바이러스는 A·B·C형 3가지가 있으며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이다. B형은 증상이 약하고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하지만, A형은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H항원과 N항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표Ⅳ-1-3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C형

구 분	내 용
인플루엔자 A	이 속은 하나의 종인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만을 포함한다. 야생 수생 조류가 여러 종류의 인플루엔자 A의 자연 숙주 역할을 한다. A형은 종 간(間)의 전염을 통해 아주 큰 유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플루엔자 중 가장 독력이 강하다. A형은 항체의 반응 여부에 따라 다시 여러 개의 혈청형(아형)으로 나누어진다. 〈유행사례 : 사망자 순〉 - H1N1 : 1918년의 스페인 독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를 일으킴 - H2N2 : 1957년에 아시아 독감을 일으킴 - H3N2 : 1968년에 홍콩 독감을 일으킴 - H5N1 : 근래에 주목받는 아형 - H7N7 : 비통상적인 동물원성을 가진 아형 - H1N2 : 인간과 돼지에게 주로 감염을 나타내는 아형
인플루엔자 B	이 속은 인플루엔자 B형 바이러스인 하나의 종을 포함한다. B형은 거의 인간에게만 감수성이 있으며 A형보다 드물게 출현한다. B형이 감성성을 가졌다고 의심되는 다른 동물은 물개와 유럽족제비이다. 이 종은 A형보다 2~3배 낮은 변이율을 보이며, 유전학적 다양성도 떨어져 단 하나의 아형만이 존재한다.
인플루엔자 C	이 속은 인플루엔자 C형 바이러스인 하나의 종을 포함한다. C형은 인간, 개, 돼지에게 감수성이 있으나 보통 아이들에게 가벼운 증상만을 나타낸다. A형과 B형보다도 적은 빈도로 출현한다.

자료 : 강원도, 2010, 『2009~2010 도민과 함께한 신종플루 대응백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사람·조류·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호흡기질환 원인바이러스이다. 처음에는 돼지독감, 신종플루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돼지와 관련된 역학관계상의 증거가 밝혀지지 않아 신종인플루엔자로 명하게 되었다.

2009년의 세계 최대 이슈어는 '신종플루'였다. 2009년 3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강타한 뒤 5월 2일 국내에 상륙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최초 발병은 멕시코 베라크루스주를 포함한 3개 주에서 발견되었으며, 최초 사망자도 2009년 4월 13일 멕시코에서 발생했다. 그 뒤 신종플루는 미국, 유럽 등을 거쳐 아시아에서도 대량의 환자를 발생시키기 시작하였다.



강원도소방본부 신종플루 대책회의(2009.9.2.)

2009년 10월 초 WHO에 의하면 "전 세계 인플루엔자 A(H1N1) 확진환자는 40만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5천명에 육박했다"고 했다. 강원도에서도 2009년 6월 10일 첫 확진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0년 3월 31일까지 3만여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15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강원도소방본부에서도 도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해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철저히 하고, 감염의심환자 이송 시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환자 이송 후 구급차 정밀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표Ⅳ-1-35〉 강원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09년							2010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발생인원	32,171	1	22	219	902	6,478	17,344	6,206	703	217	79
사망인원	15	-	-	-	1	1	8	3	-	2	-

자료 : 강원도, 2010, 『2009~2010 도민과 함께한 신종플루 대응백서』.

(3) 메르스(2015)

메르스(MERS)는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다. 2012년 9월 메르스 환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2016년 3월까지 총 1,49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메르스 관련 비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원국에 메르스 연구, 감염병 방지대책 등과 같은 사전 대비를 권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던 반면에 중동지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예 사업을 하는 68세 남자가 2015년 4월 24일 중동지역을 방문하여 2주간 체류하다 귀국하였는데 이후 메르스 첫 환자로 확진되었다.

메르스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이 환자는 4월 24일부터 중동에 체류하다가 5월 4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발열·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5월 12일과 14일에 아산서울의원을 방문하였고 5월 15일에는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5월 17일 평택성모병원을 퇴원하여 365열린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격리 이송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5월 20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또한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였고 24시간 전담 검사반을 운영하여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와 격리, 검역 강화를 통한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는 7명, 격리 대상자는 61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진환자가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2005년 6월 9일 이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집중관리병원, 1:1밀접접촉자 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7월 4일 이후 새로운 확진환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메르스 확진환자는 186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격리자는 총 1만6천693명이었다.

2015년 메르스 확진 환자 186명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16개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186명의 환자 중 38명(20.4%)이 사망하였다. 확진환자 중 남성은 111명(59.7%)으로 75명(40.3%)의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40명(21.6%)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7명(19.9%), 40대와 70대가 각각 30명(16.1%), 30대 26명(14.0%), 20대 13명(7.0%), 80대 이상(4.8%), 10대 이상(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르스 확진환자 중에서 병·의원을 방문했거나 입원했던 환자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환자의 가족과 방문객


메르스 의심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


인터넷에 올라온 평택의 한 결혼식 사진

33.9%, 의료진 13.4%, 가족 외 간병인 4.3%, 의료진 외 병원직원 3.2%. 기타 1.1%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경로에 따른 구분으로는 1차 감염자는 첫 번째 확진환자로 1명이며, 첫 번째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2차 감염자는 28명(15.5%), 2차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3차 감염자는 120명(64.4%), 3차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4차 감염자는 26명(14.0%)이었다. 감염 장소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되었고 확진환자의 잠복기는 6.83일이었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도 메르스 확진·의심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119구급대의 단계별 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했으며, 도내 94개 119구급대의 모든 대원에게 마스크와 장갑, 토시 등 개인 보호장비를 지급하였으며 119신고 접수 시 고열, 폐렴, 기침, 메르스 접촉병원, 중동방문 여부 등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표Ⅳ-1-36〉 2015년 메르스 확진환자의 인구학적·역학적 특성

(단위 : 명 / %)

구 분		인원	비율	구 분		인원	비율
연령(세)	10~19	1	0.5	성별	남	111	59.7
	20~29	13	7.0		여	75	40.3
	30~39	26	14.0	감염장소	병원	172	92.5
	40~49	30	16.1		집	2	1.1
	50~59	40	21.6		구급차	3	1.6
	60~69	37	19.9		집 또는 병원	6	3.2
	70~79	30	16.1		미상	3	1.6
	80이상	9	4.8	지역	서울	54	29.0
케이스 분 류	환자	82	44.1		부산	4	2.2
	의료진	25	13.4		대구	1	0.5
	가족·보호자·방문객 (요양보호사 포함)	63	33.9		광주	2	1.1
	가족 외 간병인	8	4.3		대전	24	12.9
	의료진 외 병원직원 (구급차 이송요원 포함)	6	3.2		경기	70	37.7
	기타(감염경로 미상)	2	1.1		강원	5	2.7
감염경로	1차감염자	1	0.5		충북	3	1.6
	2차감염자	28	15.1		충남	13	7.0
	3차감염자	120	64.4		전북	3	1.6
	4차감염자	26	14.0		전남	1	0.5
	감염차수불명확	8	4.4		경북	3	1.6
	미상	3	1.6		기타(감염경로 미상)	3	1.6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5 메르스 백서』.

※ 감염경로 : 1차 감염자는 국내 메르스 첫 번째 확진환자(발단환자), 2차 감염자는 국내 메르스 첫 번째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환자, 3차 감염자는 2차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환자, 4차 감염자는 3차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환자임.(감염차수 불명확은 감염원이 여러 명인 경우로 2차 또는 3차, 3차 또는 4차 감염자에 해당됨).


메르스 상황판단회의(2018)

2015년 사회전반에 공포를 안겨다 준 메르스가 2018년 9월 8일 3년 만에 또다시 국내에 나타났다. 이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2018년 8월 16일부터 20여 일간 쿠웨이트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귀국 즉시 리무진 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직행했고 메르스 검사를 거쳐 음압 공간에 격리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남성이 공항을 벗어난 지 4시간이나 지나서 의심환자로 격리되었고 그동안 이 남성과 2m 이내에서 접촉한 승무원·탑승객·의료진 등 밀접접촉자는 21명이나 되었으며, 일상접촉자가 431명이나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메르스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고 의료기관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격리조치 및 메르스 검사를 시행하였고,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1:1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다행히 전원 모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등 메르스 증상은 없었고 9월 22일 0시를 기점으로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해제 및 능동형 감시를 종료하였다.

강원소방 100년사

제2장

민방위체제 속의 강원소방

제1절 국가 민방위체제

1. 민방위체제 이전의 재난관리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치수계에서 홍수피해가 극심한 14개 하천수계에 대한 개수공사와 홍수재해 경감대책을 시행하였으며,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공사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정치기반과 생활기반 조성 및 재산보호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대규모의 수해가 빈발하였는데 1920년 집중호우로 인한 밀양 삼랑진범람으로 1,100명의 익사자가 발생하였고, 1925년 장마로 인한 제방붕괴로 밀양, 김제에서 2천명이 행방불명되었고, 경남 창원에서 6천명이 고립·실종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1934년에는 영산강이 범람하여 7만명이 죽고 농경지 2만7천ha가 유실·매몰·침수되는가 하면 1936년에는 집중호우 및 홍수로 1,916명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하의 한반도는 수많은 재해를 입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을 뿐 국가적인 대책은 없거나 매우 소극적이었다.

광복이후 1948년 11월에는 내무부장관 산하에 건설국을 신설하여 재해대책업무를 관장하게 하였고 치안국에는 소방과를 두고 지방에는 경찰국 산하에 소방과 및 소방서를 두게 되면서 방재 및 국가소방업무가 시작되었다.

1961년에는 경북 영주의 수해복구를 위해 국토건설청 산하에 수해복구사무소를 설치하였고, 1963년에는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를 신설하였으며 1967년에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재해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1970년에는 태풍 '올가'와 '빌리'에 따른 홍수로 267명의 인명피해와 22만8천78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1972년에는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852명의 인명피해와 65만6천36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집중호우, 태풍, 해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춘천지역 수해현장(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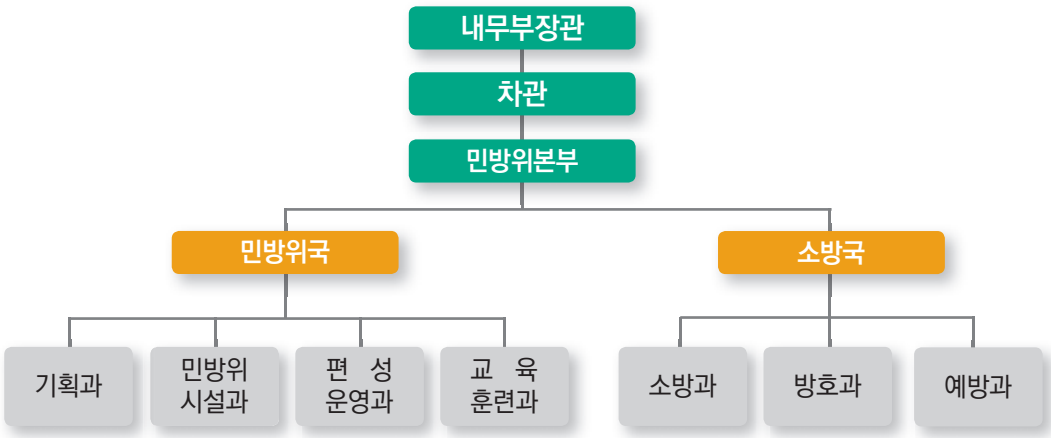
영월지역 수해현장(1972)

2. 민방위본부와 소방국

1975년 4월 월남패망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국내외 정세는 긴장상태에 돌입하였고 국민총력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민방위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5년 7월 25일 법률 제2776호로 「민방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8월 26일에는 「내무부직제」를 개정하여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하였다.

민방위본부에는 민방위국과 소방국을 두고 민방위본부장은 관리관으로, 소방국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소방국에는 소방과(행정계·기준계·관리계), 방호과(방호계·조사계) 및 예방과(예방계·지도계·검정계)를 두었고 소방과장과 예방과장은 서기관으로, 방호과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그림Ⅳ-2-1〉 민방위본부 창설직후 조직기구표(1975)



3. 소방국의 직제 변화

소방국 창설이후 국·과장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독차지하여 소방의 고유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서서히 소방공무원의 전문직화가 추진되었다.

1978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9124호로 「내무부직제」가 개정되면서 방호과장의 직위를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소방감'으로 변경하였고, 1981년 4월 8일 법률 제3422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민방위사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1명과 과장급 2명에 한하여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81년 6월 18일에는 「내무부직제」를 개정하여 소방국장의 직위를 '별정직2급갑 또는 2급을'에서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소방정감'으로 개정하였고, 1984년 1월 21일에는 예방과장의 직위를 '서기관'에서 '소방감'으로, 소방과장의 직위를 '서기관'에서 '서기관 또는 소방감'으로 변경하였다.

1987년 3월에는 청와대에서 소방국 내 정원을 소방직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여론을 조사하였고, 1988년 12월에 12명을 소방직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반영되었다.

1989년 12월에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6항 중 "소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무부의 보조기관을 국장1인과 과장 2인에 한하며"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직의 보직제한규정을 폐지하였으며, 1991년 4월 23일 민방위국 보좌기관으로 방재계획관을 두고 하부부서에 방재과를 신설하면서 건설부로부터 재해대책업무를 이관 받았다. 당시 소방국의 정원은 36명이었고 그 중 소방공무원은 20명이었다.

제2절 강원도 민방위국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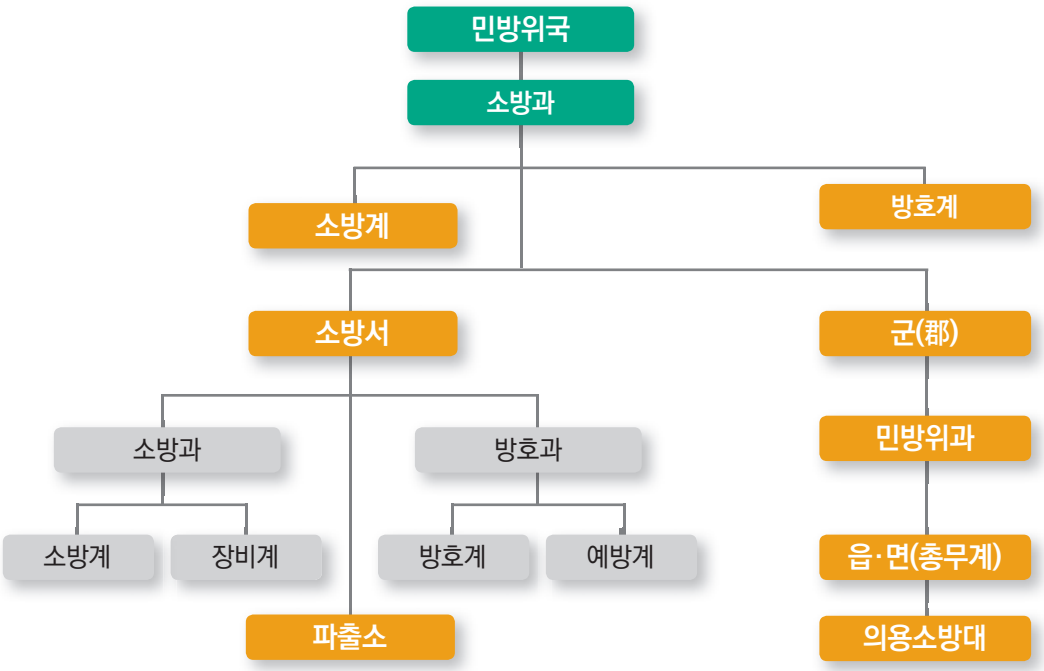
1. 도 민방위국과 강원소방

1972년 서울과 부산은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소방사무를 관장하였고 도에서는 경찰국의 소방과에서 소방사무를 관장하였다. 1975년 8월 26일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로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그리고 각 도에 민방위국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같은 해 8월 29일에 민방위국이 설치되었다.

각 도의 민방위국에는 민방위과와 소방과를 두어 민방위국 체제하에 소방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서울과 부산에는 소방본부를 그대로 두어 소방본부체제의 소방사무를 처리하였다.

각 시·군에서는 직제규칙에 따라 9개시는 민방위국에 소방과를 두었고, 24개시는 민방위과에 민방위계와 소방계를 두었다. 또한 138개군(郡)은 민방위과에 민방위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읍·면에서는 총무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림Ⅳ-2-2〉 도 민방위체제와 소방조직(1975)



강원도의 경우에도 1975년 8월 26일 대통령령 제7767호 「도와 부산시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민방위국이 신설되었고, 경찰국 산하의 소방과는 민방위국 산하의 소방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소방과에는 소방계와 방호계가 있었고 소방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호계장은 소방령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소방계장의 직책은 지방행정사무관이 계속 맡아서 해 오다가 약 20년이 흐른 1994년 5월 23일이 되어서야 소방령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1970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방법」에서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소방업무를 시장·군수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시행을 유보해 오다가 민방위본부 발족 후인 1976년 1월 1일부터 경찰서 및 지·파출소의 소방업무를 시·군으로 인계하였다. 따라서 소방서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를 처리하였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소방업무를 처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郡)단위에도 소방파출소가 신설되기 시작하였고 파출소가 설치된 군(郡)지역은 인근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은 종전처럼 군(郡)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였다. 소방파출소가 설치되지 않은 군(郡)지역의 민방위과에 소방업무 처리를 위해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

2. 강원도소방본부의 설치

1981년 7월 1일 경상북도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경기도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와 인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고, 1986년 11월 1일 전라남도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광주소방본부를 설치하였다. 또한 1989년 1월 1일 충청남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전소방본부를 발족하였고 서울특별시와 5개의 직할시에서는 소방본부체제로의 소방사무를 처리하였다.

강원도를 비롯한 9개도의 경우 1992년 1월 1일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고 1992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3622호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소방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방본부가 설치되기 전 강원도에는 춘천·강릉·원주·속초·동해·태백·삼척소방서 등 7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었으며, 1992년 1월 1일 이전까지 설치된 파출소는 후평, 소양, 효자, 명륜, 학성, 우산, 단구, 문막, 옥천, 경포, 주문진, 천곡, 묵호, 송정, 북평, 황지, 장성, 철암, 화전, 교동, 설악, 영랑, 남양, 도계, 홍천, 양덕원, 영월, 정선, 고한파출소 등 29개소이다.

3. 구조·구급업무의 법제화

1950년 3월 24일 내무부령 제10호 「소방조사규정」을 제정하면서부터 소방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과 소방 수요의 증가로 화재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었고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정 당시 소방의 업무영역은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설해의 예방·경계·진압으로 규정되어 자연재해까지도 소방의 업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67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풍수해 및 설해관련 업무가 재난관련 부서로 이관되었고 같은 해 4월 14일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소방의 업무는 그 범위가 축소되어 화재의 예방과 진압·경계에 국한되었다.

1981년부터 부산, 대전 등 6개 소방관서에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야간통행금지시간대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범·실시하였고 국민의 호응도가 좋아 1982년에는 24개 소방관서로 확대되었다. 1983년 12월 30일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 하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등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구급업무가 소방의 업무영역으로 명문화되었다.

또한 1988년 8월 1일부터는 올림픽 개최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등 7개 도시에 119특별구조대를 설치하여 각종 재난 시 인명구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1989년 12월 30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기타 위급한 상태 하에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소방법」이 개정되었으며 구조업무가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소방의 업무는 화재의 예방과 경계·진압업무에서 구조·구급업무를 추가로 관장하게 되었으며 강원도에서도 1990년 2월 15일 춘천소방서 119특별구조대가 설치됨으로써 인명구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속초소방서 야간구급환자수송센터 운영(1981)


춘천소방서 119특별구조대 긴급구조구난훈련(1995)

〈그림Ⅳ-2-3〉 시대별 소방업무의 변천내용

연도	내용	근거법령
1958년	화재, 풍수해, 설해의 예방·경계·진압	소방법 제1조
▼		
1967년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소방법 제1조
▼		
1983년	구급대의 편성 운영(발대 1982년)	소방법 제70조의 10
▼		
1989년	구조대의 편성 운영(발대 1988년)	소방법 제70조의 11
▼		
1999년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과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소방법 제1조

자료 : 소방방재청, 2009, 『한국소방행정사』.

강원소방 100년사

제3장

강원소방과 민간조직

제1절 시대흐름 속에 사라진 조직

1. 소방조 해체와 경방단

일본은 중·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전시체제를 갖추기 위해 1937년 11월 18일 「방공법 조선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다. 1939년 7월 3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규칙」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8월 28일에는 「경방단 복제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구한말 이래 조직되어왔던 소방조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한편, 1939년 7월 3일 「경방단규칙」의 제정으로 경찰의 통제 하에 있던 소방조 및 수방단, 방호단을 해체·통합하여 도지사 감독 하에 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방단을 설치하였다. 이들 경방단의 설치구역은 소방조의 설치구역과 같았으며 경방단의 명칭도 소방조와 같이 지역명을 앞에 붙여 ○○경방단으로 하였고, 하나의 지역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을 때는 경찰서명을 붙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경방단에는 소방부를 두었으며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평시에는 풍수해와 화재진압업무를 하였고, 전시에는 공습에 의한 화재를 경계·방어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었다.



철원소방조 기구치장(일제강점기)



소방훈련을 마친 양양경방단(남대천제방, 1930년대)



寧遠消防組解體
【寧越】 설립(設立)된지 二十六
년이나된 寧越消防組(寧越消防
組)는 그동안 만흔공적(功績)을
내치고 엇더한국가적(國家的)
重大性)에 순응(順應)하야 九월
말일로 해체(解體)케 되엇는데오
날 관내유지 다수참집한 (官民有
志多數參集中)에 그식을 성대(盛
大)히 거행(擧行)하고 소방조기
금(消防組基金)은 左와如히 處理
하엿다하다
金 三百二十四圓八十八錢也
寧越消防組基金總額
金 五拾圓也 國防獻金
金 壹圓也 警防團基金加額
一金壹百貳拾圓參拾錢也
功勞者表彰及一般紀念品
一金五拾四圓五拾八錢也
雜費
計金 參百貳拾四圓八拾八錢也

1939. 10. 2.『동아일보』4면 '영원소방조 해체'.

2. 소방대

8·15광복과 동시에 시·도별로 소방자치회가 창설되었으며 1946년 4월 10일 법령166호(군정치령)에 의거 경무부 소속의 소방사무가 각 시·읍·면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소방대를 조직하여 소방업무와 수방, 복구업무를 담당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였다.

소방대의 조직과 운영은 관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소방조규칙」을 인용하여 시·도의 규칙으로 「소방대규칙」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충청북도규칙 제20호 「소방규칙」(1952.3.15.)과 충청북도고시 제67호 「소방대규칙 시행세칙」(1952.4.10.)을 살펴보면, 소방대는 도지사가 수·화재를 경계 방어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읍·면별로 1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의 조직은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조직하되 대장과 부대장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내신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장 이하의 대원은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소방대의 기구는 1개의 감찰부와 서무반, 소방반, 펌프반, 파괴반, 경계반, 구호반 등 6개의 반을 두었으며, 정원은 시 지역은 150명, 읍 및 군청 소재지에서는 90명, 기타 면지역은 6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복무점검을 하도록 하였으며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모범대원에게는 표창도 수여하였다.

대원의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부터 훈령으로 정해졌는데 1950년 3월 14일 서울시 훈령으로 정한 출동수당은 1회에 100원이었다.

3. 방공단

1950년 6.25전쟁 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일변하여 후방에 대한 적기 내습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등화관제, 소방, 방독, 피난, 구호와 이에 필요한 감시 또는 통신 및 경보, 방공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51년 3월 22일 법률 제183호로 「방공법」을 제정하였다.

1952년 8월 25일에는 대통령령 제681호로 「방공단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로써 소방업무와 수방, 복구업무를 담당해오던 기존의 소방대는 방공단에 흡수되었다. 방공단의 설치구역은 구·시·읍·면을 단위로 하고 동·리에는 분단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원의 임명은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경찰서장이 구·시·읍·면장과 협의하여 방공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자를 선정하였으며 단의 기구로는 총무·감시·방호·소방부를 두고 경찰서장이 지휘하되 소방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초가집 소화훈련중인 홍천면 방공단(1953)

소방부에는 정비반과 소방반을 두었고 정비반은 소방설비 기자재의 정비와 감찰을 담당하였고, 소방반은 화재의 예방과 진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51년 7월 25일 「가정방공기구 조직규정」을 제정하여 시·군·구에는 가정지도본부를, 읍·면·동·리에 지부를 두었으며, 1952년 2월 9일에는 직장방공단을 조직하여 산업시설의 방공태세를 강화하였고, 같은 해 7월 25일에는 관공서방공단을 설치하여 관공서의 방공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職場防空團
規則을公布

1952. 2. 10.『경향신문』'직장방공단 규칙을 공포'.

4. 청원소방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사회 환경이 변화되었고 인구 집중, 건물의 대형화·고층화·지중화, 화학제품의 대량 사용, 각종 에너지원의 변화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되었다. 당시의 소방력만으로는 대규모 시장, 공장, 호텔, 병원 등 주요소방대상물의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하였다. 이에 시설주 책임 하에 자체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경계 및 초기진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청원소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83년 1월 1일 서울지역의 공장, 시장, 호텔 등 주요소방대상물 21개소에 대하여 청원소

방원제를 시범·운영하였고, 1983년 2월 2일부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1983년 12월 30일에는 이를 법제화하여 「소방법」 제68조의 2에 반영하였다.

1984년 3월 20일에는 「시설주책임 자위소방태세확립지침」을 시달하여 4대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내무부 고시로 청원소방원의 배치, 경비부담, 복제, 교육, 근무, 감독 등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였다.



청원소방원 기본교육(1989)

1997년 3월에는 「소방법」을 개정하여 청원소방원의 배치와 임면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 내용은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을 배치·해임한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배치현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장은 청원소방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청원소방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청원소방원이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었다.

청원소방원제도는 1999년 2월 5일 「소방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어 15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민간자율소방조직의 한 자리를 장식하였다. 청원소방원 통계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1999년 1월 1일자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시장, 백화점, 공장, 복합건물 등 1,303개소에 4,953명을 배치·운영하였고 강원도에는 45개소에 152명을 배치·운영하였다.

〈표Ⅳ-3-1〉 도내 청원소방원 배치현황(1999.1.1.)

(단위 : 개소 / 명)

구분	계	시장	관광호텔	공장	복합건물	기타
배치장소	45	10	10	8	1	16
배치인원	152	32	30	30	4	56

자료 : 소방방재청, 2009, 『한국소방행정사』, 769쪽.

제2절 의용소방대

1. 유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초기까지 자연부락 단위의 자위소방 활동이 자생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437년 1월 경상감사의 주청으로 세종대왕께서 주민 자위활동을 윤허하면서 '지방의용금화조직'이 공인되어 각 동리에 재난이 있을 때에 청장년들이 자력으로 방재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의용소방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일제하에서는 향토자치제적인 사회 안정의 의용소방정신을 진작한다고 각 지방 청년을 중심으로 소방조를 조직하였다.

1939년 7월 3일에는 「경방단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종래의 소방조가 경방단으로 개편되었고 전시 체제 확립을 위하여 소방·경찰의 보조단체로서 소방, 치안, 유지에 종사하였다.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었고 광복 후 소방대가 조직되었다.

1952년 8월 25일 「방공단 규칙」의 제정으로 소방대는 방공단에 흡수되었으며 1953년 7월 23일 「민병대령」에 의해 민병대가 조직되면서 그 간 운영해오던 방공단을 포함한 각종 청년단체가 해산되어 민간 자체소방조직이 전무하게 되었다. 이어 전란의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해지자 1954년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으나 별도의 설치규정이 없어 이전의 관례에 따라 운영되다가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 「소방법」 제정으로 의용소방대 설치규정이 마련되었다.

2. 조직

의용소방대가 확고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은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에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의용소방대의 설치,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수당, 보상금, 경비, 정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부터이다. 제40조(의용소방대의 설치)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시·읍은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 단, 인구가 밀집한 시가지가 있는 면이나 수방상 필요한 면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고 의용소방대는 법적근거 밑에서 합법적인 기관으로 소화, 수방, 방공 등의 중요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41조(의용소방대원의 직무)는 “의용소방대원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화 또는 수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 제46조(방공업무의 겸행)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은 방공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방공업무를 겸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은 소화나 방수, 방공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문진의용소방대 연두훈련 기념(1964)


묵호의용소방대 급수지원(1968)

1973년 2월 8일에는 시·읍에 설치하도록 한 의용소방대를 시·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81년 10월 29일에는 시(市)단위 의용소방대에 부녀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다. 1985년 6월 13일에는 부녀의용소방대를 읍(邑)지역까지 확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1년 12월 17일에는 의용소방대를 광역체제로 개편하여 특별시·직할시·소방서 미설치 지역 및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로 통일하였으며, 2008년 1월 17일에는 「소방기본법」에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44호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양의용소방대(1970)



북산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및 초대대장 취임식(2009)

제3절 소방관련 산하단체

1. 대한소방공제회

1) 설립배경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조직별, 신분별로 특성에 맞는 독립된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현직자와 퇴직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1952년부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운영해왔으며, 교육공무원은 1971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운영하였고 군인·경찰공무원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이러한 공제제도가 없어 소방서나 소방본부 또는 파출소 단위로 자체 상조회를 운영하여 애경사에 상부상조하였고 화재현장에서 순직·공상 또는 출동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전국단위의 소방공제회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경찰·소방 공제회법안 마련

민자당은 9일 당무회의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확대 대책의 하나로 경찰공제회법과 대한소방공제회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하기로 결정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이 두 법안은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인 경찰공제회와 사단법인인 대한소방공제회를 특별법인으로 바꿔 기금의 확대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검토해오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은 당내 이견이 많아 미루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2면 (1991.10.10.)

대한소방공제회는 1984년 8월 27일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10월 5일 발기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9일 내무부장관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 설립허가를 받고 11월 10일 설립등기를 하였다.

1984년 11월 20일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공제회관 3층에 대한소방공제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3천여명의 회원과, 3억여원을 자산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인수받아 업무를 개시하였고 1990년 9월 5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8-3번지에 소방공제회관을 건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민법상의 사단법인이었던 대한소방공제회는 1984년 설립된 후 꾸준히 성장하여 그 회원이 1만3천명에 이르고 기금은 350억원이 넘는 큰 단체로 발전하였다.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제사업을 통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특별 법인으로 발전시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1991년 11월 30일 「대한소방공제회법」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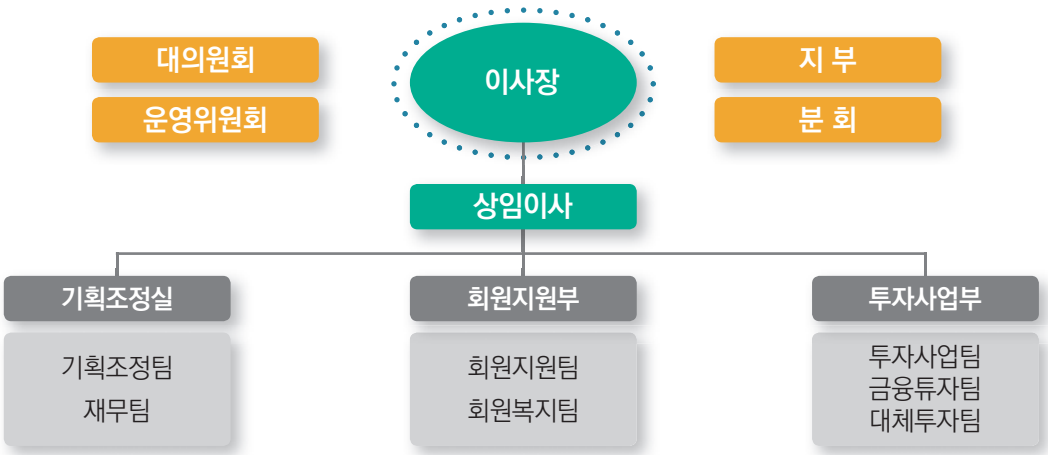
2) 주요업무 및 조직

1991년 법률 제정 당시 대한소방공제회의 주요 업무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기타 수익사업 등이었다. 2001년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대한소방공제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의 권한을 확대하였고 순직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공상 퇴직소방공무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현재 대한소방공제회의 주요업무 중 급여사업에는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퇴직 혹은 탈퇴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필요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여금, 화재·구조·구급 등의 업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가족에게 지원하는 순직급여, 사망급여, 공상급여, 출산급여 등 부조금사업이 있고 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및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회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이 있다.

복지서비스 사업에는 전국의 호텔, 리조트, 콘도 등과 제휴하여 회원 및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여행상품 특별할인 등 레저활동에 대한 이용요금을 우대하고 있다. 치과 및 검진센터와 제휴하여 비용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에크미에듀케이션,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이룸웨딩컨벤션, 전국공무원상조, CGV와 연계하여 회원 및 가족에게 할인권 및 우대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쇼핑몰 및 회원 복지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가족친화, 문화, 여가, 생활보장 등 다양한 컨텐츠와 온라인 최저가몰, 전통시장 및 특산품몰, 휴대폰 등 엄선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Ⅳ-3-1〉 대한소방공제회 조직도



2.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



消防安全協발족
5개團體統廢合
내무부산하단체로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가 28일오
후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개정된 소방법을
근거로해서 설립된 이 협
회는 종전의 위험물안전협
회 소방공사협회 소방협회
주유소협회및 방염협회등 5
개단체를 통합했으며 11개
시도지부에 가입회원수는 10
만명이다。

「동아일보」 7면 (1980.10.29.)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1980년 1월 4일 기존의 내무부 산하 5개 소방단체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7일 허가를 받았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 당시 '소방업자'로 구성된 회원과 100% 회비로만 운영되어 회원권익 중심의 협회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정부의 법정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취지는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통합된 단체는 대한소방협회, 한국위험물안전기술협회, 위험물주유소협회, 한국방염협회, 한국공사협회 등 5개 단체이며 다음과 같다.

〈표Ⅳ-3-1〉 통합된 5개 단체

연번	단 체 명	설립연월일	주 요 기 능
1	사단법인 대한소방협회	1948.09.03.	소방에 관한 연구 및 계몽
2	사단법인 한국위험물안전기술협회	1967.11.05.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지도
3	사단법인 위험물주유소협회	1973.12.28.	석유류 취급의 안전지도
4	사단법인 한국방염협회	1976.07.24.	방염물질의 관리지도
5	사단법인 소방공사협회	임의단체	소방시설의 기술지도

2017년 12월 26일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며,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업체 등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유사명칭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기관 고유의 명칭을 보호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 주요업무 및 조직


殉職소방관 子女에
消防安全協 장학금
한국소방안전협회는 27일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순직
소방관의 유자녀 2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장학금
을 전달했다。

『경향신문』 11면 (1982.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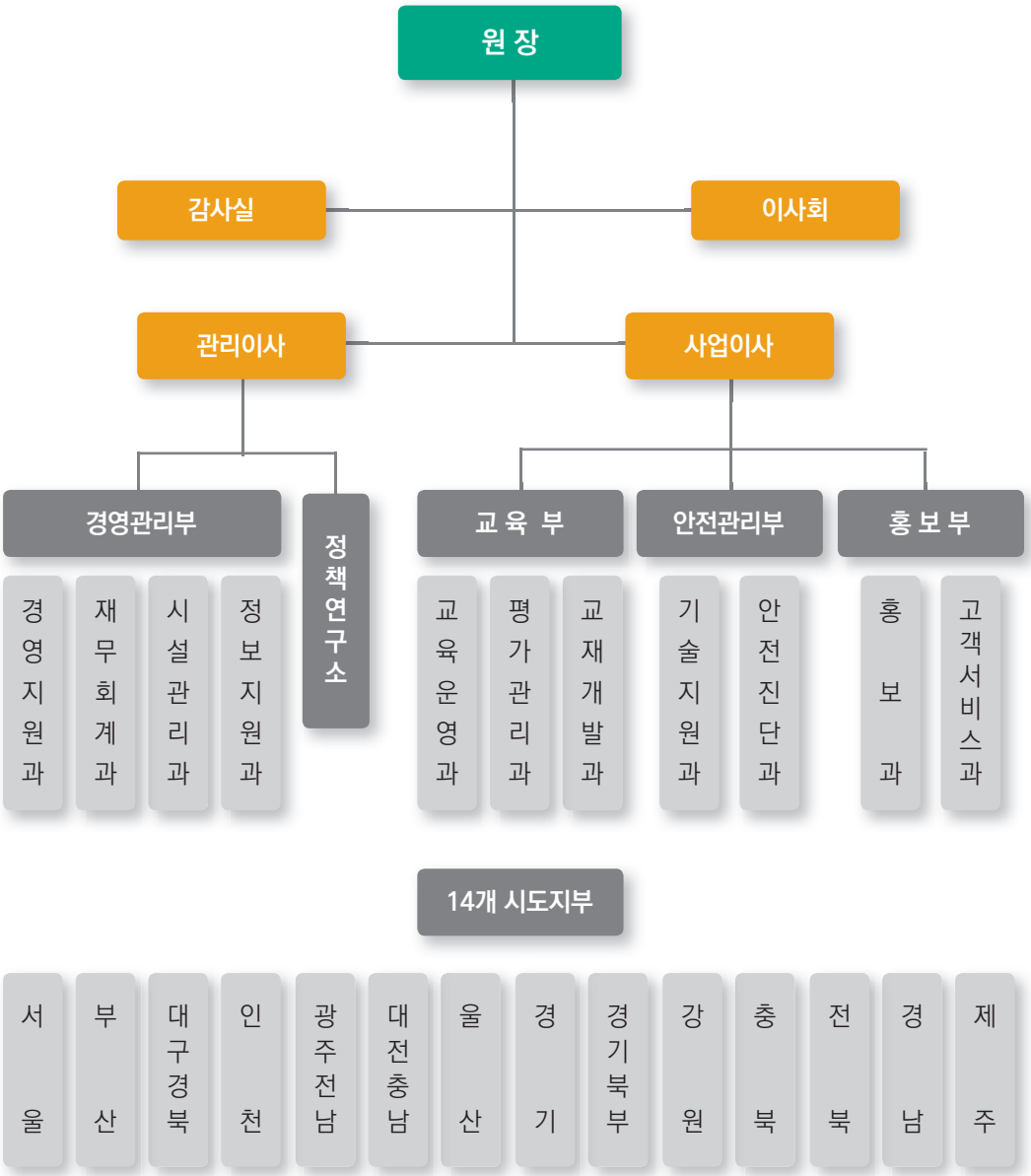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는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가장 주된 업무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는 자격증에 대하여 이론과 실기교육을 국가대리자격으로 실시한다. 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사 및 대리자 자격에 관한 교육이며 교육 수료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소방홍보활동으로는 전국119소방동요경연대회, 대한민국소방과학·기술경연대회, 한국119소년단 캠프 주최, 청소년안전뉴스 경진대회 주최, 안전체험가족캠핑, 소방안전퀴즈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진단 활동으로는 소방시설점검, 화재안전진단,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공시설 진단,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국제교류 및 회원복리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본회와 시·도 지부를 두며 본회의 직제는 상임임원으로 원장, 관리이사, 사업이사를 두고 있다. 본회에는 감사실, 경영관리부, 정책연구소, 교육부, 안전관리부, 홍보부 등을 두고 있으며 본회 각 부서에는 경영지원과, 재무회계과, 시설관리과, 정보지원과, 교육운영과, 평가관리과, 교재개발과, 안전진단과, 안전평가과, 홍보과, 고객서비스 등 11과를 두고 있다. 시·도 지부로는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4개 시·도 지부를 두고 있다.



한국소방안전원 제공서비스

〈그림Ⅳ-3-2〉 한국소방안전원 조직도



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설립경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검정업무를 대행하기 이전인 1972년부터 1977년 7월 31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약 5년에 걸쳐 소방용기계·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1976년 12월 31일 「소방법」 제38조 제2항 단서규정이 개정되어 검정대행법인을 지정하게 되었다. 1977년 3월 23일 검정대행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1977년 6월 1일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협회를 설립하였다. 1977년 7월 28일에는 검정업무대행을 지정받았고 1977년 8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업무를 승계받아 소방용기계·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1979년 7월 1일에는 공인기관의 성격이 내포된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 개칭하였으며 설립 후 14년동안 「민법 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내무부장관의 검정대행법인지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91년 12월 24일 재단법인 체제에서 특수법인 체제로 재발족하였다. 2008년 6월 5일에는 「소방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공포되면서 2008년 12월 6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개원하게 되었다.



消防검정협회 발족

한국소방검정협회(회장 崔
眞桓)가 10일 발족, 서울서
대문구남가좌동76의34에서현
판식을 갖고 이날부터 소방
검정업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소방기구나 소화
약품 방화도료 방화재등에대
한 검정업무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맡아왔었는데 앞
으로는 소방검정협회가 맡아
한다。

『경향신문』 7면 (1977.8.10.)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자동음성응답장치(A·R,S)이용안내

소화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전화 한통화로 자동응답하여 드립니다.
(02)783-1199(대표전화) 수전자식(MFC)전화기로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 동 음 성 서 비 스 일 람 표

『동아일보』 5면 (199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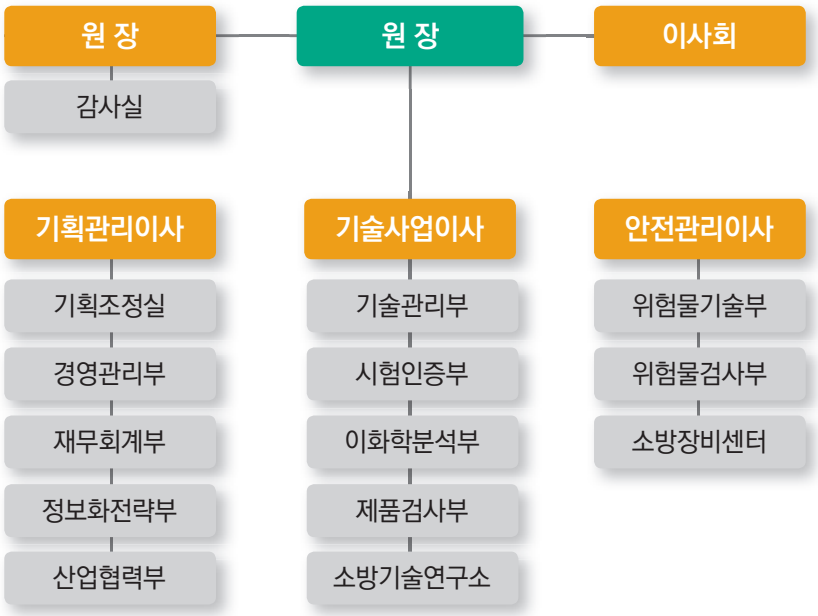
2) 주요업무 및 조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주요업무는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하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과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직제는 상임임원으로는 원장, 감사, 기획관리이사, 기술사업이사, 안전관리이사가 있으며 감사실과 이사회를 두고 있다. 집행부서로는 기획조정실, 경영관리부, 재무회계부, 정보화전략부, 산업협력부, 기술관리부, 시험인증부, 이화학분석부, 제품검사부, 소방기술연구소, 위험물기술부, 위험물검사부, 소방장비센터를 두고 있다.

〈그림Ⅳ-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조직도



자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4. 한국소방시설협회

1) 한국소방공사협회 설립

한국소방공사협회는 1997년 12월 11일 창립총회를 거쳐 임의단체로 발족하였으며 2000년 11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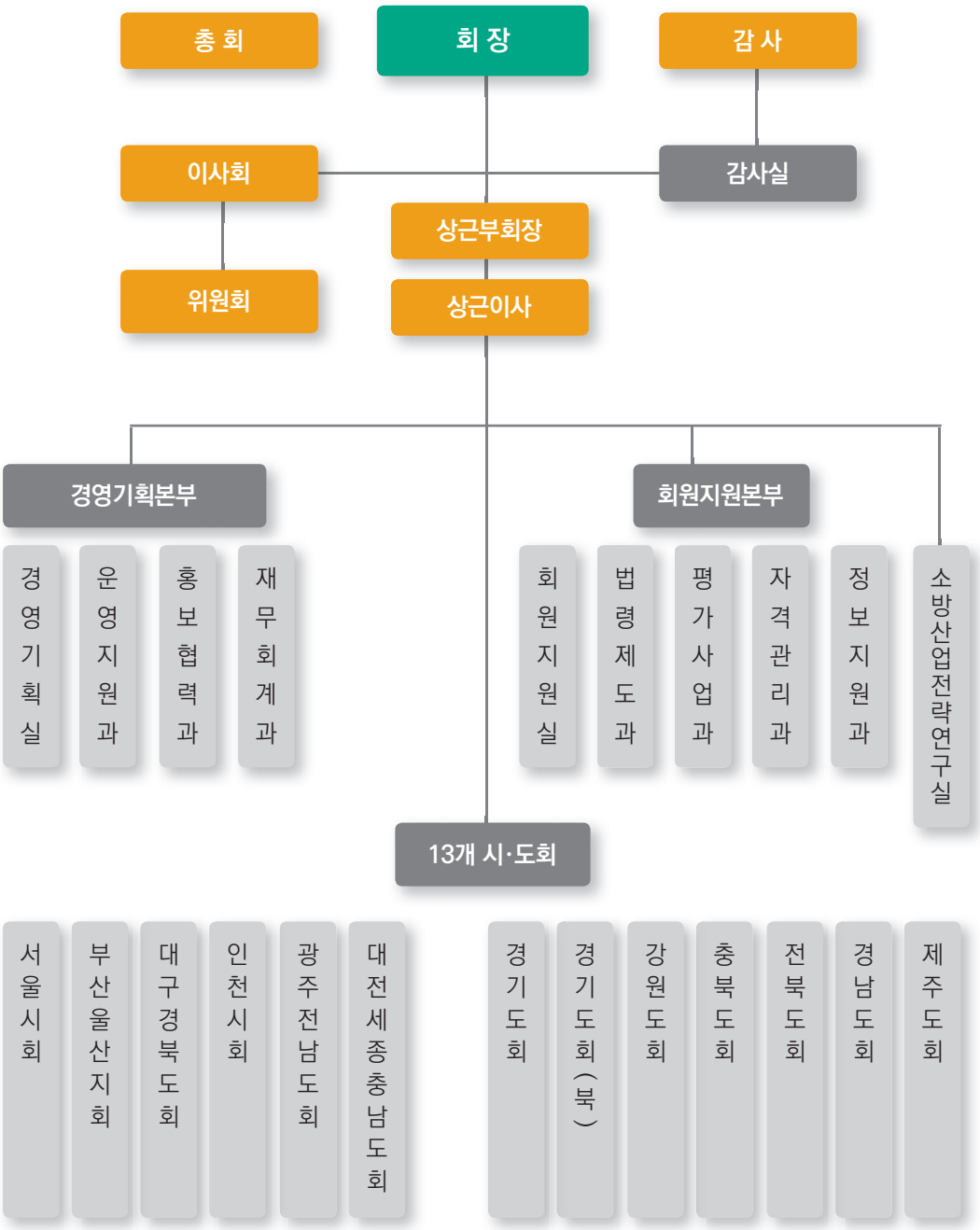
2007년 12월 31일에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 단독수행기관에 선정되었고, 기술자·감리원 경력관리 및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업무 수탁기관에 선정되었고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에 대한 기술자 변경사항 처리 및 자격수첩 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7월 23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소방공사협회는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재창립되었다.

2) 주요업무 및 조직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주요업무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소방기술자·감리원 경력관리업무,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 업무,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접수·확인,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 실적관리 등이며, 정부위탁업무 및 소방시설업 활동지원사업, 회원 봉사 및 정보제공사업, 홍보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협회의 직제는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으로 구분하며, 협회장은 비상근명예직임원이다. 협회의 구성은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가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감사 2명, 부회장 3명, 이사 9명이 비상근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부서는 경영기획본부와 회원지원본부가 있으며, 경영기획본부에는 경영기획실, 운영지원과, 홍보협력과, 재무회계과를 두고, 회원지원본부에는 회원지원실, 법령제도과, 평가사업과, 자격관리과, 정보지원과, 소방산업 전략연구실을 두고 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해 13개 시·도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Ⅳ-3-4〉 한국소방시설협회 조직도



자료 :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

5.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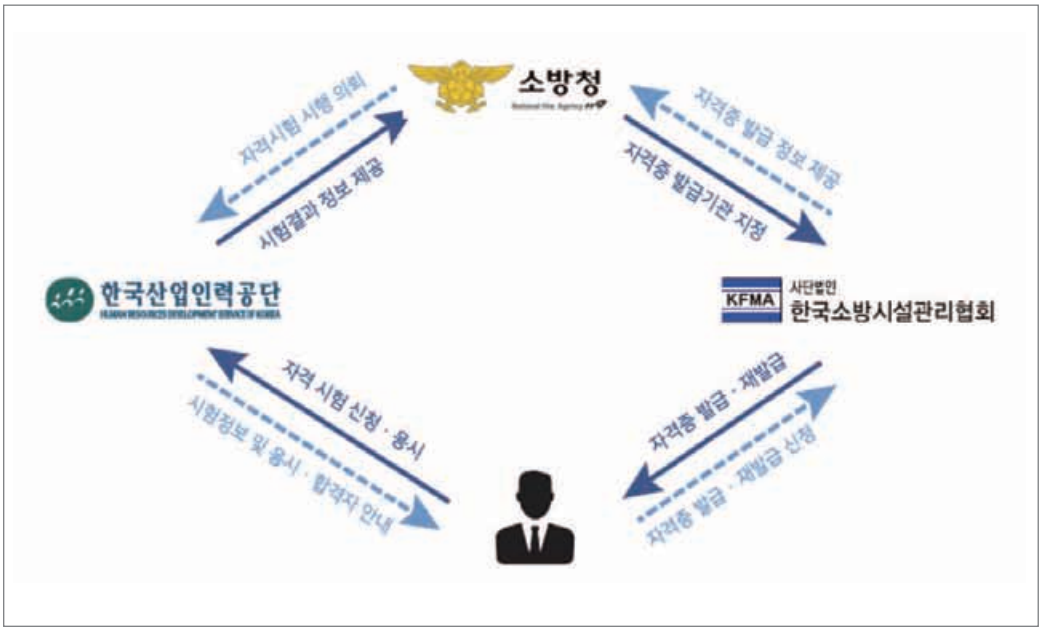
1) 설립 경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소방시설점검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리유지 능력을 향상시켜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1996년 1월 임의단체로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협회를 설립하였고, 2009년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사)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로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사)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에서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2년 3월에는 소방방재청 소방시설관리업(위탁)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점검능력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업무를 실시하였다.

2015년 5월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고, 2016년 6월에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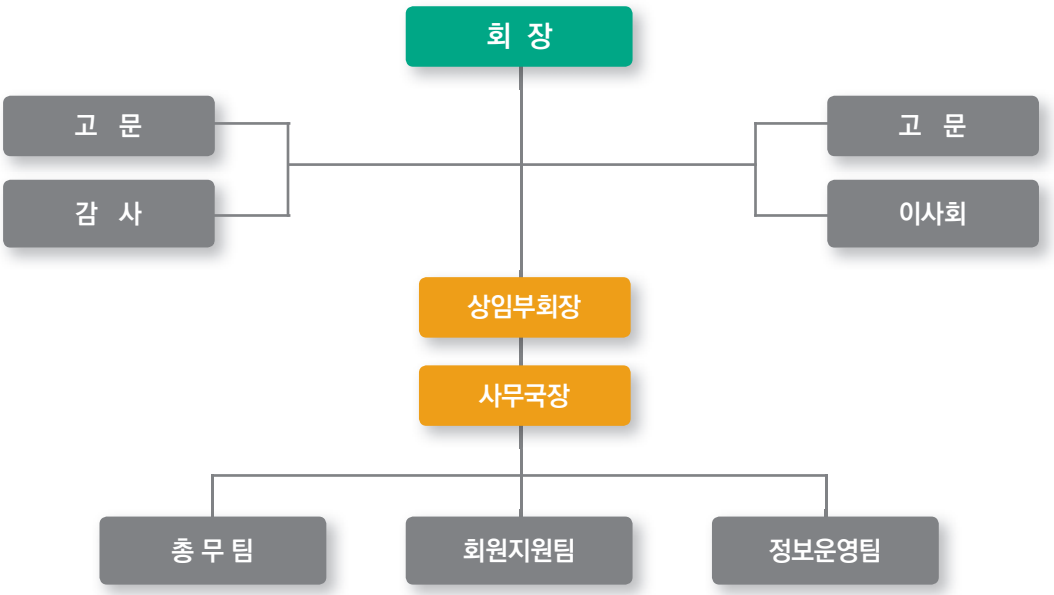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발급절차

2) 주요업무 및 조직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주요업무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 점검능력평가 실적증명서 및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발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점검수수료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 증명서 진위확인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협회에는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을 포함한 부회장 5명 이내, 지회장 9명을 포함한 이사 30명 이내, 감사 2명을 두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직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Ⅳ-3-5〉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조직도



자료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www.kfma.kr).

강원소방

100년사

제5편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소방



Contents

제5편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소방

제1장 올림픽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
제1절 우리나라의 올림픽 역사 ····· 100
제2절 동계올림픽을 향한 열정 ····· 104

제2장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의의
제1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 112
제2절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 115

제3장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안전대책
제1절 대테러·안전환경 분석 ····· 118
제2절 경호·대테러 안전대책 추진 ····· 122
제3절 소방안전기획단 구성·운영 ····· 132
제4절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134

제4장 (예방) 올림픽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제1절 대회관련시설 현지 확인 ····· 142
제2절 화재안전대책 및 소방특별조사 ····· 148
제3절 대테러 합동안전검측 ····· 155

제5장 (대비) 소방인프라 구축 및 대응능력 향상
제1절 올림픽 유치 이후 소방환경의 변화 ····· 160
제2절 강원도 소방상황관제센터 ····· 166
제3절 올림픽 주요시설 소방훈련 ····· 171
제4절 대응매뉴얼 제작 ····· 175
제5절 헬기격납고 구축 및 119출정식 ····· 178

제6장 (대응) 완벽한 현장대응활동
제1절 테스트이벤트 및 소방안전대책 ····· 182
제2절 성화봉송 소방안전대책 ····· 188
제3절 개·폐회식 소방안전대책 ····· 195
제4절 소방안전대책 및 서포터즈 활동 ····· 208
제5절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주요성과 ····· 215

강원소방 100년사

강원소방 100년사

제 1 장

올림픽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

제1절 우리나라의 올림픽 역사

한국인이 처음 참가한 올림픽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이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손기정 선수가 세계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남승룡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영광을 안았지만 일본 국적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해야 했던 아픈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한국은 정부수립 전인 1946년 조선올림픽위원회(KOC, 현 대한체육회)를 설립하였고 1947년 6월 20일 제40차 IOC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뒤 1948년 제5회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해 동계올림픽과의 각별한 인연을 맺으며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를 시작하였다.

1. 올림픽 출전

1) 하계올림픽대회

1948년 7월 29일 제14회 런던올림픽에는 육상과 농구 등 7개 종목에 68명이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했다. 출전 선수 모두가 30세가 넘는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싱과 역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 전화에 휩싸여 있었던 1952년 제15회 헬싱키올림픽에 5개 종목 14명의 선수를 참가시키며, 참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올림픽 정신을 실천한 바 있다.

한국은 짧은 올림픽 출전 경험에도 불구하고,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첫 금메달을 조국의 품에 안기며 올림픽 출전사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한국 국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당시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은 이후 한국이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한국의 많은 올림픽 꿈나무들이 제2의 양정모를 꿈꾸며 올림픽 도전을 위해 땀을 흘렸고, 그 꿈나무들이 올림픽에 나가 선전을 거듭하며 한국은 스포츠 불모지에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84년 제23회 LA올림픽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회로 기억되었다. 유도와 복싱, 레슬링, 양궁에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140개 참가국 중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다음 올림픽인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며, 160개 참가국 중 종합순위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둬 세계를 놀라게 했다.



LA올림픽 출전선수단 결단식(1984)(출처:e영상역사관)



LA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여자 농구팀(1984)

2) 동계올림픽대회

1988서울올림픽 개최로 큰 성과를 거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아시아가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1988년 캘거리동계올림픽까지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한국의 경기력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은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다.

한국 동계올림픽 역사를 새롭게 쓴 대회는 1992년 제16회 알베르빌동계올림픽이다. 동계올림픽 첫 메달(은메달)의 주인공은 스피드 스케이팅의 김윤만 선수,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쇼트트랙 1,000m에 출전한 김기훈 선수였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무관의 설움을 딛고 세계 10위에 올라섰다.

이후 2010년 캐나다에서 열린 벤쿠버올림픽에서는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며 새로운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동계올림픽 선전은 2014년 제22회 소치동계올림픽까지 이어져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모두 8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199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이 동계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은 모두 45개(금 23개, 은 14개, 동 8개)로 이런 뛰어난 성적은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졌다. 올림픽에서 강세를 보인 쇼트트랙에서 시작된 대중의 관심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사상 최초로 4대 국제 대회(동계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륙선수권, 그랑프리파이널)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김연아 선수로 인해 피겨 스케이팅으로 이어졌으며, 이상화, 모태범, 이승훈 선수 등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금메달 획득으로 그 폭을 넓혀나갔다.

이런 대중의 관심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계기로 스키점프나 봅슬레이 등 동계올림픽 전 종목으로 확산되며, 동계스포츠 발전 토대를 단단히 다져왔다.



제16회 알베르빌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식(1992)



제22회 소치동계올림픽대회 선수단 해단식(2014)

2.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

1)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

꾸준한 참가로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며 스포츠를 국력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왔던 한국은 참가의 역사를 넘어 올림픽 유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한국이 제24회 하계올림픽의 서울 유치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78년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직후였다. 당시 한국은 어려운 경제 사정, 긴박한 정치 상황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올림픽 유치를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모아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유치 활동에 뛰어들었다.

서울은 일본의 나고야와 함께 올림픽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됐고, 서울을 방문한 IOC 실사단에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룩한 한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확인시킨 뒤 열세를 뒤집고 84회



88서울올림픽 개최지 선정 발표(1981.9.30.)



88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올림픽기(서울시청)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나고야를 52대 27의 압도적 표차로 이기며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투표가 끝난 뒤 당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IOC가 제24회 올림픽 개최지로 한국의 수도 서울을 택한 것은 올림픽 정신의 승리"라고 선언하며 이른바 '바덴바덴의 기적'을 축하했다.

2) 88서울올림픽의 의미

1988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대회였다. 1988년 9월 17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전 세계 160개국에서 1만 3,304명의 선수와 임원단이 참가하여 규모 면에서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동서냉전으로 양분되어 있던 세계를 올림픽을 통해 하나로 묶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참가해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대회가 되었으며, 전 대회에 불참했던 동독과 서독이 동시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88서울올림픽은 이렇듯 스포츠를 통해 실질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상징성을 획득한 대회였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켜 한국의 위상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88서울올림픽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88서울올림픽을 치른 뒤인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작용했다.

한편 서울이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고 2개월 후인 1981년 11월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AGF) 총회에서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의 서울 개최가 결정되면서 한국은 2년 사이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가 되었다.



88서울올림픽 개막식(1988.9.17.)


88서울올림픽 폐회식(1988.10.2.)

제2절 동계올림픽을 향한 열정

1. 동계올림픽과 두 번의 눈물

1) 2010 동계올림픽

한국은 이미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개최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역량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한국은 동계올림픽 유치로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되길 원했고, 특히 국제적 동계스포츠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던 강원도가 적극적 의사를 보였다. 강원도는 지형·기온·적설량·설질에서 동계스포츠를 꽃피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환동해권과 대북교역로의 중심지로 미래 통일한국의 최일선에 위치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1999년 2월 5일 열린 1999동계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였다. 이후 국제스포츠지원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 필요한 실무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제18회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나가노를 비롯하여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와 후보도시를 방문하여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이어갔다. 그 결과 "용평의 자연적 조건과 투자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개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2000년 12월 12일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이 전개되었다.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아시아의 변방 평창의 동계올림픽을 향한 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후 전라북도의 무주와 함께 치열한 국내 경쟁을 펼친 평창은 2010동계올림픽 국내 단독 후보도시로 결정되었고, 2002년 1월 29일 개최된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10동계올림픽대회 유치 계획'이 정식 승인됨에 따라, KOC는 「올림픽헌장」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31일에 2010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IOC에 공식 제출하였다. IOC에 대회 개최를 신청한 도시는 평창을 비롯해 사라예보·하카·잘츠부르크·밴쿠버·하얼빈·베른·안도라 등 8개 도시였다. 치열한 경쟁 끝에 잘츠부르크, 밴쿠버와 함께 최종 후보도시에 선정되며 한 고비를 넘긴 평창은 IOC의 현지실사를 거쳐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15차 IOC 총회에서 밴쿠버를 상대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평창은 1차 투표에서 51대 40으로 앞서며 선전했으나 결선 2차 투표에서 53대 56으로 역전을 당하면서, 단 3표 차로 밴쿠버에게 2010년 개최의 영광을 내주어야 했다.

비록 첫 번째 도전이 아쉬운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평창의 선전은 국제 스포츠계에 평창이라는 이름과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던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다.



2010동계올림픽 주 개최지 선정 플래카드(2002)



2010동계올림픽 유치염원 서명벨트(원주소방서, 2003)

2) 2014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평창과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도전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지면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다. 2010년 대회 유치 도전의 소중한 경험은 평창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도전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작용했다.

평창은 1차 도전으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겨뤄 당당히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된 후 IOC로부터 '올림픽을 훌륭히 치를 수 있는 도시'로 공인받았으며, 비록 3표차로 석패하긴 했지만 IOC와 국제 스포츠계는 물론 세계 유수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수확을 올렸다. 평창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유치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2014동계올림픽 개최 후보도시 중 가장 유력하고 강력한 도시로 떠올랐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지난 2010년 대회 유치 과정에서 제의한 독창적인 명분과 비전,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의 청소년을 초청하는 드림프로그램 실시, 남북 간 체육 교류, 동계 종목 국제 대회 유치, 세계적 수준의 동계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감으로써 매우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했으며, 세계 스포츠계와도 굳건한 신뢰를 다져나갔다.

2010년 대회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국내 후보도시 경쟁 끝에 다시 한 번 도전의 기회를 얻은 평창은 '선수중심, 경기중심'의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동계스포츠를 확산시키며, 올림픽 정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수

립, 'New Dreams@PyeongChang'을 모토로 2005년 7월 21일 IOC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며 두 번째 도전의 여정을 시작했다.

유치위원회는 2010년 경험을 바탕으로 2010 조사평가 결과, IOC의 권고 사항, 역대도시 및 경쟁도시 사례, 국내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IOC의 현지실사에 대비하였다. 특히 평창은 본선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 9월 마련한 '경기장 집중화 계획'에 따라 모든 경기장 시설을 평창을 중심으로 30분 이내에 배치하는 등 신청도시 단계와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했다. 이에 따라 평창에 인접한 원주시와 횡성군이 개최도시에서 제외되었으나, 두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에 따라 보다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으로 IOC의 실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

2007년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실시된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결과, "전체적으로 2010보다 발전된 계획과 시스템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등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 개최지 결정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그러나 평창은 2007년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제119차 IOC 총회에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47대 51로 소치에 패배해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다. 높은 기대만큼 큰 실망감을 안겨준 두 번째 도전이었다.



2014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 선정 발표 행사(2006)



2014동계올림픽 유치염원(정선소방서, 2006)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오열하는 도민들(2007)


2014동계올림픽 유치실패 현수막(2007)

2. 세 번째 도전 평창의 꿈

1) 올림픽을 향한 세 번째 도전

2010년 대회 개최를 향한 평창의 첫 도전은 국제무대의 예상을 깬 '불모지의 반란'이었다. IOC와 세계 언론은 "진정한 승리자는 평창"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 개최 도전 역시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유치 신청서 및 IOC 현지실사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훌륭한 프레젠테이션과 효율적 유치 활동이란 평가를 받았다. 실패 속에서 얻은 이 같은 값진 성과는 올림픽을 향한 세 번째 도전의 열정으로 이어졌다. 올림픽의 꿈을 놓을 수 없었던 평창은 당시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2007년 9월 3일 세 번째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다시 올림픽 유치의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평창이 세 번째 도전을 시도할 수 있었던 데는 국제 관계 역학상 평창의 차기 개최지 선정 전망이 밝다는 점과 그동안 인프라 확충, 드림 프로그램 운영 등 IOC와 약속했던 사항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국제적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도전에서 얻은 경험이 2018년 대회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2010년과 2014년 대회 유치 도전에 이어 2018년 대회 유치 과정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

평창은 2009년 4월 KOC 위원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되었고, 세 번째 도전에서는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지난 도전의 경험과 지혜를 밑거름으로 또다시 동계올림픽 개최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러한 평창의 중단 없는 노력은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는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맞물려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 지지로 이어졌다.

KOC가 2009년 9월 24일 IOC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공식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경쟁도시에 비해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평창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세 번째 유치전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개최된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한국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유치 분위기는 반등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평창은 2010년과 2014년보다 더욱 콤팩트해진 경기장 콘셉트를 바탕으로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의미인 'New Horizons'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IOC 위원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나가면서 유치 가능성을 높여갔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평창 현지실사와 로잔 테크니컬 브리핑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평

창은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123차 IOC 총회에서 결전의 순간을 맞이했다. 평창은 1차 투표 결과, 63표를 얻어 25표를 얻은 뮌헨과 7표 득표에 그친 안시를 압도적 표차로 이기고, 드디어 세 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열망을 성취할 수 있었다.

2)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발표(2011)

평창이 세 번의 눈물겨운 도전 끝에 비로소 승리의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건 올림픽 정신을 존중해온 한국인의 오랜 열정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쌓아온 국제 스포츠계와의 신뢰, 온 국민의 하나된 성원과 지지가 이끌어낸 종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평창은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비롯한 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드림 프로그램 추진 등 IOC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리고 이런 점을 IOC 위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득했고 이를 세계가 인정하면서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또한 '올림픽은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세계 어느 대륙이나 어느 나라에도 고루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평창의 개최 논리와 주장도 IOC를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다.

평창은 비록 작은 도시지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유치위원회, 강원도, 개최지 시군, KOC, 대한장애인체육회(KPC), 재계 등 각계각층의 전방위적 지지와 지원이라는 응원 속에서 개최지의 영광을 누리게 됐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92%에 달하는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유치 열망은 세 번째 도전에서 경쟁도시를 압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동계스포츠 저변 확산을 위한 노력, 2010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의 한국선수단의 쾌거를 아시아 대륙의 동계스포츠 확산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이해시킨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관광·휴양 패턴의 변화에 따른 명품 리조트 건설 필요성과 동계올림픽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알펜시아리조트를 선제적으로 조성한 것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창의 세 번에 걸친 동계올림픽 유치 역사는 도전 정신의 승리였고, 아시아의 변방이 세계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한국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라는 4대 세계 스포츠대회 개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다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특히 하계올림픽인 서울올림픽에 이어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 올림픽 개최의 완성'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확정(2011)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보고회(2011)

강원소방 100년사

제2장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의의

제1절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1. 동계올림픽의 유래 및 발전과정

1) 동계올림픽의 유래

동계올림픽대회가 생기기 전 동계스포츠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 1908년 제4회 런던올림픽 때 겨울철 경기 중의 하나인 피겨스케이팅이 하계올림픽에 처음 포함되었다. 1912년 제5회 스톡홀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동계대회를 따로 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북유럽국가에서는 당시 겨울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IOC가 주도하는 동계올림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동계올림픽 개최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선 가운데 1916년 제6회 베를린올림픽에서 피겨와 스피드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노르딕 스키를 경기종목에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회는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열리지 못했다.

1920년 제7회 안트베르펜올림픽대회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제5회 스톡홀름대회에서 제외되었던 피겨스케이팅이 추가되었다.

1921년 IOC는 1924년 하계올림픽대회 개최지를 프랑스 파리로 결정하면서 올림픽과는 별도로 국제겨울 스포츠주간(International Winter Soprts Week)을 가졌고, 1926년 제25회 리스본 IOC총회에서 1924년 샤모니 '국제겨울스포츠주간' 행사를 '제1회 동계올림픽'으로 명명했다.

2) 동계올림픽의 발전과정

1924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린 샤모니 '국제겨울스포츠주간' 행사 개최 이후 1925년 5월 27일 제24차 프라하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을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1986년 제91회 로잔 IOC 총회에서는 같은 해에 열리는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의 개최시기를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1994년 제17회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부터 하계올림픽과 2년의 차이를 두고 별도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4년 제17회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4, 은메달 1, 동메달 1을 획득하여 종합순위 6위에 올랐으며, 2010년 제21회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금메달 6, 은메달 6, 동메달 2개를 획득하여 종합순위 5위에 올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올림픽 유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2018년 2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림 Ⅴ-2-1〉 동계올림픽 발전과정



2. 평창동계올림픽의 핵심목표 및 상징

1) 핵심목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경제올림픽, ICT올림픽 등 5가지 핵심목표를 설정하여 올림픽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가 공감하는 고품격 문화올림픽을 추진하였고, 우리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된 독창적 개·폐회식 연출로 전 세계인의 극찬을 받았으며, 모두의 참여로 "하나 된 열정"을 보여준 성화봉송으로 올림픽 붐업에 일조를 하였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그린올림픽을 통한 환경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였으며, IS 등 국제 테러조직의 준동으로 테러위험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소방, 경찰, 군(軍)등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 대회안전 추진체계의 구축으로 '안전에 대한 이슈가 없던 게 문제였던 대회'라는 국제사회의 칭송을 들었으며, 특히 북한 핵개발로 인한 극도로 불안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대회 분위기의 극적인 반전은 물론 스포츠를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는 올림픽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균형적인 재정 구현과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대회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이루어냈으며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적자 올림픽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 내고 흑자 올림픽을 구현하였다. 또한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민국의 최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ICT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 할 수 있었다.



2) 평창동계올림픽의 상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슬로건은 'Passion Connected'(하나된 열정)이며 모두가 하나 된 열정으로 동계 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계스포츠의 지속적인 확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슬로건 단어의 첫 글자 P와 C는 PyeongChang의 두문자이기도 하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엠블럼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평창에서 벌어지는 눈(설상)과 얼음(빙상), 동계 스포츠 스타(선수)와 지구촌 사람들의 어울림, 모두에게 열려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ㅍ'에는 동양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에 바탕을 둔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사람들이 한데 어울린 열린 광장의 의미가 담겼다. 눈 결정이나 별처럼 보이는 'ㅊ'에는 눈과 얼음, 동계스포츠 스타를 형상화했으며 동시에 동계 스포츠의 허브가 되겠다는 의지도 표현했다.

수호랑(Soohorang)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공식 마스코트이다. 수호랑은 우리나라의 수호동물인 백호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선수, 참가자, 관중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수호'와, 호랑이와 정선아리랑을 상징하는 '랑'을 담고 있다.

<table>
<tr><td>슬로건</td><td colspan="2">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td></tr>
<tr><td colspan="2">엠블럼 및 마스코트</td><td></td></tr>
<tr><td>엠블럼</td><td colspan="2">마스코트</td></tr>
<tr><td>PyeongChang 2018</td><td colspan="2"> 
〈수호랑(soohorang)〉</td></tr>
</table>

제2절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1. 패럴림픽대회의 발전과정 및 어원

1) 패럴림픽대회의 발전과정

패럴림픽 대회는 스토크 맨드빌(Stoke Mandeville) 병원의 구트만(Ludwig Gutmann)박사가 1948년 척수 장애 체육대회를 제창하여 영국국내대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었고, 이후 1952년부터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지역의 국제 대회로 확대 발전되어 마침내 국제스토크 맨드빌 경기 연맹(ISMGF)이라는 스포츠 기구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장애 유형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위해 '절단 및 기타 장애인을 위한 국제 장애인 경기 연맹(ISOD), 국제 뇌성마비인 경기대회(CP-ISRA), 국제 시각 장애인 경기 연맹(IBSA)'이 각각 설립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장애인 국제 스포츠 기구의 조정을 위해 국제 장애인 올림픽위원회(IPC)의 전신인 세계 장애인 스포츠기구 국제 조정위원회(ICC)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여러 장애 유형의 국제기구를 총괄하였던 ICC는 관리능력과 재정부족 등의 문제로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대회 종료 후 장애인 스포츠 관리 및 조정 역할의 발전을 위해, 국제 장애인 스포츠기구인 국제 장애인 올림픽위원회(IPC)를 설립, 동·하계패럴림픽대회 및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등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지난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대회 기간 동안 IOC와 IPC간의 협약에 의해, '하나의 도시, 하나의 신청(One Bid, One City)'전략에 따라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는 반드시 장애인 올림픽도 유치해야 한다는 패럴림픽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생성되었다.

2) 패럴림픽대회의 어원

장애인 올림픽 즉 패럴림픽(Paralympics)이란 말은 하반신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의 접두어 'Para'와 'Olympics'의 어미 'lympics'를 조합한 합성어로 이는 지난 '64동경 패럴림픽대회 당시 주최 측의 해석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 후 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대회가 거듭 개최되면서 참가 선수의 폭이 넓어졌고, 척수장애 이외에 시각장애,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 장애인 등 전반적인 장애인을 포괄하게 되자, 세계 장애인 스포츠기구 국제 조정위원회(ICC)에서는 Para를 '부수적인'의 뜻으로 공식적으로 정의하여, 올림픽과 나란히 개최되는 의미로 보았고, 국제 장애인 올림픽위원회(IPC)는 이를 통해 'paralysis'(마비)나 'paraplegia'(하반신 마비)의 원래 어원에서 벗어나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행(Parallel)하게 올림픽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12)]

12) 김준식, 2014,『예비체육교사의 패럴림픽에 대한 이해도 비교 연구』.

2. 2018평창동계패럴림대회 의의 및 상징

1)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의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준비단계에서부터 패럴림픽 대회를 위한 시설설계 및 개·보수 계획까지 사전에 구상하였다. 경기장은 별도 추가시설 없이 올림픽과 동일한 시설 사용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IPC기준과 법령을 준수하고 전체 관람석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유지, 경사로 및 승강기 설치 등 접근성 국제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는 등 경기장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Same Worker, Two Games' 원칙 아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균형감 있게 준비하였고, '2018평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세상 구현'을 대회 개최 비전으로 세웠다.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추진 목표로서 패럴림픽을 통하여 장애인스포츠 발전과 함께 장애에 대한 인식제고를 역점 추진목표를 두고 대회를 개최하였다.

2)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상징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의 슬로건은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슬로건과 같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의 엠블럼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엠블럼과 연계되어, 인종과 지역, 장애를 뛰어넘는 평화와 희망의 세상을 표현하였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의 공식 마스코트인 반다비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동물인 반달가슴곰을 형상화한 것이다. 반달가슴곰의 '반달'과 대회를 기념한다는 뜻의 '비(碑)'를 합쳐 만들었다.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졌으며 패럴림픽 선수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응원하는 따뜻한 성격을 지닌 캐릭터이다.

슬로건	Passion. Connected. 하나된 열정!
엠블럼 및 마스코트	
엠블럼	마스코트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 반다비(Bandabi) 〉

강원소방 100년사

제3장

평창동계올림픽 안전대책

제1절 대테러·안전환경 분석

1. 동계올림픽을 향한 노력과 결실

1) 한반도의 정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년 전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절대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팽창적 대외정책, 유럽의 분열 등으로 요동쳤으며 그 한가운데에는 북한이 있었다. 북한은 2017년 2월 12일 북극성-2형 발사를 시작으로 미사일 도발만 17차례 강행하였고, 9월 3일에는 히로시마 투하 핵폭탄 위력의 17배 규모의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로 세계의 안보지형을 흔들었고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등 한반도의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다.

또한 국제테러단체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위협하고 있고 IS는 파리 테러 직후 트위터에 '다음 목표는 브라질'이라고 공개협박을 하였으며 리우올림픽 기간 중에는 화학테러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이라며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였고 우리국민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테러를 선동하는 등 위협요인으로 존재해왔다.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대한 또 다른 취약요소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냉전의 상징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이고 더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에서 불과 80km 떨어진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번 올림픽이 혹한기에 개최되는 것은 물론 산악·해양지역에서 개최되어 적의 침투 및 은신이 용이하고, 일부 올림픽 종목은 미·유럽 TV 시청시간인 야간·심야시간에 개최되어 테러로 인한 안전에 취약요소로 작용했다. 그리고 관람객 및 응원단을 가장한 불순분자의 국내잠입, 불법취업, 난민신청 등과 폭설·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외부 오버레이(임시가설물) 시설도 취약요인으로 지목되었다.

2) 평화올림픽을 위한 노력과 결실

불안한 한반도 정세는 고스란히 국내정세로 반영되어 올림픽 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불안한 이때에 세계가 하나되어 평창올림픽을 보란 듯이 성공시키면 안보불안을 씻어내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바흐 위원장도 “북한이 예선전에 잘 참여하고 있고 예선전을 통과하면 당연히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결과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나타났다. 그는 “북한 선수단 파견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한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3일 IOC에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요청한 후 6개월여 만에 북한이 참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북한 선수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관계가 봄눈 녹듯 녹아내렸다.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한순간 국내의 올림픽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북한의 전격적인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함께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올림픽 문화행사에 북한 예술단 공연을 위한 이어지는 후속회담은 가히 올림픽 로드에 흥행 강풍을 불어넣고 있었다.

단순히 긴장완화 차원을 넘어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이유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국내의 냉소적인 일부 여론에 대하여 확실한 반향을 불러일으킴은 물론이거니와 올림픽 상업화에 대한 거센 여론의 질책을 맞고 있던 IOC에 스포츠를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올림픽 정신의 실천적인 사례라는 홍보용 선물을 안겨 주었다.

대테러·안전위협요소 해소와 평화올림픽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었으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따른 회담이 진행되었고 북한예술단 파견,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북한예술단 공연(강릉아트센터, 2018)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입장(2018)

〈표Ⅴ-3-1〉 평화올림픽을 위한 노력

○ 페루 IOC 총회(2017.9.13.), IOC위원장 개막 연설
*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음

○ ANOC 총회(2017.11.2.~3. 체코 프라하),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기조연설
* 평창동계올림픽을 선수와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 것
* (ANOC) IOC에 가맹한 각국 올림픽위원회(NOC) 연합기구로 206개국 가입

○ 평창올림픽 휴전결의 채택(2017.11.14, UN)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
* 제72차 유엔총회에서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합의 · 채택

○ 문재인대통령(올림픽홍보대사)의 평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노력
- 세계태권도대회 축사(2017.6. 북한선수단 참여는 올림픽 가치실현에 크게 기여)
- 한반도 평화 구상 발표(2017.7.6. 베를린)
- 광복절 축사(2017.8.15.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 북한의 올림픽 참가
- 남북고위급회담(2018.1.9)
-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2018.1.15)
- 북한의 올림픽참가 합의(2018.1.20)
* 5개 종목 46명 선수단 참가(선수22, 임원24)
* 남북한 선수단 개회식 공동입장(올림픽역사상 4번째)
*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올림픽역사상 최초)

2. 정부의 안전활동 대폭 강화

정부에서는 「안전대회 추진지침」을 마련해 국가차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준비를 기하였으며, 조직위·정부·강원도의 유기적 협조 및 역할분담으로 안전한 대회 개최를 추진 방침으로 정하고 국제공조강화와 상황별 대테러 안전훈련 실시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2017년 8월에는 정부안전기관 합동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였고 기관별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테러·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별 초동 대응 및 종합대책반을 가동하였다.

2017년 10월 26일에는 안전활동을 대폭 강화하였고 국제공조 및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대테러 · 안전대책본부·소방·군·경)가 합동으로 참가국 주요인사(국가올림픽위원회(NOC), 주한공관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안브리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베뉴별 현장안전통제실 합동근무를 실시하였고,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상황별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참가국 및 해외 주요 후원사 안전담당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였다.



국제방송센터(IBC) 긴급구조훈련(2017.6.28.)



2018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테러종합훈련 (2017.12.12.)

쉬어가는 코너

2016년 6월 국민안전처는 시·도별로 다른 소방 캐릭터의 통합을 위한 제작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작업을 거쳐 캐릭터 방향을 설정하고 명칭공모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영웅이를 탄생시켰으며 영웅이는 피규어, 열쇠고리, 홍보물품, 조립소방차, 포토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피규어



열쇠고리



홍보물품



조립소방차

이 미 지	명 칭		의 미
	여	남	■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영웅(Hero)을 의미 ■ 통합 캐릭터의 명칭은 '영웅이'로 하고 여 캐릭터는 '영이', 남 캐릭터는 '웅이'로 표현
	영이	웅이	



제2절 경호·대테러 안전대책 추진

1. 안전대책 사전준비

1) 단계별 대테러 소방안전대책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대테러 소방안전대책은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2017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강원도소방본부 소방안전기획단, 강원도 안전총괄과, 1군사령부, 강원지방경찰청, 원주지방환경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강원지역 테러대책협의회 T/F팀을 운영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2017년 8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고 주요 소방대상물 중점관리를 통한 사전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대회 주요시설의 안전매뉴얼 제작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2017년 12월 「대테러·안전활동 종합대책」확정하였고 소방지휘본부(CP) 운영 및 대회주요시설에 119구조구급대 및 항공대를 근접 배치하였으며,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화재·구조·구급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강릉, 평창, 정선에 다목적구조차 3대를 배치하였다.

2) 경호안전대책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따른 주요 외빈들의 경호안전대책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구성되었고, 통제단에 경호작전본부, 소방작전본부, 대테러본부, 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를 포함하는 경호안전기획조정실을 두고 경호안전활동을 실시하였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도 경호안전통제단에 소방령 1명과 경호상황실에 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 1명을 파견하여 경호안전활동을 지원하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동안 31개국 3기구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급 외빈들이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하였고 16개국 정상급 외빈은 개막식에도 참석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무드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Ⅴ-3-2〉 올림픽 주요 외빈 참석현황

구 분	국가별	비고
국왕 (Soverign)	스웨덴,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델란드, 덴마크(황태자), 카타르, 노르웨이(황태자)	9개국
국가수반 대통령 (Head of State)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조지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18개국
정부수반·총리 (Head of Goverment)	네델란드,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이탈리아, 미국(2), 일본,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16개국
국제기구	IOC위원장(독일), IPC위원장(캐나다), UN사무총장	3기구

〈그림Ⅴ-3-1〉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주요 행사장은 올림픽개최 주요도시인 평창에 4개소, 강릉에 4개소였으며, 강원도소방본부는 주요 행사장에 대한 경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화재·구조·구급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현장대응역량 제고와 대회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 확립하였다. 또한 현장에 안전요원 및 소방력 근접배치로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였다.

〈표Ⅴ-3-3〉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주요행사장 현황

시설명	전 경	일반현황
트룬클럽 하우스		○ 위　치 :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건축규모 · 연 면 적 : 3,483.66㎡ / 지하1층, 지상2층 · 완　공 : 2009년 7월 · 주 용 도 : 운동시설, 식당, 사우나실 등
진부(오대산)역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20 ○ 건축규모 · 연 면 적 : 2.832.46㎡ / 지상2층 · 완　공 : 2017년 12월 · 수용인원 : 700여명 · 주 용 도 : 매표소, 대기실 등
켄싱턴 플로라호텔		○ 위　치 : 평창군 진부면 진고개로 231 ○ 건축규모 · 연 면 적 : 32,837.04㎡ / 지하1층, 지상15층 · 완　공 : 1996년 12월 · 수용인원 : 1,200여명(306실) · 주 용 도 : 사우나, 기계실, 연회장, 객실 등
블리스 힐스테이		○ 위　치 :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 건축규모 · 연 면 적 : 16,106㎡ / 지하1층, 지상3층 · 완　공 : 2017년 12월 · 수용인원 : 1,600여명 · 주 용 도 : 공연장, 전시실 등
강릉 아트센터		○ 위　치 : 강릉시 용지로 176 ○ 건축규모 · 연 면 적 : (역사) 6,083㎡, (현업시설) 1,806㎡ · 완　공 : 2017년 12월 · 주 용 도 : 전시관, 편의시설 등

시설명	전 경	일반현황
KTX 강릉역		○ 위　치 : 강릉시 용지로 176 ○ 건축규모 · 연 면 적 : (역사) 6,083㎡, (현업시설) 1,806㎡ · 완　공 : 2017년 12월 · 주 용 도 : 전시관, 편의시설 등
세인트존스호텔		○ 위　치 : 강릉시 창해로 307 ○ 건축규모 · 연 면 적 : 83,522㎡ / 지하1층, 지상16층 · 완　공 : 2017년 12월 · 주 용 도 : 객실, 연회장, 주차장 등
씨마크호텔		○ 위　치 : 강릉시 창해로 307 ○ 건축규모 · 연 면 적 : 39,406㎡ / 지하4층, 지상15층 · 완　공 : 2015년 6월 · 주요용도 : 객실, 연회장, 편의시설 등
인제스피디움		○ 위　치 :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130 ○ 건축규모 · 연 면 적 : 15,430.20㎡ / 지하1층 지상7층 · 완　공 : 2013년 5월 · 주요용도 : 객실, 연회장, 편의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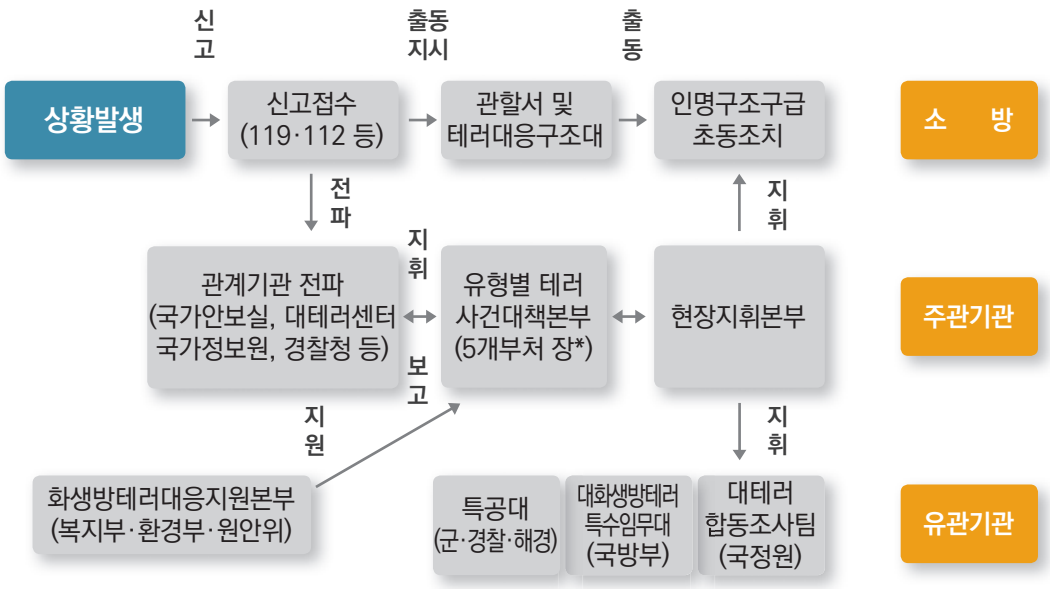
강원도소방본부는 올림픽 관련 주요행사장 및 호텔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활동과 피난계획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재난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22일까지 55일간 올림픽 현장지휘본부를 운영하였다.

2. 대테러안전대책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과 IS의 테러로 인한 위협으로 올림픽 참가국들이 불참선언을 하는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었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는 테러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테러대응체계의 지속적 확립, 테러예방활동 강화,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한 테러대응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대테러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림 Ⅴ-3-2〉 테러대응 출동체계



* 외교부장관(국외), 국방부장관(군사), 국토부장관(항공), 해양경찰청장(해양), 경찰청장(일반)

■ 테러현장 대응원칙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화생방 초동대응 등 임무 수행
- 다만 테러로서의 명확한 상황 인식이 어려운 초기단계 일반사고 또는 재난으로 신고 접수되거나 테러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재난법상의 대응체계 적용

1) 단계별 출동지원체계 구축

강원도소방본부는 테러경보 단계별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국가중요시설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전진 배치하여 초기단계부터 테러대응강도를 높여 원천적으로 대형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출동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편성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라 일반테러와 화학·방사능테러로 나누고 임무 편성표에 의거 지휘 및 구조반, 탐지·제독반, 지원반 등으로 편성·운영하였고, 대테러 장비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소방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림Ⅴ-1-3〉 피해규모에 따라 단계별 출동지원체계

(1차) 테러구조대	→	(2차) 중앙구조본부 지원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관할소방서 119구조대 출동 ● 춘천 테러대응구조대 출동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 지원 ●6개 119화학구조센터 지원		● 지역·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그림Ⅴ-1-4〉 대테러장비

인체제독 텐트	방폭담요	방폭가방	가스측정기	방사선 선량계
				

2) 대테러 관련 교육 및 예방활동 강화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생방테러 전문과정 교육프로그램과 화생방사고(테러)대응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전문교육을 확대하였으며, 화생방 교육훈련 운영관련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테러대응 전문인력 176명을 양성하였다.

〈표Ⅴ-3-4〉 테러대응 전문교육과정

교 육 과 정	교육인원	교 육 기 관	비 고
방사능사고 공동대응과정	4명(3회)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한국원자력 의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사고대응 전문과정	20명(5회)	화학물질안전원	
화생방사고 및 테러대응과정	150명(2회)	강원도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생물테러대응 실무과정	2명(2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강원도소방본부는 「테러유형별 현장표준 소방활동지침(SAG)」에 따른 기능숙달훈련을 강화하여 테러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였고, 장비숙달(개인보호장비 착용, 대응장비 조작 등) 및 현장대응요령을 숙지(접수→출동 중→도착→현장대응)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테러대응구조대 운영규정」에 의한 장비숙달훈련, 도상훈련, 현장훈련, 합동훈련을 통하여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테러 대상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국가중요시설 및 테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였고 「테러예방업무지침」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지정협의 및 현장지도, 소방특별조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 테러예방업무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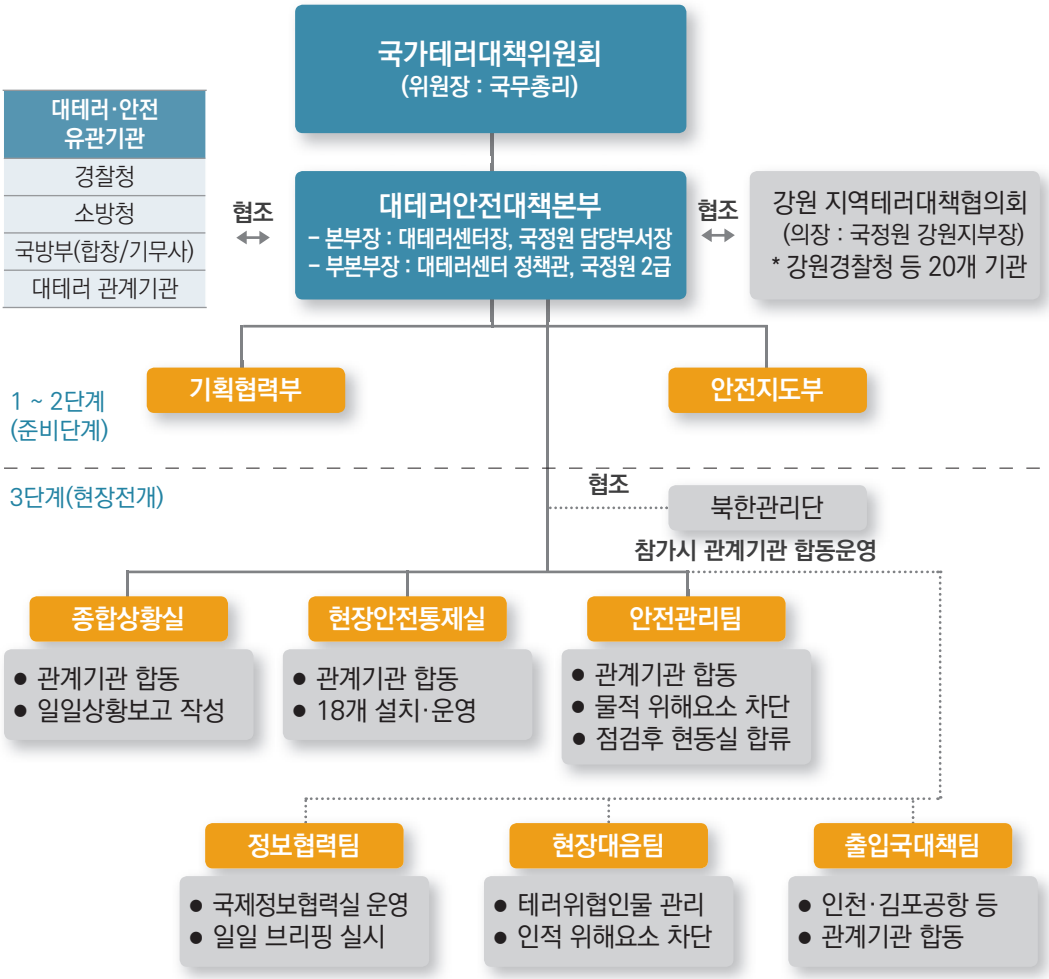
▶ 중앙부처 등이 테러대상시설 지정 시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대테러센터와 협의
▶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 평가 및 현장지도 등을 대테러센터 주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

3)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운영

대테러 안전활동의 목표는 테러, 돌발사고 등 안전위협요인을 제거하고 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며 선수단, 대표단, 관람객을 보호하여 전 세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중요 대테러 안전대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국정원, 소방청, 경찰청 등 19개 기관과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단계별로 운영하였다.

〈그림 Ⅴ-3-5〉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조직도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안전통제실을 편성하여 대테러 및 안전 활동을 수행하였고 VIP에 대한 경호와 관계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분야별 대테러안전활동을 담당할 기구와 현장활동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및 현장안전통제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였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2017년 10월 24일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평창동계올림픽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운영주관은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 공동으로 하고 본부장은 대테러센터장으로 하였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이며 운영기간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1개월 전인 2018년 1월부터 평창패럴림픽대회 종료 시점인 2018년 3월까지였다. 운영인력은 총 147명(대테러센터12, 국정원52, 군(軍)24, 경찰24, 소방24, 기타11)으로 구성되었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발족



안전관리팀 회의

대테러대책본부에 파견되는 소방인력은 인근 시·도인 서울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충청북도소방본부, 경상북도소방본부에서 총 24명을 지원받아 대테러안전대책본부의 안전관리팀, 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에 배치하였으며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태러안전대책본부 지원소방력은 2018년 1월 3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8개 베뉴로 나뉘어져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Ⅴ-3-5〉 올림픽대회 기간 중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소방력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역	근무장소	인원	근무기간
계			24	
안전관리팀	평창	올림픽플라자	4	2018.01.03.~02.28.
종합상황실	평창	올림픽플라자	3	2018.01.03.~02.28.
현장안전통제실	평창	올림픽플라자	1	2018.01.12.~02.28.
		평창선수촌	2	2018.01.19.~02.28.
	강릉	강릉선수촌	2	2018.01.20.~02.28.
	평창	MPC	1	2018.01.24.~02.28.
	평창	스키점프센터	1	2018.01.29.~02.28.
		크로스컨트리센터	1	
		바이애슬론센터	1	
		슬라이딩센터	1	
		용평알파인경기장	1	
		휘닉스스노보드경기장	1	
		본부호텔	2	
	강릉	아이스아레나	1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1	

구분	지역	근무장소	인원	근무기간
현장안전통제실	강릉	강릉하키센터	1	2018.01.29.~02.28.
		강릉컬링센터*	1	2018.01.29.~02.28.
		관동하키센터*	1	
	평창	IBC*	1	2018.01.30.~02.28.
	정선	정선알파인*	1	2018.02.06.~02.28.

※ 현장안전통제실 근무장소 중 * 표시가 된 장소의 배치인원은 올림픽프라자 안전관리팀 배치인원과 동일인원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는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테러경보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 대테러대책실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패럴림픽대회 기간인 2018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94명(대테러센터 4, 국정원23, 경찰14, 소방14, 군(軍)14, 기타25)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동계패럴림픽대회 기간 중에는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을 파견하였으며 종합상황실과 현장안전통제실에 배치되어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다.

〈표Ⅴ-3-6〉 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소방력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역	근무장소	인원	근무기간	근무자 명단
계			14		
종합상황실	평창	아이원리조트	3	2018.03.06.~19.	원주소방서 권병국(경) 박학철(위), 박상문(위)
현장안전통제실	평창	올림픽플라자	1	2018.03.03.~18.	강릉소방서 김남철(위)
		바이애슬론센터	1	2018.03.05.~18.	양양소방서 김흥권(경)
		본부호텔	1	2018.03.06.~18.	속초소방서 조영건(경)
		IBC	1	2018.03.03.~18.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김이구(경)
		MPC	1	2018.03.03.~18.	홍천소방서 이준호(위)
		평창선수촌	3	2018.02.27.~21.	춘천소방서 변인수(위) 영월소방서 전영환(경) 김진호(장)
	정선	정선알파인경기장	1	2018.03.04.~18.	정선소방서 박재근(위)
	강릉	강릉하키센터	1	2018.03.04.~18.	삼척소방서 전상구(장)
		강릉컬링센터	1	2018.03.04.~18.	동해소방서 원효식(장)

제3절 소방안전기획단 구성·운영

1. 소방안전기획단 구성

1) 소방안전기획단 설치 배경

1일 평균 19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소방안전망이 요구되었다. 특히 넓은 면적과 험준한 지형, 강추위 등을 고려해야 했고 대테러 등 새로운 위협요인에도 대비가 필요했다. 올림픽 개최도시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긴급구조종합훈련도 필요했으며 119소방대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했다.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제작하며 소방업무를 기획·조정·준비하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고 2016년 3월 소방안전기획 TF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림Ⅴ-3-6〉 올림픽 준비 시점에 따른 소방업무량 변화

올림픽 이전	올림픽 준비	올림픽 기간
화재, 구조, 구급 등 수행	강원도 소방안전 강화	올림픽 운영 지원
● 도내 정주인구(156만명) 기반 ● 소방공무원 2,417명 배치 ● 일일 근무 소방력 약 627명	● 대형사고 예방 안전 올림픽 준비 ● 수요 증가 대비 소방인프라 확충	● 3교대→2교대 전환 ● 1일 최대 744명 ● 소방력 총력대응

2) 소방안전기획단 구성

강원도소방본부는 2016년 3월 10일 방호구조과 직원 4명으로 소방안전기획 TF팀을 꾸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2017년 1월에는 직원 3명을 보강하여 테스트이벤트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다.

2017년 7월에는 부단장을 비롯한 직원



소방안전기획단 현판식(2016.3.10.)

3명을 추가로 보강하였으며 특수구조단에 7명의 정원을 승인받아 정식부서로서의 소방안전기획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소방안전기획단을 총괄기획팀, 설상안전팀, 빙상안전팀 등 3팀으로 나누고 경기장 별 특성에 맞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을 통하여 안전올림픽을 향한 세부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소방안전기획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하였으며 특수구조단장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그림 Ⅴ-3-7〉 소방안전기획단 조직구성

소방안전기획단(TF) (2016.3.10.~ 2017.1.8.)	
단장	소방령 장춘식
실무	소방경 이강우 소방경 강윤혁 소방위 문병원 소방장 이재성

→

소방안전기획단(TF) (2017.1.9.~2017.6.30.)	
단장	소방령 장춘식
실무	소방경 강윤혁 소방위 문병원 소방장 고광수 소방장 이재성 소방장 남권혁 소방교 이영찬

→

소방안전기획단 (2017.7.1.~2018.6.30.)	
단장	소방정 남흥우
총괄팀	소방령 김동기 소방경 강윤혁 소방장 이영찬
설상팀	소방경 고주천 소방위 문병원 소방장 고광수
빙상팀	소방경 조용철 소방장 남권혁 소방장 이재성

※ 사무공간은 강원도청 앞 공영빌딩 3층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후에 무림빌딩으로 이전.

2. 소방안전기획단 운영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단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소방안전기획단의 소방안전종합대책은 예방, 대비,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첫 번째 단계인 예방단계에서는 숙박시설 전수점검, 올림픽시설 중점 관리, 경기장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대비단계에서는 소방관서 신설, 소방훈련, 장비보강 등 인프라 구축으로 올림픽 경기에 완벽하게 대비하였고 세 번째 단계인 대응단계에서는 현장지휘본부 운영, 소방력 전진배치,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추진 등 실제 올림픽경기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였다.

〈그림 Ⅴ-3-8〉 소방안전기획단 운영계획

준 비	예방, 대비 활동	대응 활동	평가 환류
'16년 3~12월	'17년 1~12월	'18년 1~3월	'18년 4~6월
소방안전기획 TF팀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단	총괄지휘본부 방면지휘본부	평가 및 청산팀
1계 4명	1단 10명		1단 8명

제4절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1. 조직위원회 구성 및 참여활동

1) 조직위원회 구성

(1) 조직 및 인력분야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우수한 인력의 적기 확보 및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2011년 10월 19일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박근혜정부의 지원 하에 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 조직 구성 계획에 의거 4차례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추진하였다.

1단계(2011~2012)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발족단계로서 정원 118명으로 구성하였고, 대회 기본 계획(GFP), 마스터스케줄(MS) 및 경기장 인프라 설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2단계(2013~2014)는 동계올림픽 기반 조성 단계로서 298명의 정원을 구성하여 올림픽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및 IT기반 구축, FA별 운영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단계(2015~2016)는 동계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876명의 정원체제로 개편하여 개·폐회식 등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 확정, 대회운영인력 모집, 경기장 등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4단계(2017~2018)는 1,198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대회운영 점검, Test Event 및 문화행사 개최 준비 및 동계올림픽대회를 마쳤으며, 700명의 규모로 대회 청산을 담당하였다.

한편,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인력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조직위원회에서 쌓은 행정·기술 등 축적된 노하우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기간을 동계올림픽대회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하였고, 조직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원래의 소속기관에서도 그대로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파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민간부문의 전문직은 내부 승진제도 시행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중도 이탈을 방지하였고,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하여 성공리에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 선포행사(2013.5.3.)



2018동계패럴림픽 엠블럼 선포행사(2013.10.29.)

(2) 자원봉사자 분야

자원봉사자는 대회안내, 운영지원, 미디어, 기술, 의전 및 언어, 경기, 의무 등 총 7개 분야에 2만2천여명이 배치되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전 세계 146개국에서 총 9만여 명이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자원봉사자 요건 심사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봉사 경험, 전문성 등을 심사하여 총 4만여명이 면접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자원봉사자 면접 심사, 언어 레벨 테스트 등 선발 절차는 2017년 3월까지 마무리되었고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2017년 3월부터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참여해야 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처우 문제가 불거지지도 했다. 조직위가 선발한 자원봉사자는 국내·외 온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으며 기본교육을 통해 경기, 국제서비스매너, 장애인식, 양성평등,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이수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근무지와 너무 먼 숙소를 배정받아 왕복 2시간30분이 넘게 출퇴근을 하거나 또 방한용품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외 근로자들은 한파의 날씨에 추위에 떨기도 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푸대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활동을 포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중도 이탈 없이 운영인력들과 잘 어우러져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의 밑거름이 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발대식(2017.11.6.)

〈표 Ⅴ-3-7〉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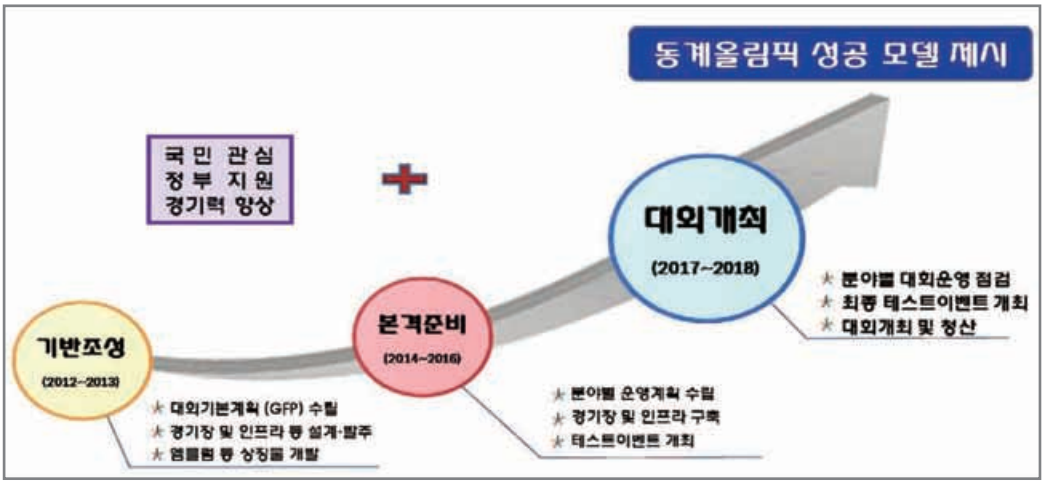
(단위 : 명)

활동분야	직 종	인 원
계		22,400
대회안내 및 운영지원	관중안내, 숙박, 교통안내, 사무지원, 일반운영, 인력관리	11,990
미디어 및 기술	취재, 방송, 정보기술, 기상	2,850
의전 및 언어	의전, 선수단지원, 통역	3,020
경기 및 의무	경기, 시상, 의료, 도핑	4,540

2) 조직위원회 참여활동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정부를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개최지인 강원도와 함께 성공올림픽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헤드의 역할과 함께 올림픽 예산 총사업비 조정 및 승인 등의 역할을 하며, 주 개최도시인 강원도는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건설, 올림픽 특구개발 등을 주도하였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대회운영을 총괄하며 대회 인프라 및 베뉴시설 구축, 선수촌 건설 등 올림픽의 실제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Ⅴ-3-9〉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활동



2. 소방력 파견 및 부서별 추진사항

1) 조직위원회 소방인력 파견

조직위원회는 대회 유치 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토대로 대테러·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소방청, 경찰청, 대통령경호실 등 정부안전기관들로부터 대테러, 국제행사, 경호, 치안, 소방안전, 구조구급 등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인력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도 2014년 11월 3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안전관실로 소방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소방기관에서도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파견인원이 순차적으로 증원되었고 안전관실에 4명, 경기국(의무부)에 3명, 베뉴운영국에 2명, 수송교통국에 1명 등 총 10명의 소방인력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였다. 조직위원회로 파견된 소방공무원은 근무대회 종료 시까지 안전한 대회를 목표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소방력 파견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Ⅴ-3-8〉 조직위원회 파견 소방공무원 추진현황

(단위 : 명)

파견일자	파견부서	파견인원	파견 소방공무원
2014.11.03.	안전관실	1	소방경 천정덕
2015.12.07.	안전관실	1	소방위 최지만
2016.06.23.	경기국(의무부)	1	소방경 권학주
2017.02.06.	안전관실	7	소방령 박흥석, 소방위 최종국
	경기국(의무부)		소방령 최식봉, 소방위 김용현
	베뉴운영국		소방경 박유삼, 소방경 이광빈
	수송교통국		소방경 김진욱

2) 조직위원회 부서별 추진사항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파견된 소방공무원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안전관실은 2014년 11월부터 소방공무원이 파견되어 안전대책 및 운영인력 보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기국 의무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베뉴운영국에서는 베뉴운영에 관한 훈련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실질적으로 베뉴내에서의 운영

에 관한 업무를 처리했으며, 수송교통국에서는 차고지 종합안전대책 수립 및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각 조직위원회 부서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Ⅴ-3-9〉 조직위원회 안전관실 추진사항

구분	추진사항
2014	● 구조구급 전문인력 파견 요청 ● 소방안전대책 중 대회시설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운영인력 및 관람객 피난대책에 중점 ● 인천소방본부 방문, 인천 AG 소방백서 제작팀 미팅, 소방 안전대책 추진 상 문제점 등 공유
2015	● 인천 AG(아시안게임) 및 타 국제행사(교황방한 등) 소방안전 대책 참고 ● 베뉴별 소방력(장 비 및 인력) 배치기준(안) 마련 ● 소방 중심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2016	● 2016 테스트이벤트(2016. 2.~ 3.) ● 의무부 내 소방직 파견 추진 ● 올림픽스타디움 설계검토 회의 참석 ● 베뉴별 소방력 배치기준(안)에 의거 기능실 및 물자 배치 표준안 마련
2017	● 2017 테스트이벤트(2016. 11.~2017. 4.) ● 조직위원회 H&S(Health & Safety) 워크숍 참석 ● 담당 베뉴별 종합안전대책 수립 ● 정부안전기관 합동 종합모의훈련 추진 : 2017. 6. / IBC(국제방송센터)
2018	● 조직위-대테러·안전대책본부(소방 군·경) 합동 현장안전통제실 운영(24시간) ● 담당 베뉴별 보안 및 안전총괄 운영 ● 정부안전기관 합동 종합모의훈련 추진 : 2018. 1. / 평창선수촌 ● 담당 베뉴별 소방 기능실 및 공통물자 추가 배치

〈표Ⅴ-3-10〉 조직위원회 경기국(의무부) 추진사항

구분	추진사항
2016	● 올림픽 및 테스트이벤트 대비 응급의료수요 파악 ● 올림픽 응급의료 범위설정 관련 회의 주재 및 참석 ● 올림픽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부지선정 ● 이동진료팀(MMT) 개념설정 및 도입 ● 정선알파인 경기장 경기구역(FOP) 스키패트롤(응급처치) 역할 수행 ● 응급의료팀 보강 방안강구
2017	● 2016/2017 테스트이벤트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 2017 테스트이벤트(2016. 11.~2017. 4.) 실시 ● 소방분야 의무지원인력 요구사항 수렴 및 응대 ● 혹한기 응급의료장비 내한성 테스트 및 보완방안 강구 ● 응급의료 인력/장비 통합운영 필요성 제기 ● 응급의료헬기 지원기관 협조방문 ● 이동진료팀 응급처치용 장비(물품) 표준사양서 제작(확정) ● 헬기 격납고 준공 및 베뉴 내 헬리패드 완공 ● 응급의료헬기 기관별 현지적응훈련 실시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운용계획 수립

구 분	추 진 사 항
2018	● 소방중심의 응급의료팀 구성으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 응급의료팀 올림픽 업무분장 ● 올림픽/패럴림픽 개폐회식 응급의료자원 조정·통제 ● 베뉴내 응급의료관련 민원(불편)사항 해결 및 조정 ● 이동진료팀→현장진료소→폴리클리닉→올림픽병원 간 응급 의료자원 조정 ● 이동진료팀(MMT) 근무확인 및 의료물자 보충 ● 올림픽 환자발생현황을 통한 응급의료배치 자원조정·통제

〈표Ⅴ-3-11〉 조직위원회 베뉴운영국 추진사항

구 분	추 진 사 항
2017	● 2017 1차 테스트이벤트 슬라이딩센터 베뉴 운영(2017. 2.~3.) ● 2017 2차 테스트이벤트 베뉴운영계획(TEVOP 2) 수립(2017. 4.~9.)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베뉴운영계획(VOP) 계획수립 (2017. 4.~12.)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베뉴운영계획(VOP) 계획수립(2017. 4.~12.) ● 2017 2차 테스트이벤트 슬라이딩센터 베뉴운영(2017. 10.~11.) ● 2017 테스트이벤트 EVS운영(2017. 2~4.) ● 자원봉사자 등 EVS운영인력 비상대피 계획 수립 ● EVS주요업무,물자(장비) 및 인력배치 현황 등 베뉴운영실행 계획 수립 ● 관중 등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한 현장운영 메뉴얼 작성 ● 라스트마일 구간 관중 안내 사이니지 등 설치 관련 개최도시 협조요청
2018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올림픽슬라이딩센터 베뉴운영(2018. 2.~3.) ● 관동하키센터 이벤트서비스(EVS)자원봉사자 베뉴현장운영 교육 ●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한 안전감시대 등 전물물자 배치 ● 관중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위한 진주 유등 설치 협조 ● 관중 등 안전사고 방지 및 운영인력 휴게공간 마련 ● 보안검색구역(PSA) 관중 안전사고 방지 및 대기줄 관리를 위한 휀스 설치 ● 강릉소방서 전문 응급처치 강사 초빙EVS자원봉사자 등운영인력 심폐소생술 교육

〈표Ⅴ-3-12〉 조직위원회 수송교통국 추진사항

구 분	추 진 사 항
2017	● 차고지 종합안전대책 업무 추진 ● 차고지내 소방력 배치 – 기존 검토된 펌프차 1, 구급차 1 ● 차고지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차고지 기반시설 * 설치 검토 및 참여 부서 업무 조율
2018	● 올림픽 준비 및 대회 기간중 강릉 차고지(버스·플릿) 총괄 운영 매니저 업무 수행 ● 세차장 운영, 진출입 통제, 정비소 운영, 요소수 충전소 운영 ● 차고지 안전관리 총괄업무 수행 ● 차고지 운영(155명)인력 안전교육 실시

강원소방 100년사

제4장

(예방) 올림픽시설 소방안전관리 강화

제1절 대회관련시설 현지 확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의 일환으로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각 경기장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하여 건설현장을 확인하여 맞춤형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재난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상황관리를 추진하였다.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올림픽 주요경기장 12개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기획단, 국민안전처, 동계올림픽본부, 강릉소방서, 건축관계자 등 총 10명이 현장 확인을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시정 및 보완을 통해 안전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1. 경기장별 현지 확인

1) 빙상경기장

(1) 강릉아이스아레나

강릉아이스아레나는 2016년 4월 7일 소방안전기획단 등 10명(소방안전기획T/F 3, 국민안전처 1, 강원도올림픽운영국 1, 강릉소방서 3, 건축관계자 2)이 현지 확인한 결과 관람객 출입구(2층)방향으로 바닥 변형 등 활동공간부족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유관기관에 의견검토 통보하였으며, 우발상황 발생시 3개(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경기장으로 동시에 투입 될 수 있는 긴급차량의 통행 및 차량배치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동계본부, 조직위 시설국, 안전관실, 의무부 등)와 협의를 마쳤다.

(2) 강릉하키센터

2016년 5월 13일 소방안전기획단 등 9명(소방안전기획T/F 2 올림픽조직위 2, 강원도올림픽운영국 1, 강릉소방서 2, 건축관계자 2)이 현지 확인 결과 관람객 출입구(2층) 방향으로 바닥변형 활동공간부족 등 아이스아레나 경기장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 하였으나, 건축공사업체에서 “소방차량 및 고가차량 아웃트리거 전개 시 인조화강석의 파손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차량이 전도될 만큼의 지반침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사현장 크레인(200톤, 35m)

운용 중 바닥변형 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용하였으며,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빙상경기장 공통구역 오버레이시설 간 폭 5m에서 7.6m로 변경 조치하여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였다.



아이스아레나 공사현장



강릉하키센터 현장확인

(3) 관동하키센터

2016년 6월 14일 소방안전기획단 등 10명(소방안전기획T/F 2, 올림픽조직위 1, 강원도 올림픽운영국 1, 강릉소방서 3, 건축관계자 3)이 현지 확인 결과 경기장 3~4층 임시 관람석(2,482석) 기울기가 37°로 1~2층 관람석(3,435석) 기울기 29°, 34°보다 커 우발상황 피난 시 관람객 안전우려(안전사고 다수발생)되어 임시석 가로 안전바 및 손잡이 등 설치 요구를 추진하였으며, 공사장 안전수칙, 작업자 피난동선 등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아 현지 시정 조치로 설치를 완료하였다.

(4)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2016년 7월 15일 소방안전기획단 등 12명(소방안전기획T/F 3 올림픽조직위 2, 강원도 올림픽운영국 1, 강릉소방서 3, 건축관계자 3)이 현지 확인 결과 경기장 진입로 긴급차량 무게하중 적정성 및 진입로 확보 검토 의견 제시하여 진입도로 마감 블록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하중 40톤 이상 내구성)으로 설계 변경하고, 소방차량이 지하층 및 지상1층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3면에서 접근 용이토록 조치하였으며,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임시소방시설 배치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5) 강릉컬링센터

2016년 8월 12일 소방안전기획단 등 8명(소방안전기획T/F 2, 올림픽조직위 2, 강원도올림픽운영국 1, 건축관계자 3)이 현지 확인 결과 낡은 배전반 및 전선으로 건축물에 화재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노후 전기관련 시설 교체 및 이동식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당부하였다.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현장확인



강릉컬링센터 현장확인

2) 설상경기장

(1) 올림픽슬라이딩센터

2016년 7월 19일 소방안전기획단 등 10명(소방안전기획T/F 4, 강원도올림픽운영국 1, 평창소방서 3, 건축관계자 2)이 현지 확인 결과 경기장 내 도로 경사가 있어 결빙 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폭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2) 정선알파인경기장

2016년 8월 30일 소방안전기획단 등 9명(소방안전기획T/F 3, 올림픽조직위 2, 강원도올림픽운영국 1, 건축관계자 3)이 현지 확인 결과 정선지역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량철골조의 장비고내에 설치된 소방수조(S/P 수원)가 동결될 우려가 있어 장비고 내 소방전용 수조에 대한 동결방지 보온조치 통보하였으며, 장비고 출입 전동셔터가 화재로 미작동 될 경우 내부진입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셔터 인근에 별도의 출입문 설치 또는 외부에 셔터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통보하였다.

(3) 휘닉스스노경기장

2016년 9월 28일 소방안전기획단 등 7명(소방안전기획T/F 3, 올림픽조직위 2, 건축관계자 3)

이 현지 확인 결과 최근 언론에 이슈화된 간이스프링클러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시설 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이상이 없었다.

경기장 시설관리자들에게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관련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선알파인경기장 현장확인



휘닉스스노경기장 현장확인

2. 대회관련 주요시설 현지 확인

2017년 7월 1일 소방안전기획단을 총괄운영팀, 설상안전팀, 빙상안전팀으로 확대하였고 각 팀별 경기장 및 지원시설을 사전에 확인하여 화재 및 안전에 취약한 요소를 제거하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시설을 확인하였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경기장 및 지원시설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소방기능실 위치변경사항 확인, 소방력 배치장소 확인, 전기실, 통제실, 보일러실 등 주요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도,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소방수리·출동로 등 소방환경 확인, 경기장별 관람객 및 대회운영인력 피난동선 등을 확인하였다.

대회주요시설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소방기능실 7개소에 대한 위치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오버레이 시설 구획으로 인한 소방시설 장애요인을 시정조치하였고, 외부 오버레이(텐트)시설에 소화기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였다. 특수소방차량(생화학, 고가, 구조, 펌프)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였고 경기장별 설치된 소방시설 및 비상구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피난동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릉올림픽파크 외부 옥외소화전함 내 제수변 키 등 구성물품 비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소방활동 및 피난시설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토록 조치하였다.



소방방재센터 점검



옥외소화전 제수변키 점검

3.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현장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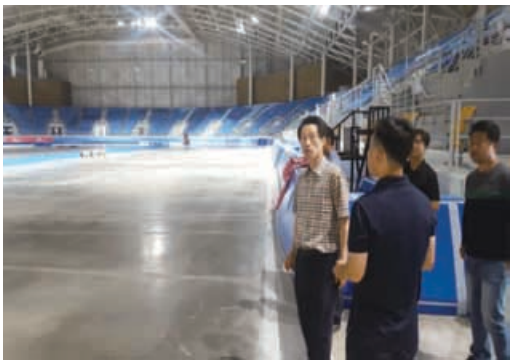
1) 소방청 현장점검

2017년 8월 9일 소방청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 6개월 앞두고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 날, 강원소방안전기획단의 안전대책을 청취하고 경기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은 119구조과장이 했으며 장소는 평창·강릉올림픽경기장 등 9개 시설이었다.

2017년 12월 1일에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지원시설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확인점검으로 대관령119안전센터,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평창올림픽프라자, 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 국제방송센터 등을 현장 점검하였다.

〈그림Ⅴ-4-1〉 소방청장 현장점검 세부일정

대관령119안전센터	→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평창지역 경기장 일대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 대관령안전센터직원 격려		조직위 사무총장(여형구) 업무협의 (올림픽 안전대책 분야)		평창올림픽플라자 ↓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 IBC(국제방송센터)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현장확인



평창올림픽프라자 안전점검

2) 소방본부 주관 지도·확인 점검

강원도소방본부장은 2017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올림픽경기장과 지원시설을 점검하였다. 7월 19일에는 평창마운틴클러스터의 경기장 및 지원시설 11개소를 점검하였고 20일에는 강릉코스털클러스터의 경기장 및 지원시설 8개소를 점검하면서 경기장과 지원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및 소방력 배치장소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사무총장 및 안전국장과의 현안토의를 통해서 IBC(국제방송센터)의 완만한 지붕마루에 해수를 활용한 순환식 살수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폭설에 대비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순찰 및 구급차 추가 배치관련 업무를 협의하였다.



강릉하키센터 현장확인



평창올림픽스타디움 현장확인

제2절 화재안전대책 및 소방특별조사

1. 동계올림픽 대비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1) 경기장 등 공사현장 화재 등 무사고 지원

강원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중 20%를 선정(올림픽 개최도시는 전수)하여 화기취급 등 안전수칙준수를 당부하였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용접·용단 등 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초기소화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과 현장관리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추진결과를 보면 공사장 현장지도 175개소, 임시소방시설 설치 217개소를 지도하였으며, 977명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올림픽경기장 및 기반시설 공사 중에 대형화재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Ⅴ-4-1〉 올림픽 관련시설 및 공사장 현장지도 추진결과

(단위 : 개소 / 명)

구 분	현장지도	임시소방시설 설치장소			교육인원		
		계	임의	법정	계	방문	소집
계	175	217	127	90	977	852	125
올림픽 관련시설 (강릉·평창·정선)	12	23	14	9	87	82	5
기타 공사장	163	194	113	81	890	770	120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실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확인

2) 소방시설업 종사자 '법질서 준수 결의대회' 추진

도내 건축물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소방시설업체 285개소(설계24, 공사207, 감리21, 점검22, 방염11)에 대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춘천·원주·강릉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주관소방서를 지정하고, 법질서 준수 결의대회를 추진하였다.

춘천권은 춘천·철원·홍천·인제소방서 등 4개 소방서를 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원주권은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소방서 등 5개 소방서를 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강릉권은 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고성소방서 등 6개 소방서를 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 개정법령 안내 및 소방안전지도를 병행하였고, 소방관련법령 준수 및 자율안전실천 결의문 선언을 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과 성공개최를 기원하였다.




소방시설업 종사자 법질서 준수 결의대회(2016)

3)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 자율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가이드북 6,000여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화재예방 안전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짐대회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집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시 병행하여 화재예방 안전실천 다짐운동 및 영업장 업주의 자율의사 서약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4,669명(다중이용업 2,647, 숙박업 2,022)이 참여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화재예방 자율실천의식이 향상되었다.

〈표Ⅴ-4-2〉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안전교육 홍보실적

(단위 : 개 / 명)

안내문 배부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등 간담회		기타
		개최횟수	참여인원	
6,892	6,204	302	117	24

〈표Ⅴ-4-3〉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실적

(단위 : 개 / 명)

교육대상	실시대상	교육인원		
		계	업주	종업원
4,372	3,616	3,741	3,475	342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추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화재안전 환경조성과 불안전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한 강원도 이미지 제고 및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1개월간 올림픽 개최도시와 배후도시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문화재,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20,758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안전 적폐행위 5대악 근절을 위한 중점조사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 및 안전관리 업무이행 실태확인, 비상구 폐쇄 및 피난기구 확인, 소방시설 밸브 폐쇄 및 수신기 전원차단(정지) 확인, 자체점검의 실시여부 및 교육·훈련 실시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표Ⅴ-4-4〉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단위 : 개소)

계	올림픽 개최도시	배후도시						
		다중이용업	숙박시설	문화재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	방송통신
20,758	13,956	4,717	1,514	87	129	89	148	118

특정소방대상물 총 20,75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7%인 3,266개소가 불량대상이었으며 3,095건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렸다.

주요 불량사항으로는 경보설비가 9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난설비, 소화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표Ⅴ-4-5〉 점검결과 및 불량대상 조치사항

점검결과(개소)				불량대상 조치사항(건)				
조사대상	양호	불량	현지시정	조치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행정지도
20,758	17,492	3,266	1,744	3,095	144	44	199	3

〈표Ⅴ-4-6〉 세부불량사항 유형

불량 건수	세부불량내용(건)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설비	소화 용수	소화 활동	건축 (피난방화)	전기	가스	기타
3,266	825	912	863	76	94	150	52	48	246

1) 분야별 소방특별조사

(1)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201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숙박시설 2,030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520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사법처리 등으로 시정보완 완료하였다.

〈표Ⅴ-4-7〉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대상	2,030	315	237	467	81	19	210	57	70	47	37	119	108	35	58	39	131

〈표Ⅴ-4-8〉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단위 : 개소 / 건)

실시대상	양호	불량	현지시정	불량대상 조치사항				
				계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입건
2,030	1,510	520	238	520	477	17	18	8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 5,279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745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사법처리 등으로 시정보완 완료하였다.

〈표Ⅴ-4-9〉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

(단위 : 개소)

구분	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대상	5,279	932	916	960	412	196	472	201	247	103	74	212	158	143	94	78	81

〈표Ⅴ-4-10〉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조사결과

(단위 : 개소 / 건)

실시대상	양호	불량	현지시정	불량대상 조치사항				
				계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입건
5,279	1,510	745	442	745	699	15	31	-

2) 올림픽 개최 시·군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군, 강릉시, 정성군 특정소방대상물 13,956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량대상 913개소에 대하여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사법처리 등으로 시정보완 완료하였다.

〈표Ⅴ-4-11〉 올림픽 개최 시·군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

(단위 : 개소 / 건)

구분	실시대상	양호	불량	현지시정	불량대상 조치사항				
					계	조치명령	기관통보	과태료	입건
계	13,956	13,043	913	292	913	880	3	55	3
강릉	7,653	7,102	551	19	551	546	-	16	1
평창	3,178	3,020	158	235	158	146	3	19	1
정선	3,125	2,921	204	38	204	188	-	20	1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3. 소방본부 주관 합동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는 2017년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4일간 민간협회와 합동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평창마운틴클러스터 3개소, 강릉코스털클러스터 5개소, 대회 지원시설 5개소 등 총 올림픽관련시설 13개소였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올림픽시설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적정성 확인과 대회 안전운영 관련 컨설팅이었으며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였다. 조사반 구성은 2개반 6명으로 강원도소방본부 4명, 소방안전협회 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관할 소방서인 강릉소방서와 평창소방서는 특별조사반을 지원하였다.

한편, 합동소방특별조사 결과 현지시정이 15건이었으며, 조치명령은 1건으로 강원도 올림픽운영국으로 통보하여 조치하였다.



강릉코스털클러스터 경기장 점검



강릉코스털클러스터 경기장 점검

4. 대회관련시설 정부합동안전점검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와 관련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철도·소방·숙박·체육시설 등 관련부서에서 인원을 지원받아 총 14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12일간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소방분야는 총 10개소에 대하여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지시정 23건, 시정요구 20건, 개선권고 26건을 시정 보완토록 하였다.

〈표Ⅴ-4-12〉 정부합동 안전점검대상

경기장	지원시설	민간 숙박시설
●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 강릉하키센터 ● 올림픽슬라이딩센터 ● 스키점프센터	● 강릉선수촌 ● MPC(메인프레스센터) ● IBC(국제방송센터) ●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 평창선수촌	● 경포비치호텔



정부합동안전점검(감시제어반 점검)



정부합동안전점검(밸브점검)

제3절 대테러 합동안전검측

1. 대회관련시설 합동안전검측

안전검측은 행사장 내곽지역에 대한 검색을 통해 폭발물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제반활동 및 각종 위험물에 대한 안전조치이다. 주요임무는 행사장 폭발물 탐지 및 제거, 제반 시설물(승강기 등 각종 기계시설) 안전점검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행사장 내 각종 위험물 현황파악 및 안전조치 활동 등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 안전검측을 실시하였다.


평창선수촌 등 18개 올림픽시설 안전검측 실시

안전검측은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2018년 1월 22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올림픽조직위, 경찰, 소방, 군부대, 전기, 가스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올림픽경기시설 및 지원시설에 대하여 각종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기계시설 등에 대한 취약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 및 안전조치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이행하였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의 안전검측은 동계패럴림픽대회 시작 전인 2018년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일간 대테러대책안전본부, 올림픽조직위, 경찰, 소방, 군부대,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동계패럴림픽 관련시설 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운영인력 식당 안전검측


경기장 기능실 안전검측

2. 테러대상시설 합동점검

1)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강원지역 테러대책 협의회 대테러T/F팀을 구성하여 2017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에 걸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은 평창권 5개소와 강릉권 3개소, 정선권 1개소 등 총 9개소이며, 강원도 8명, 국정원 강원지부 3명, 강원지방경찰청 2명, 강원도소방본부 2명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자체방호테세를 평가·분석하여 테러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표Ⅴ-4-13〉 강원지역테러대책 협의회 다중이용시설 점검 대상

구 분	평창권(5개소)	강릉권(3개소)	정선권(1개소)
대 상	평창휘닉스파크, 평창역 진부역,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강릉역 강릉시외·고속버스터미널	강원랜드

2) 테러대상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2017년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강원지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국정원, 담당부처, 지자체 등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철도·버스터미널·항공은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하였고, 항만은 해양수산부 주관, 판매시설은 산업자원부 주관, 숙박시설은 문체부 주관으로 담당분야별로 테러대상시설을 정하여 테러대비실태 및 수준,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식별된 테러 취약요인을 보완하여 테러에 대비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책수립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과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여부, 비상대피로 확보와 상황실·방재실 등 핵심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상태 유지관리 여부, 인원·차량 출입관리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적절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KTV 보도(2017.12.20.)


경기장 외부 보안카메라 설치

〈표Ⅴ-4-14〉 테러대상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대상 및 점검기관

분 야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검기관
터미널	12.20.	강릉고속버스터미널 강릉시외버스터미널	● 국토부·지자체·대테러센터 ● 국정원·경찰청·소방청
숙박시설	12.21.~22.	라카이샌드파인, 썬크루즈리조트 씨마크호텔, 인터컨티넨탈알펜시아 강원랜드 호텔 & 카지노	● 문체부·지자체·국정원 ● 대테러센터·소방청
판매시설	12.26.~27.	원주AK플라자, 이마트 원주점 이마트 강릉점, 강릉홈플러스	● 산자부·지자체·대테러센터 ● 국정원·소방청

3) 철도분야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2017년 11월말 테러대상시설을 현행화하고, 2017년 12월 19일 테러 예방대책의 적정성과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역에서 강릉역 간 주요역사, 차량기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총리실(대테러센터)과 국정원, 경찰청, 소방청(소방본부), 철도경찰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철도역사 3개소(평창·진부·강릉역)와 강릉차량기지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테러 조직·인력 구성 여부, 테러첩보 입수·전파 체계 등 테러예방대책의 적정성과 주요시설의 비인가 차량·인원 출입통제 및 CCTV등 시설·장비 등 관리상태, 개인임무카드 숙지, 분야별 훈련 및 교육 실태 등 테러예방활동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였다.



철도분야 합동점검



철도분야 합동점검

강원소방 100년사

제5장

(대비) 소방인프라 구축 및 대응능력 향상

제1절 올림픽 유치 이후 소방환경의 변화

1. 소방력 확충 및 청사 확보

1) 소방인력 확충

2011년 7월,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대한민국 평창으로 확정된 이후, 강원소방은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안전대책을 추진할 소방인력의 확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10년에 2,179명이었던 소방인력은 2018년에는 3,190명으로 1,011명이 증원되었다.

〈표 V-5-1〉 소방인력 확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증원	-	26	50	37	7	172	120	318	281
정원	2,197	2,205	2,255	2,292	2,299	2,471	2,591	2,909	3,190

2) 소방서 신설 및 청사 신축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를 대비하여 대회 유치 확정 전부터 노후하고 협소한 소방청사의 환경 개선과 다양한 소방 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신축 부지 및 사업비 확보를 해당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로 관서 신설을 추진하여 왔다.



특수구조단 1항공대 격납고 이전

강원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최적 규모의 청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인프라 구축을 통해 급증하는 소방 수요 및 국제적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및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789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특수구조단 격납고, 산악구조대, 소방학교 생활관, 소방서 6개서, 안전센터 24개소, 지역대 9개소 등 총 42개소에 대한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을 완료하였다.

특히, 올림픽 개최도시의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해 평창소방서 신축과 강릉소방서 이전·신

축을 통하여 경기장과 올림픽선수촌·미디어촌을 방문한 각 국의 선수단과 방송관계자의 안전관리를 최인근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평창소방서 구조대 및 대관령·진부119안전센터 청사를 신축하여 올림픽 행사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과 올림픽 거점도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아울러, 기존 춘천시에 위치한 특수구조단 1항공구조대 격납고를 주요 경기장 근거리인 횡성군 우천면에 위치한 18,832㎡ 부지에 지상2층 991.8㎡의 청사와 2,257㎡ 항공기 계류장을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이전 구축하여 선제적 항공구조구급의 역할을 다하였으며, 강릉소방서 신축부지 인근 여유 부지 3,688㎡를 동계올림픽 행사장으로 입고되는 물류차량 검색시설의 사용목적으로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표Ⅴ-5-2〉 최근 소방관서 신설 현황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방서	5	평창	인제			고성	양양	환동해 특수재난 대응단	
119안전센터	28	신림 서석 중동	근덕	신북 설악 기린	사북		흥업 대화 갈말		옥천 직할16
119구조대	16					15개 구조대	양양		



평창소방서 신축



강릉소방서 이전·신축

2.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1) 추진배경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대비하여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급증하는 소방 수요의 능동적 대처와 화재 및 구조·구급 대응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총 579대의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를 노후 소방차량 보강예산으로 편성한 이후 소방차량의 노후율이 2015년에 27.8%, 2016년에 18.5%, 2017년에는 5.9%로 획기적으로 저감되었다.

또한 소방장비 관리 및 조작능력 제고를 위하여 담당자의 책임과 자율에 의한 소방장비 점검·정비의 생활화와 필수 점검항목 숙지 등을 추진함으로써 신형 소방차량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 시켰으며 3교대 근무시행으로 업무집중도를 강화하였다.

2)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강원도소방본부는 올림픽 개최 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차량 17종 340대를 구매 후 소방본부 및 일선소방서에 배치함으로써 소방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에 한 축이 되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민은 물론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준비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표 Ⅴ-5-3〉 올림픽 개최 전 3년간 소방차량 확충 소요예산(2015~2017)

(단위 : 대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계	신규	교체	계	국가보조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계	340	109	231	60,313	11,830	29,014	19,469
2015	73	24	49	9,932	3,346	2,440	4,146
2016	129	24	105	24,538	5,135	11,446	7,957
2017	138	61	77	25,843	3,349	15,128	7,366

3. 119구조·구급 인프라 구축

1) 첨단구조장비 보강

2017년에는 정부로부터 소방안전교부세 21억원을 교부받아 전국에서 최초로 4륜구동의 최첨단 다목적특수구조차를 3대를 구입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중 개최지 소방관서인 강릉·정선·평창소방서에 근접·배치하여 화재·구조 및 테러 발생에 대비하였다.



4륜구동 다목적특수구조차

또한,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

구조장비 68종 2,409점을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23억을 투자하여 교체 보강하고 화학·테러사고 대응장비인 방폭장비세트 등 6종 86점과 일반구조장비, 산악구조장비, 탐색구조장비 등 62종 2,323점을 보강하여 올림픽 기간내 우발적 사고에 완벽 대비하였다.

2) 119구급대 인프라 구축

(1) 올림픽 경기장 구급차 배치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외국 장신선수의 구급이송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내공간이 넓고 높은 대형구급차(배기량 2,497cc) 7대(14억원)를 구입하여 평창·강릉지역 등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저체온증 환자의 이송을 위한 온열기자재가 탑재되어 있는 최신형 구급차 25대(27.5억원)를 구입하여 운영하였다.

도내 구급차량 136대중 47대는 올림픽경기장 등에 배치하였고 나머지 89대는 올림픽이 치러지지 않는 지역의 소방서에 배치하여 현장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올림픽경기장에 배치되는 47대중 7대는 대형구급차로 배치하여 신장이 큰 외국인 환자에 대비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선수촌 등 주요시설에 119구급차량이 배치됨에 따라 구급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대응 매뉴얼을 제작 운영하고 경기장 주변 소방관서에 15개 감염관리실(강릉6, 평창5, 정선4) 및 거점(경포 · 대관령)소독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소독 업체를 상주시켜 119구급대 감염관리를 중점 실시하여 노로 바이러스 등 집단 발병 시 대비 태세를 구축하였다.

〈표Ⅴ-5-4〉 올림픽 경기장 배치 구급차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학교
대형구급	7	1	1	1	1	1	1	1	-	-	-	-	-	-	-	-	-	-
특수구급	40	4	2	4	3	1	-	2	3	4	3	3	4	1	2	1	1	2



특수구급차(좌) 및 대형구급차(우)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2) 올림픽 구급차량 적재장비 현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림픽에서 활동하는 특수구급차에는 의약품, 호흡유지기, 소독품, 산소투여장비, 고정·보호장비, 부목세트, 기초인명소생장비가방, 환자이송용 들것 등 의료장비와 구급약품을 비치하였다. 또한 겨울스포츠 환자 발생 특성에 맞는 온열팩 등을 비치하였으며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Ⅴ-5-1〉 119특수구급차(그랜드스타렉스) 적재장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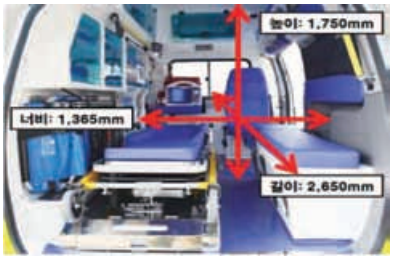
환자칸 운전석 장비 배치도



환자칸 조수석 장비 배치도



환자칸 운전석 격벽 장비 배치도



특수구급차 내부 현황

〈그림 Ⅴ-5-2〉 119대형특수구급차(쏠라티) 적재장비 배치도



환자칸 운전석 장비 배치도



환자칸 조수석 장비 배치도



환자칸 운전석 격벽 장비 배치도



특수구급차 내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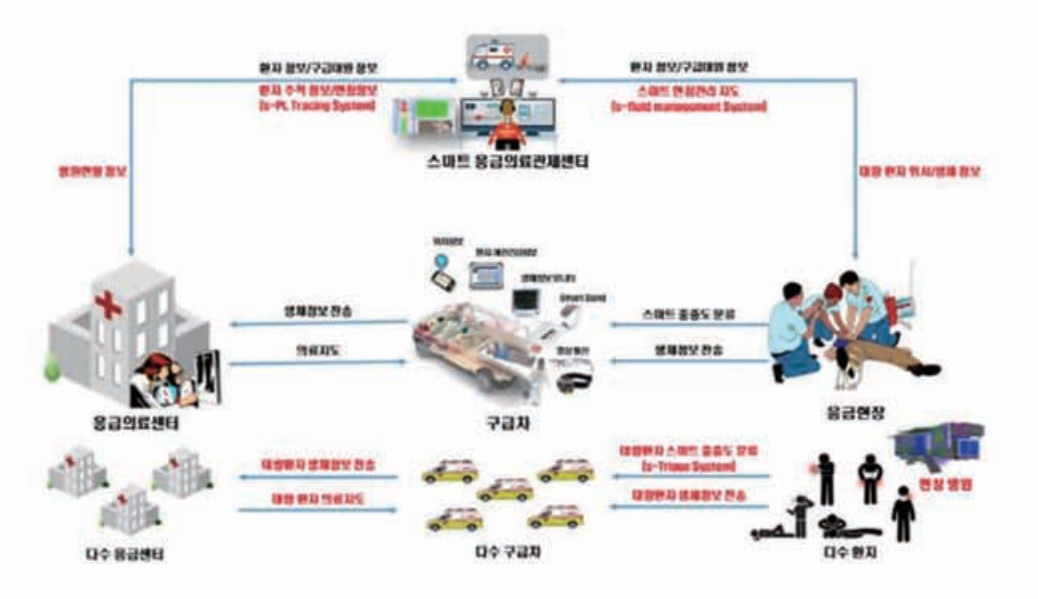
(3) 동계올림픽 IoT 스마트 119구급대 운영

평창동계올림픽에 최첨단 IoT 기술을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응급의료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대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개최를 지원하였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강릉아산병원을 올림픽지정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지도를 위하여 공중보건의 1명과 119상황실 지도의사 29명을 배치하여 선수, 관계자, 관람객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다.

IoT 장비 3종 116점(D500 19, 스마트밴드 94, 관제용 PC 3)을 구급대와 관제센터에 배치하고 스마트밴드는 구급대원이 착용하여 생체 변화에 따른 중증도를 파악하였으며 d-500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이송 중 심전도 및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관제센터 지도의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로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관제 시스템 설치장소는 강원도소방본부 구급계, 119종합상황실, 평창소방상황실, 강릉종합상황실에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구급차 이송경로를 추적관리 하는 등 의료지도에 활용하였다.

〈그림 V-5-3〉 IoT 스마트 119구급대 시스템 구성도



제2절 강원도 소방상황관제센터

1.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운영

1) 신고접수 및 관제

도내 119신고접수와 관제는 강원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동계올림픽대회로 인하여 선수, 관계자, 관중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평창, 강릉, 정선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방상황관제센터 설치가 불가피하였고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상황관제센터 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계올림픽관련 신고접수 및 상황관제를 올림픽지구와 비올림픽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때로는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 119신고를 접수하는 장소가 종합상황실이 되거나 소방상황관제센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올림픽 베뉴에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접수부서에서 출동대를 편성하여 지령을 내리고 올림픽 베뉴에 배치된 소방력의 출동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종합상황실과 소방상황관제센터 간 소방력 편성을 조정하여 출동대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2) 소방상황관제센터 구축·운영

소방상황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올림픽 관련 사고에 대한 전용 접수대가 설치되었고 119 신고 접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올림픽 기간 중 화재·구조 및 구급 등 재난의 다양화에 따른 신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 119접수대와 소방상황관제센터의 운영장비를 상호연동 및 호환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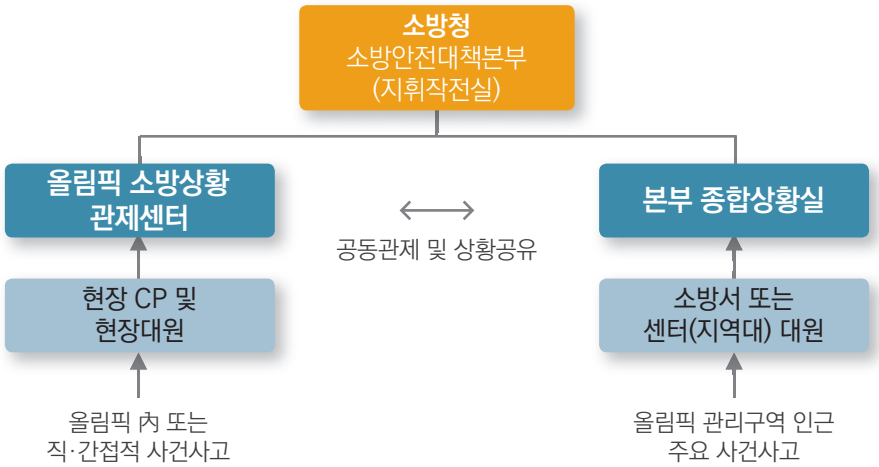
소방상황관제센터 근무자

동계올림픽 통합관제 및 신고접수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관제용 수보대 3대를 설치하여 올림픽 기간 중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하여 전담 상황관제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119신

고접수가 가능하도록 수보전화(주·보조) CTI[13] 프로그램 3식을 수정 보완하여 긴급구조시스템 응용프로그램과 완벽한 연동이 가능토록 적용하였다. 강릉지휘본부 및 임시안전센터에는 출동방송 송출 장비를 설치하였고 실시간 재난영상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영상정보 전자상황판을 설치하여 현장지휘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관제는 일반관제와 올림픽관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며, 근무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1급 외국어가능자 등 우수 인력 총 15명을 선발하여 3교대근무 체계로 운영하였다. 운영요원들은 접수요원과 관제요원으로 구분하여 올림픽경기장 내 또는 직·간접시설 사건사고를 담당하였다.

〈그림Ⅴ-5-4〉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2. 통역시스템 및 119신고앱 구축

1)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통역시스템 구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각종 국제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됨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강원도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영어 등 언어로 외국인과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외국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13)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 컴퓨터를 사용해 전화통화를 관리하는 것으로 119신고전화 및 위치정보(데이터)를 해당 수보대에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

먼저 내·외국인의 언어불편을 해소하는 통역 자원봉사 단체인 BBB코리아,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안내(1345)의 통역시스템을 활용하였고, 외국인 신고 접수 시 외국어 제3자 통화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또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3자 통화시스템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기간 중 종합상황실에 외국어 통역 가능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야간 근무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 그 결과 동계올림픽 기간 중 총 16건의 외국인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신속히 소통하고 출동하여 성의를 다하는 대한민국 소방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119신고앱을 3개 언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구성하여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언어가 영어·중국어·일본어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언어로 신고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또한 이러한 신고방법을 동계올림픽 베뉴에 포스터 등으로 홍보하여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2) 강원 119신고앱 기능 고도화 개발 추진

강원119신고앱은 조난자 및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신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신고자가 한번 클릭으로 GPS 좌표를 119상황실에 전송하는 방식의 앱이다. 이 앱은 GPS 위치정보 취득이 어려운 외국 핸드폰, 알뜰폰 등의 제한 없이 모든 핸드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자체 개발한 119신고앱이다.

하이브리드앱[14] 개발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웹앱에 일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기상정보와 연동되어 신고자위치의 기상정보를 알려 환자 주변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대처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자 위치 주변에 운영 중인 병의원, 약국정보를 지도기반 위치표출 및 상세정보 표시, 신고자의 사고환부 주변상황 등 사진을 신고시점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강원119신고앱 홍보전단지

14) 하이브리드앱 : 모바일앱(설치형)과 모바일웹(웹서비스)의 장점을 모은 앱으로 개발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모든 종류의 스마트폰에 사용 가능.

3. 동계올림픽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1)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동계올림픽의 소방안전을 위해 대규모 소방력이 투입됨에 따라 현장상황 무선통신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의 경우, 통신보안성이 취약하여 보안을 강화한 디지털 무전기 보급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동계올림픽 소방인력 동원에 따른 디지털 휴대용 무전기 소요량 총 320대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76대를 지휘본부, 방면지휘본부, 특수구조단, 소방헬기, 안전요원, 구급대원, 진압대원 등에 배부하여 안전올림픽을 위한 긴급통신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존 주 채널을 사용하고 주 채널 사용불가 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채널을 마련하여 무선통신 장애에 대비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휘본부, 소방상황관제센터, CP, 구조구급차량에 배치하였고 유관기관 통신망 및 보조망으로 활용하였다.

2)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정보시스템이 필요하였다. 특히,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전송시스템과 소방차량의 위치와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차량관제시스템(MDT) 등이 마련되어야 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출동대를 편성하고 무선호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동계올림픽 조직 운영에 맞도록 긴급구조시스템 조직 생성을 완료하였다.

재난영상시스템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부착하여 출동 시부터 현장 도착 후 상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상황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에 송출하여 재난규모 파악 및 대응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올림픽을 지원하는 펌프차와 구조차에 재난영상전송장비를 설치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한 상황판단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은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 원거리에서 재난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SKT와 MOU를 체결하여 소방대원의 몸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웨어러블 바디캠을 지원받아 동계올림픽에 투입되는 소방대원에게 배부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동계올림픽 소방관제센터, 소방청 지휘작전실을 연계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판단 및 지휘통제, 상황분석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난규모 및 사고상황 분석, 관계기관 상황전파, 소방지휘부 보고, 타 시도 가용 소방력 파악 및 긴급출동, 사후 긴급대응 평가 환류 및 개선대책 강구 등 활용도가 매우 높아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활용하고 있다.

긴급구조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사전에 취약점 점검과 조치 및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동계올림픽 지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동계올림픽 관련 긴급구조시스템 및 사이버 취약점을 점검하였다. 올림픽 소방상황관제센터와 긴급구조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사전 합동점검을 통해 사이버 취약점을 도출하여 조치하였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백업장치를 마련하였다.



소방상황관제센터 무선통신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

제3절 올림픽 주요시설 소방훈련

1.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종합훈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재해 및 테러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과 사태수습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및 경기장 등 대회주요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중점사항은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공조체제 구축과 다수의 요구조자 발생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으로서 실전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재난책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통해 안전한 대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관련 주요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등 230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총 4,388명의 인원과 545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인터컨티넨탈호텔 화재진압 훈련



용평리조트 긴급구조훈련

〈표Ⅴ-5-5〉 올림픽관련시설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현황

(단위 : 개소 / 명 / 대)

연번	대상	훈련일자	참여기관	동원인원			동원장비
				계	소방	유관	
	계		230	4,388	1,933	3,055	545
1	휘닉스스노경기장	2016.01.27.	31	594	131	463	69
2	정선알파인경기장	2016.01.29.	30	496	388	108	47
3	용평알파인경기장	2016.09.29.	21	335	124	211	54
4	강릉단오문화관	2016.01.22.	27	450	240	210	61
5	강릉아이스아레나	2016.12.08.	26	349	197	152	57

연번	대상	훈련일자	참여기관	동원인원			동원장비
				계	소방	유관	
6	국제방송센터	2017.06.28.	14	228	101	127	41
7	강릉하키센터	2017.06.29.	26	620	261	359	76
8	강릉역사(KTX)	2017.11.01.	25	654	282	972	78
9	인터컨티넨탈호텔	2017.11.16.	22	362	130	232	44
10	평창올림픽스타디움	2017.12.12.	8	300	79	221	18

2. 경기장 및 대회지원시설 합동소방훈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경기장 13개소, 대회지원시설 9개소 등 총 22개소에 대하여 자위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의 초기대응능력 배양과 건축물의 현황 및 자체 소방시설 현지 확인을 위한 합동소방훈련 및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중점훈련사항으로 자위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소화, 통보, 피난 등 초기대응능력 배양, 자체소방시설 및 관할 소방서 출동차량 연계한 합동대응능력 제고, 자위소방대원 소방시설 사용법 및 화재예방 교육훈련 실시, 가상 상황 부여 및 불시출동훈련 전개로 인한 신속한 출동로 확보 등이다. 훈련에 동원된 소방력은 인원 563명과 135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표Ⅴ-5-6〉 경기장 합동소방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단위 : 명 / 대)

대 상	훈련일자	동원인원	동원장비	훈련유형
계		442	89	
휘닉스스노경기장	2017.12.05.	5	2	현지적응훈련
정선알파인경기장	2017.01.29.	136	15	테스트이벤트훈련
	2017.01.31.	20	6	구조대원교육훈련
	2017.02.06.	12	3	인명구조훈련
	2017.10.30.	52	7	구조대원 현지적응훈련
	2017.11.27~28.	2	2	혹한기훈련(드론)
	2018.01.20.	52	1	의료서비스 종합훈련
용평알파인경기장	2018.01.20.	4	1	현지적응훈련
올림픽슬라이딩센터	2018.01.19.	4	2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2017.11.20.	3	2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2017.11.20.	3	2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2017.02.28.	3	2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2017.02.03.	4	1	
	2017.12.27.	8	3	
강릉아이스아레나	2017.02.03.	4	1	
	2017.02.24.	35	4	
	2017.12.28.	8	3	

대 상	훈련일자	동원인원	동원장비	훈련유형
강릉하키센터	2017.02.08.	25	9	현지적응훈련
	2017.03.28.	4	1	
	2017.12.21.	8	3	
관동하키센터	2017.03.29.	3	1	
	2017.12.29.	6	3	
강릉컬링센터	2017.02.13.	9	3	
	2017.06.08.	12	4	
	2018.01.23.	7	3	
영동대쇼트트렉연습장	2018.01.15.	13	5	

〈표Ⅴ-5-7〉 올림픽 대회관련시설 현지적응훈련

(단위 : 명 / 대)

대 상	훈련일자	동원인원	동원장비	훈련유형
계		121	46	
메인프레스센터	2017.01.25.	14	5	현지적응훈련
평창올림픽선수촌	2017.12.05.	4	2	
	2017.12.13.	6	2	
	2017.12.20.	3	2	
강릉올림픽선수촌	2017.12.21.	10	4	
강릉미디어촌	2017.12.27.	9	4	
인터컨티넨탈알펜시아	2017.03.22.	5	2	
홀리데이인호텔	2017.02.10.	8	3	
	2017.11.16.	3	2	
스카이베이경포호텔	2017.01.22.	26	9	
강릉아트센터	2017.01.31.	7	2	
세인트존스호텔	2017.01.22.	26	9	

3. KTX 역사 및 터널 현지적응훈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KTX 역사를 비롯해 고속도로터널 내부구조 및 운용시설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장초기대응 인력 및 장비동원현황 파악과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등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2018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KTX역사 6곳, 고속도로터널 12곳 등 총 18개소에 대하여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중점사항은 KTX 역사 및 고속도로터널 관제실(통제실) 위치 파악, 역사를 비롯해 터널 내부구조 및 자체소방시설, 초기대응인력 현황 파악, 테러 발생 시 유기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의사소통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다수사상자 발생 시 맞춤형 현장대응 진입 및 통신 가능여부 등을 확인 등이었으며, 동원된 소방력은 인원 96명과 25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① 〈표Ⅴ-5-8〉 KTX 역사 및 고속도로터널 대테러 현지적응훈련

(단위 : 명 / 대)

대 상	훈련일자	동원인원	동원장비	훈련유형
계		96	25	
둔내KTX역사및둔내터널	2018.01.24.	10	3	대테러현지적응훈련
횡 성 KTX 역 사	2018.01.25.	19	5	
평 창 KTX 역 사	2018.01.25.	11	3	
진 부 KTX 역 사	2018.01.02.	17	5	
만 종 KTX 역 사	2018.01.29.	4	1	
강 릉 KTX 역 사	2018.02.01.	10	4	
봉평, 진부 1·2·3 터널	2018.01.24.	11	3	
대관령1·2·3·4·5·6·7 터널	2018.02.02.	14	1	

4. 동계올림픽 관련시설 비상대피훈련

강원도소방본부는 대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소화훈련을 실시했으며, 관람객의 대피를 돕는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2018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경기장 및 지원시설 16개소에 대하여 화재대피훈련 및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교육, 조직위 운영요원 연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합동훈련 등 비상대피훈련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올림픽조직위 관계자 등 인원 78명에 장비 25대가 동원되었다.

〈표Ⅴ-5-9〉 올림픽 관련시설 비상대피훈련

(단위 : 명 / 대)

대 상	훈련일자	동원인원	동원장비	훈련유형
계		78	25	
알펜시아올림픽파크	2018.01.25.	7	2	비상대피훈련
올림픽슬라이딩센터	2018.01.19.	7	2	
용평 알파인센터	2018.01.24.	2	1	
	2018.01.30.	4	1	
휘닉스스노경기장	2018.01.24.	4	1	
평창올림픽프라자	2018.01.18.	7	2	
	2018.01.31.	7	2	
인터컨티넨탈호텔	2018.01.31.	2	1	
국제방송센터 (IBC)	2018.01.19.	7	2	
	2018.01.30.	7	2	
메인프레스센터	2018.01.24.	6	2	
평창미디어레지던스	2018.01.30.	5	2	
정선알파인경기장	2018.01.29.	8	3	
영동대트레이닝센터	2018.01.25.	5	2	

제4절 대응매뉴얼 제작

1. 소방안전인력 현장교육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 소방안전인력교육은 기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현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올림픽 운영요원에 대한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도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만 강원도 소방조직의 특성상 동시에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어 부득이 전달교육도 병행하였으나 전달과정에서 일부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혼선을 빚기도 하였다.

특히 현장 소방안전인력 교육을 위해 제작된 매뉴얼을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도내 소방관서별 올림픽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하였다.

SU(국제빙상연맹) 주관 소방운영요원 사전 직무교육으로 구급대원, FOP응급구조사 등을 대상으로 이론(근무수칙, 빙상경기 응급구조) 및 경기장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주관 설상 FOP 응급구조사 사전 직무교육은 정선알파인 경기장과 정선군청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올림픽 근무자세 및 마음가짐, 스키 장애인경기에서의 응급구조사와 FoP의 역할, 알파인 경기 특성 및 부상 기전 설명, 2018 평창 조직위에서 장애인 선수 부상 시 경기용구(보장구) 탈착과 수송 실습 등을 실시하여 패럴림픽의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소방CP 등 운영요원 사전 직무교육은 2017년 12월 19일과 20일에 걸쳐 설상과 빙상근무자로 나누어 소방청, 조직위원회, 강원도소방본부에서 분야별 안전대책, 협업사항, 설상·빙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인원은 중앙119구조본부, 서울, 경기 등 각 지역 소방기관에서 지원된 설상분야 144명(소방CP, 방재센터, 화재·구조·구급대원, FOP 등), 빙상분야 173명(소방CP, 방재센터, 화재·구조·구급대원, FOP 등)등 총 317명이 교육을 받고 올림픽 근무에 사전 대비하였다.



설상경기장 구급대원 사전교육



빙상경기장 구급대원 사전교육

2. 대응매뉴얼 및 소방안전수칙 제작

1) 소방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소방안전 매뉴얼

강원도소방본부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소방안전매뉴얼을 제작하여, 도내 소방관서 및 소방CP 등에 배포하여 안전요원으로 참가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 숙지하도록 하여 완벽한 대회 지원태세를 확립하였다. 매뉴얼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방침, 근무수칙, 대응요령 등을 규정하였고 교육 자료 및 안전지침으로 활용하여 재난·안전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조치로 대회참가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안전매뉴얼 제작기간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제작하였으며 A·B·C 세 파트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파트는 소방안전메뉴얼의 개요, 대회개요, 소방안전대책 기본방향, 소방안전관리, 대응단계별 대응활동원칙을 수록하였고 두 번째 파트는 마운틴클러스터 7개소, 코스털클러스터 7개소 등 경기장별 안전대책을 수록하였다. 마지막 파트는 평창올림픽프라자, 국제방송센터 메인프레스센터, 평창올림픽선수촌, 강릉올림픽선수촌, 강릉미디어선수촌, IOC본부호텔 등 올림픽지원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록하였다.

2) 다국어 소방안전리플릿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단,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 홍보 및 유사 시 초기 대응활동을 위하여 다국어 소방안전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다국어 소방안전리플릿은 응급상황 발생 시 한글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자칫 사용법을 몰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소화기 사용법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완강기 사용법을 그림과 함께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6개국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다국어 소방안전리플릿은 선수촌과 경기장, 올림픽 개최도시 호텔 등에 4,000부를 배부하였고 그 외 소방관서에 6,000부를 배부하는 등 총 10,000부를 제작·배부하였다.



다국어 소방안전리플릿(앞면)



다국어 소방안전리플릿(뒷면)

3) 소방안전근무수칙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소방안전매뉴얼을 제작함과 동시에 소방안전근무수칙을 제작하였다. 사이즈는 32절 사이즈(142×200㎜)로 휴대가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수시로 근무수칙을 확인하면서 올림픽 관련시설에 대한 주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작부수는 1,000부를 제작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근무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다.



소방안전근무수칙

소방안전근무수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현황, 경기장 및 지원시설 현황, 소방안전관리 운영체계, 소방안전 근무수칙, 소방CP 및 대기실 현황, 주요 소방력 배치, 유관기관 및 근무자 비상연락망 등이다.

제5절 헬기격납고 구축 및 119출정식

1. 헬기 임시 격납고 구축

1) 헬기격납고 구축 배경

응급환자이송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최종단계로서 응급의료헬기의 안정적 운용을 들 수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응급의료헬기 운용을 위한 기획 등 실무적인 업무는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경기국 의무부 응급의료팀이 전담하였다.

당시 올림픽 응급의료 역할 수행에 특화된 헬기는 소방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기관에서 운영중인 헬기뿐이었다. 응급의료팀은 과거의 사례를 검토하고 베뉴에서 올림픽 병원과의 거리,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이송구분, 지상 이송과의 시간분석, 도로여건 등 항공이송을 위한 다양한 변수를 발굴·검토하였고 동계올림픽대회에서는 4대(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강원도소방본부 제1항공구조구급대, 육군 의무후송항공대, 보건복지부 닥터헬기),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는 3대(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강원도소방본부 제1항공구조구급대, 육군 의무후송항공대)의 헬기를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초기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기관들의 협조는 생각보다 원만하지 않았다. 각 기관들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약 2달 동안의 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지원을 병행하기란 지원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두고 지원기관들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협조를 하면서도 꾸준한 요구조건은 헬기격납고의 설치였다. 헬기격납고는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응급의료팀에서는 조직위 관련부서, 특히 예산부와 오버레이부를 설득하기로 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약 6개월간의 협의 끝에 흡족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확보하였고 격납고 건설에 돌입하였다. 부지는 진부IC



진부 헬기격납고 내부


진부 헬기 격납고 외부

인근 국방부 부지를 무상임대로 사용하였고 격납고 건설에 탄력을 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순조롭기만 할 것 같았던 공사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건축자재 반입 광경을 본 인근 주민들이 헬기격납고가 영구 건물로 신축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자재반입을 막으며 건설백지화를 요구한 것이다. 며칠에 걸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끝나면 철거 할 것이라고 설득하였고 주민들도 올림픽이라는 국가행사의 성공을 위하여 이해를 해주었고 철거를 약속하는 문서를 주민들에게 교부하여 타결을 지을 수가 있었다.

정선알파인경기장에서 펼쳐진 테스트이벤트 경기의 헬기 지원을 위하여 2017년 1월 31일 최종 완공된 격납고는 50m×30m×30m 규모의 천막재질로 건축하였으며 내부에는 컨테이너 3동과 화장실 1동 및 조명시설이 설치되었다.

2) 헬기격납고의 필요성

헬기를 노천에 계류할 경우 항공기 보호를 위한 무어링 및 보호커버 설치가 필요하며 적설상태에서는 눈 제거 및 커버 제거로 즉응적인 임무수행이 제한된다. 또한 기온강하(영하 20℃ 이하)시 항공기 시동 및 지상시동장비를 가동하는 배터리의 성능 저하로 배터리를 제거 후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배터리 탈부착 소요시간(탈부착 시간 : 5분)에 따른 즉응적인 임무수행에 제한이 있다.

항공기 내 구급장비의 경우에도 영하의 기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기능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기능오류 예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하나 구급장비 재 설치에 따른 소요시간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헬기 격납고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였다.



무어링 및 보호커버 설치


항공기 적설 및 결빙


항공기 내 구급장비

2. 올림픽 성공개최 119출정식

2011년 7월 7일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온 한통의 낭보는 아직도 우리 가슴에 환희와 감동으로 남아있다. 고진감래, 2전 3기 끝에 얻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유치, 온 국민의 오랜 염원은 평창의 기적이라는 값진 열매로 결실을 맺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열매가 최고의 등급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단연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했고 그 안전에 있어 "최고 권위자는 바로 강원소방이다" 라는 자신감으로 신속한 대응 및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역대 가장 안전한 동계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다짐과 세계 동계스포츠 역사상 새로운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강원소방에서는 출정식으로 성공개최 다짐을 하였다.

올림픽 성공개최 119출정식은 2018년 1월 31일 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명이 참가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다짐 출정식을 개최하면서 지난 1년간의 테스트이벤트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오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영상을 상영하였다.

경기장 안전점검, 안전요원 교육, 소방장비 보강 등 안전올림픽을 위해 준비해 오는 과정을 되돌아 보았으며, 성공개최를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다짐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올림픽 성공개최와 119대원들을 응원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은 어린이 합창단 응원공연이 있었다. 또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19대원에게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어 달라"는 안전 임무장을 수여하였고, 아들이 엄마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시민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강원도지사가 소방본부장에게 안전올림픽을 위한 임무를 부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출정식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 응원공연

강원소방 100년사

제6장

(대응) 완벽한 현장대응활동

제1절 테스트이벤트 및 소방안전대책

1. 테스트이벤트 개요

1) 테스트이벤트 목적

테스트이벤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올림픽 한 해 전에 실제 올림픽처럼 진행하는 이벤트 대회로서 동계올림픽 개최장소에서 동일하게 개최하여 올림픽 전에 모든 측면을 점검·보완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20회, 동계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 5회, 비경쟁 테스트이벤트 4회 등 총 29회의 테스트이벤트 국제대회가 동계올림픽대회와 같은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테스트이벤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실제 경기장에서의 대회운영과정에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완벽한 화재·구조·구급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예방, 대비, 대응과정에서 단계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

2)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는 2016년에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스키, 쇼트트랙 등 4종목 경기에 5회의 테스트이벤트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노르딕복합, 스피드스케이팅, 프리스타일스키, 스노보드, 스키점프와 피겨스케이팅, 루지,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아이스하키 등 14종목 경기에 14회의 테스트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표 Ⅴ-6-1〉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일정

구분	종목	대회명	기간 (공식연습)	대회장소
'16	알파인스키	2016 아우디 FIS 스키월드컵	02.06~ 02.07. (3~5)	정선 알파인경기장
	스노보드	2016 FIS 스노보드월드컵	02.19~27.	휘닉스 스노경기장
	프리스타일 스키	2016 FIS 프리스타일스키월드컵	02.18.~02.28.	휘닉스 스노경기장

구분	종목	대회명	기간 (공식연습)	대회장소
'16	스노보드	2016/17 FIS 스노보드 월드컵	11.25.~11.26. (23~24)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쇼트트랙	2016/17 KB ISU 쇼트트랙월드컵대회	12.16.~12.18.	강릉 아이스아레나
'17	알파인스키	2017 극동컵 회장배 국제스키대회	01.16.~ 01.17.	용평 알파인경기장
	크로스컨트리 스키	FIS 크로스컨트리 월드컵	02.03.~02.05. (1~2)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노르딕복합	2017 FIS 노르딕복합 월드컵	02.04.~ 02.05. (3)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스키점프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ISU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02.09.~02.12. (6~8)	강릉스피드 스케이팅경기장
	프리스타일 스키	2016/17 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	02.10.~02.18. (7~10, 14~15)	휘닉스 스노경기장
	스노보드	2016/17 FIS 스노보드 월드컵	02.12.~02.19. (10~11, 14~15)	휘닉스 스노경기장
	스키점프	2017 FIS 스키점프 월드컵	02.15.~02.16. (14)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18	피겨 스케이팅	2017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02.16.~02.19. (14~15)	강릉 아이스아레나
	루지	Viessmann 루지월드컵 & Viessmann 팀계주월드컵	02.17.~02.19. (15~16)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컬링	2017 VoIP Defender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대회	02.16.~02.26. (15)	강릉컬링센터
	바이애슬론	2017 BMW IBU 바이애슬론 월드컵	03.02.~03.05. (2.28~3.1)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알파인스키	2017 Audi FIS 스키 월드컵	03.04.~03.05. (2~3)	정선 알파인경기장
	봅슬레이/ 스켈레톤	2017 BMW IBSF 봅슬레이&스켈레톤 월드컵 평창	03.17.~03.19. (14~16)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아이스하키	2017 IIHF 아이스하키 U18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젼 II 그룹A	04.02.~04.08.	강릉·관동 하키센터
		2017 IIHF 아이스하키 여자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젼 II 그룹 A	04.02~04.08.	강릉·관동 하키센터

3) 동계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

동계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는 2017년에 휠체어컬링,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알파인스키, 아이스하키 등 6종목 경기에 5회의 테스트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표Ⅴ-6-2〉 동계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 일정

구분	종목	대회명	기간 (공식연습)	대회장소
'17	휠체어컬링	2017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03.04.~03.11. (3)	강릉컬링센터
	스노보드	2017 정선 IPC 스노보드 월드컵 파이널	03.10, 13 (8~9, 12)	정선 알파인경기장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2017 평창 IPC 노르딕스키 월드컵	03.10.~03.15. (9, 12)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알파인스키	2017 정선 IPC 알파인스키 월드컵 파이널	03.11.~03.18. (9~10)	정선 알파인경기장
	아이스하키	2017 강릉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A-Pool	04.11.~04.19. (9~11)	강릉하키센터

4) 비경쟁 테스트이벤트

비경쟁 테스트이벤트는 2017년 국제훈련주간과 국제훈련기간에 따라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 3종목 경기에 4회의 테스트이벤트를 실시하였다.

〈표Ⅴ-6-3〉 비경쟁 테스트이벤트 일정

구분	종목	대회명	기간 (공식연습)	대회장소
'17	루지	FIL 1차 국제훈련주간	02.08.~02.14.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봅슬레이 스켈레톤	IBSF 1차 국제훈련기간	03.02.~03.12.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루지	FIL 2차 국제훈련주간	11.02.~11.11.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봅슬레이 스켈레톤	IBSF 2차 국제훈련기간	10.21.~10.28.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2. 테스트이벤트 소방안전대책

2016/2017 테스트이벤트는 2018평창올림픽대회를 앞두고 경기운영능력 점검과 경험축적을 위해 종목별로 실시하는 국제대회로 대회 하나하나가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실전과 같은 안전대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화재·구조·구급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통한 현장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예방, 대비, 대응단계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

1) 예방단계

테스트이벤트 경기 시작 전 경기장 및 대회지정 숙박시설의 화재 등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기장 12개소,

지정숙박시설 18개소 등 총 30개소에 대하여 관할소방서 특별조사반이 투입되어 실시하였다.

소방특별조사의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관계자의 소방관련 법규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 이행여부, 비상구·피난계단 등 관리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양호하였으나, 일부 불량사항이 있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였으며, 감지기 탈락과 같은 소방시설 작동 불량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통하여 시정하였다.



테스트이벤트 경기장 소방시설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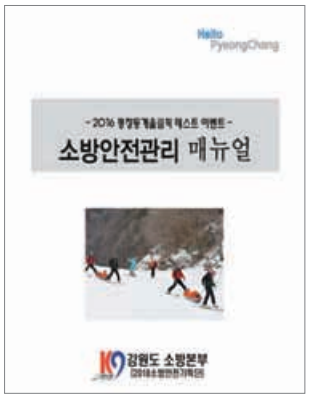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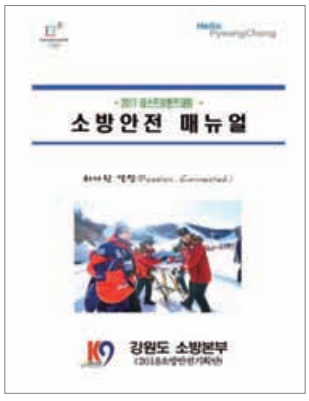
숙박시설 소방시설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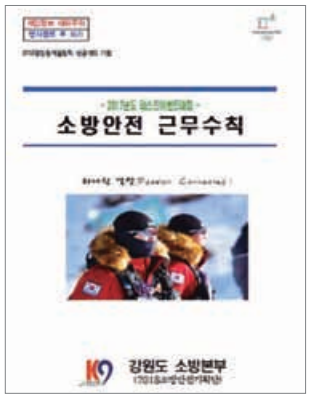
2) 대비단계

(1)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및 근무수칙 제작

2016년부터 소방안전관리 매뉴얼 및 근무수칙을 제작하여 경기장별 주요 부서에 배부하여 근무자 교육자료로 활용하였다. 2016년에는 소방안전관리매뉴얼 50부, 소방안전근무수칙 60부를 제작하였고 2017년 1월에는 극동컵회장배 국제스키대회 소방안전매뉴얼 50부, 소방안전근무수칙 6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2017년 2월에는 2017테스트이벤트대회 소방안전매뉴얼 100부, 소방안전근무수칙 300부를 제작하여 총 소방안전관리매뉴얼 200부 및 소방안전근무수칙 420부를 제작·배부하였다.







(2) 경기장 및 숙박시설 소방훈련 실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장 12개소, 지정숙박시설 18개소에 대하여 790명의 인원과 소방차, 헬기, 구급차 등 143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기장 및 지정숙박시설 30개소에 대하여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였고, 349명의 인원과 57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폭설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리프트 사고에 대비하여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스키장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스트이벤트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폭설대비 합동훈련



스키장 인명구조훈련

(3) 민간인 자원봉사자 소방안전교육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올림픽 개최도시 소방서인 강릉·평창·정선소방서에서는 대회에 동원되는 민간인 자원봉사자 248명에게 소화기사용법, 소화전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소·소·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9신고요령 및 초기화재 시 대피 및 진압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Ⅴ-6-4〉 민간인 자원봉사자 소방안전교육

(단위 : 명)

구분	계	강릉소방서	평창소방서	정선소방서
교육인원	248	91	90	67



민간인 자원봉사자 소방안전교육(평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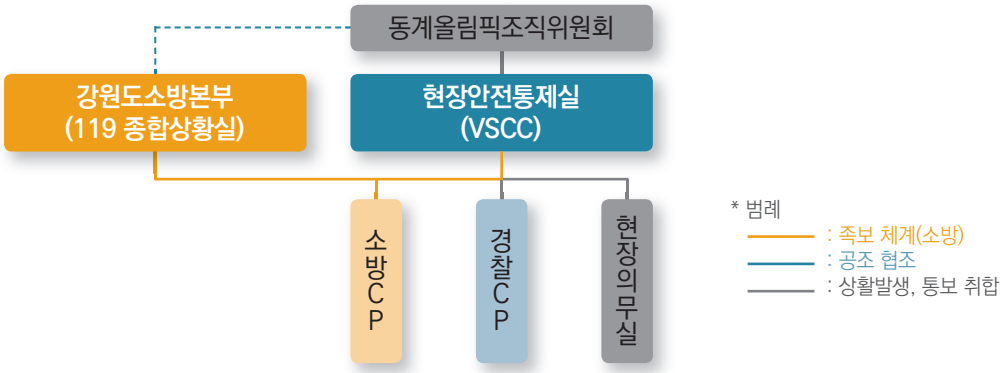
민간인 자원봉사자 소방안전교육(정선)

3) 대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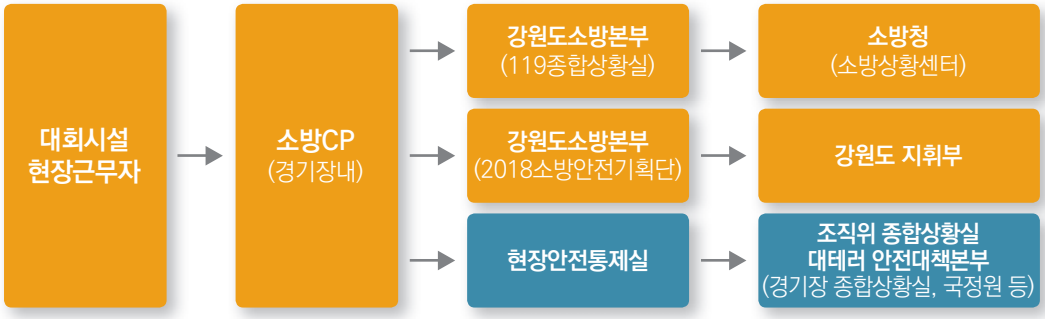
테스트이벤트가 실시되는 대응단계에서는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대회의 안전관리를 지원하였다. 총괄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소방CP를 운영하였고, 경기구역 내 선수의 우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FOP응급구조사 및 스키응급구조사를 배치하였다. 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병원이송을 위한 구급대와 슬로프에서의 사고에 따른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를 전진배치하였고 정선알파인경기장에 소방헬기를 배치하여 중증응급환자의 헬기이송에 대비하였다.

지정숙박시설에 대한 야간 기동 순찰을 실시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유관기관 연락체계와 상황보고 단계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Ⅴ-6-1〉 유관기관 연락체계



〈그림 Ⅴ-6-2〉 상황보고 체계(절차)



제2절 성화봉송 소방안전대책

1.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1) 성화봉송 개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화봉송은 2017년 10월 24일 그리스 아테네 헤라신전에서의 채화 의식을 거쳐 2017년 11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다. 인천에서 시작된 성화봉송은 제주도를 거쳐 부산으로 상륙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이 열리는 2018년 2월 9일까지 101일간 진행되었다.



인천대교 성화봉송(2017.11.1.)

성화봉송 주자는 남·북한의 인구 7,500만명을 의미하는 7,500명의 주자를 선정하였으며, 2,018명의 지원주자가 주자와 함께 전국의 17개 시·도 2,018㎞의 거리를 이동하였다.

성화봉송단은 차량 94대와 3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선행팀, 선발대, 본대로 구성되었다. 선행팀은 성화봉송 1~2일 전에 해당 시·군에 먼저 도착해 성화봉송을 준비하고, 선발대는 본대 보다 5~10분정도 앞서 진행하며 성화봉송로 확인 및 주자 하차를 맡고, 본대는 주자를 중심으로 경찰차, 미디어차량, 지휘차량, 구급차 등을 배치하여 성화봉송 임무를 수행하였다. 선발대와 본대로 구성된 성화봉송차량은 모두 19대이며 구급차는 2대가 배치되었다. 구급차 1대는 강원도소방본부 소속 대형특수구급차이고 다른 1대는 각 지역 소방서로부터 지원을 받은 특수구급차이다.

〈그림Ⅴ-6-3〉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대열



〈그림Ⅴ-6-4〉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개요

○ 슬로건 : Let everyone shine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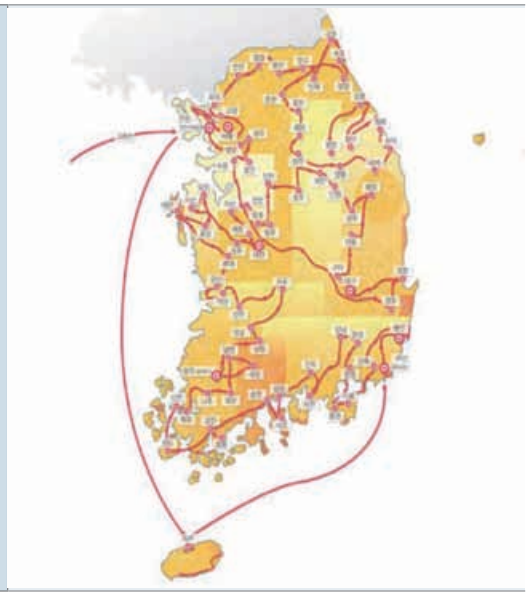
○ 봉송기간 : '17.11.1.~'18.2.9.(101일)
※ 성화채화 : 10.24.(화) 그리스
국내도착 : 11.1.(수) 인천공항

○ 봉송시간 : 09:00~19:00
※ 19:00~20:30 지역 축하행사

○ 봉송구간 : 전국 시·도 8,006km

○ 주자봉송 : 2,018㎞

○ 봉송주자 : 7,500명
* 봉송주자 7,215 이색 148, 스파이더 137



한편 강원도소방본부는 2017년 10월 31일 성화봉송 안전지원 출정식을 개최하였다. 101일간의 긴 여정동안 최신식 장비를 갖춘 대형특수구급차 1대와 전문구급대원 3명(소방안전기획단 1명 포함)이 탑승하여 성화봉송 주자 등 관계자들의 응급처치는 물론 성화가 안전하게 올림픽스타디움의 성화대에 점화될 때까지 성화봉송 전 구간을 함께 하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였다.



2) 시·도별 성화봉송 추진일정

성화봉송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대한민국의 숨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을 남기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이야기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많은 주자들이 함께하는 만큼 전 국민의 참여 속에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성화는 바다 위에서도 타올랐다. 봉송 3일째, 제주 해녀 고려진씨와 해저탐사로봇 크랩스터가 함께한 수중 성화봉송이었으며 제주 해녀문화와 로봇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안전한 올림픽으로 개최되길 기원하며 소방관의 열정을 담은 이색적인 성화봉송도 펼쳐졌다. 국내외 최초 안전을 테마로 한 교육놀이시설인 365세이프타운에서 진행되는 이색 성화봉송은 365세이프타운 내에 건립된 순직소방관 추모비에서의 추모행사를 시작으로 강원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의 이명환 소방관이 헬기 하강훈련과 호이스트 장면을 연출한 뒤 직접 주자로 나서 1.2㎞ 구간을 뛰었다.



소방119와 세이프타운이 함께하는 성화봉송



강릉선교장에서 성화봉송하는 이진호 강릉소방서장

〈그림Ⅴ-6-5〉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일정

인천	제주도	부산	울산	경남	전남
2017.11.01. →	2017.11.02. ~ 2017.11.03. →	2017.11.04. ~ 2017.11.06. →	2017.11.08. ~ 2017.11.10. →	2017.11.11. ~ 2017.11.17. →	2017.11.18. ~ 2017.11.23.
광주	**전북**	**충남(남부)**	**대전**	**세종**	**충남(북부)**
2017.11.24. ~ 2017.11.26. →	2017.11.28. ~ 2017.12.03. →	2017.12.05. ~ 2017.11.08. →	2017.12.09. ~ 2017.12.11. →	2017.12.13. ~ 2017.12.14. →	2017.12.16. ~ 2017.12.17.
충북	**경북**	**대구**	**경북**	**경기(남부)**	**인천**
2017.12.18. ~ 2017.12.23. →	2017.12.24. ~ 2017.12.27. →	2017.12.29. ~ 2017.12.31. →	2018.01.01. ~ 2018.01.02. →	2018.01.05. ~ 2018.01.08. →	2018.01.10. ~ 2018.01.12.
서울	**경기(북부)**	**최북단지역**	**강원도**	**개회식장**	
2018.01.13. ~ 2018.01.16. →	2018.01.18. ~ 2018.01.19. →	2018.01.19. ~ 2018.01.26. →	2018.01.27. ~ 2018.02.09. →	2018.02.09.	

성화 봉송 후에는 항상 지역축하행사가 열렸다. 성화봉송 문화행사는 성화봉송이 진행된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성화는 2017년 11월 1일 인천에서 시작해 강원도까지 101일간 전국 곳곳을 누볐으며, 2018년 2월 9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장에 무사히 도착하여 올림픽 기간 내 모두를 빛나게 하였다.

〈그림Ⅴ-6-6〉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 현황



3)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소방력 지원

2017년 11월 1일부터 성화 봉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2대의 구급차와 5명의 전문구급대원은 본대에 편입되어 성화봉송 주자 등의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강원도 대형특수구급차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하여 구급차 측면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강원소방이 함께합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함으로써 타 시·도 주민들에게 동계올림픽에서의 강원소방의 역할 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성화봉송이 진행되는 각 지역에서는 마지막 주자의 성화가 행사장에 들어오는 시간인 18시 30분에서 19시 사이에 축하행사를 진행하였다.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는 지역축하 행사장까지 성화를 봉송하였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임시성화대에 성화를 안치하였고 8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축하공연을 진행하였다.

한편 강원도소방본부는 지역축하행사장의 안전을 위하여 펌프차와 구급차를 행사장에 배치하여 행사장의 화재경계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성화봉송기간 동원된 소방력은 연인원 914명, 장비 333대가 투입되었으며 1건의 화재진압과 12건의 구급이송을 하였다.



성화봉송임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



성화봉송지역 축하행사 소방력 전진배치

2.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1) 성화봉송 개요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은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다. 성화 봉송주자들은 총 2,018㎞를 이동하며 이 중 주자들은 80㎞를 달렸다. 주자는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00명의 봉송주자와 218명의 지원주자가 함께하였다.



패럴림픽 성화봉송 숫자 8의 의미

성화의 채화는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Stoke Mandeville)과 전국 5개 권역(고창, 안양, 제주, 청도, 논산)에 채화되었고, 채화된 6개의 성화와 디지털 성화, 평화의 광장 성화가 합화되었으며 합화된 성화는 서울, 원주, 정선, 강릉, 평창 순으로 성화봉송이 이루어졌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단은 차량 47대와 2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진행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과 같은 선행팀, 선발대, 본대로 구성하였다. 선발대는 경찰차를 선두로 하여 7대 차량이 본대보다 5~10분 앞서 성화봉송로 확인 및 주자수송을 맡고, 본대는 경찰차, 미디어차량, 싸이카, 구급차 등 11대로 성화봉송 주자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그림Ⅴ-6-7〉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대열



〈그림Ⅴ-6-8〉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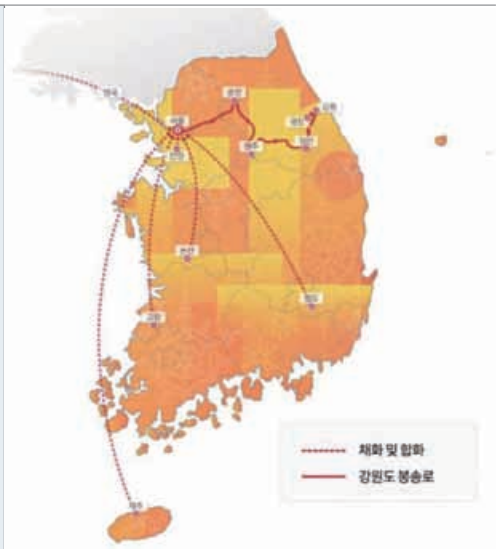
○ 슬로건 : Let everyone shine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 봉송기간 : '18.3.2.~'18.3.9.(8일간)
성화채화 : 스토크맨더빌(영국), 제주, 안양, 논산, 고창, 청도, 디지털 성화, 평화의 광장 성화
성화합화 : 서울

○ 봉송구간 : 서울·춘천·원주·정선·강릉·개회식장

○ 주자봉송 : 80㎞

○ 봉송주자
주 자 : 800명(2인1조)
지원주자 : 218명(부주자·홍보·보안 등)



2) 시·도별 성화봉송 추진일정

2018년 3월 2일 패럴림픽의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맨더빌(Stoke Mandeville)과 전국 5개 권역(고창, 안양, 제주, 청도, 논산)에서 성화가 채화되었다. 2018년 3월 3일에는 채화된 성화의 봉송이 진행되어 서울로 이동하였다.


패럴림픽 성화 합화식(2018.3.3.)

각 지역에서 올라온 성화는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보존된 서울하계패럴림픽 성화와 전 세계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디지털 성화와 함께 총 8개의 불꽃이 하나로 합화되었다. 성화 봉송은 서울특별시, 강원도 춘

천시, 원주시, 정선군, 강릉시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8년 3월 9일 개회식장인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 도착하였다.

〈그림 V-6-9〉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여정



3)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소방력 지원

2018년 3월 2일부터 진행된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기간에는 제주, 안양, 논산, 고창, 청도 등 5개 지역의 성화 채화·합화 장소 및 봉송 구간에 관할 소방서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배치하였으며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성화봉송 구간에는 대형특수구급차 1대 및 전문구급대원 2명을 배치하여 성화봉송 시 응급상황 및 안전관리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화봉송 환영행사가 진행되는 행사장에는 행사규모, 접근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력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원 소방력은 펌프차 및 구급차 31대와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 75명이 지원되었다.

한편, 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전국에서 14명의 소방관을 선발하여 주자로 참여하였고 강원도에서는 소기웅 정선소방서장과 소방안전기획단 조용철 소방경, 조직위원회 천정덕 소방경, 정선소방서 권나연 소방사가, 성화봉송에 직접 참여하였다.


소방경 조용철(춘천)


소방정 소기웅, 소방사 권나연(정선)


소방경 천정덕(원주)

제3절 개·폐회식 소방안전대책

1. 모의개회식

1) 추위 속의 모의개회식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6일 남겨둔 2018년 2월 3일 오후 8시, 평창동계올림픽 모의개회식이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날 모의개회식은 9일 열리는 올림픽대회 개회식의 리허설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행사 시작도 실제 개회식과 같은 밤 8시로 맞췄고 진부역에서 올림픽스타디움까지의 셔틀버스 운행 등 수송대책도 실제와 똑같은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었다.

모의개회식 관중으로는 자원봉사자와 출연진 가족, 소방·경찰·군인 가족들 개최도시 주민 등 2만여명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강화된 보안검색과 길게 늘어선 대기줄, 그리고 가장 문제되었던 추운 날씨가 모의개회식의 발목을 잡았다. 방풍막과 난로를 설치했음에도 개회식장에는 체감온도 영하 22도의 칼바람이 쏟아졌으며, 입장을 위해 서있는 대기줄이 워낙 길어서 관중들은 추위 속에서 1시간 이상이나 버텨야 했다. 행사는 밤 10시 10분에 끝이 났으나 추위를 이기지 못한 일부 관중은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응급처치를 받기도 하였다.

2) 모의개회식 소방안전대책

강원도소방본부에서도 올림픽 개·폐회식의 최종 점검 단계인 모의개회식을 통해 소방안전 능력을 점검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로 삼았다. 모의개회식에는 173명의 소방공무원과 38대의 장비가 배치되었으며 총괄지휘본부, 소방상황관제센터, 신속대응팀, 구급팀, 안전순찰팀 등 5팀을 운영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안전관리 경험축적 및 사고사례를 통해 개·폐회식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였다. 또한 현장안전통제실 및 조직위 안전관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관중의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하였다.

이날 안전순찰팀은 올림픽스타디움 A동과 B동 사이를 2인 1조로 순찰하던 중 흡연장소 인근 휴지통 속에서 불꽃을 발견하여 휴대용소화기로 진화하였으며, 복통과 낙상으로 인한 환자 2명을 병원에 이송하였고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관중 3명을 대관령 환승주차장까지 구급차로 이송하기도 하였다.

〈표Ⅴ-6-5〉 2018평창동계올림픽 모의 개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단위 : 대 / 명)

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모의개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계		소방청	중구본	본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
총 계		장비	38	2	4	6	2	1	2	2	1	2	2	1	2	1	7	1	1	1
		인원	173	10	8	23	7	10	9	13	10	11	12	5	8	2	25	10	5	5
총괄지휘본부		장비	5	G2	-	G3	-	-	-	-	-	-	-	-	-	-	-	-	-	-
		인원	20	10	-	10	-	-	-	-	-	-	-	-	-	-	-	-	-	-
소방상황관제센터		장비	-	-	-	-	-	-	-	-	-	-	-	-	-	-	-	-	-	-
		인원	6	-	-	1	-	-	4	1	-	-	-	-	-	-	-	-	-	-
신속대응팀	화생방대응팀	장비	4	-	C4	-	-	-	-	-	-	-	-	-	-	-	-	-	-	-
		인원	8	-	8	-	-	-	-	-	-	-	-	-	-	-	-	-	-	-
	화재진압팀	장비	4	-	-	-	-	-	-	-	-	-	-	-	-	-	P3 G1	-	-	-
		인원	11	-	-	-	-	-	-	-	-	-	-	-	-	-	11	-	-	-
	인명구조팀	장비	2	-	-	R2	-	-	-	-	-	-	-	-	-	-	-	-	-	-
		인원	5	-	-	5	-	-	-	-	-	-	-	-	-	-	-	-	-	-
	항공이송팀	장비	1	-	-	H1	-	-	-	-	-	-	-	-	-	-	-	-	-	-
		인원	5	-	-	5	-	-	-	-	-	-	-	-	-	-	-	-	-	-
구급팀	구급이송팀	장비	10	-	-	-	A1	-	A2	A1	-	A1	A1	-	A1	A1	A2	-	-	-
		인원	21	-	-	1	2	-	4	2	-	2	2	-	2	2	4	-	-	-
순찰팀	안전순찰팀	장비	12	-	-	-	G1	G1	-	G1	G1	G1	G1	G1	G1	-	G1	G1	G1	G1
		인원	97	-	-	1	5	10	1	10	10	9	10	5	6	-	10	10	5	5

※ 펌프차·물탱크(P), 구급차(A), 구조차(R), 화학구조차(C), 버스(B), 헬기(H), 스(B),기타(G).

2.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1) 행사 개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은 2018년 2월 9일 20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진행되었다. 이 개회식은 올림픽헌장의 수칙에 의하여 국제스포츠행사의 일반적인 개회식순(환영사와 국기게양, 선수단 입장)과 더불어 개최국의 문화를 혼합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 개회식의 슬로건은 'Peace in Motion'(행동하는 평화)이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폐회식은 2018년 2월 25일 20시에 개회식이 진행되었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진행되었다. 올림픽의 폐막식은 폐막사와 국기 게양, 선수단 입장, 문화행사 및 차기 개최국인 중국의 문화행사로 진행되었다. 폐막식의 슬로건은 'The Next Wave'(미래의 물결)로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도전정신을 표현하고 세계의 융합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표Ⅴ-6-5〉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 주 최 : IOC(국제올림픽위원회)
- 주 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 주 제
  - 개회식 : "Peace In Motion 행동하는 평화"
  - 폐회식 : "The Next Wave 미래의 물결"
- 주요내용 : 식전공연, 공식행사, 식후공연 등

2) 소방력 현장배치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행사의 빈틈없는 대응태세구축을 위하여 소방력을 동원하였으며 개회식에는 252명의 소방공무원과 48대의 장비가 동원되었고, 폐회식에는 246명의 소방공무원과 50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관람객이 최종 퇴장할 때까지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다.

개·폐회식 모두 소방의 총괄지휘는 조종묵 소방청장이고, 현장지휘는 이흥교 강원도소방본부장이 맡아서 행사장 요소요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촘촘한 작전을 펼쳤으며, 신고자와 119종합상황실, 올림픽소방상황관제센터간의 3자 통화시스템운영으로 신속·대응가능

한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개회식장 내·외부에 2중, 3중의 안전라인을 설치하고 시시각각 연출되는 불꽃 동선을 따라 소방차량을 배치하여 대형화재를 원천봉쇄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저체온증 및 심혈관계질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들것·자동제세동기 등 응급기자재를 비치하고 생명안전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구급활동을 전개했다.

테러 등 사태에 대비하여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조직위 등 안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올림픽스타디움 후면에 전문 화생방대응팀을 배치하였으며 임시119안전센터를 운영했다.



올림픽 주요경기장 소방력 배치



강릉컬링센터 소방력 배치

〈표Ⅴ-6-6〉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단위 : 대 / 명)

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계		소방청	중구본	본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총 계		장비	48	2	5	8	3	2	3	1	1	1	2	2	4	2	7	5	–
		인원	252	10	14	38	22	17	29	4	11	2	9	10	13	14	25	33	1
소방총괄지휘본부		장비	7	G2	–	G4	–	–	–	–	–	–	–	–	–	–	G1	–	–
		인원	21	10	–	11	–	–	–	–	–	–	–	–	–	–	–	–	–
소방상황관제센터		장비	–	–	–	–	–	–	–	–	–	–	–	–	–	–	–	–	–
		인원	9	–	–	4	–	–	4	1	–	–	–	–	–	–	–	–	–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1	–	–	B1	–	–	–	–	–	–	–	–	–	–	–	–	–
		인원	5	–	–	5	–	–	–	–	–	–	–	–	–	–	–	–	–
신속대응팀	화생방대응팀	장비	4	–	C4	–	–	–	–	–	–	–	–	–	–	–	–	–	–
		인원	10	–	10	–	–	–	–	–	–	–	–	–	–	–	–	–	–
	화재진압팀	장비	3	–	–	–	–	–	–	–	–	–	–	–	–	–	P3	–	–
		인원	11	–	–	–	–	–	–	–	–	–	–	–	–	–	11	–	–

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계		소방청	중구본	본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신속대응팀	인명구조팀	장비	2	-	-	R2	-	-	-	-	-	-	-	-	-	-	-	-	-
		인원	8	-	-	8	-	-	-	-	-	-	-	-	-	-	-	-	-
	항공이송팀	장비	2	-	H1	H1	-	-	-	-	-	-	-	-	-	-	-	-	-
		인원	11	-	5	6	-	-	-	-	-	-	-	-	-	-	-	-	-
구급팀	구급이송팀	장비	20	-	-	-	A2	A1	A2	A1	-	A1	A1	A2	A3	A1	A2	A4	-
		인원	41	-	-	2	4	2	3	2	-	2	2	4	6	2	4	8	-
순찰팀	안전순찰팀	장비	9	-	-	-	B1	B1	B1	-	B1	-	B1	-	B1	B1	B1	B1	-
		인원	137	-	-	2	18	15	22	1	11	-	7	6	7	12	10	25	1

※ 펌프차·물탱크(P), 구급차(A), 구조차(R), 화학구조차(C), 버스(B), 헬기(H), 기타(G).

〈표Ⅴ-6-7〉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단위 : 대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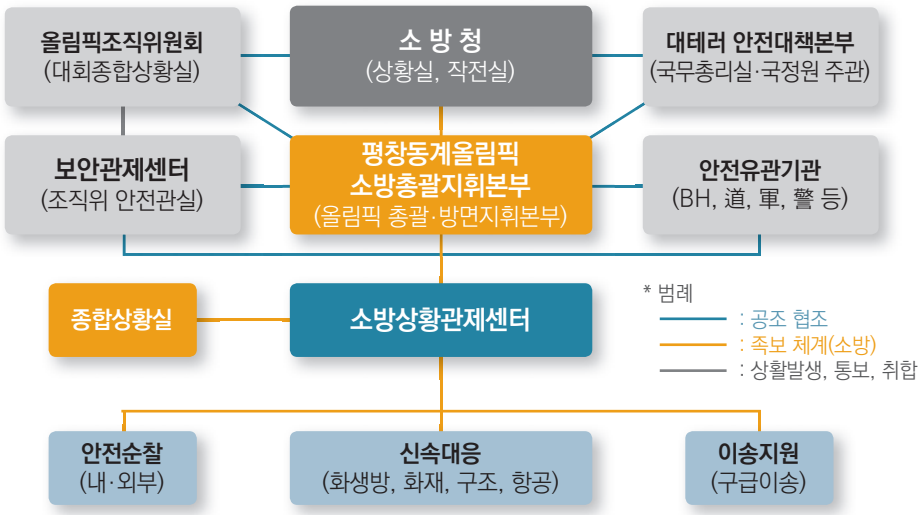
구분		2018평창올림픽대회 폐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계		소방청	중구본	본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고성	양양
총계		장비	50	2	5	8	1	2	3	3	3	1	3	1	2	3	7	4	1	1
		인원	246	10	16	29	3	19	19	17	13	11	19	11	9	7	24	21	5	13
총괄지휘본부		장비	6	G2	-	G4	-	-	-	-	-	-	-	-	-	-	-	-	-	-
		인원	22	10	-	12	-	-	-	-	-	-	-	-	-	-	-	-	-	-
소방상황관제센터		장비	-	-	-	-	-	-	-	-	-	-	-	-	-	-	-	-	-	-
		인원	9	-	-	4	-	1	-	-	-	-	-	-	1	-	-	-	1	2
신속대응팀	화생방대응팀	장비	4	-	C4	-	-	-	-	-	-	-	-	-	-	-	-	-	-	-
		인원	11	-	11	-	-	-	-	-	-	-	-	-	-	-	-	-	-	-
	화재진압팀	장비	6	-	-	-	P1	-	-	-	-	-	-	-	-	P1	P3 G1	-	-	-
		인원	17	-	-	-	3	-	-	-	-	-	-	-	-	3	11	-	-	-
신속대응팀	인명구조팀	장비	2	-	-	R2	-	-	-	-	-	-	-	-	-	-	-	-	-	-
		인원	5	-	-	5	-	-	-	-	-	-	-	-	-	-	-	-	-	-
	항공이송팀	장비	2	-	H1	H1	-	-	-	-	-	-	-	-	-	-	-	-	-	-
		인원	10	-	5	5	-	-	-	-	-	-	-	-	-	-	-	-	-	-
구급팀	구급이송팀	장비	20	-	-	-	-	A1	A2	A2	A2	A1	A2	A1	A1	A2	A2	A3	A1	-
		인원	41	-	-	1	-	2	4	2	4	2	4	2	2	4	4	6	4	-
순찰팀	안전순찰팀	장비	9	-	-	-	-	B1	B1	B1	B1	-	B1	-	B1	-	B1	B1	-	B1
		인원	131	-	-	2	-	16	15	15	9	9	15	9	6	-	9	15	-	11

※ 펌프차·물탱크(P), 구급차(A), 구조차(R), 화학구조차(C), 버스(B), 헬기(H), 기타(G).

3) 소방안전대책 세부추진사항

강원도소방본부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 A동 5층에 소방총괄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하였고, B동 2층에 소방상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상황발생에 따른 보고 및 후속조치 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 신속대응팀을 전진 배치하였고, 개·폐회식장 내·외부에 안전순찰대원 배치하였으며, 근무자 교대 및 휴식공간으로 소방대기실을 운영하였다.

〈그림Ⅴ-6-11〉 개·폐회식 상황보고 체계도



〈그림Ⅴ-6-12〉 개·폐회식 기능별 배치도



올림픽플라자 기능별 배치도



올림픽스타디움 소방기능실

(1) 총괄지휘본부 및 상황관제센터

소방총괄지휘본부는 올림픽스타디움 A동 5층에 위치하여 소방청장(강원도소방본부장)지휘하에 소방청 10명, 강원도소방본부 11명 등 총 21명(폐회식에는 22명)의 인원이 행사장 소방안전 총괄지휘 및 투입된 소방력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였으며, BH·조직위·대테러안전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행사장에 배치된 대원들의 근무 위치를 파악·조정하였다.

소방상황관제센터는 올림픽스타디움 B동 2층에 위치하여 강원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을 주축으로 상황관리 및 관제업무에 주력하였다. 또한, 총괄지휘본부와 신속대응팀, 이동순찰팀 등 현장대원들과의 실시간 무선통신망 확보로 핫라인을 구축하였고 상황보고·전파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사장 내의 출동업무를 전담하였다.

(2) 신속대응팀 전진배치

개·폐회식장 현장 신속대응팀은 화재진압팀, 화생방대응팀, 인명구조팀, 구급이송팀, 항공이송팀으로 구분하여 행사장 주변에 소방력을 배치하였으며 평창소방서장이 현장지휘를 하였다.

개회식에는 86명의 인원과 32대의 장비를 배치하였고 폐회식에는 84명의 인원과 34대의 장비를 전진배치하여 화재진압, 구조, 화생방테러, 항공이송 등 대응활동과 행사장 주변 화재예방 경계태세 확립 및 순찰활동을 전개하였고 VIP 관람석 인근의 안전순찰을 담당하였다.

〈표Ⅴ-6-8〉 개·폐회식장 현장 신속대응팀 배치 현황

○ 개회식 소방력 : 86명(중구본·본부·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32대(통제단1·펌프2·물탱크1·화생방4·구조2·구급20·헬기2)
① 화재진압팀 : 11명/3대(펌프2·물탱크1)
- 임시센터 1대(펌프) 4명, 대관령센터 2대(펌프1·물탱크1) 7명
② 화생방대응팀 : 10명/4대(다목적 제독차·구조공작차·수송버스·예방점검)
-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D동 후면 주차장, 임시안전센터
③ 인명구조팀 : 8명(임시안전센터)/2대(구조차·구조버스)
④ 구급이송팀 : 41명(플라자 16대·대관령센터 4대)/20대(구급차)
VIP 전담이송팀 : 10명(플라자 5대) / 5대(대형구급차)
선수·관중이송팀 : 31명(플라자 12대, 대관령센터 4대)/15대(특수구급차)
⑤ 항공이송팀 : 11명(진부 임시헬기격납고)/2대(헬기-중구본·강원)
⑥ 강원도긴급구조통제단 : 5명(플라자)/1대

○ 폐회식 소방력 : 84명(중구본·본부·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34대(통제단1·펌프2·물탱크1·화생방4·구조2·구급20·헬기2)
① 화재진압팀 : 17명/6대(펌프5·기타1)
- 임시센터 1대(펌프) 3명, 대관령센터 2대(펌프1) 5명, 대회지원(펌프3) 9명
② 화생방대응팀 : 11명/4대(다목적 제독차·구조공작차·수송버스·예방점검)
-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D동 후면 주차장·임시안전센터
③ 인명구조팀 : 5명(임시안전센터)/2대(구조차, 구조버스)
④ 구급이송팀 : 41명(플라자 16대·대관령센터 4대)/20대(구급차)
VIP 전담이송팀 : 10명(플라자 5대) / 5대(대형구급차)
선수·관중이송팀 : 31명(플라자 12대·대관령센터 4대)/15대(특수구급차)
⑤ 항공이송팀 : 10명(진부 임시헬기격납고)/2대(헬기-중구본·강원)

(3) 개·폐회식장 안전순찰대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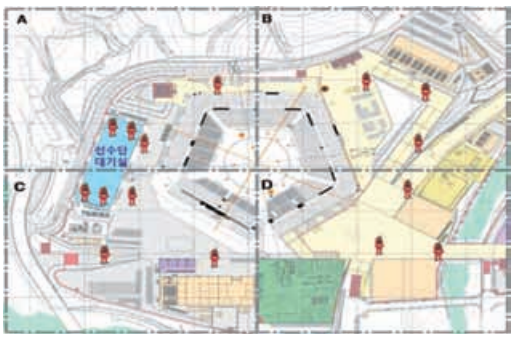
개회식장 내부에 배치된 안전순찰대원은 48개조 102명이었으며 지휘는 정보통신담당이 맡았다. 또한 폐회식장 내부에 배치된 안전순찰대원은 47개조 99명이었고 상황분석담당이 지휘를 맡았다. 내부 안전순찰대원의 임무는 관객 입장 시 출입구를 응시하며 관객들이 뛰지 않도록 통제하고 난간에 기대는 행위나 2층 객석 로비계단으로 관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였다. 공연 중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조치(휴대용 키트 사용)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저체온증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하며, 관중 퇴장 시에는 계단이나 문턱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광봉과 랜턴을 이용하여 퇴장동선을 안내하였다.

개·폐회식장 외부에 배치된 안전순찰대원은 개회식에는 15개조 35명을 폐회식에는 14개조 32명을 배치하였다. 현장지휘는 강릉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이 맡았으며,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람객 입·출입 시 안전유도 및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림 Ⅴ-6-13〉 개·폐회식 기능별 배치도



안전순찰대원 내부배치도



개·폐회식장 외부 안전순찰대원 배치도

〈표Ⅴ-6-9〉 평창동계올림픽 안전순찰요원 배치 현황

(단위 : 조 / 명)

구분	계	A	B	C	D	E
계	63/137	14/31	12/26	12/26	12/26	13/28
내 부	48/102	12/26	9/19	9/19	9/19	9/19
외 부	15/35	2/5	3/7	3/7	3/7	4/9

4)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강원도소방본부는 2018년 2월 9일과 2월 25일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관중이 입장하기 전부터 소방력을 배치하였으며 관중이 모두 퇴장할 때까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현장지휘본부를 중심으로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를 강화하였고 관람객 입·퇴장 시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하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소방활동실적은 총 14건이었으며 개회식에서 10건, 폐회식에서 4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2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5명을 올림픽플라자 내에 마련된 의무실로 이송하였다.

〈표Ⅴ-6-10〉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소방활동실적

구분	계	화재		구조		병원이송		의무실이송		안전조치	환승장이 동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14	-	-	-	-	2	2	5	5	2	5
개 회 식	10	-	-	-	-	-	-	4	4	2	4
폐 회 식	4	-	-	-	-	2	2	1	1	-	1

3.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1) 행사 개요

2018년 3월 9일 금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식이 열렸다.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Passion Moves us)는 테마로 장애와 편견을 넘어 열정이 만들어 내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패럴림피언들의 축제, "열정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열정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세상을 만든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열정이다."라는 내용으로 화려하게 막이 올랐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은 개회식이 열린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2018년 3월 18일 19시부터 21시30분까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We Move the world)"라는 테마로 개최되었으며 장애를 극복하는 시대를 넘어,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나와 우리를 움직여 공존의 신세계를 연다는 내용으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림Ⅴ-6-13〉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개·폐회식 개요



- 주 최 :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주 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주 제
  - 개회식 : "Passion Moves us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 폐회식 : "We Mov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
- 주요내용 : 식전공연, 공식행사, 식후공연 등

(2) 소방력 현장배치

강원도소방본부는 안전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이어 동계패럴림픽에서도 개·폐회식 행사의 빈틈없는 대응태세구축을 위하여 소방력을 동원하였으며 관람객이 입장하기 전인 오후 3시부터 모두 퇴장한 24시까지 소방력을 배치하는 First In Last Out으로 안전한 개·폐회식 행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개회식에 동원된 소방력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강원도소방본부 등 대원 300명과 생화학, 펌프, 물탱크 구조, 구급차, 헬기 등 장비 47대가 동원되었다.

〈표Ⅴ-6-11〉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소방력 배치 현황

(단위 : 대 / 명)

구분		2018평창패럴림픽대회 개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계	소방청	중구본	본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고성	양양
총 계	장비	47	2	5	7	2	4	2	2	1	–	2	2	1	3	8	5	1	–	–
	인원	300	10	15	34	9	22	22	21	10	14	21	14	13	19	38	23	2	1	12
총괄 지휘본부	장비	6	G2	–	G4	–	–	–	–	–	–	–	–	–	–	–	–	–	–	–
	인원	23	10	–	13	–	–	–	–	–	–	–	–	–	–	–	–	–	–	–
소방상황 관제센터	장비	–	–	–	–	–	–	–	–	–	–	–	–	–	–	–	–	–	–	–
	인원	9	–	–	4	–	1	–	–	–	–	–	–	1	–	–	–	–	1	2

구분		2018평창패럴림픽대회 개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계		소방청	중구본	본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고성	양양
신속대응팀	화생방대응팀	장비	4	-	C4	-	-	-	-	-	-	-	-	-	-	-	-	-	-	-	-
		인원	10	-	10	-	-	-	-	-	-	-	-	-	-	-	-	-	-	-	-
	화재진압팀	장비	6	-	-	-	P1	P1	-	-	-	-	-	-	-	-	P3 G1	-	-	-	-
		인원	17	-	-	-	3	3	-	-	-	-	-	-	-	-	11	-	-	-	-
	인명구조팀	장비	2	-	-	R2	-	-	-	-	-	-	-	-	-	-	-	-	-	-	-
		인원	5	-	-	10	-	-	-	-	-	-	-	-	-	-	-	-	-	-	-
	항공이송팀	장비	2	-	H1	H1	-	-	-	-	-	-	-	-	-	-	-	-	-	-	-
		인원	10	-	5	5	-	-	-	-	-	-	-	-	-	-	-	-	-	-	-
구급팀	구급이송팀	장비	20	-	-	-	A1	A2	A-1	A1	A1	-	A1	A2	A1	A2	A3	A4	A1	-	-
		인원	41	-	-	1	2	4	2	2	2	-	2	4	2	4	6	8	2	-	-
순찰팀	안전순찰팀	장비	7	-	-	-	-	B1	B1	B1	-	-	B1	-	-	B1	B1	B1	-	-	-
		인원	180	-	-	1	4	14	20	19	8	14	19	10	10	15	21	15	-	-	10

※ 펌프차·물탱크(P), 구급차(A), 구조차(R), 화학구조차(C), 버스(B), 헬기(H), 기타(G).

폐회식에 동원된 소방력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강원도소방본부 등 대원 301명과 생화학, 펌프, 물탱크 구조, 구급차, 헬기 등 장비 47대가 동원되었다.

〈표Ⅴ-6-12〉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소방력 배치

(단위 : 대 / 명)

구분		2018평창패럴림픽대회 폐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계		소방청	중구본	본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고성	양양
총계		장비	47	2	5	7	2	4	2	2	1	-	2	2	1	3	8	5	1	-	-
		인원	301	10	15	34	9	22	22	21	10	14	21	14	13	19	39	23	2	1	12
총괄지휘본부		장비	6	G2	-	G4	-	-	-	-	-	-	-	-	-	-	-	-	-	-	-
		인원	23	10	-	13	-	-	-	-	-	-	-	-	-	-	-	-	-	-	-
소방상황관제센터		장비	-	-	-	-	-	-	-	-	-	-	-	-	-	-	-	-	-	-	-
		인원	9	-	-	4	-	1	-	-	-	-	-	-	1	-	-	-	-	1	2
신속대응팀	화생방대응팀	장비	4	-	C4	-	-	-	-	-	-	-	-	-	-	-	-	-	-	-	-
		인원	10	-	10	-	-	-	-	-	-	-	-	-	-	-	-	-	-	-	-
	화재진압팀	장비	6	-	-	-	P1	P1	-	-	-	-	-	-	-	-	P3 G1	-	-	-	-
		인원	18	-	-	-	3	3	-	-	-	-	-	-	-	-	12	-	-	-	-

구분		2018평창패럴림픽대회 폐회식 소방력 동원현황																		
		계		소방청	중구본	본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고성	양양
신속대응팀	인명구조팀	장비	2	-	-	R2	-	-	-	-	-	-	-	-	-	-	-	-	-	-	-
		인원	10	-	-	10	-	-	-	-	-	-	-	-	-	-	-	-	-	-	-
	항공이송팀	장비	2	-	H1	H1	-	-	-	-	-	-	-	-	-	-	-	-	-	-	-
		인원	10	-	5	5	-	-	-	-	-	-	-	-	-	-	-	-	-	-	-
구급팀	구급이송팀	장비	20	-	-	-	A1	A2	A1	A1	A1	-	A1	A2	A1	A2	A3	A4	A1	-	-
		인원	41	-	-	1	2	4	2	2	2	-	2	4	2	4	6	8	2	-	-
순찰팀	안전순찰팀	장비	7	-	-	-	-	B1	B1	B1	-	-	B1	-	-	B1	B1	B1	-	-	-
		인원	180	-	-	4	4	13	18	21	8	14	19	10	8	15	21	15	-	-	10

※ 펌프차·물탱크(P), 구급차(A), 구조차(R), 화학구조차(C), 버스(B), 헬기(H), 기타(G).

3) 소방안전대책 세부추진사항

강원도소방본부는 올림픽 개·폐회식과 동일하게 소방안전대책을 운영하였다.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에는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때 동원되었던 소방인력보다 21%가 증가한 진압대원 및 구조구급대원, 그리고 안전순찰요원 등 소방대원 300명(폐회식은 301명)을 배치하였다.

화재진압·화생방대응·인명구조·구급이송·항공이송팀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행사장 주변에 전진배치하고 행사장 주변 화재예방 경계태세 순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안전순찰요원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제세동기를 포함한 기본인명소생용 장비세트와 간이소화기를 휴대하여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유도 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안전순찰요원(외부)


안전순찰요원(내부)

〈표Ⅴ-6-13〉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신속대응팀 배치 현황

동원 소방력 : 개회식 88명 / 34대, 폐회식 89명 / 34대
① 화재진압팀 : 17명 / 6대(펌프4·물탱크1·기타1)
(평창) 11명(12명) 4대, (춘천) 3명 1대, (원주) 3명 1대
② 화생방대응팀 : 10명 / 4대(다목적 제독차·구조공작차·수송버스·예방점검)
③ 인명구조팀 : 10명(임시안전센터) / 2대(구조차·구조버스)
④ 구급이송팀 : 41명 / 20대(구급차)
VIP 전담이송팀 : 10명 / 5대(대형구급차)
선수·관중이송팀 : 31명 / 15대(특수구급차)
⑤ 항공이송팀 : 10명(진부 임시헬기격납고) / 2대(헬기-중앙119구조본부, 강원도소방본부)

〈표Ⅴ-6-14〉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안전순찰요원 배치 현황

(단위 : 조 / 명)

구분	계	A	B	C	D	E
계	86/180	19/40	17/36	16/34	18/37	16/33
내 부	72/149	17/35	13/27	14/29	14/29	14/29
외 부	14/31	2/5	4/9	2/5	4/8	2/4

4)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강원도소방본부는 2018년 3월 9일과 3월 18일에 개최된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에 안전순찰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단 및 관중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단 1건의 사고도 없이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에는 올림픽에 동원된 인력보다 55명을 더 증원하였고 전 구급차에 계단 이송용 들것을 배치하였으며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휠체어 리프트 밴도 준비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의 부상에 대비하여 수어콜센터에 연결하여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서는 많은 관중들 속에서 장애인 아이를 잃어버린 사례도 발생했으며 전 대원의 수색으로 인하여 아이를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한편,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소방활동 실적은 총 21건(개회식 11, 폐회식 10)이었으며 개회식에서 11건, 폐회식에서 1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6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5명을 올림픽플라자 내에 마련된 의무실로 이송하였다.

〈표Ⅴ-6-15〉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소방활동실적

(단위 : 명 / 건)

구분	계	화재		구조		병원이송		의무실이송		안전조치	환승장이 동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계	21	-	-	-	-	6	6	5	5	4	4
개 회 식	11	-	-	-	-	4	4	2	2	1	2
폐 회 식	10	-	-	-	-	2	2	3	3	3	2

제4절 소방안전대책 및 서포터즈 활동

1. 대회기간 특별경계근무

1) 구조구급 비상2단계근무

강원도소방본부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많은 소방인력이 동원됨에 따라 대회기간 중 구조구급 비상2단계 특별경계근무를 발령했다. 비상근무 발령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전역의 소방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강원도소방본부장이 발령하였다.

구조구급 비상2단계 비상발령은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하여 발령당시 근무자를 제외한 가용소방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하며 발령기간은 소방력이 배치되기 시작하는 2018년 1월 15일부터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끝나는 2018년 3월 22일까지 지정하였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현장지휘본부, 소방상황관제센터, 임시119안전센터, 현장CP 등에 연인원 17,569명과 장비 3,365대(1일 최대 484명, 장비 91대)를 전진 배치하였으며 도내 소방서 근무체계를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전환하였다. 또한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 및 중요 사고현장에 대하여 소방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였고, 재난발생 초기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하는 등 예방 및 경계태세를 강화하였으며 올림픽·패럴림픽대회 일정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였다.

2)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경계근무 1단계는 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되기 전인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안전한 올림픽을 위하여 경기장 및 취약대상에 대하여 책임예찰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소방관서장의 사고현장 직접지휘를 통한 지휘권을 확보하였고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재난현장대응태세를 강화하였다.

재난초기 우월한 소방력 투입으로 신속한 현장수습활동 전개하였고, 폭설·한파 등 기상변화에 따른 대민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속한 항공이송을 위하여 지상과 연계한 입체적 항공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헬리포트장 및 패드장 점검, 진부역·강릉역·양양국제공항·강릉터미널 등에 119구급대를 전진 배치하였다.

2단계는 올림픽 기간 중인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시설 및 취약대상에 대한 기동순찰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상황관리관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의용소방대원과의 공조체계를 통하여 올림픽 성공기원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다.

3단계는 올림픽이 종료 된 후인 2018년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정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였고 역·터미널·공항 등에 구급차를 배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였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올림픽에서의 단계별 추진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 3단계로 추진하였다.

〈그림Ⅴ-6-14〉 동계올림픽대회 특별경계근무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

단 계 별	주요 근무사항
1단계 (2018.02.01.~ 02.08.)	● 경기장 및 지정 숙박시설 안전관리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 소방관서장 중심 초기 현장대응태세 확립 ● 기차역 및 공항 등에 대한 구급차 전진배치
2단계 (2018.02.09.~ 02.25.)	● 대회기간 상황관리체계 및 언론대응활동 강화 ● 대형판매시설 등 취약대상 기동순찰 실시 ● 의용소방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3단계 (2018.02.26. ~ 02.28.)	● 대회종료에 따른 숙박시설 등 안전확인 ● 기차역 및 공항 등에 대한 구급차 전진배치

2.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소방안전대책

1) 단계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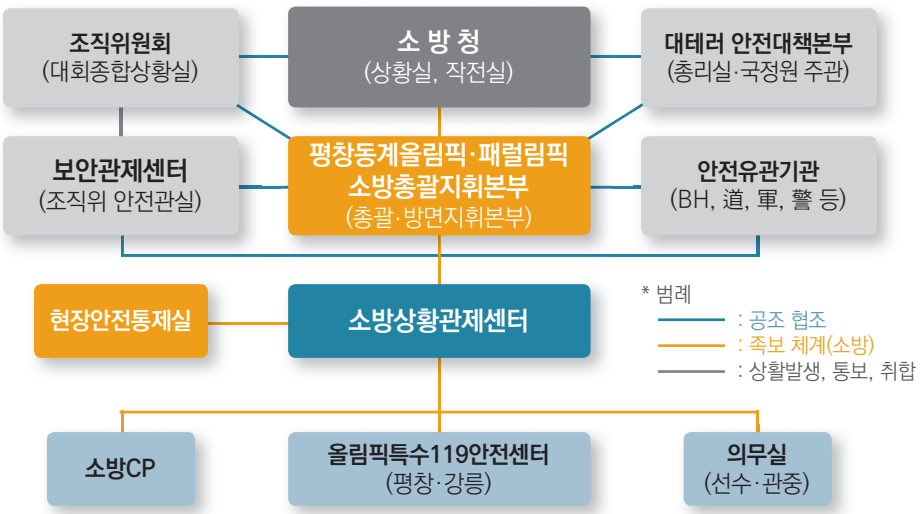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은 예방, 대비, 대응단계의 3단계로 추진하여 왔다. 1단계인 예방단계에서는 사전 예방활동으로 올림픽 개최도시 및 배후도시의 특정소방대상물 20,758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하였고, 2,206개소의 숙박시설에 자율방화체제 구축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여 자위소방대를 재정비하고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조치하였다.

2단계 대비단계에서는 대회시설 집중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장 및 지원시설

21개소를 집중점검하고 안전관리 수행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소방력 동원계획 수립과 운영요원에 대한 임무분담 및 역할을 지정하였다. 또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훈련 및 합동훈련 실시, 소방안전 매뉴얼 제작·배부, 외국인 응대시스템 구축 등 대비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

3단계 대응단계에서는 그동안 준비해온 1~2단계의 과정을 대응단계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실행계획을 가동시켰다. 소방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평창·강릉·정선지역에 권역별 지휘본부를 설치하였고 소방상황관제센터와 경기장별 소방CP를 설치하여 소방력을 배치하였다.

〈그림Ⅴ-6-15〉 지휘본부 운영체계



〈표Ⅴ-6-16〉 상황보고 방법 및 처리절차

구 분	상황보고 방법 및 처리절차
지 휘 부 정기보고	○ 소방상황관제센터에서 일일 2회(16시, 익일04시) 제출 - 주간 : 소방CP → 상황관제센터 → 총괄지휘본부 119종합상황실 - 야간 : 소방CP → 상황관제센터 → 119종합상황실 ※ 지휘보고 119종합상황실 → 본부장 상황보고 시 병행
사고발생 즉시보고	○ 즉보대상 : 중환자(사망자) 발생시, 화재·구조상황 발생 시 ※ 긴급상황과 일반상황을 구분하여 적정조치 및 보고 ○ 보고방법 : 유 · 무선 · 119톡 등을 통한 즉시보고 ○ 보 고 자 : 각 CP장 ① 선임 근무자 : 대회 CP장→총괄지휘본부→본부장 즉보(유선) ② 후임 근무자 : 소방상황관제센터 및 119 종합상황실 전파

2) 분야별 소방력 선발

(1) 공통기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동원되는 소방장비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 경기인 만큼 차량의 외형·내용연수 등을 파악하여 노후하거나 도색이 불량한 차량은 제외하였으며 설상 경기장에는 4륜구동 구급차를 배치하였고 횡계차고지에는 경화학차를, 평창과 강릉의 선수촌에는 경화학차와 사다리차를 배치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대비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근무자 선발기준은 재직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하였으며 각 분야별 경험과 자격여부에 따라 선발하였다. 특히 소방상황관제센터는 상황실 근무 유경험자를 우선 배정하였으며 방재센터는 유사시 소방시설점검 및 관리가 가능한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였다. 또한 스키 FoP 패트롤 근무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 보유자로서 스키레벨, 패트롤 등 스키자격을 보유하거나 용평리조트 실버존 스키 가능자를 선발하여 배치하였다.

(2) 분야별 기준

분야별로는 소방CP, 소방상황관제센터, 방재센터, 안전순찰, 구조대원, 구급대원, 스키FoP패트롤, 진압대원, 화학구조 등이 있으며 분야별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Ⅴ-6-12〉 분야별 근무자 선발기준

구 분	분야별 근무자 선발기준
공통사항	○ **재직기간** * 기준일 : 2017. 8. 1. - 5년이상 35년 이하(소방령) - 2년이상 35년 이하(소방경 이하) ○ **연 령** - 40세 이상 57세 이하(소방령) - 25세 이상 55세 이하(소방경 이하)
사고발생 즉시보고	○ **근무부서 : 내근** - 선수촌(2) · 미디어촌 · IBC 소방령(CP장)1명, 소방경 1명, 소방위·장 1명 - 경기장(11), MPC : 소방경(CP장) 1명, 소방위 1명, 소방장·교 1명 - 인터콘티넨탈호텔·영동대연습장 : 소방경(CP장) 1명, 소방위·장·교 1명
소방상황관제센터	○ **근무부서 : 내·외근** ○ **소방령 :** 상황실 유경험자(소방경에서 상황실 근무) ○ **소방경 이하 :** 상황실 유경험자나 개최지 인근관서 근무자
방재센터	**- 근무부서 : 내·외근**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등 자격보유자 ○ 소방위 또는 소방장·교 1명

구 분	분야별 근무자 선발기준
안전순찰대원 (이동진료팀)	**- 근무부서 : 내·외근** ○ 2주 이상 구급교육 이수자 또는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나 구급대원 6월 이상 근무경험자 ○ 팀장(소방위), 팀원(소방장 이하)
구조대원	**- 근무부서 : 내·외근** ○ 구조대원 근무경력 6월 이상 ○ 운전요원은 구조차 등 대형차 운전경력 2년 이상 ○ 팀장(소방경·위), 팀원(소방장 이하)
구급대원	**- 근무부서 : 내·외근 소방위 이하** ○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구급관련 자격보유자 ○ 구급대원 근무경력 2년 이상 ○ 운전요원은 구급차 운전경력 3년 이상
스키 FoP 구급대원	**- 근무부서 : 내·외근 소방위 이하** ○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구급관련 자격보유자로서 스키레벨 등 스키자격 보유자 또는 스키슬로프(용평리조트 실버급) skiing 가능자
진압대원	**- 근무부서 : 내·외근** ○ 진압대원 근무경력 1년 6월이상 ○ 펌프차 운전요원은 대형차 운전경력 3년 이상 ○ 고가사다리차 운전요원은 고가사다리차 운전경력 3년 이상 ○ 팀장(소방경·위), 팀원(소방장 이하)
화학구조대원	**- 근무부서 : 내·외근** ○ 화학구조대원 근무경력 6월 이상 ○ 운전요원은 대형차 운전경력 2년 이상 ○ 팀장(소방경·위), 팀원(소방장 이하)

3) 동계올림픽 동원소방력 현황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소방안전대책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42일간 운영했으며 동원소방력은 1일 최대 484명의 인원과 91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안전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 근무자는 안전분야와 의무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안전분야는 화재진압, 구조, 안전순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무분야는 조직위원회 의무부에 소속되어 구급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Ⅴ-6-13〉 평창동계올림픽 관서별 동원 소방력 현황

(단위 : 명 / 대)

구분	계	관서별 동원 소방력 현황																		
		중구본	본부	학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경기도
인 원	484	25	29	-	48	42	47	26	22	20	26	25	24	24	28	32	11	20	21	17	3
현 원	2,618	-	198	37	292	230	189	127	118	106	161	143	143	131	164	160	122	113	101	83	-
동원비율(%)		-	14	-	16	18	22	20	19	19	16	17	17	18	17	20	9	18	20	20	-
장 비	91	2	5	2	8	8	7	5	3	2	5	4	5	5	9	7	2	4	3	4	1

〈표Ⅴ-6-14〉 평창동계올림픽 DAY별 동원 소방력 현황

(단위 : 명 / 대)

일자	1월																2월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인원	40	40	40	40	40	40	40	40	40	101	101	101	104	104	104	266	266	322	328	338	338
장비	6	6	6	6	6	6	6	6	6	18	18	18	19	19	19	56	56	73	75	80	80

일자	2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인원	343	378	418	452	464	476	476	484	484	484	484	484	484	484	484	484	484	484	461	432	392	294
장비	82	85	91	91	91	91	91	91	91	91	91	91	91	91	91	91	91	91	87	80	73	52

4) 동계패럴림픽 동원소방력 현황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소방안전대책 운영기간은 2018년 2월 27일부터 3월 22일까지 24일간 운영했으며 동원소방력은 1일 최대 273명의 인원과 47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안전한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화재·구조·구급 등 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였다.

〈표Ⅴ-6-15〉 평창동계패럴림픽 관서별 동원 현황

(단위 : 명 / 대)

구분	계	관서별 동원 소방력 현황																			
		중구본부	본부	학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경기도
인 원	273	20	32	-	20	19	27	12	9	8	15	9	13	8	24	32	3	4	8	7	3
현 원	2,618	-	198	37	292	230	189	127	118	106	161	143	143	131	164	160	122	113	101	83	-
동원비율(%)		-	16	-	7	8	14	9	8	8	9	6	9	6	15	20	3	5	8	8	-
장 비	47	1	5	-	6	3	4	2	1	2	2	3	3	2	5	5	1	1	0	0	1

〈표Ⅴ-6-16〉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DAY별 소방력 동원현황

(단위 : 명 / 대)

일자	2월		3월																				
	27	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인원	76	76	75	81	92	92	103	160	233	273	273	273	273	273	273	273	273	273	273	273	257	217	78	54
장비	17	17	17	19	22	22	22	35	43	47	47	47	47	47	47	47	47	47	47	47	44	36	14	8

3. 의용소방대 서포터즈 운영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대회기간 중 경기관람 및 열띤 응원을 통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참여 열기를 이끌어 내고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서포터즈를 운영하였다.

강원도소방본부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붐 조성을 위하여 2016년 5월 25일 강릉 정동진 썬크루즈 콘도에서 의용소방대 서포터즈 응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내용은 올림픽 참가선수 응원 지원, 전국 시·도 연합회 입장권 단체구입,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1+3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에 총 5,371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서포터즈에 참가하여 올림픽 성공개최 및 붐 조성, 열기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중에 개최된 동계패럴림픽대회에도 인기가 떨어지는 종목의 경기장을 찾아 현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하였다.

〈표Ⅴ-6-17〉 시·군 의용소방대 서포터즈 참여 인원

(단위 : 명)

구분	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인원	5,371	1,065	346	344	245	284	201	264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335	360	281	303	357	280	227	280	199



전국의용소방대 서포터즈 응원지원 협약식(2016.5.25.)



서포터즈 응원단 스키점프 응원

제5절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주요성과

1. 단계별 안전대책 및 활동실적

1) 단계별 소방안전대책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소방안전대책은 예방, 대비, 대응단계의 3단계로 추진하였으며 1단계인 예방단계에서는 소방안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주요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단계인 대비단계에서는 소방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장대응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합동훈련을 통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지막 단계인 대응단계에서는 소방지휘본부와 소방상황관제센터를 운영하였고 소방력을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한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을 이끌었다.

○ (1단계-예방)「소방안전기획단」구성·운영 및 주요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
  - 인원 : 21명(기획단 10, 조직위 10, 올림픽운영국 1) / 경기장 등 점검 20,758개소

○ (2단계-대비)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 합동훈련 실시 등
  - 외국인 전용 대형구급차 7대, 다목적 구조차 3대, 소방상황관제센터 설치 등

○ (3단계-대응) 소방지휘본부 운영 및 주요 대회시설 소방력 총력 대응
  - 지휘본부(평창·강릉), 소방상황관제센터 → 24시간 지휘체계 확립
  - 올림픽 안전관리 배치 : 744명 배치(현장배치 541, 대테러센터 등 지원 203)

2)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소방활동실적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기간 중 소방활동 실적을 보면 총 7,765건(올림픽 6,375, 패럴림픽 1,390)의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구조는 11건/14명, 구급은 620건/669명(외국인 231, 내국인 438)이 발생했다. 이 중 IOC관계자 및 선수들의 구급건수는 274건/313명이며, 노로바이러스 의심환자 88명을 응급처치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강릉올림픽선수촌 운영식당 보일러 과열 등 자칫 화재로 번질 뻔 했던 상황이 다수 있었으나 안전순찰요원의 현장안전조치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순찰을 통하여 관람객 안전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표Ⅴ-6-31〉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소방활동실적

(단위 : 건 / 명 / 회)

구분	화재	구조	구급				현장 안전 조치	안전활동			
			소계	병원 이송	의무실 이송	현장 처치		소계	경기장 순찰	지원시설 순찰	안전 확보
합 계	0	11/14	620/669	498/545	61/62	61/62	90	7,044	1,359	3,108	2,577
동계올림픽 (01.15~03.07)	0	7/3	524/568	429/472	50/51	45/45	78	5,766	1,176	2,688	1,902
동계패럴림픽 (03.08~03.21)	0	4/11	96/101	69/73	11/11	16/17	12	1,278	183	420	675



강릉컬링센터 안전순찰요원


휘닉스스노경기장 순찰요원을 교육하는 이상준 소방경

2.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

1)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응급조치 후 환자를 이송하는 항공구조구급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FIS(국제스키연맹)는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개최 조건의 하나로 정선알파인경기장과 용평알파인경기장에 소방인명구조 헬기 배치를 요구하였고 헬기가 배치된 것을 확인 한 후 경기를 진행하였다.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항공구조구급대를 정선알파인경기장에 배치하였고, 용평알파인경기장과 휘닉스스노경기장으로부터 5~10분 거리에 있는 임시격납고에 중앙구조본부 항공구조구급대를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2018년 2월 21일에는 휘닉스스노경기장에서 크로스 경기 중 캐나다 선수 등 3명이 낙상으로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항공구조구급대원은 응급조치 후 소방헬기로 원주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강원도소방본부는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 이륙부터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병원이송 항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2) FoP 응급구조팀 및 이동진료팀 운영

강원도소방본부는 완벽한 맞춤형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구조사를 FOP(Field Of Play)내에 최근접 배치하였다. FOP는 선수들과 필수 운영인력만 접근 가능한 경기구역을 뜻한다. FoP에 배치되는 구급대원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응급구조사로서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으로 선수들의 2차 부상을 차단했다. 또한 알파인스키가 진행되는 설상 경기장에 스키 FOP 응급구조팀을 배치하였다. FOP 응급구조팀은 구급대원 중 스키 최상급 자격증을 보유한 대원으로 선발하였으며 이 대원들은 슬로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스키를 이용하여 선수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국제행사 최초로 이동진료팀을 운영하여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진료팀은 경기장 및 지원시설에 배치되어 안전순찰을 진행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제세동기가 포함된 기본인명소생용 가방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전 대원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동진료팀은 간이소화기를 지참하여 2인 1조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였고,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는 외부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연기가 발생해 간이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기도 했다.

이처럼 FOP 응급구조팀과 이동진료팀의 운영으로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기간 동안 1건의 대형사고나 중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올림픽을 구현하였고 강원소방의 안전대책 추진 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스키 FOP응급구조사



용평알파인경기장 소방CP

3.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주요성과

1) 외신도 극찬한 최고의 안전올림픽, 완벽한 맞춤형 소방안전망 구축

국·내외 언론에서 평창올림픽의 안전에 대하여 '놀랍도록 안전한 올림픽', '올림픽 안전 금메달'이라는 수식어를 쏟아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이었다. 경기 중 발생될 수 있는 선수부상과 올림픽을 즐기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이송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했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는 경기 중 선수의 부상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경기구역내(Field Of Play) Ski FOP응급구조팀(설상)과 링크사이드 응급구조팀(빙상)을 운영하였고 두 번째로 경기장 이동진료팀을 운영하여 관중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국·내외 관람객 및 외신기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런 전문 소방인력 배치와 신속한 대응으로 조직위원회 등 수많은 관계기관에서는 "전문인력 수급이 힘들어 소방이 아니면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올림픽에서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선수는 물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하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2) 안전(Safety)관리의 소방중심 기조 정착

그동안에는 각종 행사 시 119구급대 등 인력·장비의 지원만 이루어졌으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조직위원회에 운영인력을 파견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분야 업무에 역할매김을 하였다.

소방안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조직위원회 및 각종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실시간 상황분석과 상황변화 추이에 맞춘 대응기조 설정 등 올림픽 소방안전 중심부서로서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하였으며 상황관제센터 및 소방CP의 효과적인 운영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0도쿄올림픽과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일본 도쿄 소방청 및 중국 허베이성 연수단에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소방안전대책 청취와 질의응답,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방체계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허베이성 연수단 방문



일본 도쿄소방청 평창올림픽 현장 견학

3) 구급차 통합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올림픽기간 중 총 48개(경기장 34, 지원시설 14)의 의무실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구급차량이 최소 60여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IOC, IPC에서 요구하는 경기장별 구급차량의 소요량을 충족하기에는 강원소방의 부담이 만만치 않았으며, 부족한 구급차를 타 시·도에서 지원받는 것 또한 강원소방의 올림픽 지원 기조와 상충되었다.

많은 구급차량을 올림픽대회에 지원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급차량이 줄어들게 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고민의 대상이었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구급차량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경기장별 위험도 및 폴리클리닉과 병원과의 거리 등을 파악하였고, 경기장에 대기 중인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할 경우 인근 지원시설에 대기중인 구급차를 경기장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였다. 이로써 구급차량 지원대수를 60여대에서 47대로 줄일 수 있었으며 상황관제센터와의 공조 하에 원활한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구급차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4)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위험요인 사전 차단

동계올림픽대회 특성상 모든 경기장과 지원시설에는 난방을 위한 화기취급시설이 설치되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설치된 임시시설이 많았고 근무자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난방기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난방유 등 위험물 주위에는 일반인 접근금지를 위한 펜스 및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았다.

이에 강원도소방본부에서는 각 소방CP와 안전순찰대원 등을 24시간 지속적 감시체계로 운영하여 경기장 및 지원시설의 위험요소들을 모두 파악하였으며, 위험물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에 대한 소방시설 활용과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요령 등을 교육하여 단 1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완벽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다.

5) 동계패럴림픽대회 소방안전대책 강화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장애인이 실시하는 스포츠인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배려한 세심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펼쳤다. 장애인의 신속한 피난과 이송을 위해 계단이송용 들것 24대도 선수촌에 배치했다. 부상의 위험이 높은 정선알파인경기장에는 긴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소방헬기가 항시 대기하였고 구급차는 당초 4대에서 6대로 늘리는 등 신속하고 촘촘한 응급이송체계를 운영했다.

동계패럴림픽대회 선수의 부상을 대비해 1년 전부터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주관의 사전교육에도 참가했으며 교육을 이수한 스키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 60명과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경험이 많은 소방대원들을 주요시설에 배치하여 안전편의에 만전을 기하였다.

강원소방

100년사

부록



Contents

부 록

1. 역대 소방관서장 현황 ····· 223

2. 강원소방 연표 ····· 259

3. 강원도소방본부 주요성과 ····· 283

4. 신문기사로 보는 강원소방 ····· 323

5. 감사의 글 ····· 345

6. 강원소방인 현황 ····· 409

강원소방 100년사

강원소방 100년사

부록 1

역대 소방관서장 현황

강원도소방본부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소방감		김 용 익	1992.04.08.	1994.04.01.
2대	〃		박 관 길	1994.04.02.	1995.05.03.
3대	〃		김 용 익	1995.05.04.	1998.04.26.
4대	〃		이 성 열	1998.04.27.	1999.08.10.
5대	〃		제 진 주	1999.08.11.	2002.11.15.
6대	〃		나 승 환	2002.11.16.	2004.01.11.
7대	소방준감		변 상 호	2004.01.12.	2006.03.09.
8대	〃		이 일 섭	2006.03.10.	2008.03.18.
9대	〃		왕 재 섭	2008.03.19.	2011.06.09.

강원도소방본부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소방준감		오 대 희	2011.06.10.	2013.10.21.
11대	〃		김 성 곤	2013.10.22.	2015.02.10.
12대	〃		이 강 일	2015.02.11.	2016.02.15.
13대	〃		이 흥 교	2016.02.16.	2018.10.04.
14대	소방감		김 충 식	2018.10.05.	현재

강원도소방학교장

구분	계급	성명		재임기간	
				부터	까지
초대	소방정		이흥교	2010.05.10.	2011.05.05.
2대	〃		이갑규	2011.05.06.	2012.04.05.
3대	〃		남화영	2012.04.09.	2012.10.17.
4대	〃		정병도	2012.10.18.	2015.02.23.
5대	〃		김조일	2015.02.24.	2015.09.01.
6대	〃		윤상기	2015.09.02.	2016.07.11.
7대	〃		이종인	2016.07.12.	2018.10.09.
8대	〃		박태원	2018.10.12.	현재

춘천소방서장

구분	계급	성명		재임기간	
				부터	까지
초대	사 령		윤원규	1946.12.31.	1948.02.18.
2대	경 감		지성규	1948.03.01.	1953.08.16.
3대	총 경		장상열	1953.08.17.	1954.09.20.
4대	〃		김성기	1954.09.21.	1955.02.17.
5대	〃		이완수	1955.02.18.	1956.11.20.
6대	경 감		최진용	1956.11.21.	1956.12.09.
7대	〃		최송기	1956.12.10.	1957. 2.11.
8대	총 경		박재계	1957.02.12.	1957.04.24.
9대	〃		우상덕	1957.04.25.	1957.07.09.

춘천소방서장

구분	계급	성명		재임기간	
				부터	까지
10대	총 경		김덕호	1957.07.10.	1957.11.29.
11대	경 감		유춘복	1957.11.30.	1958.10.05.
12대	〃		엄상섭	1958.10.06.	1959.03.26.
13대	〃		이동휘	1959.03.27.	1960.05.19.
14대	총 경		최용순	1960.05.20.	1960.09.26.
15대	〃		윤흥원	1960.09.27.	1962.04.21.
16대	소방령		조용복	1962.04.22.	1969.03.27.
17대	소방총경		윤흥원	1969.03.28.	1970.07.11.
18대	〃		김연종	1970.07.12.	1971.03.27.
19대	소방경정		김덕배	1971.03.28.	1974.06.14.

춘천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20대	소방총경		임 재 선	1974.06.15.	1977.12.19.
21대	〃		김 건 수	1977.12.20.	1978.11.09.
22대	소방정		이 영 주	1978.11.10.	1980.11.27.
23대	〃		유 상 록	1980.11.28.	1981.12.18.
24대	〃		진 중 환	1982.01.05.	1982.06.30.
25대	〃		김 행 교	1982.07.01.	1988.06.30.
26대	〃		김 용 익	1988.07.01.	1990.10.28.
27대	〃		이 종 구	1990.10.29.	1994.10.26.
28대	지방소방정		강 수 인	1994.10.27.	1998.03.20.
29대	〃		지 병 일	1998.04.01.	2003.06.30.

춘천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30대	지방소방정		왕 재 섭	2003.07.30.	2004.06.30.
31대	〃		류 연 찬	2004.07.01.	2006.08.24.
32대	〃		염 찬 수	2006.08.25.	2008.06.30.
33대	〃		유 용 현	2008.07.01.	2010.06.30.
34대	〃		조 완 구	2010.07.01.	2012.06.30.
35대	〃		우 원 기	2012.07.01.	2014.07.31.
36대	〃		박 창 진	2014.08.01.	2015.12.31.
37대	〃		안 중 석	2016.01.01.	2018.06.30.
38대	〃		정 광 현	2018.07.01.	현재

원주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경 감		문 태 섭	1970.05.10.	1970.07.10.
2대	경 정		임 재 선	1970.07.11.	1974.06.14.
3대	총 경		진 중 환	1974.06.15.	1976.09.02
4대	〃		김 건 수	1976.09.03.	1977.12.19.
5대	경 정		김 석 준	1977.12.20.	1979.07.19.
6대	소 방 령		김 행 교	1979.07.20.	1982.06.30.
7대	〃		김 진 호	1982.07.01.	1986.12.31.
8대	〃		김 용 익	1987.01.01.	1988.06.30.
9대	소 방 정		김 성 환	1988.07.01.	1991.05.14.

원주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소 방 정		라 승 환	1991.05.15.	1992.10.16.
11대	〃		강 수 인	1992.10.17.	1994.10.26.
12대	지방소방정		이 종 구	1994.10.27.	1996.06.30.
13대	〃		지 병 일	1996.07.01.	1998.03.31.
14대	〃		홍 순 창	1998.04.01.	2000.01.04.
15대	〃		윤 용 근	2000.01.05.	2000.12.31.
16대	〃		김 전 수	2001.01.01.	2003.07.29.
17대	〃		조 근 희	2003.07.30.	2006.01.05.
18대	〃		김 전 수	2006.01.06.	2008.06.30.

원주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9대	지방소방정		조 근 희	2008.07.01.	2010.08.01.
20대	〃		박 창 진	2008.08.02.	2011.10.09.
21대	〃		김 시 균	2011.10.10.	2013.06.30.
22대	〃		김 상 철	2013.07.02.	2015.12.31.
23대	〃		진 형 민	2016.01.01.	2016.12.31.
24대	〃		원 미 숙	2017.01.01.	2018.06.30.
25대	〃		이 병 은	2018.07.01.	현재

강릉소방서장

구분	계급	성명		재임기간	
				부터	까지
초대	소방총경		김광택	1967.01.01.	1976.06.03.
2대	〃		김덕배	1976.06.04.	1978.11.12.
3대	소방령		김종원	1978.11.13.	1980.07.26.
4대	〃		김석준	1980.07.27.	1982.06.29.
5대	〃		황영철	1982.06.30.	1984.03.06.
6대	〃		이용태	1984.03.07.	1985.12.12.
7대	소방정		나원찬	1985.12.13.	1987.01.07.
8대	〃		김성환	1987.01.08.	1988.07.01.
9대	〃		김진길	1988.07.02.	1990.03.06.

강릉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소 방 정		문 남 현	1990.03.07.	1990.10.09.
11대	〃		김 흥 인	1990.10.18.	1992.04.29.
12대	〃		임 승 빈	1992.04.30.	1993.03.05.
13대	〃		이 성 열	1993.04.06.	1994.10.26.
14대	지방소방정		현 산 규	1994.10.27.	1995.11.16.
15대	〃		최 고 광	1995.11.17.	1996.05.20.
16대	〃		정 운 화	1996.05.21.	1998.08.31.
17대	〃		박 길 영	1998.09.01.	1999.09.30.
18대	〃		서 정 하	1999.10.07.	2000.06.30.

강릉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9대	지방소방정		김 전 수	2000.07.01.	2000.12.31.
20대	〃		문 복 기	2001.01.01.	2004.08.01.
21대	〃		엄 영 섭	2004.08.17.	2006.01.05.
22대	〃		조 근 희	2006.01.06.	2008.06.30.
23대	〃		김 기 성	2008.07.01.	2010.08.01.
24대	〃		박 병 호	2010.08.02.	2011.07.28.
25대	〃		김 남 숙	2011.08.09.	2013.06.30.
26대	〃		정 은 철	2013.07.01.	2015.12.31.
27대	〃		주 항 중	2016.01.01.	2017.06.30.
28대	〃		이 진 호	2017.07.01.	현재

동해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소 방 정		진 중 환	1980.08.01.	1982.01.04.
2대	〃		나 원 찬	1982.02.05.	1985.12.12.
3대	〃		장 신 회	1982.12.13.	1988.06.30.
4대	〃		최 병 훈	1988.07.01.	1989.07.26.
5대	〃		강 수 인	1989.07.27.	1990.10.28.
6대	〃		김 용 익	1990.10.29.	1992.04.07.
7대	〃		박 길 영	1992.04.30.	1994.10.26.
8대	지방소방정		구 창 회	1994.10.27.	1996.05.20.
9대	〃		원 찬 희	1996.05.21.	1997.06.30.

동해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지방소방정		김원웅	1997.07.01.	1998.09.06.
11대	〃		윤용근	1998.09.07.	2000.01.04.
12대	〃		박창수	2000.01.05.	2001.06.30.
13대	〃		류연찬	2001.07.01.	2004.06.30.
14대	〃		염찬수	2004.07.01.	2006.08.24.
15대	〃		박창진	2006.08.25.	2008.06.30.
16대	〃		이흥교	2008.07.01.	2010.05.09.
17대	〃		김남숙	2010.05.10.	2011.08.09.
18대	〃		김기성	2011.08.10.	2012.12.31.

동해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9대	지방소방정		김 남 백	2013.01.02.	2014.02.05.
20대	〃		주 항 중	2014.02.06.	2015.12.31.
21대	〃		김 영 조	2016.01.01.	2017.12.31.
22대	〃		이 수 남	2018.01.01.	2019.01.01.
23대	〃		박 흥 목	2019.01.02.	현재

태백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소 방 정		이 용 태	1982.12.17.	1984.03.06.
2대	〃		김 용 익	1984.03.07.	1987.12.31.
3대	〃		이 팔 용	1988.01.01.	1989.01.17.
4대	〃		박 길 영	1989.01.18.	1992.04.29.
5대	〃		구 창 회	1992.05.21.	1994.10.26.
6대	지방소방정		정 운 화	1994.10.27.	1995.06.10.
7대	〃		원 찬 희	1995.06.11.	1996.05.20.
8대	〃		최 고 광	1996.05.21.	1998.08.31.
9대	〃		서 정 하	1998.09.01.	1999.10.06.

태백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지방소방정		이 기 평	1999.10.07.	2001.06.30.
11대	〃		정 승 진	2001.07.01.	2005.01.04.
12대	〃		김 기 성	2005.01.05.	2007.06.30.
13대	〃		정 승 진	2007.07.01.	2010.08.01.
14대	〃		여 윤 길	2010.08.02.	2012.07.01.
15대	〃		김 진 봉	2012.07.02.	2013.03.25.
16대	〃		이 동 학	2013.03.26.	2015.06.30.
17대	〃		석 교 준	2015.07.01.	2017.12.31.
18대	〃		박 흥 목	2018.01.01.	2019.01.01.
19대	〃		이 수 남	2019.01.02.	현재

속초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소방경정		정인영	1977.11.22.	1979.03.14.
2대	소 방 령		유상록	1979.03.15.	1980.11.26.
3대	〃		정구현	1980.11.27.	1984.11.28.
4대	소 방 정		김성환	1984.11.29.	1986.12.26.
5대	〃		조금복	1987.01.01.	1988.07.01.
6대	〃		신주영	1988.07.02.	1989.09.27.
7대	〃		이석준	1989.09.28.	1992.04.30.
8대	〃		이영철	1992.05.01.	1993.10.04.
9대	〃		강현호	1993.10.05.	1994.10.26.

속초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지방소방정		박 길 영	1994.10.27.	1996.05.21.
11대	〃		구 창 회	1996.05.22.	1998.10.11.
12대	〃		맹 영 관	1998.10.12.	1999.12.31.
13대	〃		원 찬 희	2000.01.05.	2001.06.30.
14대	〃		왕 재 섭	2001.07.01.	2003.07.29.
15대	〃		김 국 현	2003.07.30.	2006.01.05.
16대	〃		엄 영 섭	2006.01.06.	2007.12.31.
17대	〃		김 시 균	2008.01.01.	2010.08.01.
18대	〃		김 기 성	2010.08.02.	2011.08.08.

속초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9대	지방소방정		최 민 철	2011.08.09.	2013.01.01
20대	〃		이 병 광	2013.01.02.	2013.06.30.
21대	〃		김 시 균	2013.07.01.	2014.12.31.
22대	〃		강 윤 종	2015.01.01.	2016.06.30.
23대	〃		정 효 수	2016.07.01.	2017.12.31.
24대	〃		김 영 조	2018.01.01.	현재

삼척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소 방 령		이 종 구	1987.11.21.	1989.01.17.
2대	〃		강 수 인	1989.01.18.	1989.07.26.
3대	〃		이 태 호	1989.07.27.	1993.04.05.
4대	〃		정 운 화	1993.04.06.	1994.10.26.
5대	지방소방정		윤 용 근	1994.10.27.	1996.05.20.
6대	〃		박 길 영	1996.05.21.	1998.08.31.
7대	〃		최 고 광	1998.09.01.	1999.12.31.
8대	〃		류 연 찬	2000.01.05.	2001.06.30.
9대	〃		이 기 평	2001.07.01.	2001.10.21.

삼척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지방소방정		이 강 일	2001.10.22.	2003.07.29.
11대	〃		유 용 현	2003.07.30.	2006.01.05.
12대	〃		김 국 현	2006.01.06.	2008.06.30.
13대	〃		정 경 남	2008.07.01.	2009.08.23.
14대	〃		박 병 호	2009.08.24.	2010.08.01.
15대	〃		김 상 철	2010.08.02.	2012.07.01.
16대	〃		이 지 만	2012.07.02.	2014.08.03.
17대	〃		김 형 도	2014.08.04.	2017.06.30.
18대	〃		주 항 중	2017.07.01.	2017.09.15.
19대	〃		주 진 복	2017.09.16.	현재

홍천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소 방 령		권 영 표	1993.02.01.	1994.03.15.
2대	지방소방정		홍 순 창	1994.05.17.	1996.07.18.
3대	〃		윤 용 근	1996.07.19.	1998.09.08.
4대	〃		원 찬 희	1998.09.09.	2000.01.04.
5대	〃		왕 재 섭	2000.01.05.	2001.06.30.
6대	〃		이 규 엽	2001.07.01.	2002.03.31.
7대	〃		김 국 현	2002.04.01.	2003.07.29.
8대	〃		김 전 수	2003.07.30.	2006.01.05.
9대	〃		이 강 일	2006.01.06.	2006.04.17.

홍천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지방소방정		정 승 진	2006.04.18.	2007.06.30.
11대	〃		이 성 묵	2007.07.01.	2010.07.21.
12대	〃		김 진 봉	2010.07.22.	2012.07.01.
13대	〃		이 종 진	2012.07.02.	2014.08.03.
14대	〃		이 지 만	2014.08.04.	2015.09.01.
15대	〃		이 종 진	2015.09.02.	2017.06.30.
16대	〃		이 기 중	2017.07.01.	2019.01.01.
17대	〃		남궁 규	2019.01.02	현재

횡성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지방소방정		조 근 희	2010.08.02.	2012.06.30.
2대	〃		정 은 철	2012.07.01.	2013.06.30.
3대	〃		박 찬 흥	2013.07.01.	2013.12.31.
4대	〃		이 병 은	2014.01.01.	2015.09.01.
5대	〃		원 미 숙	2015.09.02.	2016.12.31.
6대	〃		이 병 은	2017.01.01.	2018.06.30.
7대	〃		유 중 근	2018.07.01.	현재

영월소방서장

구분	계급	성명		재임기간	
				부터	까지
초대	지방소방정		이덕재	1994.05.17.	1996.06.30.
2대	〃		맹영관	1996.07.19.	1998.10.11.
3대	〃		이규엽	1998.10.12.	2001.06.30.
4대	〃		엄영섭	2001.07.01.	2004.08.16.
5대	〃		박창진	2004.08.17.	2006.08.24.
6대	〃		정경남	2006.08.25.	2008.06.30.
7대	〃		여윤길	2008.07.01.	2010.08.01.
8대	〃		안중석	2010.08.02.	2011.08.08.
9대	〃		김남백	2011.08.09.	2013.01.01.

영월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지방소방정		최 민 철	2013.01.02.	2014.08.03.
11대	〃		김 성 규	2014.08.04.	2015.07.31.
12대	〃		박 태 원	2015.08.01.	2016.06.30.
13대	〃		강 윤 종	2016.07.01.	2017.12.31.
14대	〃		정 효 수	2018.01.01.	2018.12.31.
15대	〃		이 기 중	2019.01.02.	현재

평창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지방소방정		김 용 락	2012.02.06.	2013.06.30.
2대	〃		김 남 숙	2013.07.01.	2015.06.30.
3대	〃		정 광 현	2015.07.01.	2016.12.31.
4대	〃		남궁 규	2017.01.01.	2018.06.30.
5대	〃		김 정 희	2018.07.01.	현재

정선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지방소방정		류 연 찬	2006.08.25.	2007.06.30.
2대	〃		김 시 균	2007.07.01.	2007.12.31.
3대	〃		우 원 기	2008.01.01.	2010.08.01.
4대	〃		정 승 진	2010.08.02.	2011.10.09.
5대	〃		박 창 진	2011.10.10.	2012.07.01.
6대	〃		이 병 광	2012.07.02.	2013.01.01.
7대	〃		주 항 중	2013.01.02.	2014.02.05.
8대	〃		백 승 렬	2014.02.06.	2015.06.30.
9대	〃		이 기 중	2015.07.01.	2017.06.30.

정선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10대	지방소방정		소 기 웅	2017.07.01.	2018.09.27.
11대	〃		김 용 한	2018.09.28.	현재

철원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지방소방정		정경남	2005.01.05.	2006.08.24.
2대	〃		조완구	2006.08.25.	2008.06.30.
3대	〃		김진봉	2008.07.01.	2010.07.20.
4대	〃		최민철	2010.07.21.	2011.08.08.
5대	〃		안중석	2011.08.09.	2013.06.30.
6대	〃		윤상기	2013.07.01.	2014.08.03.
7대	〃		이종진	2014.08.04.	2015.09.01.
8대	〃		김성주	2015.09.02.	2016.12.31.
9대	〃		이석철	2017.01.01.	2018.06.30.
10대	〃		남흥우	2018.07.01.	현재

인제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지방소방정		박찬흥	2012.09.06.	2013.06.30.
2대	〃		김용락	2013.07.01.	2015.06.30.
3대	〃		이동학	2015.07.01.	2016.06.30.
4대	〃		김상철	2016.07.01.	2017.05.31.
5대	〃		박태원	2017.06.01.	2018.10.11.
6대	〃		김재홍	2018.10.12.	현재

고성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지방소방정		남궁 규	2015.05.07.	2016.12.31.
2대	〃		진 형 민	2017.01.01.	2018.06.30.
3대	〃		이 석 철	2018.07.01.	현재

양양소방서장

구분	계 급	성 명		재임기간	
				부 터	까 지
초대	지방소방정		이 수 남	2016.05.10.	2017.12.31.
2대	〃		조 환 근	2018.01.01.	현재

강원소방 100년사

부록 2

강원소방 연표

소방연표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358			02. 삼척현 화재발생으로 167호 소실
1396			07.08 강원도 춘주·금성·홍천 등 아홉 주현의 폭풍우 피해(인명피해 108명, 150여가구 표몰)
1407			05.27 평창군 수해(30가구 표몰)
1409			07.03 강원도 조종현 산사태 발생(인명피해 20명)
1413			08.24 강원도에서 경상도 조선 2척 풍랑으로 인해 패몰
1414			07.28 강원도 조선 7척 풍랑으로 패몰(쌀·콩 270석 침수)
1417	11. 금화법 시행		08.17 통천에서 폭풍우로 인한 수해 발생(15명 수몰, 민호 5채 표류, 육지 30리 가량 침수) 고성포에서 정박한 군선 2척이 표류하는 큰 나무와 충돌(군인 10구 수몰)
1423	6. 금화조건(궁중화재대책) 시행 6. 방화단 설치 지시		06.28 강원도 삼척, 경상도 진주·하동, 함길도 길주 등 창고에 화재발생
1454			07.10 강원도 강릉속현 우계의 대다수 민가 표몰
1486			07.26 강원도 폭우로 인한 민가 81채 피해(춘천부3, 인제현11, 정선군38. 고성군 29)
1489			03.14 강원도 산불발생으로 민가 등 405호 소실(양양부 민가 205, 간성 향교와 주택 200, 낙산사 관음전 연소)
1491			08.13 강원도 삼척부 폭풍우 피해(11명 압사, 수군5명 수몰, 전선1척, 민가16호 유실)
1513			07.21 강원도 철원부 산사태 발생(9명 압사)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517			07.30 강원도 삼척·울진과 경상도에 폭풍우
1521			06.13 강원도 평강현 폭우·산사태(11명 압사)
1522			05.03 강원도의 원주·정선·영월·횡성에 폭풍우
1524			03.19 강릉 산불 발생(민가 244호, 경포대 관사 소실)
			03.23 강원도 삼척부 화재 발생(민가 87호 소실)
1525			05.21 강원도 홍천 우박 발생
1530			11.05 원주영의 문서루고에 화재 발생
1531			07.18 강원도 간성·울진·삼척·강릉 등에 폭풍우 발생
1547			06.10 강원도 춘천 소양강 범람(20여명 수몰)
1549			06.29 강원도 고성·흡곡·통천에 폭풍우 발생(20여명 사망)
1565			03.24 강원도 강릉 화재 발생(민가 70여호 소실)
1580			06.28 경기도와 강원도에 폭풍우 발생
1590			01.23 원주의 태묘에서 화재발생
1605			07.23 강원도 영서의 영월·정선·춘천·평창·인제·원주·횡성에 폭풍우 발생 춘천 – 소양정 누각 파손 영월 – 민가 3백39채 수몰 인제 – 102채, 관사·향교·창고 수몰 양양 – 부내의 100여호 민가와 가축 수몰
1606			04.19 강원도 삼척·고성·인제에 폭풍으로 인한 농사피해 발생
1623			06.22 강원도에 홍수·산사태 발생(민가 30여호 표몰)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627			08.04 강원도 원주·홍천·횡성·고성·고성·금성·이천·평강·인제·영월 등지에 돌풍발생(원주 민가 30여호 수몰)
1631			03.07 강릉 집경전(태조의 진전)에 화재 발생
1645			07.02 강원도 안협·이천에 폭우발생(20여명 사망)
1651			07.28 강원도 삼척 16邑에 홍수 발생
1659			08.19 강원도 간성 폭우피해 08.27 강원도 양양부 폭우·산사태(7명 사망)
1666			02. 영동지역 산불로 삼척·강릉·양양 등 연속소실
1672			04.05 원양도의 강릉·삼척 등 네 고을에 산불(65명 사망, 민가 1,900여호 소실) 07.08 원주·평창·영월 침수(82명 표류, 민가 90여채 수몰)
1684			03.08 강원도 평해군 화재발생(민가 60여호 소실)
1686			04.04 강양도 평해군 화재발생(민가 114호 연소)
1691			02.14 낭천현 화재발생(7명 사망)
1697			0208 강릉부 돌풍과 산불 발생(민가 105호 소실)
1706			06.02 정선·평창 등에 폭우 발생(민가 200여호 수몰) 06.08 영월 폭우 발생(민가89호 수몰)
1710			04.23 간성·통천·양양·고성 화재 발생(민가 618호 소실)
1716			10.14 강원도 양구현에 화재발생(민가 99호 소실)
1717			09.02 강원도 홍수 피해(147명 사망, 16명 압사, 민가 328호 수몰)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724			04.10 강원도 통천군 화재 발생(공해(公廨) 252칸, 민가 102호 소실)
1725			05.03 화양부에 화재 발생(3명 사망, 관사 400여칸, 민가 100여호 소실)
1727			04.20 회양부 화재발생(민가 50여호 소실)
1731			05.22 강원도 평창현 우박 발생(9명 사상)
1733			07.26 강원도 영동의 9읍, 영서의 8읍에 폭풍우 발생
1741			06.16 원주에 홍수피해(민가 100여호 수몰) 09.01 관동에 홍수피해(민가 1,000여호 수몰)
1743			01.25 강원도 삼척 옥원창 화재 발생
1747			11.18 강원도 고성군 화재 발생(민가 100호 소실)
1798			03.14 강원도 낭천현 화재 발생(민가 41호 소실)
1804			03.12 삼척·강릉·양야·간성·고성·통천에서 산불 발생(61명 사망, 민가 2,600여호, 사찰 6곳, 창사 1곳, 곡물 6백석 소실)
1807			03.24 통천군에 화재발생(민가 184호 소실)
1815			02.04 강원도 영월부 동창에 실화(곡물 1,976석 소실) 04.05 원주사창의 실화(곡물 9,008석 소실) 10.16 강원도 금성현 창사 실화(곡물 539석 소실)
1816			08.05 강원도 강릉현 폭풍우 발생(22명 사망) 양양·삼척·울진에 폭우피해 - 가옥 408호 수몰·표류(양양 99,삼척220,울진89) - 사망 51명(양양15,삼척34, 울진2)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818			03.25 김화현에 화재 발생(민가 121호 소실)
1821			03.14 강원도 원주목 화재발생(민가 63호, 창고 1채, 곡물 1,590석 소실)
1825			03.04 통천 등 세 고을에 화재 발생(민가 303호 소실) 11.18 삼척부 화재 발생(민가 100여호 소실)
1835			07.13 강원도 원주 홍수 발생(30명 압사, 민가 200여호 수몰)
1860			03.17 강원도 양양·통천·간성 화재 발생 - 민가 1,509호 소실(양양551,통천472,간성486) 03.20 강원도 고성·강릉·정선 화재 발생 - 민가 308호 소실(고성585, 강릉159,정선64)
1911	03.02 상비소방수복제 개정 03.02 소방수 급여규정 개정 상비소방수 봉급에 관한 건		
1915	06.23 소방조 규칙 및 세칙 제정		
1918	04.29 강원소방조 규칙 시행세칙 제정		
1919		08.20 강원도 경무부 보안과에서 소방업무 시작	
1922	04.01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개정 (판임관대우 도 소방수제 실시) - 소방수 급여규칙 제정 - 소방수 채용규칙 제정 - 소방수 근무규정 제정		
1923	03.07 조선총독부 도 소방수 복제 제정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제정		
1925	06.02 도 소방수의 대우를 판임관 3등급 이하로 하는 건 제정		
1933	02.24 도 소방수의 분한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순사에 준하도록 함)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35	05.04 소방조 규칙 개정 - 읍에도 소방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개 이하의 경찰서 관할 구역의 소방조 지휘 감독서장을 도지사가 지정		
1936			01.05 삼척읍 온유공장 화재 발생 (부상3)
1938			02.22 춘천 전기회사 화재
1939	07.03 경방단규칙 제정, 소방조 통합 08.28 경방단복제 제정		
1942			04.12 강릉 욱정 화재 발생 - 영광상회 외 민가 400동 소실
1943	12.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비과에서 소방분장		
1945	11. 소방부로 개편	11. 강원도 경찰부에 소방과 신설	
1946		04.10 경찰로부터 소방행정 분리(경찰부 소방과 폐지) 강원도 소방위원회 및 시·읍·면 소방부 설치 12.15 춘천소방서 신설 강릉·삼척·주문진·영월·북평소방서 순차 신설	
1947		04.02 강원도 소방청 신설(소방과와 예방과를 둠)	
1948	07.17 정부조직법 제정	11.04 강원도 소방청 폐지, 경찰국에 소방과 설치	
1949	08.12 국가공무원법 제정 09.13 소방관복제 제정 11.05 공무원임용령 제정 (소방직급-소방감,소방사,소방사보,소방원) 11.21 공무원보수규정 제정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50	03.18 내무부 소방과를 보안과 소방계로 축소 03.24 소방조사규정 제정 04.05 소방관점검규칙 제정 05.27 시·도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건 제정	05.27 강릉·삼척·주문진·영월·북평 등 5개 소방서 폐지	
1951	02.26 내무부장관 소방목적세 부과 지시 03.22 방공법 제정		
1952	02.09 전양방공단규칙 제정 03.10 감찰관 승진시험 규정 제정 08.16 소방서직제 제정 08.25 방공단규칙 제정 12.26 소방서 등급 구분 (1급서 13, 2급서 11)	12.26 춘천소방서 1급서 승격	
1955	03.29 소방관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제정	03.09 경찰국 보안과 소방계를 경비과로 이관	
1957	03.28 소방관 복제 개정		
1958	03.10 소방법 제정 07.04 소방법 시행령 제정 08.18 소방법 시행령규칙 제정		
1959			02.23 춘천 중앙초등학교 화재
1960	06.28 공무원 임용령 개정, 소방령 신설 소방서장을 소방령으로 보함		
1963	01.06 의용소방대기 제정 04.17 신국가공무원법 제정 05.31 소방법 개정 (의용소방대원의 부담,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08.29 소방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정		
1964	05.26 내무부 소방계장을 소방령으로 보함		
1965	08.05 외근소방관 근무규정 제정		
1966		12.22 강릉소방서 신설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67	04.14 소방법 개정 – 풍수해, 설해에 관한 법 규정 11.23 소방서 직제 개정 (소방서에 필요한 계를 둘 수 있도록 함)		12.06 삼척 부두 해상선박 화재
1969	01.07 경찰공무원법 제정 01.09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정 01.09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정 01.14 소방서직제 개정(소방서에 방호과·소방과 설치) 04.19 시부의 의용소방대원 보수지급 조례안 시달	01.04 소방서직제 개정(소방·방호계→소방·방호과) 06.06 경찰국 경비과 소방계 폐지 경찰국 소방과 신설(소방계·방위계)	
1970	01.27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12.31 소방법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 06.19 방화규정제정	03.01 경찰국 소방과를 방호과로 개칭 05.07 원주소방서 신설	02.07 삼척군 북평읍 삼척산업주식회사 창고 화재 발생
1971	01.26 소방관 점검규정 제정 12.31 방공소방의 날 제정		12.27 평창군 봉평면 수로링 공장 화재
1972		01.25 춘천·원주·강릉소방서에 직할파출소 신설	04.28 양양군 현북면에 산불 발생
1973	09.10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위탁		12.10 원주시 경인골프공업사 화재
1974	07.20 소방서 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1975	12.26 자위소방대를 직장방공소방대로 개편 12.29 의용소방대 설치등에 관한 조례 안시달 12.31 소방법 개정(민방위행정기구로 개편됨에 따른 보완) 국가소방공무원인사에 관한 특별규정 제정	05.24 원주소방서 우산파출소 신설 09.05 강원도 민방위국 신설 및 소방과 설치(소방계·방호계) ※ 춘천·원주·강릉·속초시 민방위과에 소방계 설치	
1976	08.09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12.31 소방법 개정 (소방용기계기구등 검사업무 대행규정 신설)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77	01.18 시·군 소방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제정 - 시·군소방서에 두는 소방관 및 고용직의 정원 배정 05.03 소방서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 서장직급을 소방총경 또는 지방소방정 - 과장직급을 소방경정, 지방소방령, 소방경감, 지방소방경, 소방경위, 지방소방위로 함 08.02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 및 검정규칙 제정 08.08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방용기계기구검정업무 삭제 12.31 소방공무원법 개정 - 단일신분법제정(국가·지방공통) - 소방공무원의 계급 통일 - 지방소방공무원법 폐지 및 경찰공무원법 중 소방공무원 삭제	11.21 속초소방서 신설 12.28 속초소방서 중앙파출소 신설	
1978	04.24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정 - 시장·군수는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을 관할지역 내 소방서에 파견토록 함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 소방공무원보수규정 제정 시·군의 소방서직제 개정 - 소방공무원 계급·명칭 변경 05.26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07.12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 07.15 소방공무원 복제 제정 07.27 소방학교 직제 제정	05.03 속초소방서 설악파출소 신설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79	04.16 소방검사규칙 제정 06.04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시·도지사 위임사항) - 소방경위의 특별채용시험과 소방위 승진 시험 실시 - 소방정감·소방감의 승급과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에 관한 사항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허가 07.16 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 개정 - 파출소·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시 내무부장관의 승인 삭제 12.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 소방공동시설에 과세대상 확대 조정 (보통건물세율의 2배)		
1980	03.11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 소방경 이하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 위임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정 소방공무원 공로퇴직수당 지급 09.1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소방서와 파출소 설치 기준 - 소방장비 및 조작원 기준 - 소화약제 비축 규정 신설	07. 09 동해소방서 신설 07.14 춘천소방서 후평파출소 신설 08.01 동해소방서 천곡파출소 신설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81	04.08 정부조직법 개정 - 민방위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 1인과 과장 중 2인에 한하여 소방공무원으로 보함 07.23 시·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안)준칙시달 - 의용소방대 부녀대 신설 11.06 소방법시행령 개정 - 건축허가등의 범위 축소 - 방염처리대상 축소 - 소방시설 설치의무완화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권을 소방서장에게 위임 - 소방시설및위험물 제조소등 시설기준 삭제(별도부령) 11.09 도와직할시의행정기구에 관한규정 - 민방위국 소관사무에 민방위·소방 및 비상대책 사무를 포함 11.0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 각 도 민방위국장 직급을 행정직·별정직 및 소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화	12.11 동해소방서 북부파출소 신설	12.25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보일러 폭발 12.25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보일러 폭발
1982	04.30 시·군의소방서직제 개정 - 읍·면지역 중 대형 화재발생 우려지역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 12.31 소방공무원법 개정 - 소방공무원법을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함 - 고층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 설치 - 소방공무원 계급정년 조정	11.01 태백소방서 신설 11.15 태백소방서 황지파출소 신설 12.01 시 민방위과 소방계 폐지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시)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83	01.04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정 12.30 소방법 개정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 자유화 - 등록제 소방설비업을 면허제 소방설비공사업으로 강화 - 취약소방대상물에 청원소방원제 도입 - 구급업무수행을 위해 소방서에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04.08 태백소방서 장성파출소 신설	
1984		02.07 동해소방서 남부파출소 신설	
1985		06.03 원주소방서 단구파출소 신설 강릉소방서 경포파출소 신설 태백소방서 철암파출소 신설	
1986		12.10 춘천소방서 효자파출소 신설	
1987		09.07 강릉소방서 주문진파출소 신설 11.09 삼척소방서 신설 11.20 삼척소방서 남양파출소 신설	
1988	02.24 소방공무원 기장령 제정 05.09 소방용기계·기구검정규칙 제정		11.03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농협 창고화재
1989		01.09 속초소방서 영랑파출소 신설	01.09 속초시 중앙동 연립점포(16개) 화재 발생 12.23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평화다방 화재
1990		02.15 춘천소방서 홍천파출소 신설 태백소방서 화전파출소 신설 춘천소방서 119구조대 신설 09.06 민방위국 소방과에 소방감찰계 신설	05.27 춘천시 효자동 한일목재소 방화 11. 4 인제군 군축교 버스 추락(사망 23,실종2,부상21)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91	06.15 소방공무원 정원통합관리에 따른 근속승진제 운영지침 제정 12.14 소방법 개정 - 소방사무체계를 시·군 사무에서 시·도 사무로 변경 - 소방시설 용역점검업 제도 신설 - 소방시설관리사제도 신설 - 농어촌 소규모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 12.14 소방공무원법 개정 - 시·도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 - 소방공무원의 정년 조정 12.31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 설치 규정을 시·도 조례로 함 - 도의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조정	05.20 원주소방서 학성·문막파출소 신설 동해소방서 북평파출소 신설 태백소방서 영월·정선파출소 신설 삼척소방서 도계파출소 신설	01.19 명주군 주문진읍 교항리 송산 수지 화재
1992	01.01 소방체제가 광역자치단체체제로 전환	01.01 도 단위 광역소방행정체제로 개편 04.01 소방본부 신설(민방위국 소방과 폐지) -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소방감찰·장비계 - 방호과 : 방호·예방·소방교육계 - 직 급 : 본부장 소방감, 과장 소방정, 계장 지방소방령 ※소방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소방령 - 정원 28명(소방23, 일반2, 기능3) 07.01 춘천소방서 갈말파출소 신설 원주소방서 횡성파출소 신설 속초소방서 간성파출소 신설 삼척소방서 사직파출소 신설 12.31 홍천소방서, 남면·인제파출소 신설	10.04 원주시 우산동 왕국회관 방화 (사망14,부상25)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93	06.11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규정 제정 08.11 소방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2.27 소방법 개정 -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제 도입 - 수입소방기계 통합공고 근거 - 의용소방대 경영정비 재원 개선		05.10 삼척군 신기면 흥성산업 화재
1994	01.01 소방장비관리규정 제정 12.22 소방법개정 -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과 정기점검 업무를 실시 -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제도 도입 12.31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 - 소방서 설치를 도 조례로 설치하도록 함 - 지방소방학교장 직급 조정 (지방소방감→소방감 또는 소방정)	05.10 영월소방서 신설 강릉소방서 내곡파출소 신설 태백소방서 고한파출소 신설 춘천소방서 화천파출소 신설 영월소방서 평창파출소 신설 홍천소방서 양구파출소 신설 속초소방서 양양파출소 신설 05.25 원주소방서 119구조대 신설 12.31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신설 소방서 구조구급계 신설	11.24 춘천시 효자동 남부시장 화재 (부상1)
1995	07.18 재난관리법 제정	01.01 춘천소방서 동송파출소 신설 속초소방서 거진파출소 신설 삼척소방서 원덕파출소 신설 03.15 강원도소방서 설치조례 제정 - 도내 9개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 시·군에서 담당하던 9개군·읍 27개면이 소방서 관할로 조정 05.10 소방서 계장 및 파출소장 직급 상향조정 - 춘천소방서 계장 : 소방위→소방경 - 계장·파출소장 : 소방장·위→소방위 11.16 춘천소방서 석사파출소 신설 강릉소방서 119구조대 설치 파출소 명칭변경 - 동해소방서 남부파출소→송정파출소 북부파출소→묵호파출소 - 홍천소방서 남면파출소→양덕원파출소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96	02.21 내무부와 그 소속직제 규정 개정 - 소방국장 직급 조정 및 단수직화 (이사관·부이사관·소방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11.18 긴급구조구난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	01.18 소방차 운전기능직 65명을 소방직으로 전환 03.19 소방관서장 등 직급 상향 조정 - 소방서장:소방령→소방정(태백·삼척·홍천·영월) - 소방서 과장:소방경→소방령(원주·강릉) 09.25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내 긴급구조상황실 설치 소방서 119구조대 신설 (동해·태백·속초·삼척·홍천·영월)	02.02 춘천시 약사동 풍물시장 화재(사망1,부상1) 02.09 철원군 동송읍 평화영농조합 화재 03.02 태백시 철암동 농공단지 화재 04.23 고성산불 발생 05.22 춘천시 운교동 지하상가 공사장 가스폭발(부상5) 10.05 양양대교 공사장 승합차 자살방화(사망7) 12.11 태백시 연화동 광업소 갱도 매몰(사망15)
1997	03.07 소방법 개정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시 소방·방화시설설치 및 소방서장 확인을받도록 함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한국소방검정공사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허가제 및 방염처리업에 면허제를 폐지하고,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강화 05.27 내무부와 그 소속직제 개정 - 중앙119구조대 소속 변경 (중앙소방학교장→내무부장관) 12.20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제정 12.20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07.25 강원도소방항공대 운영요원 정원 7명 증원 강원도소방항공대 발대식(11.20)	01.08 고성군 토성면 차량추돌(부상13) 06.01 고성군 건성읍 신면 6리 낙뢰 화재 발생 10. 7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창고 화재 12.23 횡성군 공근면 삼환기업 방화
1998	01.06 해외재난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02.28 정부조직개편 - 총무처 폐지 - 내무부 통합, 행정자치부 설치 0 9.19 소방공무원법 개정 - 연령정년 연장제 폐지 - 연령정년 1년 단축 - 소방위승진제도에 심사제도 도입	01.17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조정(1,328) 원주소방서 태장파출소 신설 영월소방서 진부파출소 신설 09.09 춘천소방서 청사이전(후평동 257-31) 도 소방공무원 정원 감축 (1,328→1,207)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폐지	01.14 속초시 설악동 토왕성폭포 눈사태 발생(사망 8) 04.16 횡성군 횡성읍 횡성스포렉스 볼링장 화재 06.10 고성군 토성면 나이트클럽 화재 08.14 원주시 개운동 알리앙스예식장 화재 10.23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사망12,부상22)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1999			01.12 양양군 김현면 예뫼송 화재 02.24 춘천시 소양로2가 162-6번지 화재(부상1) 03.21 원주시 소초면 한아름 양계장 화재 03.23 춘천시 후평1동 하나로마트 화재 04.09 원주시 행구동 백천레스토랑 화재 07.17 양양군 현북면 교통사고(사망2, 부상12) 08.02 화천 삼일계곡 산사태 발생(사망10) 08.03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버스 추락(사망5,부상38) 11.06 춘천시 동산면 공장 화재(부상2) 12.06 원주시 행구동 연암사 화재
2000		07.15 원주소방서 둔내파출소 신설 강릉소방서 포남·옥계파출소 신설 영월소방서 신동파출소 신설 07.15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1,207→1,251)	01.19 춘천시 동면 지내리 호반육묘장 화재 01.28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음식점 화재 01.31 양구읍 상리 현대프라자 화재 02.17 고성군 미시령 교통사고(사망7, 부상39) 02.27 고성군 미시령 버스 전복(사망7, 부상34) 03.03 원주시 명륜동 단구아파트 앞 상가 화재 03.25 동해시 현대주유소 앞 교통사고(부상33) 04.07 동해안산불 발생 04.09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102 화재 04.15 인제읍 덕적리 주택 방화 04.19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버스 전복(사망3,부상33) 05.14 횡성군 서원면 석화 3리 162 화재 07.11 원주시 무실동 687-1 화재 07.17 횡성군 공근면 성암광학 화재 07.18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버스 옹벽 충돌(부상10) 08.05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유리온실 화재 08.19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버스 전복(사망1,부상12) 08.31 횡성군 우천면 양정리 해주산업 화재 09.24 춘천시 남면 후동리 군창고 화재 10.10 원주시 단구동 북원부페 화재 10.27 원주시 우산동 동우빌딩 방화 11.05 원주시 귀래면 백련사 방화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2001		05.12 제2항공대 운영인력 6명 증원 강원도소방 제2항공대 발대식 (10.26) 12. 29 강원도소방본부 정보통신계 신설 강원도소방본부 화재조사계 신설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1,251→1,335)	01.12 원주시 단구동 대제지 화재 03.05 춘천시 효자1동 풍물시장 화재 03.19 횡성군 청일면 청일잠비농장 화재 05.14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 버스 추락(부상17) 07.22 횡성군 횡성읍 (주)진우 1공장 화재 10.04 원주시 단계동 새롬마트 방화 12.17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47-5 화재 12.26 양구군 남면 황강리 계사 화재
2002			03.17 동해시 사문재 추락사고(사망3, 부상8) 03.21 춘천시 퇴계동 캐미에이스 화재 폭발 03.21 원주시 단계동 동진상사 화재 04.27 속초시 동동 여객선 터미널 옆 상가 화재 08.23 인제읍 덕적리 공장 화재 08.30 태풍 루사 발생(사망132, 실종11, 부상62, 건물30,797동, 농경지 8,851ha 10.06 화천군 하남면 건축물 화재 10.18 원주시 흥업면 건축물 화재 10.19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관광버스 교통사고(부상24)
2003	05.29 소방기본법 제정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정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소방법 → 4개 법률로 분법	01.01 소방서 정보통신계 신설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1,335→1.417) 11.08 소방서 방호구조과에 화재조사계 신설 (동해·태백 제외)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1,417→1,482)	05.12 횡성군 둔내면 버스추돌사고 (부상15) 06.01 횡성군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2,부상10) 06.01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부상20) 06.23 원주시 문막읍 버스전복(부상16) 08.27 원주시 호저면 중앙고속도로 교통사고(부상12) 09.12 태풍 매미 발생(사망11, 실종3, 부상10,주택316동) 09.22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건축물 화재 09.30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구룡사 화재 11.25 평창군 봉평면 둔내터널 교통사고(사망1,부상9) 12.17 홍천군 서면 대명유스호스텔 화재(부상7) 12.24 철원군 갈말읍 토성리 건축물 화재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2004	03.11 정부조직법 개정(소방방재청 신설) -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총감 - 차장은 별정1급 또는 소방정감 05.24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2014.06.01.시행)	12.31 철원소방서 신설 홍천소방서 양구파출소를 춘천소방서로 이관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1,482→1,537)	01.16 춘천시 석사동 건축물 방화(사망1, 부상4) 03.30 춘천시 효자3동 건축물 화재 04.02 삼척시 가곡면 교통사고(부상17) 04.03 원주시 귀래면 교통사고(사망1,부상11) 04.16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동아목재 화재 04.20 인제 상남면 아홉사리고개 교통사고(사망3,부상27) 05.10 횡성군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부상34) 05.14 영월군 영월읍 교통사고(부상12) 05.25 양양군 강현면 건축물 화재 06.20 속초시 노학동 건축물 화재 07.15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3중 추돌(부상23) 07.26 인제군 북면 어두교 교통사고(부상43) 08.30 원주시 문막대교 교통사고(사망1,부상24) 09.03 삼척시 동양시멘트 후문 교통사고 (부상11) 09.12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사망1,부상14) 09.21 삼척시 근덕면 교통사고(부상23) 10.20 평창군 용평면 버스 추락(사망15, 부상18) 11.11 원주시 행구동 산내들 화재 12.11 횡성군 영동고속도로 승합차 추락(사망5, 부상10)
2005	08.04 소방기본법 개정 - 소방안전교육사제도 도입	07.29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1,537→1,590) 08.26 소방서 관리직급 일원화(소방서 과장:소방령) 소방서 예방과 및 안전담당 신설(춘천·원주·강릉·속초)	01.08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교통사고(부상19) 01.16 삼척시 근덕면 선박 침몰(사망3, 부상4) 04.02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방화 04.04 양양산불 발생 05.16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교통사고(부상10) 05.21 화천군 간동면 배후령 버스 추락(부상28) 06.01 원주시 인동 홍화 브라운 빌 화재 07.19 춘천시 근화동 일영유리제경사 화재 10.02 춘천시 효자 3동 건물 화재(부상8) 10.06 춘천시 중앙로3가 건물 화재(부상5) 10.25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동신정미소 화재 11.05 철원군 갈말읍 봉고차량 추락(사망3, 부상5) 11.06 삼척시 미로면 교통사고(부상41) 12.12 횡성군 둔내면 교통사고(사망5, 부상10) 12.18 춘천시 남산면 주택 화재(사망1)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2006	03. 2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다중이용업소의 정의, 안전교육 - 위반업소 공개 등 06.30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개정 - 소방서·소방학교 설치권한 시·도 이관 - 소방파출소 → 119안전센터 - 소방출장소 → 119지역대 08.1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소방기관 설치기준을 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규정으로 이관 - 소방장비에 따른 인력산출방법 개정(3교대 기준)	08.04 정선소방서 및 119구조대 신설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1,590→1,599) 09.22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명칭 변경 119안전센터장·소방서 담당 직급 변경 (소방위→소방경 또는 소방위)	01.13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은솔농장 화재 02.24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웰빙농장 화재 03.2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유리온실 화재 05.20 춘천시 신북읍 육묘장 화재(부상1) 05.25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건축물 화재 06.23 원주시 무실동 중앙고속도로 유조차 화재 07.15 인제·평창 집중호우(사망32,실종12,주택764동) 09.10 춘천시 퇴계동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 화재 10.28 속초시 노학동 톨게이트 관광버스 추돌(부상28) 11.25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원주수지 화재
2007	12.27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소방항공대 인력배치기준 (조종사6,정비사6,구조·구급대원12,주유차운전1)	11.02 춘천소방서 강촌·사내119안전센터 신설 속초소방서 죽토·현남북119안전센터 신설 속초소방서 설악119산악구조대 신설 홍천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신설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1,599→1,615)	02.20 원주시 문막읍 리치산업 화재 02.21 태백시 통동 고려노벨화약 폭발(사망2,부상5) 03.17 홍천군 홍천읍 음식점 화재(사망2) 04.30 양구군 해안면 농막용 컨테이너 화재(사망3) 05.30 원주시 간계동 치악원예 화재(부상6) 09.17 철원군 갈말읍 초원육가공 화재 12.31 춘천시 석사동 현대3차아파트 화재(부상4)
2008	06.0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08.08 정선소방서 임계119안전센터 신설 영월소방서 봉평119안전센터 신설 12.29 속초소방서 죽토119안전센터→동광119안전센터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1,615→1,691)	02.24 강릉시 견소동 너울성 파도에 휩쓸림(부상11) 04.07 평창읍 정찰기 추락 화재(산림 1,200㎡ 소실) 03.19 원주시 중앙동 현대지업사 및 주변상가 화재 08.01 강릉시 구.동해고속도로상 교통사고(부상11) 08.02 삼척시 미로면 교통사고(부상11)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2009	0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06.23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1,691→1,870) 소방본부 기획예산계 신설(2과8담당→2과9담당) 소방서 현장대응과를 현장지휘대로 변경 – 1급서(4) : 3과8담당→2과1대8담당 – 2급서(7) : 2과6담당→2과1대7담당 직할센터장 직급상향(소방위→소방경) 11.06 속초소방서 및 교동119안전센터 이전 명칭변경(교동119안전센터→노학119안전센터)	01.25 태백시 화전동 교통사고(부상35) 04.30 영월군 남면 광천리 주택 화재(사망3)
2010		04.02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1,870→2,177) 횡성소방서 및 우천119안전센터 신설 강원도소방학교 신설(2과 6담당) 10.29 영월소방서 대관령119안전센터 신설	02.01 원주시 문막읍 강원테크노파크 원주벤처공장 화재 02.21 춘천시 석사동 다세대주택 화재(부상6) 03.21 원주시 호저면 보르네오가구 화재 10.26 속초시 청학동 건축물 화재(부상5) 12.03 삼척시 미로면 스틸하우스 화재(산림68ha 소실) 12.21 화천군 사내면 공사장 가스폭발(부상6)
2011	03.0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 – 구조·구급 기본(집행)계획의 수립 –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12.23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2,177→2,203) 원주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신설 홍천소방서 서석119안전센터 신설 영월소방서 중동119안전센터 신설 평창소방서 및 119구조대 신설	04.07 평창군 용평면 돈사 화재(육돈 900마리 소사) 07.27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사태(사망13,부상26) 10.31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군부대 가스폭발(부상5)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2012	03. 2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소방방재청, 시·도소방본부) 02.0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근거 신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신설	07.20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203→2,253) 종합상황실 과(課)단위로 분리 (방호구조과→종합상황실) 조직개편 ※ 직할안전센터+구조대⇒현장대응과(방호구조과) - 춘천·원주·강릉·속초:2과1대8담당→4과9담당 - 동해·태백·삼척:2과1대7담당→3과7담당 - 홍천·평창: 2과1대7담당→3과 6담당 - 횡성·영월·정선·철원·인제:2과1대7담당→ 2과6담당 - 삼척소방서 사직119안전센터 폐지 - 삼척소방서 근덕119안전센터 신설 - 인제소방서 신설	03.21 속초시 영랑동 양우아파트 화재(부상8) 07.15 삼척시 도계읍 은총교회 가스 폭발(부상10) 08.17 삼척시 엘엔지노래타운 가스폭발(부상45)
2013		07.26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253→2,290)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신설 (행정지원계 신설 및 항공대·수난구조대·산악구조대 편입) 소방본부 구조구급계를 구조계와 구급계로 분리 춘천소방서 신북119안전센터 신설 속초소방서 설악119안전센터 신설 인제소방서 기린119안전센터 신설	01.14 춘천시 근화동 노벨장여관 화재(부상5) 03.07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식당 화재(부상8) 03.29 철원군 김화읍 ㈜케빅 화재 05.18 원주시 단구동 와바(호프집) 화재(부상7) 08.19 홍천군 홍천읍 주공1차아파트 화재(부상8) 08.24 춘천시 후평동 영춘프로폴(주) 화재 11.20 강릉시 포남동 해오실업 등 화재(사망1)
2014	01.0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근거 신설 01.2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법으로 제정 11.19 정부조직법 개정 (소방방재청 폐지, 국민안전처 신설) - 장관은 국무위원, 차관은 정무직 - 소방본부장은 소방총감	05.29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290→2,297) 정선소방서 사북119안전센터 신설 119안전센터장 직급 상향(소방위→소방경)	02.27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유리온실 화재 05.27 원주시 문막읍 상호수지(주) 화재(부상1) 06.14 홍천군 동면 리베로테크 공장 화재 07.11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사무실 및 교회 화재 10.18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팬션 화재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2015	07.24 소방기본법 개정 - 생활안전활동 규정 신설 12.1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 민간구급차 지원 요청 규정 마련 - 응급환자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감염병 접촉 구조·구급대원 치료	01.04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297→2,320) 강원도소방본부→강원도소방안전본부 고성소방서 신설 04.10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320→2,396) 도내 전 소방서 119구조대 신설 07.10 강원도소방안전본부→강원도소방본부 12.31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396→2,469) 양양소방서 신설	03.06 춘천시 신동면 ㈜네오유엠시 공장 화재 03.20 원주시 호저면 ㈜원주종합수지 화재 06.16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점포 화재 07.17 원주시 태장동 상록1차아파트 화재(부상7) 09.1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CU 화재
2016		08.05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469→2,586) 원주소방서 흥업119안전센터 신설 평창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 신설 철원소방서 군탄119안전센터 신설 구급대장 해체 : 동해·태백·속초·삼척 춘천소방서 석사119안전센터 →대룡119안전센터 12.30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586→2,589) 철원소방서 군탄119안전센터 →갈말119안전센터	01.23 홍천군 북방면 픽션하우스 펜션 화재(부상11) 03.18 원주시 중앙동 ㈜태영원주관광호텔 화재(부상6) 03.23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일성냉동창고 화재 07.02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돈사 화재 07.18 춘천시 퇴계동 춘천중앙교회 화재 08.12 삼척시 영진산업 근로자 숙소 화재(사망2, 부상2) 10.20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봉식품 공장 화재

연도	소방제도		주요재난
	소방법령	소방조직	
2017	07.26 정부조직법 개정 (국민안전처 폐지, 소방청 신설) -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며 소방공무원으로 보함 12.26 소방기본법 개정 -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및 소송 지원 기준 신설 -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06.30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589→2,760) 소방본부 소방안전기획단 신설 (한시정원) 10.31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760 → 2,907) 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설	04.29 삼척시 원덕읍 한국남부발전 화재 05.06 삼척시 도계읍 점리 임야 화재 (사망1, 부상3) 05.06 강릉시 성산면 일대 임야 화재 (이재민 37세대 80명, 소실건물 51동) 05.29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유성기업 화재 06.26 원주시 상지대학교 자연과학관 화재(부상5) 08.11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한림축산 화재 (후기자돈 1,395마리 소사) 08.18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전차 사격장 화재 (사망2, 부상5) 08.23 영월군 김삿갓면 묵산미술박물관 화재 09.03 삼척시 정상동 유성아파트 화재(부상6) 09.16 강릉 석란정 화재(순직2) 09.25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상덕광업소 폭발 인명피해 6(사망1,부상5)
2018		04.13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2,907→3,188)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신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안전교육계 신설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정보보호계 신설 감사관 소방감사계 신설 소방서 현장대응과, 직할119안전센터 신설 09.21 강원도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3,188→3,226)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 양양소방서 강현119안전센터 신설	01.09 강릉시 포남동 다가구주택 가스폭발(부상 11) 02.07 춘천시 소양로3가 노보텔 모텔 화재(부상 5) 02.11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임야 화재 인명피해 14명 부상 산림피해 76.46ha(국유림 18.2,사유림58.26)

강원소방 100년사

부록 3

강원도소방본부 주요성과
(2005~2018)

2005년

□ 소방력 보강 및 운용의 효율화

○ 부족한 소방공무원 증원 및 외근부서 근무여건 개선
○ 의용소방대 역할 재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소방교육훈련센터)
○ 소방장비 보강사업 추진 : 44대(노후차량 교체 34, 신규배치 10)
○ 소방청사 신축사업 추진 : 14개소(소방서 1, 파출소 3, 출장소 10)

□ 소방방재의 전문성 제고

○ 강원도 소방교육훈련센터 설치·운영 : 5개분야 753명 교육
○ 전문인력을 활용한 비상설 특수구조대 편성·운영 : 2개대 62명
○ 전문자격 취득과정 및 국외훈련을 통한 소방공무원 역량강화
○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 향상 : 화재조사 자격증 100% 취득

□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재난현장 통제체제 구축

○ 강원도 119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 '05년도 ISP 용역추진
○ 119 출동지령 시스템 현대화 추진 : 86대(주장비 10, 단말기 76)
○ 재난현장 통합지휘차 배치 및 이동전화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 재난현장 사이버 상황실 구축·운영

주요수상실적

▶ 2004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국무총리표창 수상 : 2005년 6월
▶ 2004 정부합동평가 안전관리분야 소방안전관리 최우수 : 2005년 7월
▶ 도 실 · 국별 혁신경진대회 최우수 선정(119통합시스템) : 2005년 9월
▶ 2005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 3위 수상 : 2005년 9월

2005년 소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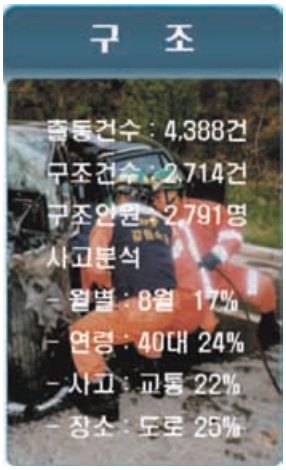


구분 / 연도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2004	1,396	102	25	77
2005	1,215	103	23	80

2005년 10월말 기준 화재건수 13%, 인명피해 1%
재산피해 16% 감소함.

○ 원인별로는 전기 → 불티 → 방화 → 담배 순

○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 → 차량 → 음식점 순으로,
특히 주택 및 차량 화재가 전체의 54%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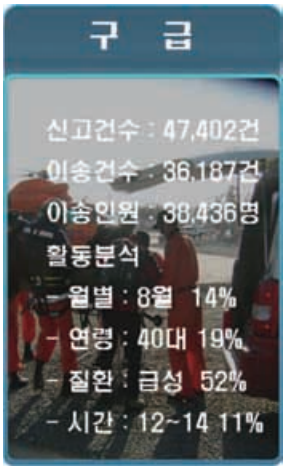


구분 / 연도	활동 건수	인명피해(명)					
		계	화재	교통	수난	산악	기타
2004	2,742	3,302	246	1,435	178	521	922
2005	2,714	2,791	180	1,105	151	614	741

올해는 태풍 등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구조활동이 1.0% 감소하였으며,

○ 유형으로는 교통 → 산악 → 화재 → 수난사고 순

○ 수난사고는 예방활동 강화로 전년대비 0.2% 감소함.



구분 / 연도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계	질병	사고	약물	교통	기타
2004	35,657	38,247	19,079	9,052	655	6,597	2,864
2005	36,187	38,436	20,143	9,456	590	5,847	2,400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구급환자 이송률이 1.5% 증가함.

○ 환자유형별로는 질병 → 사고부상 → 교통사고 순

○ 연령별로는 40대 → 60대 → 50대순으로 나타남

2006년

□ 소방력 보강 및 운용의 효율화

○ 정선소방서 개서('06.9.22) 및 부족 소방인력 증원(9명)
○ 노후 소방장비 보강사업(71대) 및 소방청사 신축사업(10개소)
○ 대형산불 피해방지 임시소방대책본부 운영 : 2006년 3~5월(양양)

□ 소방·방재의 대응능력 제고

○ 강원도 소방교육훈련센터 설치·운영 : 9개 분야 786명 교육
○ 강원화재조사연구회 설립·운영 : 전문위원 8명, 연구위원 38명
○ 시민수상구조대(7~8월) 및 산악특수구조대(10월) 운영 : 131명 구조

□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 재난현장 통제체제 구축

○ 강원도 119통합시스템 추진 : 사업비(국·도비) 81억원·59억원 확보
○ 정보통신장비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 42개소(119안전센터)
○ 119위치정보교환기 교체 : 4개 소방서(강릉, 동해, 태백, 삼척)

□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예방시책 발굴 추진

○ 기초소방시설 지원(소화기등 8,678개), 주택 무료소방검사 운영
○ 대도민 CPR 교육 : 공무원 26,897명, 학생·일반인 92,884명
○ 고령자 등 취약계층 구급서비스 강화 및 안전관리 봉사대 운영

주요수상실적

▶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외부고객 1위, 내부고객 1위) : 2006년 7월
▶ 전국119 소방동요경진대회 유치부 최우수, 초등부 은상 : 2006년 10월
▶ 제44주년 소방의 날 유공 행정자치부장관표창 수상 : 2006년 11월
▶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전국 1위) : 2006년 12월

2006년 소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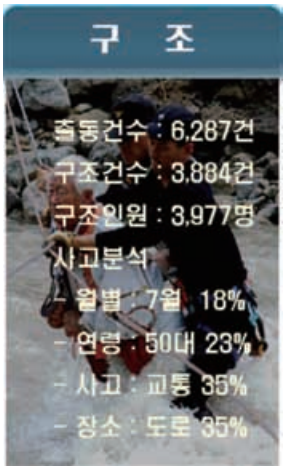


구분 / 연도	발생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5년	1,554	129	33	96	7,569
2006년	1,534	129	25	104	7,800

2005년 대비 발생건수 1.3% 감소, 인명피해는 같으나
사망자수는 24% 감소, 재산피해는 3% 증가함

○ 원인별로는 전기 → 방화 → 불티 → 불장난 순

○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 → 차량 → 음식점 순으로,
특히 주택 및 차량 화재가 전체의 50.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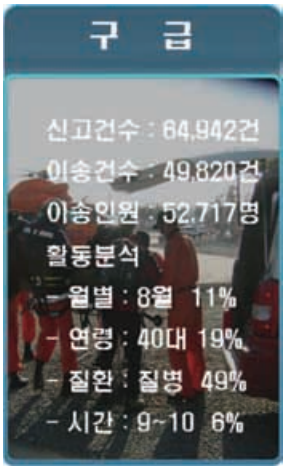


구분 / 연도	구조 건수	인명피해(명)						
		계	화재	교통	수난	산악	자연 재해	기타
2005년	3,620	3,762	254	1,535	162	863	14	934
2006년	3,884	3,977	190	1,374	188	794	265	1,166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구조활동이 5.7% 증가

○ 유형으로는 교통 → 산악 →자연재해 → 화재 → 수난사고 순

○ 기타사고 : 고립, 동물구조, 승강기, 갇힘사고 등



구분 / 연도	이송 건수	인명피해(명)					
		계	질병	사고	약물	교통	기타
2005년	47,770	50,749	26,608	12,339	728	8,022	3,052
2006년	49,820	52,717	25,982	11,501	324	8,586	6,324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구급환자 이송률이 3.9% 증가함.

○ 환자유형별로는 질병 → 사고부상 → 교통사고 순

○ 연령별로는 40대 → 50대 → 70대순으로 나타남.

2007년

□ 입체적인 현장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대형 산불 피해방지 임시소방 대책본부 운영 : 2~5월(양양)
○ 한발 앞선 조치로 풍·수해 등 피해방지 : 위험지역 235개소 관리
○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및 소방력 전진배치 : 7~8월(24개소)

□ 최첨단 지능형 위기관리 인프라 구축

○ 119광역 지휘시스템구축(상황실 환경구축 9월 준공) ⇒ 운용장비 탑재(12월말)
○ 소방장비 현대화(52대), 구조장비 확충(1,203점), 헬기교체(입찰진행중)
○ 소방청사 신·증축 : 11개소(신축5, 증축6), 27억3,000만원

□ 대형화재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역량 강화(15년간 대형화재 제로 성과)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강화(2,623개소 소급적용 추진 100% 완료)
○ 대형취약대상 특별 소방안전관리(355개소), 소방안전검사(28,331개소)
○ 면지역 전담의소대 운영(3개소) 및 여성의소대 발대(20개대 600명)

□ 도민안전 최우선의 안전문화조성 및 열린 소방행정 전개

○ 심폐소생술교육(152,978명), 화재취약 불우계층 소화기 등 지원(3,834개)
○ 학습과 체험을 통한 참여식 소방안전교육(춘천·원주 시범운영)
○ 도민 친화형 소방관서 표지 Image-up 추진(127개소)

주요수상실적

▶ 2006 행정서비스헌장 중앙인증 평가 모범상(행자부장관상) : 2007년 6월
▶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최우수상(속초 중앙초교) : 2007년 6월
▶ 2006 정부 국정시책 합동평가 소방안전관리 분야 '가' 등급 : 2007년 7월
▶ 전국 119소방동요경진대회 유치부 · 초등부 은상 : 2007년 10월
▶ 제19회 전국소방행정혁신대회 장려상 : 2007년 10월

2007년 소방활동

화 재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7년 9월말	1,905건	80	15	65	9,065

▶ 2006년 같은 기간 대비
- 발생건수 69.8% 증가 / 인명피해 24.5% 감소 / 재산피해 53.2% 증가

▶ 발생건수 급증 사유 : 국가화재분류체계('07년 도입) 적용으로 건수 증가
- 임야화재 등이 화재발생건수에 포함됨

※ 동등기준의 전년 대비는 2.8% 증가

화 재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계	화재	교통	수난	산악	기타
2007년 9월	3,063건	3,266	86	1,225	225	574	1,156

▶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구조활동이 12.7% 증가

▶ 구조활동 유형으로는 교통 → 산악 → 수난 → 화재사고 순임

구 급

구분	이송 건수	구 조 인 원(명)					
		계	질병	사고	중독	교통	기타
2007년 9월	3,063건	3,266	86	1,225	225	574	1,156

▶ 전년 동기간 대비 구급환자 이송률이 8.9% 증가

▶ 환자유형별로는 질병 → 사고부상 → 교통사고 순임

2008년

□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화재진압 : 1,917건(사망15, 부상59) → 인명피해 7.5% 저감
- 산불 : 306건 발생(초기진압 298, 피해 8) → 대형산불방지

○ 인명구조 : 3,820명(일일 14명 구조) → 연 24.7% 증가추세

○ 환자이송 : 47,606명(일일 176명 이송) → 연 9.9% 증가추세

○ 생활민원 : 2,698건(급·배수지원, 문개방, 벌집제거 등)
※ 휴대폰 위치정보제공 : 812건(실종·조난사고자 위치추적)

□ 일선현장 소방력 보강

○ 119안전센터 인력충원 : 232명(내근 134명 감축, 98명 증원)
- 현장인력 3교대 근무 : 6% → 31.5%로 확대

○ 장비현대화 : 노후차량 16대 교체, 구조구급장비 15종 보강
- 내용연수경과 소방차 보유율 : 30% → 27.2%로 저감

○ 노후청사 신·증축(중) : 8개동(소방서 1, 안전센터 3, 지역대 4)

□ 사회안전망 구축

○ CPR-생명지킴이 영예수여 제도 시범운영('08년 9월)

○ U-안심콜 서비스 시스템 구축('08년 7월) : 내년 본격시행

○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 367,114명

주요수상실적

▶ 2008 도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 방호구조과 1위 선점(24개 실 · 국)

▶ 2007 전국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 동해소방서

▶ 불조심 강조의 달 유공(12.31) : 전국1위(국무총리표창)

▶ 119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12.11) : 전국2위(정선사북초교)

▶ 전국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진대회(06.13) : 최우수(고성간성초교)

▶ 외부고객만족도 평가(12.31) : 소방행정과 2위(상금 150만원)

2008년 소방활동

□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화재진압 : 2,556건(사망17, 부상82) → 인명피해 3.8% 저감
- 산불 138건(초기진압 129, 피해 9) 발생 → 대형화 방지

○ 인명구조 : 6,025명(일일 17명 구조) → 연 12% 증가추세

○ 환자이송 : 58,770명(일일 161명 이송) → 연 7% 증가추세

○ 생활민원 : 5,319건(급·배수지원, 문개방, 벌집제거 등)
※ 위치정보 : 1,181건(실종·조난자 휴대폰 위치추적) 제공

□ 일선현장 소방력 보강

○ 안전센터 인력충원 : 210명(내근 134명 감축, 76명 증원)
※ 현장인력 3교대 근무 : 6%('07년) → 30.4%('08년)로 확대

○ 장비현대화 : 노후차량 22대 교체, 구조구급장비 20종 보강
※ 소방차 노후율 : 29.2%('08년)로 저감

○ 노후청사 신 · 증축 : 8개소(소방서 1, 안전센터 3, 지역대 4)

□ 도민「삶의 질」향상

○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등) 지원 : 3,065개

○ 지역주민 소방안전교육 : 901,196명(전 도민의 58.6%차지)

○ CPR-생명지킴이 영예수여제도 시범운영 : 명예대원 5명 선정

2009년

□ 소방조직역량 제고

○ 소방인력 증원(179명), 3교대 근무 확대(30.4% → 52.4%)
○ 면지역 전담의소대 운영(4개대), 여성대 신규발대(39개대 1,170명)
○ 소방차량 보강(30대), 소방헬기 교체 등 구조·구급장비 확충(58종)
○ 노후청사 신·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 : 4개소(신축 3, 증축 1)

□ 전략적 재난대응체제 구축 피해 최소화

○ 3년 연속('07~'09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유지
○ 119시민수상구조대 효율적 운영 물놀이사망사고 획기적 감소
- 사망사고 '08년 69명 → '09년 31명 (38명, 55.1% 감소)
○ 산불소방대책본부 운영 등 초동대응으로 대형산불 원천 차단

□ 사회안전망 구축

○ 본격적인 「U-안심콜」 서비스 운영('09. 12월말 5,506명 등록)
○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경연대회 등 범도민 기초구급능력 제고
- 심정지환자 소생(10명), CPR생명지킴이 영예 20명, CPR교육(298천명)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7대)으로 병원전 응급의료체제 구축

주요수상실적

▶ 강원도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관서 수상(4개소방서) : 2009. 9. 9.
· 최우수-동해, 우수-태백 · 삼척, 장려-홍천소방서
▶ 제9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상(강릉 중앙초교) : 2009. 6.11.
▶ 소방장비 개발 전국대회 장려상 수상(춘천소방서) : 2009.10.30.
▶ 고객감동 FUN행정賞 고객만족 최우수상(방호구조과) : 2009.12.31.

2009년 소방활동

119수보상황

계(건)	화재	산불	구조	구급	생활민원	장난	오류	기타
400,986	10,190	1,506	18,595	88,642	5,365	3,195	86,227	187,266

화재·구조·구급

화 재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09	2,760	104	24	80	10,969

※ 전년대비 : 건수 8.0 % 증 / 인명피해 5.1% 증 / 재산피해 4.6% 감

구 조	구조건수	구 조 인 원(명)					
		계	화재	교통	수난	산악	기타
2009	10,694	4,925	149	1,463	193	1,213	1,907

※ 전년대비 83.6% 증, 벌집제거등 생활민원 급증(10,868건 중 5,743건-52.8%)

구 급	이송건수	이 송 인 원(명)					
		계	질병	사고	중독	교통	기타
2009	61,573	65,995	32,816	14,204	477	9,423	9,075

※ 전년대비 7.2% 증

소 방 검 사

검사실시(개소)			검사결과		조 치 사 항		
계	정기	특별	양호	불량	행정명령	입 건	과태료
69,497	13,731	55,766	66,716	2,781	2,626	24	131

○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설치허가 등 소방민원 처리 : 11,246건

2010년

□ 인명피해 최소화

○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줄이기」 추진 : 40% 감소 (8명 감소)
○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유지 : 4년 연속('07~'10년)
○ 물놀이 사망사고 획기적 저감 : 전년대비 70% 감소
- '08년 66명 → '09년 31명 → '10년 9명

□ 사회안전망 확충

○ 긴급신고전화 11종 → 119로 일원화 : 수도, 가스, 폭력 등
○ 「119농촌구급지원센터」 신설 : 4개소(30분이상 거리 읍·면)
○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 설치 : 전문의 21명 24시간 의료지도
○ 목조문화재 보호 적응소방시설 설치 : 116개소(수막설비 등)

□ 조직역량 제고

○ 소방학교·횡성소방서 신설, 3교대 부족인력 증원(307명)
○ 현업근무자 '외상후 스트레스(PTSD) 기초검진' 실시(1,724명)
○ 감염관리실 (5개소), 구급차 내 CCTV·녹음기 설치(96대)
○ 소방차량 보강(39대), 노후청사 신·증축(6개동 - 신축5, 증축1)

주요수상실적

▶ '10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평가 최우수(강원도소방본부) : '10.07.30.
▶ '09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평가 2위(동해소방서) : '10.08.06.
▶ 제11회 전국소방동요제 초등부 우수, 유치부 최우수 : '10.10.06.
▶ 강원도 청렴도평가 우수(춘천 · 강릉 · 동해 · 삼척 · 정선 · 철원) : '10.10.22.
▶ '10년 강원도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1위(소방행정과) : '10.12.21.

2010년 소방활동

119신고접수

계(건)	화재	산불	구조	구급	안내	오류	기타
461,862	8,508	1,635	18,324	88,819	71,372	132,341	140,863

※ 전년대비 : 15.2% ↑

업무처리실적

화 재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430	106	13	93	11,964

※ 전년대비 : 건수 12% ↓ / 인명피해 1.9% ↑ / 재산피해 9.1% ↑

구 조	구조건수	구 조 인 원(명)					
		계	화재	교통	수난	산악	기타
	13,521	5,852	119	1,728	310	1,435	2,260

※ 전년대비 : 건수 24.4% ↑ / 구조인원 18.8% ↑

구 급	이송건수	이 송 인 원(명)					
		계	질병	사고	중독	교통	기타
	62,473	66,241	32,182	14,918	540	8,811	9,790

※ 전년대비 : 건수 1.5% ↑ / 이송인원 0.4% ↑

○ 소방민원 : 12,271건(건축허가동의, 위험물설치허가 등)

○ 위치추적 : 2,488건(조회성공 2,378-발견 88건, 실패 110건)

○ 생활민원 : 6,726건(급 · 배수지원, 민원출동, 행사지원 등)

○ 119신고 일원화 : 918건(수도, 환경, 가스, 성폭력, 노인 · 아동 학대 등)

2011년

□ 인명피해 최소화

○ 화재로 인한 사망자 최근 4년 대비 11%감축(19명 → 17명)
○ 대형산불 5년 연속('07~'11) 제로화 유지
○ 물놀이 사망사고 4년 연속저감
- '08년:66명 → '09년:31명 → '10년:9명 → '11년:8명

□ 사회안전망 확충

○ 긴급신고전화를 119로 일원화 : 11종 → 13종 확대(관광통역, 외국인안내)
○ 병원전 의료지도체계 구축·운영 : 전문의 16명 24시간 의료지도
○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지원 : 4,195개
○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 : 71개소 90,593명 교육
○ 「Heart-Saver」영예 수여 : 18명(심정지환자 8명 소생)

□ 조직역량 제고

○ 전국 유일의「3교대 근무지침」제정·시행('11. 1. 1)
○ 현업근무자 '외상후 스트레스(PTSD) 기초검진' 실시(1,851명)
○ 구급대원 신체·피복·장비 등 소독·감염관리실 설치(5개소)
○ 노후청사 신·증축(신축5, 증축4), 소방차량 보강(29대)

주요수상실적

▶ 제12회 전국소방동요제 초등부금상, 유치부대상 : '11.09.24.
▶ 제11회 전국 불조심어린이마당 우수(강릉 초당초교) : '11.10.21.
▶ 제2회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 연구논문 1위(소방본부) : '11.10.26.
▶ '11년 강원도 내 ·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1위(소방행정과) : '11.12.29.
▶ 강원도 청렴도평가 우수(홍천 · 원주 · 횡성 · 정선소방서) : '11.12.30.

2011년 소방활동

119신고접수

계(건)	화재	산불	구조	구급	민원출동	안내	기 타			
							ARS	무응답	기관통보	오인
419,821	7,518	1,500	16,555	84,097	33,689	76,133	102,614	94,385	2,390	940

※ 전년대비 : 29.7%↑

업무처리실적

화 재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2,397	90	17	73	10,546

※ 전년대비 : 건수 10%↓ / 인명피해 15%↑ / 재산피해 12%↑

구 조	구조건수	구 조 인 원(명)					
		계	화재	교통	수난	산악	기타
	12,616	5,247	99	1,533	316	1,257	2,042

※ 전년대비 : 건수 6.7%↓ / 구조인원 10.3%↓

구 급	이송건수	이 송 인 원(명)					
		계	질병	사고	중독	교통	기타
	59,702	63,736	31,575	14,636	482	8,714	8,329

※ 전년대비 : 건수 4.4%↓ / 이송인원 3.8%↓

○ 소방민원 : 12,397건(건축허가동의, 위험물설치허가 등)
○ 위치추적 : 2,579건(조회성공 2,495-발견 86건, 실패 84건)
○ 생활민원 : 29,051건(급・배수지원, 민원출동, 행사지원 등)
○ 119신고 일원화 : 265건(수도, 환경, 가스, 성폭력, 노인・아동 학대 등)

2012년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10년13명 → 11년17명 → 12년 8명)

○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보급
○ 화재취약대상 집중관리 및 취약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실시

□ 119·1339 업무통합으로 One-Stop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구급상황관리센터」신설('12. 6. 22 / 119종합상황실 內)
○ 접수→출동→의료상담→응급처치→병원이송을 One-stop으로 처리

□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교육 실시

○ 강원도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 1,058명
○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 운영 : 14개소 30,652명

□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력 지속 보강

○ 평창·인제署 신설, 소방차량(72대) 및 구조구급장비(173종 13,575점) 보강
○ '13년 국비 확보 전국 최고수준('12년30억→'13년44억, 구급차41대 등)

주요수상실적

▶ 소방장비조작능력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소방본부) : '12.05. 22.
▶ 전국 화재진압 작전전술 발표대회 최우수(원주소방서) : '12.05. 31.
▶ 전국 화재감식 심포지엄 발표대회 우수(동해소방서) : '12. 11.01.

2012년 소방활동

주요 소방활동

계(건)	계	화재(산불)	구조	구급	민원출동	안내(이첩)	기 타		
							ARS	오접속	오인
419,821	689,099	9,785	23,113	86,150	7,525	157,085	81,705	140,344	183,392

※ 전년 대비 : 5.5%↓

화 재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망	부상	
	2,394	133	8	125	10,281

※ 전년 대비 : 건수 0.2%↓ / 사망자 81.8%↓

구 조 (19,576건)	계	화재	교통	수난	산악	기 타	
						고 립	위험배제
	5,235명	102명	1,646명	275명	1,450명	77명	1,685명

※ 전년 대비 0.2%(12명)↓

구 급 (62,148건)	계	질병	사고	약물중독	교통사고	기 타	
						범죄의심	단순통증
	66,182명	33,731명	16,167명	542명	9,189명	270명	6,283명

※ 전년 대비 3.8%(2,446명)↑

강원소방의 하루

신고접수	화 재	구 조	구 급
1,888건 처리	7건 처리	54건, 14명	170건, 181명
46초마다 1건	3시간마다 1건	26분마다 1건	8분마다 1건

2013년

□ 강원소방 위상 제고

○ 특수구조단 창단(52명, 8월)
- 항공·산악·수난사고 전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 구급계(구급업무 전담) 분리, 상황분석계(상황분석 및 홍보 전담) 신설

○ 전국 단위 각종 경진(경연)대회에서 우수성적 거양
-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 전국 1위, 국민생명 보호정책 전국 2위 등

□ 신규소방인력 확충 및 임용전 신임교육 실시

○ 신임 소방사 83명 선발(공채 58, 구급 특채 17, 기타 관련학과 8)

○ 임용전 선교육 실시(6.17~11.29, 24주) * 배치(12.2일)
- 각종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로 발령초기부터 안정적인 업무수행 가능

□ 노후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해소 추진

○ (청사) 고성소방서 등 8개 소방청사 신축 추진(완료:5, 진행:3)

* (완료) 양덕원, 상동, 화암, 묵호, 대화 / (추진중) 고성, 서석, 문막

○ (차량) 총 61대 교체보강(신규3, 교체58), 노후율 저하(35.7%→25.8%)

차종별	계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고가차	굴절차	구급차	구조차	기타
보유현황	572	149	34	10	10	15	102	33	219
경과대수	147	76	3	6	5	3	4	5	45
경과율(%)	25.8	51	8.8	60	50	20	3.9	15.2	20.5

□ 안전관리체계 및 자율적 예방안전문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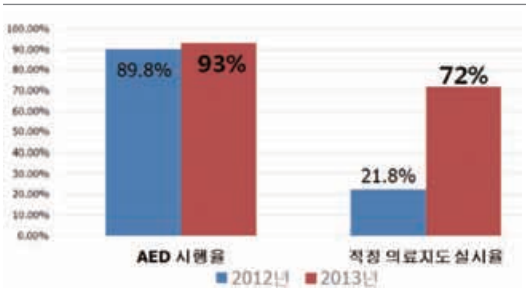
○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2억원, 6,921가구)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4,986개소)

○ 어린이·노약자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편성
- 소방안전 체험캠프, 불조심 어린이마당·사생대회, CPR 경연대회 등

□ 119구급서비스 품질(Quality) 향상

○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자 확충(1급 특채 : 17명, 2급 양성 : 95명)
* 구급전문자격자 배치율 : ('12년) 77.6% → ('13년) 86%

○ 심정지환자 AED 시행율 및 중증응급환자 현장처치 적절성 개선



구 분	'12년	'13년
AED 시행율	89.8%	93%
적정 의료지도 실시율	21.8%	72%

□ 종합상황실 대응역량 강화

○ 119신고 앱 자체개발(4월), 문자·영상·앱 등을 통한 119신고 가능
* 강원119신고앱 운영실적('13년) : 다운로드 7,747건, 신고 553건, 실구조 61건

○ 수도·가스·자살 등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119신고확대서비스 전담인력 3명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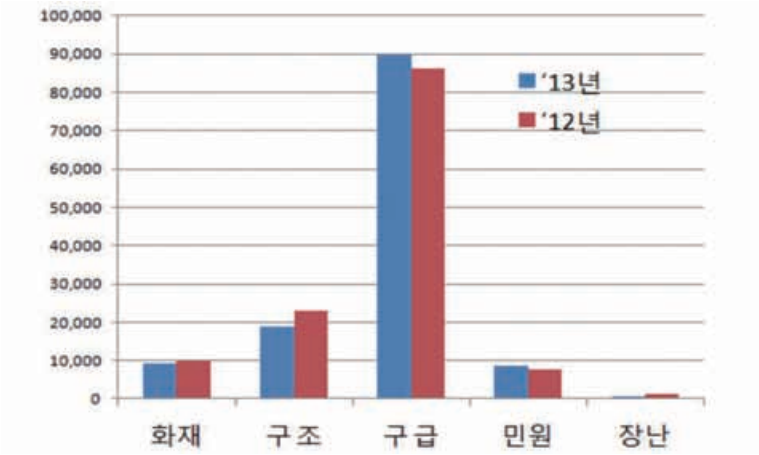
○ 현장 구급대원 의료지도 및 유관기관 연계대응 강화
- 생체증상정보 실시간 전달시스템 구축(구급차 16대)
- 심뇌혈관정보전달시스템 구축(4개 전문병원, 18개 지역병원)

2013년 소방활동

119신고접수

구 분	계	화 재	구 조	구 급	민원출동	안내이첩	오접속	장 난	기 타
'13년	484,157	9,171	18,853	89,788	8,649	157,298	188,212	527	11,659
'12년	669,239	9,785	23,113	86,128	7,525	137,573	394,696	1,411	9,008

○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27.66%(185,082건) 감소
- 오접속(무응답, ARS, 장난전화 등)이 큰 폭(52.4%)으로 감소
- 통신기술 발달 및 스마트폰 일반화로 인한 접속오류 감소가 큰 영향



화재발생

화 재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13년	2,097	125	10	115	12,143
'12년	2,403	171	8	163	11,816

○ 전체 화재건수는 2,097건으로 전년 대비 12.7%(306건) 감소
○ 인명피해는 125명(사망 10, 부상 115)으로 전년 대비 26.9%(46명) 감소
○ 재산피해는 약 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약 3억원) 증가
○ 원인별로는 부주의(996건, 47.5%) → 전기요인(398건, 19.0%) → 원인미상(278건, 13.3%) → 기계적 원인(229건, 10.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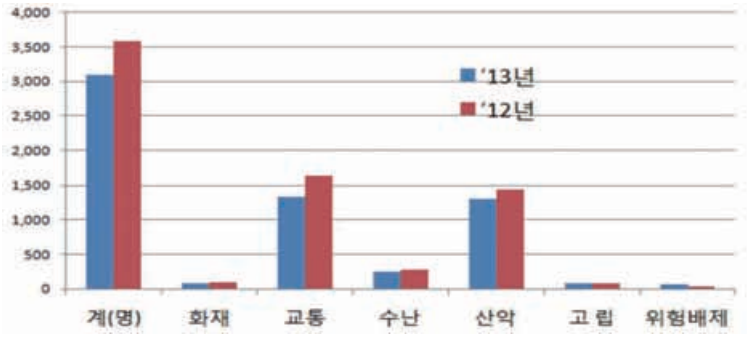
구조활동

구 분	계(명)	화재	교통	수난	산악	기 타	
						고 립	위험배제
'13년	3,097	77	1,328	245	1,312	76	59
'12년	3,588	102	1,646	275	1,450	77	38

○ 전체 구조인원은 3,097명으로 전년 대비 12.7%(491명) 감소

* 전체 구조건수는 14,284건으로 전년 대비 27%(5,292건) 감소

○ 화재, 교통사고, 산악 · 수난사고 등 전 분야에서 구조인원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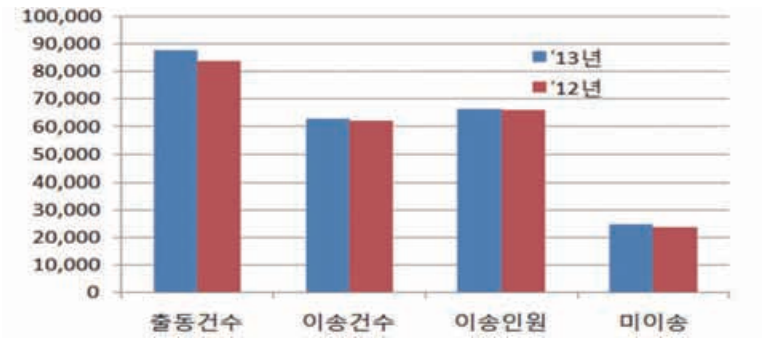


구급활동

구 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미이송 건 수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인원
'13년	87,774	62,819	66,531	24,955	182	750
'12년	83,933	62,148	66,182	23,785	181	689

○ 전체 이송건수는 62,819건으로 전년 대비 1.1%(671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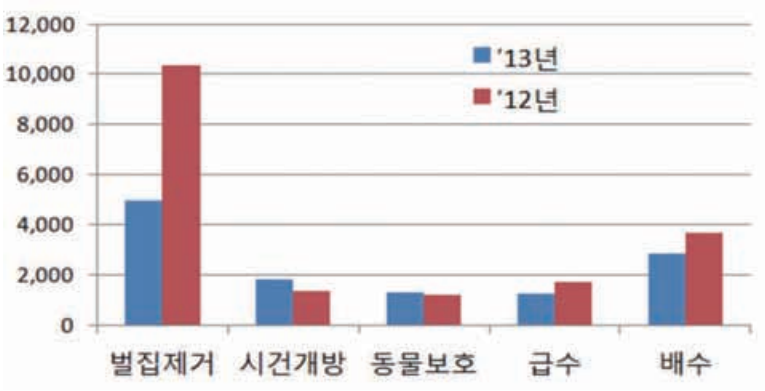
* 전체 이송인원은 66,531명으로 전년 대비 0.5%(349명) 증가



119생활안전서비스

구 분	계(건)	벌집제거	시건개방	동물보호	급배수 지원	
					급수	배수
'13년	12,162	4,979	1,830	1,295	1,228	2,830
'12년	18,336	10,353	1,373	1,193	1,736	3,681

○ 119생활안전서비스 건수는 18,336건으로 전년 대비 33.7%(6,174건) 감소
○ 기후상의 영향으로 벌집제거 출동 큰 폭 감소(51.9%), 급 · 배수 지원도 감소



※ 강원소방의 하루는 바쁩니다!

구 분(건)	신고접수	화 재	구 조	구 급
연간 처리건수	484,157	2,097	3,097	87,774
일일 처리건수	1,326	6	39	240
1시간당	52건	0.24건	1.6건	10건
1건당	1분마다 1건	4시간 10분마다 1건	36분마다 1건	6분마다 1건

2014년

□ 재난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 신규 소방인력 89명 일선 배치(총 155명 선발, 65명 교육중, 기타1)
○ 소방차량 49대(신규13, 교체36), 개인안전장비 7종 4,276점(18.6억) 보강
○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직 정비·보강
- 고성소방서 신설 추진('15. 5월중 개서 예정), 정선 사북지역대 119안전센터 승격

□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국민행복안전정책 추진(7분야, 20시책, 45지표)
○ 의용소방대를 민간 지역방재 중심조직으로 육성(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 119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

○ 응급구조사 양성교육(3회, 105명), 특수구조교육훈련(21개과정 174명) 실시
○ 응급구조사 79명(1급 8, 2급 71), 인명구조사 49명(1급 2, 2급 47) 양성

□ 선제적 도민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안전처) 특교세 5억원 확보(365세이프타운)
○ 신속한 예·경보를 위한 민방위·재난 예·경보시설 22개소 추가 구축(총1,397개소)

□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환경 구축

○ 안전취약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확대(9,235가구)
○ 폐지수집 어르신 교통안전장구 지원(1,100벌), 다문화가족 전기·가스시설 점검(6,082가구)

□ 각종 정부평가·경연대회 입상 등 위상 제고

○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최우수),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장려)
○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 제19회 KBS119상 대상(개인) 및 특별상(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 수상
○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최우수
○ 119구급활동 평가 전국 최우수, 심정지환자 소생율 전국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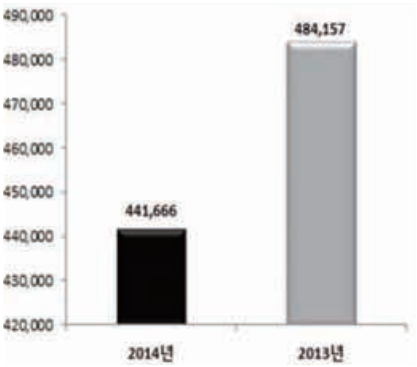
2014년 소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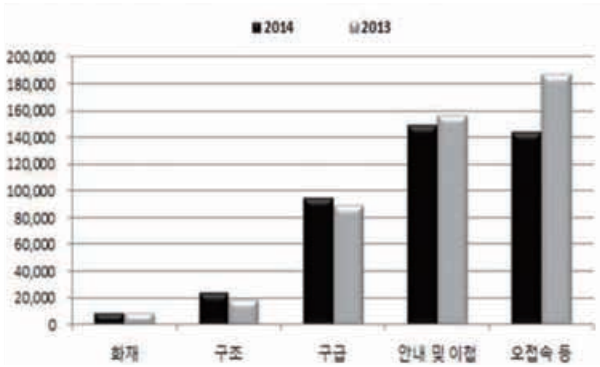
신고접수

구 분	계(건)	화재	구조	구급	민원 출동	안내 이첩	오접속 무응답	장난	기타
2014년	441,666	9,247	24,010	94,658	10,475	149,119	143,512	272	10,373
2013년	484,157	9,171	19,074	89,788	8,428	157,298	188,212	527	11,659
증 감	△40,391	76	4,936	4,870	2,047	△8,179	△44,700	△255	△1,286

○ 전년대비 신고접수 8.8% 감소 / 오접속(무응답,ARS,장난전화)등 26.8% 감소
- 119신고 대기 시간 감소로 신속한 상황접보 처리 및 도민 신뢰도 향상
- 스마트폰의 보급확대 및 통신기술 발달로 오류접속 둔화

○ 일일 평균 신고 · 접수 1,210건
- 화재 21건, 구조 66건, 구급 259건, 민원 · 안내 398건 등
- 화재 0.8%↑,구조 25.8%↑(벌집제거,동물구조),구급5.4%↑,의료상담 · 안내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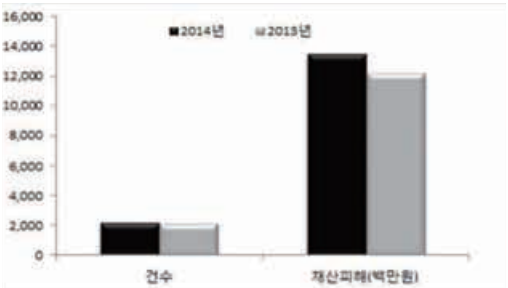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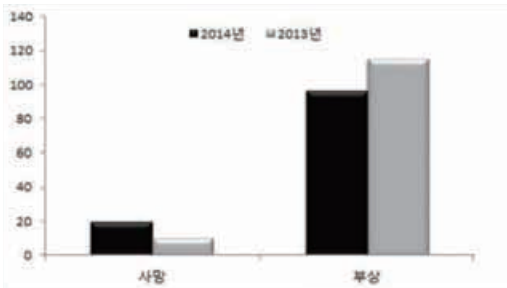
화 재

화 재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4년	2,182	116	20	96	13,466
2013년	2,097	125	10	115	12,143
증 감	85	△9	10	△19	1,323

○ 전년대비 화재발생 건수 4.1% 증가

○ 전년대비 인명피해 7.2% 감소, 재산피해 1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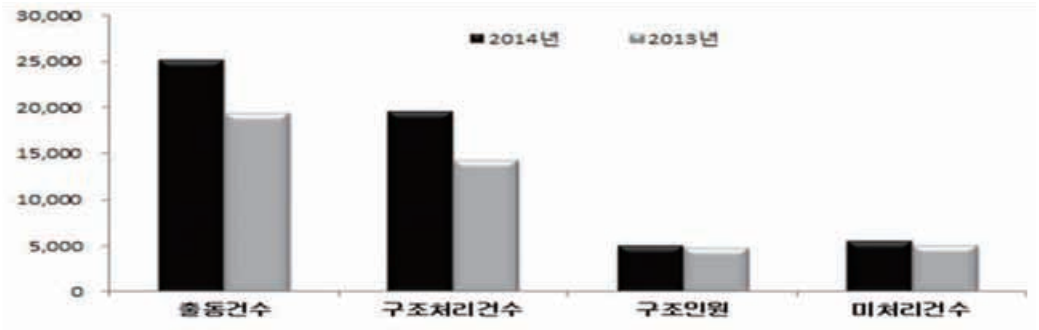


구 조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1일 평균 구조건수(인원)
2014년	25,138	19,541	5,093	53.5(13.9)
2013년	19,379	14,284	4,810	39.1(13.1)
증 감	5,759	5,257	283	14.4(0.8)

○ 전년대비 출동건수 29.7%증가, 처리건수 36.8% 증가 (벌집제거 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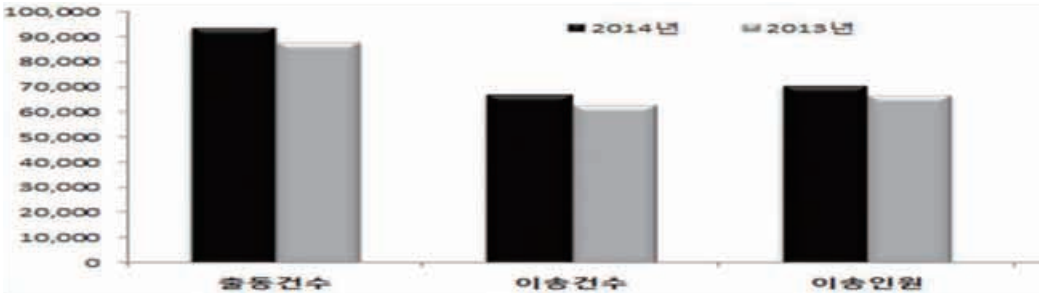
○ 전년대비 구조인원 5.9% 증가, 일일평균 구조인원 36.8% 증가



구 급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이송인원	1일평균 이송인원
2014년	66,904	70,419	26,521	193
2013년	62,819	66,554	24,955	182
증 감	4,085	3,865	1,56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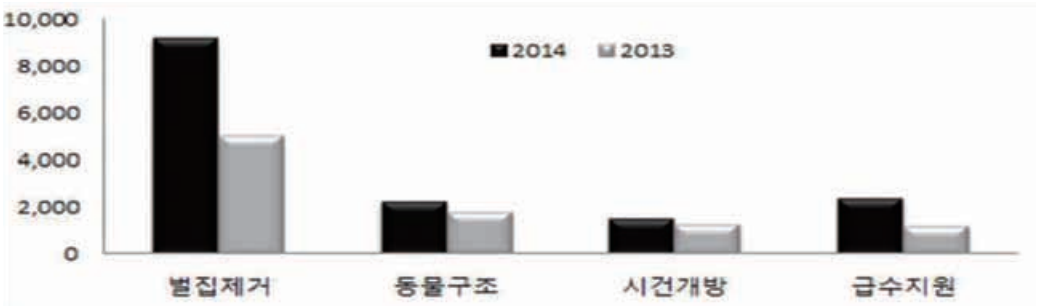
○ 전년대비 출동건수 6.4%증가, 이송건수 6.5% 증가
○ 전년대비 이송인원 5.8% 증가, 일일 평균 이송인원 6% 증가



119생활안전서비스

구 분	계(건)	벌집제거	시건개방	동물보호	급배수 지원	
					급수	배수
2014년도	15,461	9,174	1,560	2,240	2,417	70
2013년도	9,431	4,979	1,295	1,830	1,228	99
증 감	6,030	4,195	265	410	1,189	△29

○ 전년대비 63.9%증가/ 급수지원(96.8%), 벌집제거 증가(84.3%)
○ 벌집제거를 포함한 동물구조, 시건개방, 급 · 배수 지원 등이 전반적 증가



2015년

□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

○ 동해안 소방산불대책본부 운영(47일, 940명동원) → 10년 연속 대형산불 방지
○ 주요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재난 취약지역 소방력 전진배치(12회 394개소)
○ 소방관서장 주관 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 간담회 개최(343개소, 1,807명)

□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 119구조대장직 신설 및 구조인력 보강(29명), 인명구조사 자격취득(27명)
○ 1급 응급구조사 경력자 채용(58명),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134명)

□ 취약계층 119안전복지서비스 확대

○ 「강원119행복기금」 운영 : '15년 67백만원 모금(도내 소방공무원 2,060명 참여)
- 화재피해주택 복구(1가구),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 지원(405가구), 주거환경 개선(15가구) 등
○ 도내 농가 등 가뭄피해지역 급수지원(3,302회, 13,721톤)

□ 재난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 신임 소방공무원(소방사) 184명선발, 기본교육 후 일선관서 배치
○ 소방서 신설 인력, 현업부서 부족인력 등 소방인력 증원(총 149명)
- 1인지역대 21명, 안전센터 및 구조인력 35명, 교육전담인력 등 20명 : 76명(4월)
- 양양소방서 신설 39명, 특수구조단 긴급기동팀 18명, 안전센터 6명, 기타 10명 : 73명(12월)
○ 고성소방서 개서(5.22) 및 양양소방서 신설 추진('14 ~ '16)

□ 각종 정부평가 등 위상 제고

○ 구급활동평가 우수기관(전국 1위), 심정지환자 소생율 전국 1위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 최우수(전국 1위, 대통령 표창)
○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분야 전국 1위
○ 전국의용소방대 종합평가 전국 3위(전문의용소방대 평가 전국 1위)
○ 전국 인명구조견 관리운영 우수기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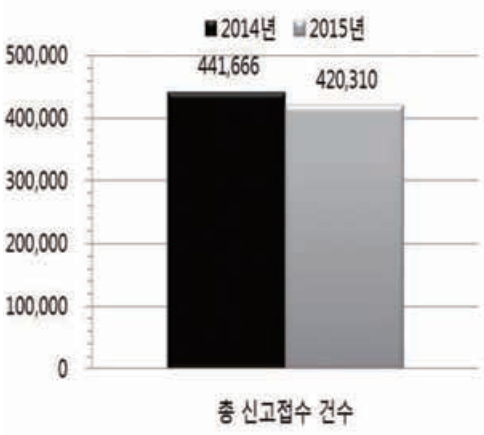
2015년 소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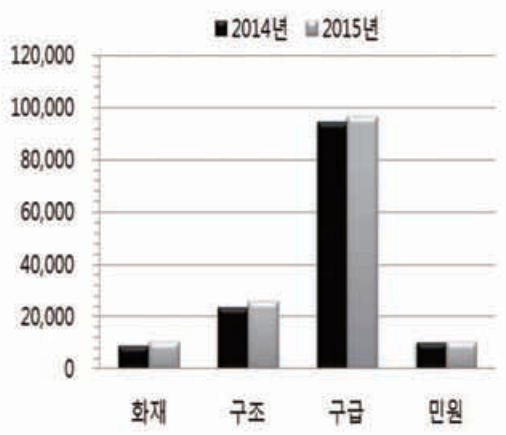
신고접수

구 분	계(건)	화재	구조	구급	민원 출동	안내 이첩	오접속 무응답	장난	기타
2015년	420,310	10,131	25,662	96,689	10,227	145,166	123,441	127	8,867
2014년	441,666	9,247	24,010	94,658	10,475	149,119	143,512	272	10,373
증 감	△21,356	884	1,652	2,031	△248	△3,953	△20,071	△145	△1,506

○ 전년대비 신고접수 4.8% 감소 / 오접속(무응답, 장난전화)등 14.0% 감소
- 119신고 대기 시간 감소로 신속한 상황접보 처리 및 도민 신뢰도 향상
- 통신기술 발달 및 오류 최소화를 위한 운영 노력으로 오류접속 둔화

○ 일일 평균 신고 · 접수 1,152건
- 화재 28건, 구조 70건, 구급 265건, 민원 · 안내 등 789건
- 화재 9.6%↑, 구조 6.9%↑(벌집제거,동물구조,시건개방), 구급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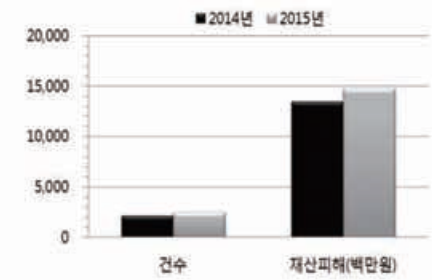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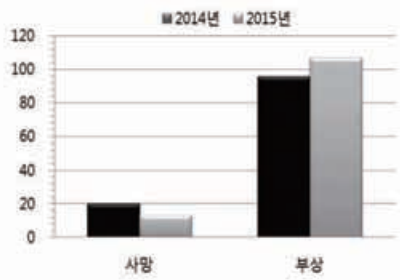
화 재

화 재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망	부상	
2015년	2,485	120	13	107	14,734
2014년	2,182	116	20	96	13,466
증 감	303	4	△7	11	1,268

○ 전년대비 화재발생 건수 13.9% 증가

○ 전년대비 인명피해 3.4%증가(사망 35% 감소), 재산피해 9.4%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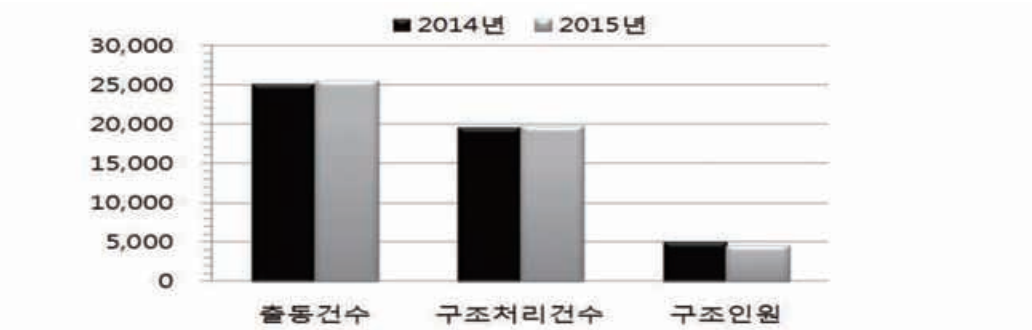


구 조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구조인원	1일 평균 구조건수(인원)
2015년	25,539	19,741	4,601	54(13)
2014년	25,138	19,541	5,093	54(14)
증 감	401	200	△492	0(1)

○ 전년대비 출동건수 1.6% 증가, 처리건수 1.0% 증가

○ 전년대비 구조인원 9.7% 감소, 일일평균 구조인원 7.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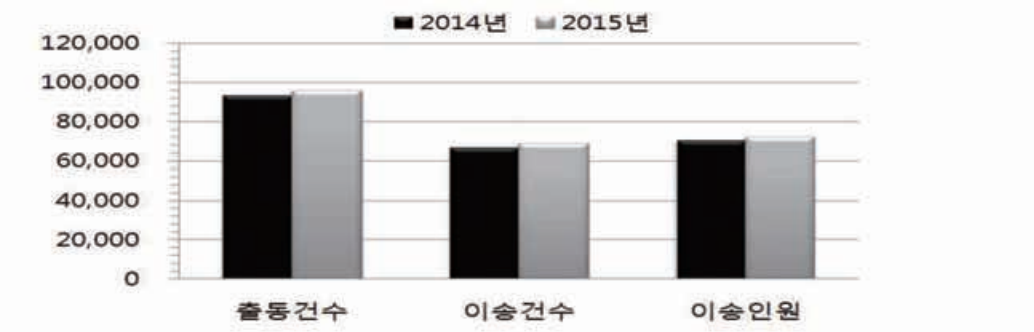


구 급

구 분	출동건수	구조건수	이송인원	1일평균 이송인원
2015년	95,953	68,596	71,893	197
2014년	93,425	66,904	70,419	193
증 감	2,528	1,692	1,474	4

○ 전년대비 출동건수 2.7% 증가, 이송건수 2.5% 증가

○ 전년대비 이송인원 2.1% 증가, 일일 평균 이송인원 2.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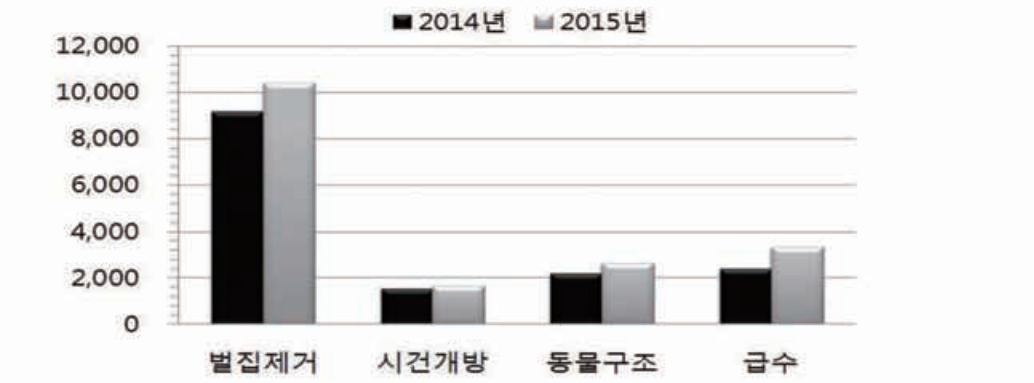


119생활안전서비스

구 분	계(건)	벌집제거	시건개방	동물보호	급배수 지원	
					급수	배수
2015년도	18,026	10,403	1,662	2,616	3,302	43
2014년도	15,461	9,174	1,560	2,240	2,417	70
증 감	2,565	1,229	102	376	885	△27

○ 전년대비 16.6%증가 / 급수지원(36.6%) · 벌집제거(13.4%) 증가

○ 가뭄으로 급수지원 큰폭 증가 /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전반적 증가



2016년

□ 선제적 화재예방 및 취약계층 소방서비스 지원 강화

○ 화재취약 시기 화재예방대책 추진 : 13,349개소 실시, 시정 1,917개소
- 기초생활수급가구 소방시설 지원(4,622가구)
-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 지원(430가구), 주거환경 개선(18가구)
-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5명),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1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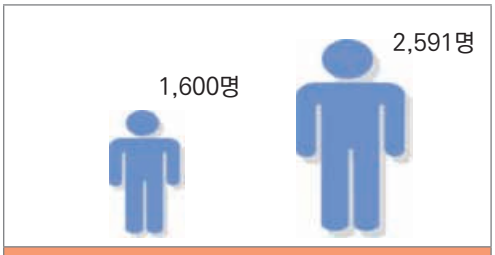
○ 화재없는 안전마을 23개소 신규 조성(1,151가구)

□ 빈틈없는 대비체계 확립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 동해안 소방산불대책본부 운영(35일, 700명) → 11년 연속 대형산불 방지
○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4~5월, 9~10월) : 2,798명 배치, 105명 구조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6~8월) : 23개소, 645명 배치(구조 15명, 이송 70명)
○ 강원119신고앱 기능강화(응급상황대처매뉴얼 추가), 119신고 콜백시스템 도입

□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 현장활동 부족 소방공무원 충원 및 소방차량 보강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 : 2개소
○ 노후·협소 소방청사 신·증축 : 2개소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서·119안전센터 신설 : 2개소
○ 소방학교 생활관 증축(30실 → 65실) : 36억원(3층 1동, 1,609㎡)
○ 전국 최초 「화재감식훈련장」건립(2억원 / 100㎡)



최근 10년 소방공무원 변화 추이



최근 10년 소방서 변화 추이

□ 2018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등 국가행사 안전관리

○ 테스트이벤트 소방안전대책 추진 : 5회, 소방인력 662명, 장비 230대
○ 전국 2대 학생체전 안전매뉴얼 제작·활용 * 국가행사 소방안전모델 정립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서포터즈 협약 → 올림픽 관람객 유치 「1+3운동」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 : 13명, 11백만원
○ 심신안정실 설치(1개소/총 8개소)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4회 200명)
○ 선진소방 벤치마킹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 12과정 51명
○ 모범 소방공무원 가족 문화체험행사(제주도) : 76명

□ 도민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교육 기반 확충

○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2,278회, 30만명)
○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교육 강사(의용소방대원) 양성 : 30명
○ 다매체 활용 생활 밀착형 소방정책 홍보
- 소방시설 설치,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 주류병(170만), 은행 ATM기(64기) 활용

□ 중앙부처 우수평가

○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2,278회, 30만명)
○ 2016 봄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선정(국민안전처 주관)
○ 소방장비 관리운용능력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장관 표창)
○ 항공안전관리 우수기관(장관 표창), 인명구조견 관리 우수기관(장관 표창)
○ 전국 화재감식경연대회 최우수(장관상, 전국1위)
○ 의용소방대 성과평가 우수기관(장관상, 전국2위)
○ 의용소방대 성과평가 전문의용소방대 최우수(장관상, 전국1위)
○ 「빅데이터 공통기반 활용 분석 우수사례 공모전」최우수(장관표창)

2016년 소방활동



화재진압

1일 평균 6.3건, 3.78시간마다 1건 발생
▶화재발생 : 2,315건(전년대비 6.8% 감소)
▶인명피해 : 사망 20명, 부상 99명
▶재산피해 : 12,757백만원(전년대비 13.4% 감소)



인명구조

일 평균 56건, 25.5분마다 1건 구조
▶구조출동 : 26,344건(전년대비 2.9% 증가)
▶구조처리 : 20,576건(〃 4.0% 증가)
▶구구조인원 : 4,460명(〃 3.1% 감소)



구 급

1일 평균 184건, 192명, 7.5분마다 1건 처리
▶구급출동 : 96,389건(전년대비 0.5% 증가)
▶이송건수 : 67,216건(〃 2.0% 감소)
▶이송인원 : 69,985명(〃 2.7% 감소)



생활안전

1일 평균 41건, 35분마다 1건 처리
▶발생건수 : 14,843건(전년대비 17.4% 감소)
※ 벌집제거 9,203, 동물구조 2,804, 문개방 1,623, 급수지원 1,213



119신고접수

1일 평균 1,111건, 1.3분마다 1건 처리
※ 전년대비 신고접수 3.5% 감소
▶긴급 : 화재 10,437, 구조 26,309, 구급 100,778
▶기타 : 민원 8,480, 안내·이첩 140,763, 기타 118,870

*** 1일 평균 처리건수 : 287건(화재 6, 구조 56, 구급 184, 생활안전 41)**

2017년


2017년 강원소방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
● 총력 예방, 화재 저감
→ 건축물, 전기화재 저감
● 봄·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3년 연속 우수기관
● 강릉·삼척산불 총력 대응
→ 주요시설,민가(186)보호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설
→ 5담당, 45명
안전 신뢰기반 확대,
빈틈없는 재난대비
● 주택용소방시설 4,400가구 지원
● 화재피해주민 지원
→ 재건축(2가구),구호킷(100)
●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 테스트이벤트 24회
● 실전형 긴급구조훈련 실시
→ 전국 2위(대통령 표창)
미래 성장동력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 부족 소방인력 보강
→ 318명
● 신규 채용 : 397명
● 소방재정 투자 확대
→ 소방장비 노후율 0%
● 본부청사신축 의회 의결
●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청사관리 조례·예산 확보
→ 심신안정실 구축(5개소)
→ 매연배출시스템 구축(8개소)

□ 선제적 화재예방 총력 전개 ⇨ 대형 인명피해 유발 화재 Zero화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중점관리,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관서별 화재 저감 목표 설정 및 특수시책 추진으로 화재 저감

○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연계 문화재, 전통사찰,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 사전 안전 점검 ➡ 대형화재 원천 봉쇄

○ 허위 자체점검, 부실 감리, 무허가 위험물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안전성 강화

□ 빈틈없는 대비·대응체계 구축 ⇨ 재난피해 최소화

○ 강릉·삼척산불 총력 대응 ⇒ 인명·민가피해 최소화, 국가주요시설 방어
- 강릉교도소, 철도시설, 송전탑, 올림픽 선수촌 공사장, 화약고, 민가(186가구) 보호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합동훈련(3회) ⇒ 완벽 준비 상황 언론 보도

○ 실전형 통합지휘체계(ICS) 운영으로 긴급구조훈련 현장성 강화 ⇒ 전국 2위

□ 재해피해 주민 및 취약계층 소방서비스 지원 확대

○ 화재피해주민 피해복구 지원 ⇒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
- 화재피해주택 재건축(2가구),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175명)
- 이재민 재해구호키트 제작 및 배부(100set),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상시 운영

○ 재난 취약계층 위험환경 개선 등 안전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국가유공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4,400가구)
- 저소득층 전기·가스 안전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18가구)

□ 미래 성장동력,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 현장 부족인력 등 318명 증원, 신규 인력 397명 채용('13년 대비 4.78배 증가)

○ 재정투자 확대 ⇒ 주력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노후율 0%, 보유율 100% 달성

○ 소방본부 청사 이전·신축사업 역점 추진(10.20. 도의회 의결)


전통시장 합동소방안전점검


동해안 산불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가뭄 & AI(조류독감) 대민 지원

□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 및 대형재난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 강릉·삼척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지원 보호대책 추진
- 임시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가구별 긴급구호키트 지원, 구급대원(응급구조사, 간호사) 혈압 등 건강체크

○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 대형산불 피해주민 구호성금 모금 동참
- 소방공무원 1,719만원, 의용소방대 2,685만원 성금 기탁

○ 재난환경에 취약한 동해안 초기대응시스템 강화 추진
- 강력한 초기 소방력 투입을 위한 '환동해 특수재난대응단' 설치
- 전문대응장비 도입 추진(산불 전용 대형헬기 1, 산불진화 산악용 소방차 2)


긴급구호키트 및 생활용품 전달


산불 피해주민 성금 전달


산불대응 산악전문 진화차량

□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성공적 시험무대

○ 올림픽 대비 Test-Event 대회 소방안전대책 추진
- 경기장·숙박시설 안전점검, 소방CP운영, 소방력 배치(24회, 인력 5,663명, 장비 1,277대)

☞ 소방활동 실적 : 구급이송 79건, 안전조치 24건, 기타 1,130건

○ 올림픽 G-1 문화행사, TNF100 트레일러닝 대회 안전대책 완벽 마무리

○ 2018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 모집 및 홍보
- 소방박람회 올림픽홍보 부스 운영, 해외홍보, 의용소방대 응원서포터즈 4,270명 모집

□ 중앙부처 우수평가

○ 봄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15~'17년 3년 연속 우수기관)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14년 전국 1위, '15~'16년 전국 우수)
○ 긴급구조종합훈련 평가 우수기관(대통령 표창, 전국 2위)
○ 전국 안전강사 경진대회 (장관상, 전국 2위),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장관상, 전국 1위)
○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 (장관상, 장려상),화재감식경연대회(장관상, 전국2위)
○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 최강소방관경기 (장관상, 전국 2위), 수관연장·방수자세(장관상, 전국 1위)
○ 119소방정책컨퍼런스 최우수(총리상, 전국2위), 의용소방대 강사 경연대회(장관상, 전국 2위)

2018년

□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완벽 수행

○ (1단계-예방) 「소방안전기획단」 운영 및 주요시설 소방특별조사
- 경기장, 숙박시설 등 점검 20,758개소(불량 3,840개소 시정 조치)

○ (2단계-대비)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현장대응매뉴얼 제작, 합동훈련
- 대형구급차(7대) 및 다목적 구조차(3대) 도입, 소방상황관제센터 설치 등

○ (3단계-대응) 소방지휘본부 운영 및 주요 대회시설 소방력 총력대응
- 지휘본부(평창총괄·강릉방면)·소방상황관제센터 → 24시간 지휘체계 확립
- 소방력 동원 : 인력 29,924명, 장비 3,743대 배치(1일 최대 484명, 장비 91대)

※ 대회기간 도내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및 단계별 소방력 배치(3교대 → 2교대 전환)

※ 소방활동 실적 : 총 7,765건
(구조11, 구급620, 안전활동7,044, 안전조치90)
◎ (올 림 픽) 6,375건(구조7, 구급524, 안전활동5,766, 안전조치78)
◎ (패럴림픽) 1,390건(구조4, 구급96, 안전활동1,278, 안전조치12)
* 외국인 구급이송 231명(올림픽 197, 패럴림픽 34)



※ 올림픽 개회 예정국 일본(동경소방청), 중국(허베이성) 벤치마킹 방문(내 · 외신 극찬)

□ 선제적 화재예방 총력 전개 ⇒ 대형 인명피해 유발 화재 Zero화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중점관리,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관서별 화재 저감 목표 설정 및 특수시책 추진

○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연계 문화재, 전통사찰,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 대형화재 원천 봉쇄

○ 허위 자체점검, 부실 감리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안전성 강화

○ 전국 최초「화재 안전의 날(1.19.)」운영 ⇒ 화재 경각심 제고

□ 빈틈없는 대비·대응체계 구축 ⇨ 재난피해 최소화

○ 고성산불 총력 대응 ⇒ 인명·민가피해 최소화, 주요시설 방어
  * 벧엘요양원, 공현진초등학교, 가스충전소, 가진항 폐유저장소·횟집(26), 민가(73가구) 방어
○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긴급구조훈련 실시(81회)
○ 현장팀장·대원 임무별 현장지휘 및 대응훈련 강화(2,200명)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 현장 부족인력 충원 및 조직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319명)
○ 신규 인력 채용 확대('18년 400명, '19년~'22년 연 500명 규모)
○ 소방차량 노후도 개선 등(163억원, 97대, 노후도 사상최초 2%대 진입)
○ 청사 신·증축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출동 및 근무환경 개선
  * 기공식 : (소방서)원주·양구(4월), 화천(7월)
  * 준 공 : (신축)인제원통(5월)·춘천소양(9월)·양양강현(11월)안전센터, 영월북면지역대(5월)
    (증축)철원소방서(6월), 고성동광안전센터(9월)
○ 구조·구급·개인보호장비 지속 보강 ⇒ 노후율 0%, 보유율 100% 유지
  * 구조장비(239종 24,927점), 구급장비(62종 13,609점), 개인보호장비(6종 16,352점)

□ 융합형·지능형 고품질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 재난 상황정보 실시간 공유 모바일 영상전송시스템 구축
  * 드론(4대), 웨어러블 바디캠(230대) 활용 영상정보 전송체계 운영
○ 소방차량 재난영상전송시스템 활성화(67대 설치)
○ 소방전용 무선 데이터(LTE)망 구축(433대)
  * 언제 어디서나 운용 가능한 현장 행정지원환경 마련

□ 중앙부처 우수평가

○ '17년~'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전국 1위)
○ '18년도 인명구조견 관리 우수기관(최우수)
○ 제4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교육발전대회(장려상),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전국 2위)
○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전국 2위)
○ KBS119특별상(2018평창동계올림픽 유공, 평창소방서)
○ 현장대응능력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전국 2위)
○ '18년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분야(전국 1위)
○ '18년도 전국의용소방대 강사경연대회 심폐소생술(전국 2위), 생활안전강사(전국 3위)

2018년 소방활동

2018년 강원소방의 하루





119 신고접수

1일 평균 1,221건, 1.2분마다 1건 처리
- ▶ 접수 : 333,393건(전년대비 1.5% 증가)
- ▶ 긴급 : 화재 10,077건, 구조 29,563건, 구급 86,612건
- ▶ 기타 : 민원 9,489건, 안내・이첩 105,565건, 기타 92,087건



화재진압

1일 평균 6.4건, 3시간 38분마다 1건 발생
- ▶ 화재발생 : 1,746건(전년대비 2.9% 감소)
- ▶ 인명피해 : 122명(전년대비 20.8% 증가)
  *사망9명, 부상113명
- ▶ 재산피해 : 20,625백만원(16.8% 감소)



인명구조

1일 평균 81건, 17.8분마다 1건 구조
- ▶ 구조출동 : 27,881건(전년대비 2.6% 증가)
- ▶ 구조건수 : 22,135건(〃 0.7% 증가)
- ▶ 구조인원 : 2,981명(〃 14% 감소)



구 급

1일 평균 204건, 7분마다 1건 이송
- ▶ 구급출동 : 83,022건(전년대비 8.6% 증가)
- ▶ 이송건수 : 55,793건(〃 7.9% 증가)
- ▶ 이송인원 : 57,599명(〃 7.2% 증가)



생활안전

1일 평균 58건, 25분마다 1건 이송
- ▶ 출동건수 : 15,777건(전년대비 2% 감소)
  ※ 벌집제거 10,577건, 동물포획 2,507건
  문개방 985건, 기타 안전조치 등 1,708건

강원소방 100년사

부록 4

신문기사로 보는 강원소방



消防手가 放火

먼저난불을 속히 꺼서 너무심々하야 또방화

지난삼월이십구일 오후 십시경에 춘천군 춘천면 사창리 매일신보사춘천지국(春川郡春川面社倉里每日申報春川支局)에서 실화된사실이 잇섯는대 당시에 경관과밋 소방수가 출동하야 즉시

소방수가 출동하야즉시 불을끄고 각々집으로 도라갓섯는데그후몃시간이 되지아니하야동군동면 사창리 이십팔번디 리병익(同郡同面社倉里二八番地李秉翼)의집에서 불이야불이야하는소리에 놀낫던가삼을 밋처 진정치못한경관과밋소방수가 급々히 현장에가서 진화하고불난원인을 조사한바 불은그집 지붕우에서낫고 또한주먹덩이만한 솜뭉치에 석유가무더 잇슴을발견하고 이에엇던자의 방화가 분명함을확실히알고즉시

경찰당국 은대々덕으로 범인을 수색한결과 당시소방수로참가하야소방에종사하던 춘천군 춘천면사창리십륙번디 빈정화삼랑(春川郡春川面社倉里十六番地濱井和三郎)(二六)의 소위라는대 그내용을듯건대 별로히 무슨혐의가잇서 그러한것도 아니요 다만그날밤에 매일신보지국에 불난것이 너무심々하야 꺼볼거시 업서々 일것출동하엿다가 한번신을풀지못하고 거저 도라가게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연히 방화의 악의를품고 자긔집에도라가서 실내에잇는 금구에서 솜을 주먹덩이만치 끄내어서 석유를 뭇처가지고 전긔리병익의 집에가서 석유무친솜덩이에 성냥불을 켜대어 지붕우에 던저 방화하엿다는대 불은즉시 진화하야야모 손해가업섯고 범인은 지금검사국에서 엄중취조중이라더라

(춘천)

소방수가 방화(동아일보 1921.4.16.)

〉〉 먼저 난 불을 속히 꺼서 너무 심하야 또 방화

지난 삼월이십구일 오후 십시경에 춘천군 춘천면 사창리 매일신보사춘천지국에서 실화된 사실이 잇섯는대 당시에 경관과밋 소방수가 출동하야 즉시 불을 끄고 각집으로 도라갓섯는대 그후몇시간이 되지 아니하야 동군 동면 사창리 이십팔번디 리병익의 집에서 불이야 불이야 하는 소래에 놀낫던 가삼을 밋처 진정치 못한 경관과밋 소방수가 급히 현장에 가서 진화하고 불난원인을 조사한바 불은 그집 지붕우에서 낫고 또한 주먹덩이만한 솜뭉치에 석유가 무더 잇슴을발견하고 이에 엇던자의 방화가 분명함을 확실히 알고 즉시 경찰당국 은대뎍으로 범인을 수색한결과 당시 소방수로 참가하야 소방에 종사하던 춘쳔군 춘쳔면 사창리 십륙번디 빈정화삼랑 (26)의 소위라는대 그내용을 듯건대 별로히 무슨혐의가잇서 그러한것도 아니요 다만 그날밤에 매일신보지국에 불난 것이 너무 심하야 꺼볼거시 없어 일것출동하엿다가 한번 신을 풀지못하고 거저 도라가게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연히 방화의 악의를품고 자긔집에 도라가서 실내에잇는 금구에서 솜을 주먹덩이만치 끄내어서 석유를 뭇처가지고 전긔리병익의 집에가서 석유무친솜덩이에 성량불을 켜대어 지붕우에 던저 방화하엿다는대 불은 즉시 진화하야 야모 손해가업섯고 범인은 지금 검사국에서 엄중 취조중이라더라



朝鮮의 消防隊

昨年末 調査의 朝鮮內에在한消防組數는常備六一、日本人十一、朝鮮人二百四十八、日鮮人共同四百六十五、日鮮中人共同十六、合計七百四十六으로이에屬한職員은組頭日本人三百七十八人、朝鮮人三百五十二人、計七百三十人、副組頭日本人百八十七人、朝鮮人三百八十人、計五百六十七人小頭日本人九百三十二人、朝鮮人二千百三十五人、中國人四人、計三千七十一人、消防手日本人七千二百九十三人、朝鮮人三萬六千三百人、中國人八十二人、計四萬三千六百七十五人이오또機器의主要한者는自動車唧筒二十四臺、蒸汽唧筒七臺、發動機唧筒二十四臺、腕用唧筒七百五十六臺、輕便唧筒七百六十一臺、龍吐水七十六箇、梯子類一千二百九十三箇、纏二百三十三箇、旗五百九十八箇、水管車百五十臺、輸送車百八十七臺等이다

조선의 소방대(동아일보 1924.5.9.)

〉〉 작년 말 조사의 조선 내에 재한 소방조 수는 상비 6, 일본인 11, 조선인 248, 일선인공동 465, 일선중인공동 16, 합계 746으로 이에 속한 직원은 조두일본인 378인, 조선인 352인, 계 730인, 부조두일본인 187인, 조선인 380인, 계 567인, 소두일본인 932인, 조선인 2,135인, 중국인 4인, 계 3,071인, 소방수 일본인 7,293인, 조선인 36,300인, 중국인 82인, 계 43,675인 이오또기기의 주요한 자는 자동차즉통 24대, 증기즉통 7대, 발동기즉통 24대, 완용즉통 756대, 경편즉통 761대, 용토수 76개, 제자류 1,293개, 전 233개, 기 598개, 수관차 150대, 수송차 187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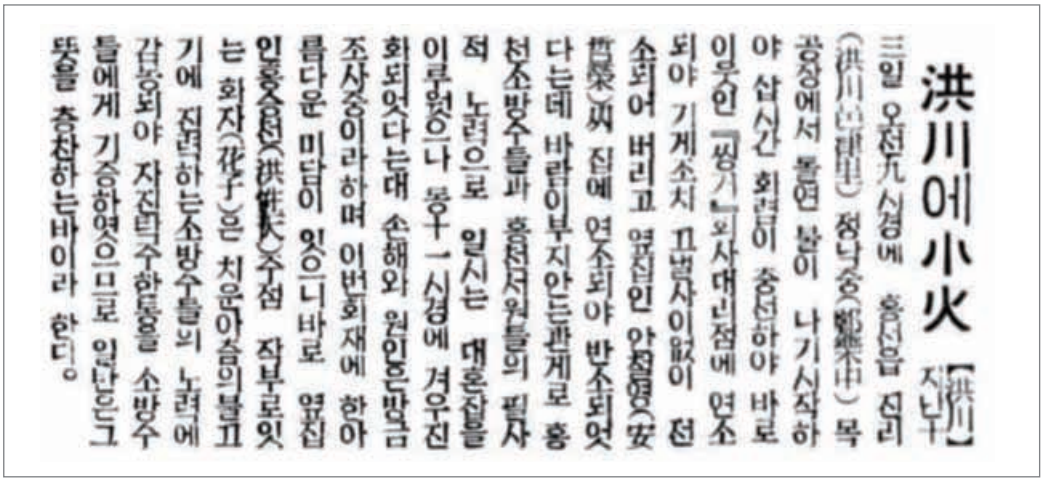


消防組出初式

平昌 江原道平昌邑消防組에서는從來使用하든폼푸一個로서는消火上充分치못한感이不無하드니昨年六月中旬頃有志의發起로七百餘圓의寄附金을募集하야最新式폼푸一個와附屬品一切를一新하게購入하야노코지난四日午前十時부터平昌廣野에서出初式을擧行하얏다더라【平昌】

소방조 출조식(동아일보 1929.1.10.)

〉〉 강원도 평창읍 소방조에서는 종래 사용하든 폼푸일개로서는 소화상 충분치 못한 감이 불무하드니 작년 유월중순경 유지의 발기로 칠백여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야 최신식 폼푸 일개와 부속품 일절를 일신하게 구입하야노코 지난 사일 오전 십시부터 평창광야에서 출초식을 거행하얏더라



洪川에小火 【洪川】

三일 오전九시경에 홍천읍 진리
(洪川邑眞里) 정낙중(鄭樂中) 목
공장에서 돌연 불이 나기시작하
야 삽시간 회렴이 충선하야 바로
이웃인 『씽거』회사대리점에 연소
되야 기게조차 끄낼사이없이 전
소되어 버리고 옆집인 안철영(安
哲泳)씨 집에 연소되야 반소되엇
다는데 바람이부지안는관계로 홍
천소방수들과 홍천서원들의 필사
적 노력으로 일시는 대혼잡을
이루엇으나 동十一시경에 겨우진
화되엇다는대 손해와 원인은방금
조사중이라하며 이번화재에 한아
름다운 미담이 잇으니바로 옆집
인홍승천(洪昇天)주점 작부로잇
는 화자(花子)는 치운아츰의불끄
기에 진력하는소방수들의 노력에
감동되야 자진탁주 한통을 소방수
들에게 기증하엿으므로 일반은그
뜻을 칭찬하는바이라 한다。

홍천에 소화 (동아일보 1939.1.19.)

〉〉【홍천】 지난13일 오전 9시경에 홍천읍 진리 정낙중 목공장에서 돌연 불이 나기 시작하야 삽시간 회렴이 충선하야 바로 이웃인 “씽거” 회사 대리점에 연소되야 기게조차 끄낼 사이없이 전소되어 버리고 옆집인 안철영씨 집에 연소되야 반소 되엇다는데 바람이 부지 안는 관계로 홍천소방수들과 홍천서원들의 필사적 노력으로 일시는 대혼잡을 이루웟으나 동 11시경에 겨우 진화되엇다는대 손해와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 하며 이번 화재에 한 아름다운 미담이 잇으니 바로 옆집인 홍승천 주점 작부로 잇는 화자은 치운 아츰의 불끄기에 진력하는 소방수들의 노력에 감동되야 자진 탁주 한통을 소방수들에게 기증하엿으므로 일반은 그 뜻을 칭찬하는 바이라 한다.



警防團誕生에對하야

警務局長 三橋孝一郎

경방단 탄생에 대하야(동아일보 1939.10.1.)

〉〉 경무국장 삼교효 일랑

드디어 십월일일로써 전조선에 긍하야 경방단이 탄생하게 되엇다 즉 종래의 소방, 수방, 방호의 제단체가 수개월에 긍한 진통기를 지나 분해결합의 작용을 완료하야 이 새로운 일원으로 되어 세상에 나온터이다 생각건대 소방조 수방단은 수십년에 긍한 육성의 결과라 허다한 공적을 남기엇던 것이다 방호단으로서는 영원한 역사를 갖지 못하야 아직 일반이 방공에 관심한 시대에 선각자로서 발생하야 열혈의 분투를 계속하야 점차 정돈된 것을 지금에 이르러 갱생하는 고통도 견딜수 없는 바도 잇엇을 것이다

이제 시국의 요구는 차등제 단체의 개별적 존속을 불허하고 빛나는 각역사는 다치고 이에 새로 통제된 경방단으로써의 페이지가 시작하게 되엇다 오인은 차제 전기제 단체의 끼친 공적을 오래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 형성한 경방단의 전도에 다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호 기정상한 발달을 염원하는 터이다

황공하옵게도 이본총재궁전하께서는 경방단에 깊이 어심을 주하시어 영지를 사하지고 경방단의 사명과 경방정신을 훈유하시와 단원의 향할바를 명백히 교시하섯다 오인국에 당하는 자 공구감격하여 마지안는 바이다 바라건대 단원각위와 함께 일석영지를 봉창하야 언동항상 영지에 의거하야 사명의 달성에 매진하기를

그리고 일반국민각위여사히 하야 각위와 상친하야 기치○을 지키기에 진력한 방호단과 소방조는 각위의 목전에서 소멸되고 경방단이 신장늠늠히 등장하게 되엇다 그러하나 이것은 형식상의 일로써 즉소방조와 방호단과 조직계통이 따로따로 된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에 지나지 안는 셈으로서 평시의 재해에 또 공습에 대한 방비에 명신을 던저서 향토의 수호에 당하는 데에 아무 변화도 없다. 그리고 종래보다도 더욱 그힘을 강화하게 된 터이다 따라서 경방단이 형식상으로는 관설의 관이 잇으나 그 목적은 향토의 수호에 잇는 것이므로 이것은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안헛다 원컨대 이러한 바를 잘 이해하야 경방단의 조장에 우는 기능의 발휘에 협력을 아끼지 안키를 원하는 바이다



今曉、突然猛火로
江原道廳을灰燼
知事以下警防團이出動鎭火

금효, 돌연맹화로 강원도청을 회신
(동아일보 1940.2.23.)

〉〉 지사이하 경방단이 출동진화

【춘천지국전화】 22일 오전 0시50분 강원도 도청본관에서 돌연 발화하여 화광이 충천하자 삽시간에 1층 본관을 전소한 뒤에 서고, 회의실, 문서진열관과 리궁=문준각 등을 연소하엿다. 야반에 돌연한 화재에 놀랜 윤지사 이하 경방단과 춘천경찰서를 비롯 학생들까지 진화에 노력하엿으나 것잡을 수 없는 맹염은 드디어 겨우 토목과만을 남기고 강원도청을 재로 만들고 동4시 지나서 진화되엇다.



光 불이야! 들고 話 電
一一九 엔 高

이즈음 번번히 나는 화재에 대하야 경성소방소에서는 시민의 주의를 환기하며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반다시 전화 一一九번을 찻고 본정과 룡산구역에서는 전화 수화기를 들고 "불"이라고만하면 소방서에 통하게 되니 시민의 협력을 요망하고 잇다

전화 들고 불이야!(동아일보 1946.1.24.)

〉〉 광국엔 119

이즈음 번번히 이러나는 화재에 대하야 경성소방소에서는 시민의 주의를 환기하며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반다시 전화 119번을 찾고 본정과 룡산구역에서는 전화 수화기를 들고 "불"이라고만하면 소방서에 통하게 되니 시민의 협력을 요망하고 잇다



建築許可權
消防局이妥當

건축허가권문제로 서울시
도시계획파와 소방국사이에
알력이생겼다는것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이에대하여
서울시소방후원회장 신의회
(申益熙) 씨는 다음과같이
담화를발표하였다
「요지음 신문지상에 론
의되어있는 건축허가권운
운은 의당 도시방화상또
는 방화도시건설상 소방
국으로 건축허가권이 이
관되어야할것이며 나는소
방국으로의 이관을 주장
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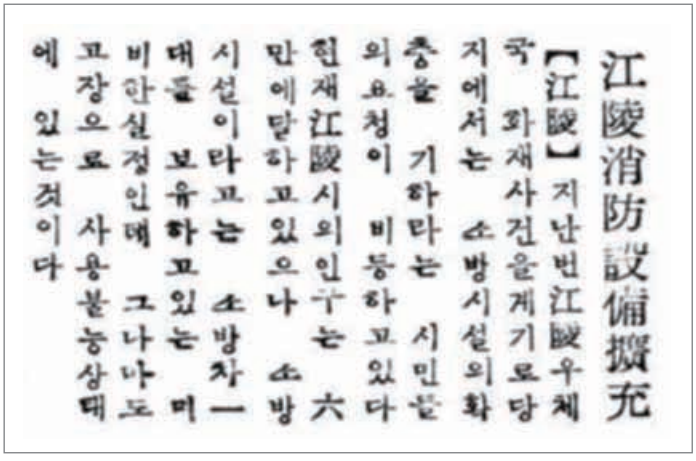
건축허가권 소방국이 타당(경향신문 1948.1.27.)



出動消防自動車
四日 避讓豫備運動

금반 서울시경찰국에
서는 화재발생시 급속운
행을요하는 소방자동차
량의 신속한안전운행진
로를 확보하고자 四일오
전十一시부터 중부、성
동、용산각소방서 소방
차동원하에 시내각중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소
방차피양(避讓)예비운
동을 실시키로되었다는
바 일반차량및 시민들은
이에대한 적극적인협력
이있기를 요망하는바이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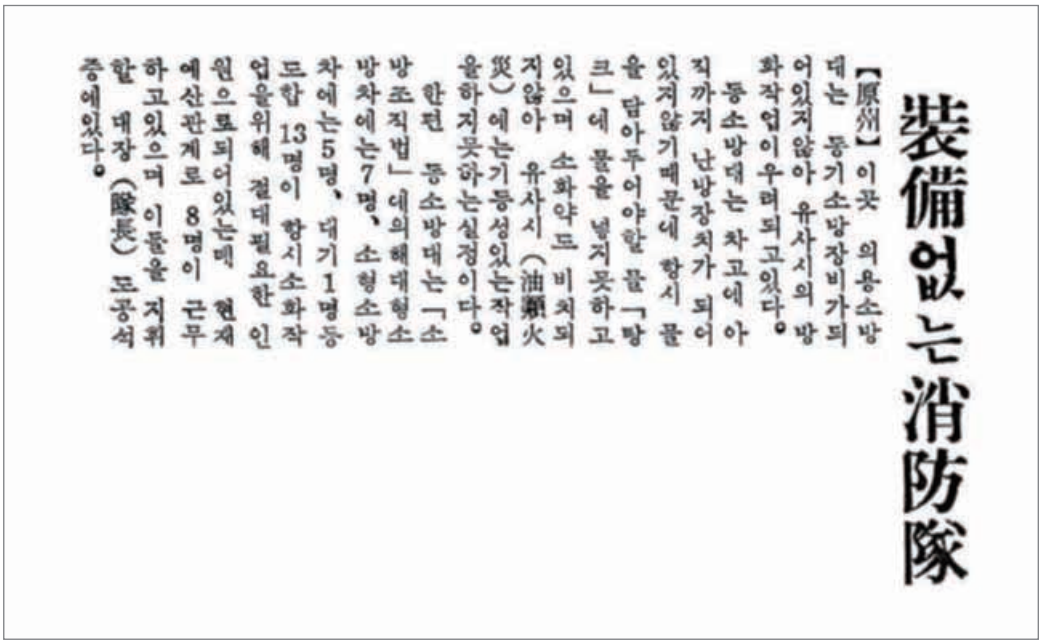
출동소방자동차 4일 피양 예비운동(경향신문 1955.2.4.)



江陵消防設備擴充

【江陵】지난번江陵우체
국 화재사건을계기로당
지에서는 소방시설의확
충을 기하다는 시민들
의요청이 비등하고있다
현재江陵시의인구는 六
만에달하고있으나 소방
시설이라고는 소방차一
대를 보유하고있는 미
비한실정인데 그나마도
고장으로 사용불능상태
에 있는것이다

강릉소방 설비확충(동아일보 1956.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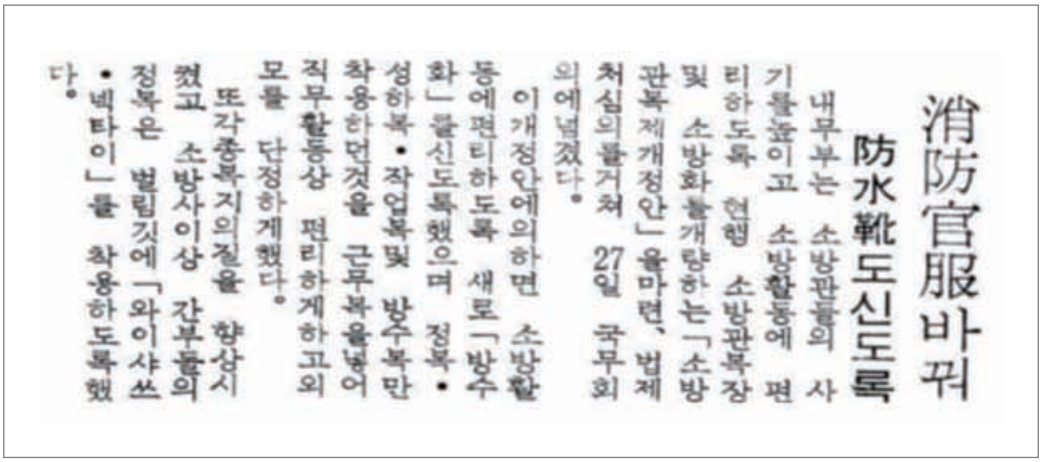
裝備없는 消防隊

【原州】이곳 의용소방대는 통기소방장비가되어있지않아 유사시의 방화작업이우려되고있다。

동소방대는 차고에 아직까지 난방장치가 되어있지않기때문에 항시 물을 담아두어야할 물「탕크」에 물을 넣지못하고있으며 소화약도 비치되지않아 유사시 (油類火災) 에는기능성있는작업을하지못하는실정이다。

한편 동소방대는「소방조직법」에의해대형소방차에는7명、소형소방차에는5명、대기1명등 또합 13명이 항시소화작업을위해 결대필요한 인원으로되어있는데 현재 예산관계로 8명이 근무하고있으며 이들을 지휘할 대장 (隊長) 도공석중에있다。

장비없는 소방대(경향신문 1962.12.15.)



消防官服바꿔

防水靴도신도록

내무부는 소방관들의 사기를높이고 소방활동에 편리하도록 현행 소방관복장및 소방화를개량하는「소방관복제개정안」을마련、법제처심의를거쳐 27일 국무회의에넘겼다。

이개정안에의하면 소방활동에편리하도록 새로「방수화」를신도록했으며 정복·성하복·작업복및 방수복만 착용하던것을 근무복을넣어 직무활동상 편리하게하고외모를 단정하게했다。

또각종복지의질을 향상시켰고 소방사이상 간부들의 정복은 벌림깃에「와이샤쓰·넥타이」를 착용하도록했다。

소방관복 바꿔 방수화도 신도록 (매일경제 1967.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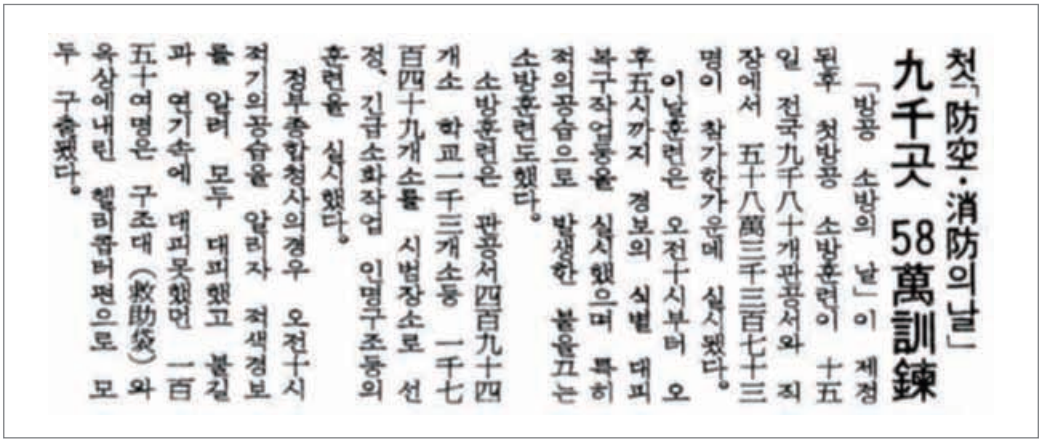
高層火災에 손든 消防

11層이상은 抛棄…人命구조만

내무부는 11층이상의 고층건물에 불이났을때 귀화활동을 포기하기로결정, 건물자체에 소화시설을 갖추어 자체진화작업을 하도록하고 필요한소방시설을 오는11월중에 갖추기위한 개수명령을 31일산하에 열린 전국소방관서장회의에서 지시했다。

최안국소방당국자는 이날 『우리나라 소방전이 갖고있는 소방사다리의 최고높이가 35m인데 이는 국제표준규격의 최고이지만 11층이상고층건물은 방수의 유효사정거리밖으로 직화작업에 설치도 아무런도움을주지않고 있기때문에 고층건물에 불이났을때 귀화활동을 포기하기로결정, 건물자체에 소화시설을 갖추어 자체진화작업을 하도록하고 필요한소방시설을 오는11월중에 갖추기위한 개수명령을 31일산하에 열린 전국소방관서장회의에서 지시했다。

최안국



첫「防空·消防의날」
九千곳 58萬訓練
「방공 소방의 날」이 제정된후 첫방공 소방훈련이 十五일 전국九千八十개관공서와 직장에서 五十八萬三千三百七十三명이 참가한가운데 실시됐다。
이날훈련은 오전十시부터 오후五시까지 경보의 식별 대피 복구작업등을 실시했으며 특히 적의공습으로 발생한 불을끄는 소방훈련도했다。
소방훈련은 관공서四百九十四개소 학교一千三개소등 一千七百四十九개소를 시범장소로 선정、긴급소화작업 인명구조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정부종합청사의경우 오전十시 적기의공습을 알리자 적색경보를 알려 모두 대피했고 불길과 연기속에 대피못했던 一百五十여명은 구조대(救助袋)와 옥상에내린 헬리콥터편으로 모두 구출됐다。

첫 방공·소방의날 9천곳 58만훈련(동아일보 1972.1.15.)



모든建築物新築에
消防署長同意받게
消防法개정案
八일 내무부는 대연각호텔화재사건후 개정작업에 착수했던소방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를관 관계부처에 넘기기로했다。
새로마련한 개정법안은 ▲지금까지 호텔 학교 극장등 주요건물에 대해서만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화물질보관창고에는 화재보안요원을 두고 자체소방대의 구성과 화학차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건물에대한 소방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건물소방시설에 대한 시설업자의 자격을 제한、소방시설자격면허제도를 신설하며 ▲소방기구에 대한 검정사무를 현재의 치안국으로부터 권위있는 민간기구로 이양하며 ▲고층건물 극장 학교등 많은사람이 모이는 건물에대한 내부시설을 내연성물질로 구비하도록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모든 건축물 신축에 소방서장동의 받게 (동아일보 1972.4.8.)



내달부터 消防官署로移管

各種消防法위반사범 수사

각종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업무가 오는1일부터 소방관서로이관된다。

25일 치안국은 현행 소방관서의 권한을 대폭강화、오는1일부터 화재의 예방활동과 소화업무뿐 아니라 소방법위반사범에대한 수사도 함께맡도록했다。

이같은 조처는 현행 소방법상 제반소방업무와 소방법위반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소방관서에서 맡도록돼있으나 소방관내의 수사요원부족으로 소방법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경찰에서 전담하다시피돼 소방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할수없었기때문에 취해진것이다。

이에따라 1일부터는 소방서가 설치돼있지않은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소방법위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소방관서의 수사를 받게된다。

내달부터 소방관서로 이관 각종 소방법 위반사범 수사 (매일경제 1974.5.25.)



市郡소방서장 消防總警으로

국무회의는 9일「시군소방서직제」등 의결、시군의 소방서장을 소방총경으로보하도록하고 소방서에 방호과와 소방과를두도록했다。

새로 마련된 이 직제는 소방서장 소속아래 소방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있게했다。

시군소방서장 소방총경으로 (매일경제 1974.7.10.)



火災無防備속 수업

春川 12개國校 소방施設없어

【春川】 춘천시내 15개국민학교중 12개국민학교에는 화재경보기를비롯、소방시설이 전혀안돼있어 2만여학생 들은 화재무방비상태에서 수업하고있다。특히 春川시내 국민학교는 3층이상 고층건물인데도 화재경보기를비롯、누전경보기 구조대 소화기등 소방기구 시설을갖추지못해 화재가날때 특히 큰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화재 무방비속 수업 춘천 12개 국교 소방시설 없어 (동아일보 1975.3.26.)



防空 消防의날을 民防衛의 날로

內務部개정…安保의식 높이게

내무부는 14일 지금까지 매월15일에 실시했던 방공소방의날을 민방위의날로개정, 오는16일 제41차 훈련때는 35개시 1백22개읍지역에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점차 전국에 확대키로했다。민방위훈련을 강화하게 된것은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유사시에 대비하기위한 것으로 종래 경보전달, 대피훈련, 소방훈련등 극히 초보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을 지양, 적극적인 훈련으로 강화하여 실전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종래 지역단위훈련지도반을 통·반단위로 편성, 주택지및 이면도로훈련을 조직, 체계적으로 지도하며 이제까지 경찰서 단위로 시·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던 것을 이번부터는 중앙훈련 점검반, 방공단자체훈련점검반, 각부처훈련점검반을 편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로했다。제41차민방위의날훈련은 시군단위로 공습이 예상되는 고가도로, 지하도등을 가상 피폭지점으로 선정, 교통통제 인명구조 긴급복구등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행정기관 산업체 등에도 방공단훈련을 실시시키로 했다。



消防조직 一元化

內務部、80年까지 地方自治로

내무부는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있는 소방조직을 일원화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등도 크게 보강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울 釜山의 소방조직과 국가조직으로 되어있는 각도의 소방조직을 오는80년까지 지방자치조직으로 일원화시키고 현재 경찰공무원법에의해 분류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도을 해안에 소방공무원법을 따로 만들어 단일화하기로했다。

이에따라 내무부가 이번 국회에 내놓은 소방공무원법 안에따르면 지금까지 서울·釜山시의 소방공무원과 각도 소방공무원의 계급이 서로다르면 것을 단일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령등 10계급으로 나누었다。

소방조직 일원화 내무부, 80년까지 지방자치로(경향신문 1977.11.1.)



消防의날 기념식

내무부는 1일 소방의 날을 맞아 전국 1백72개 시·군별로 일제히 기념식을 갖고 소방업무수행에 공이큰 내무부 소방국 소방경 陳南植씨등모범소방공무원 55명과 의용소방대원 63명을 표창하고 유공민간인 1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또이날유공소방대원 15명을 각각 1계급씩 특진 임명했다。

정부는 또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위해 특별기념우표 3백만장과 불조심기념담배 1천2백만갑을 발매하고 소방관계공무원 6만1백59명에게 대통령하사담배를 나누어 주었다。

소방의날 기념식(경향신문 1978.11.1.)



消防公務員 離職이 크게 늘었다

올들어 204명이나

昨年比 59명 증가

위험크고 給料 낮은탓

소방공무원들의 이직이 급증하고있다。

12일 서울시소방본부에따르면 올들어 10월말현재서울시내 전체소방공무원 1천7백4명가운데 12%인 2백4명이이직、지난해 전체이직자 1백45명보다 59명이나 더 늘어났다는것이다。

이같이 소방공무원들의이직이 늘어나는것은 위험부담이 큰업무의 특수성에비추어 급료수준이 너무낮기때문인것으로 관계자들은보고있다。

소방공무원중 최하위직인 소방사의 초봉은 13만원선에 그치고있으며 30년근무 소방정의 실수령액도 27만원밖에 안된다는것이다。

더구나 다른 어느직종에비해 위험부담이 큰일을하면서도 위험수당은 1달에 5천원밖에안돼 소방공무원들은 좀더 안전하고급료가 높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는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소방공무원 이직이 크게 늘었다 위험 크고 급료 낮은 탓 (경향신문 1980.11.12.)

救急환자 수송을
정식 消防업무로

내부부는 20일 전국60개소 방서에 앰뷸런스1대씩을 비치, 일반구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업무를 소방서가 맡도록하는등의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내기로했다。

이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원업무로 돼있던 구급업무를 주요소방업무로흡수, 일반 구급환자가 119를통해 구급을 요청할때대기하고 있는 앰뷸런스를 출동시켜병원에서 응급가료를 받을수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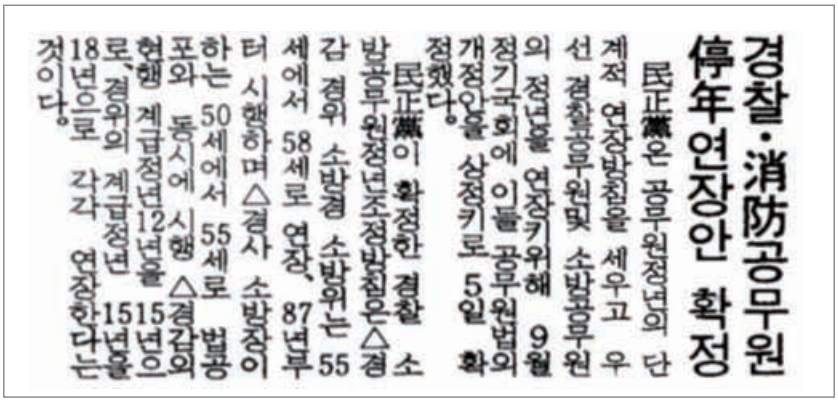
구급환자 수송을 정식 소방업무로 (경향신문 1983.5.20.)



◇「火魔 예방」…消防王 선발 대회 재보험협 한국화

회는 28일상오 서울시장안동에 있는 소방훈련장에서 제1회전국소방왕 선발대회를 가졌다。이 훈련엔 서울 부산등 각시·도에서 모두 1백90명이 참가, 인명구조·모래주머니나르기 등 경기를 펼쳤다。

화마예방□소방왕선발대회 (매일경제 11면 1983.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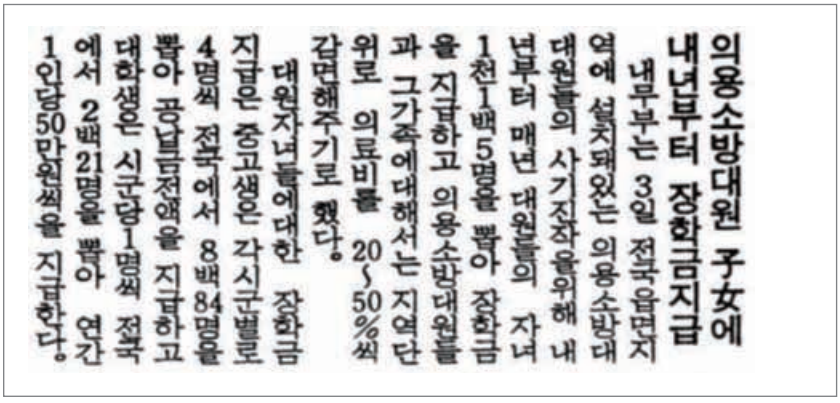


경찰·消防공무원 停年연장안 확정

民正黨은 공무원정년의 단계적 연장방침을 세우고 우선 경찰공무원및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키위해 9월 정기국회에 이를 공무원법의 개정안을 상정키로 5일 확정했다.

民正黨이 확정한 경찰 소방공무원정년조정방침은△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는 55세에서 58세로 연장, 87년부터 시행하며△경사 소방장이하는 50세에서 55세로 법공포와 동시에 시행△경감의 현행 계급정년12년을 15년으로, 경위의 계급정년 15년을 18년으로 각각 연장한다는 것이다.

경찰·소방공무원 정년 연장안 확정 (동아일보 198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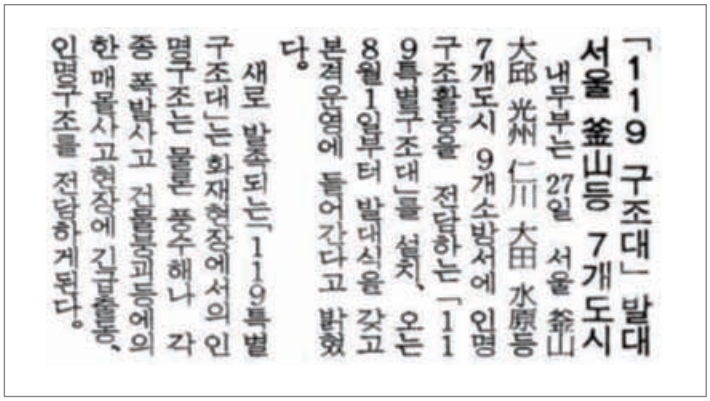


의용소방대원 子女에 내년부터 장학금지급

내무부는 3일 전국읍면지역에 설치돼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위해 내년부터 매년 대원들의 자녀 1천1백5명을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용소방대원들과 그가족에대해서는 지역단위로 의료비를 20~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원자녀들에대한 장학금지급은 중고생은 각시군별로 4명씩 전국에서 8백84명을 뽑아 공납금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시군당 1명씩 전국에서 2백21명을 뽑아 연간 1인당50만원씩을 지급한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내년부터 장학금지급 (동아일보 1987.11.3.)



「119구조대」 발대 서울 釜山등 7개도시

내무부는 27일 서울 釜山 大邱 光州 仁川 大田 水原등 7개도시 9개소방서에 인명구조활동을 전담하는 「119특별구조대」를 설치, 오는 8월1일부터 발대식을 갖고 본격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 발족되는 「119특별구조대」는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는 물론 풍수해나 각종 폭발사고 건물붕괴등에의한 매몰사고현장에 긴급출동, 인명구조를 전담하게된다.

119구조대 발대 서울 부산 등 7개 도시 (동아일보 9면 1988.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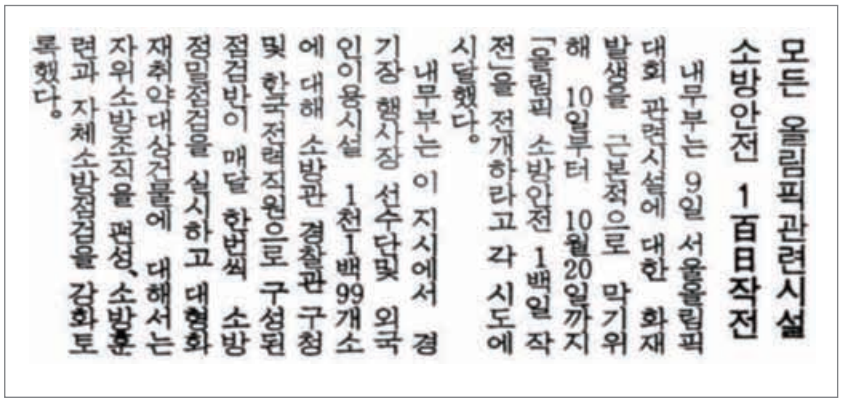
소방공무원 제복에 年數따라 紀章부착

내무부는 25일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위해 제복에 기장을 부착키로 했다。

새로 만들어진 기장의 종류는▲소방지휘관에게주는지휘관장▲10년이상 근속자가 받는 안전장▲20년이상 근속자가 받는 봉사장▲30년이상 근속자가 받는 소방장등 4종류이다。

이번 기장제정으로 전국에서 지휘관장을 받게되는 소방공무원은 92명、소방장은 39명、봉사장은 4백99명、안전장은 2천4백87명이다。

소방공무원 제복에 연수따라 기장 부착 (경향신문 14면 1988.6.25.)



모든 올림픽관련시설 소방안전 1百日작전

내무부는 9일 서울올림픽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화재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10일부터 10월20일까지 「올림픽 소방안전 1백일 작전」을 전개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경기장 행사장 선수단및 외국인이용시설 1천1백99개소에 대해 소방관 경찰관 구청및 한국전력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매달 한번씩 소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대형화재취약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자위소방조직을 편성、소방훈련과 자체소방점검을 강화토록했다。

모든 올림픽관련시설 소방안전 100일 작전 (동아일보 9면 1988.7.9.)



11월1일을「소방의 날」로 지정했으면

열악한 환경·장시간근무…사기진작책 고려토록

지난1일 소방공무원들은「봉사소방·소방의날」이란 글자가 새겨진 솔담배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그러나 11월1일은 공식적인「소방의날」이 아니다。

소방법이 공포된지 3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소방의날」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소방의 날을 무슨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은 아니다。그러나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조건과 무관심의 그늘속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소방의 날을 지정해주었으면 한다。

또 119의 상징인 11월9일에서 1월19일까지를「전국방재소방 강조기간」으로 설정,화재의 위험성을널리알리는계기로삼아 주었으면한다。소방공무원들은 소외감속에서 살고있다。생명을 담보하는 위험한 작업임에도「진압·구조수당」은 물론, 비번 특근 즉 경비동원이 잦아도「경비동원수당」도생명수당도없다。

이처럼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지면 소방공무원들의 실태를 감안할때 하루빨리 그 대책을 세워야한다。그 일환으로 11월1일을 기념일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북돋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김동희(대전시서구갈마동300의3)

11월 1일을 소방의 날로 지정했으면(경향신문 12면 1989.11.13.)



60개郡에 소방서 신설

93년까지 年次的으로 소방차 5百63臺 배치

내부부는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郡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위해 소방관서가 없는 郡지역에 오는93년까지 모두 60개의 소방관서를 설치, 5백63대의 소방차량을 구입해 邑面지역 의용소방대에 배치키로했다。

◇90년=花川 加平 舒川 韓山 泰安 瑞山 唐津 禮山 扶餘 舒川 沃川 青陽 丹陽 寶城 奉化 醴泉 青松 英陽 寧越 陰城

◇91년=加平 韓山 平昌 瑞山 禮山 牙山 唐津 禮山 扶餘 舒川 瑞山 茂朱 長水 珍島 新安 軍威 高靈 慶山 山清

◇92년=横城 華川 楊口 高城 襄陽 長城 寧越 陰城 永同 牙山 禮山 長興 務安 咸平 珍島 新安 軍威 高靈 慶山

◇93년=白制 高城 襄陽 茂朱 長水 谷城 咸平 和順 靈岩 務安 康津 海南 莞島 和順 靈岩 康津 海南 莞島

13일 내부에 따르면 소방관서 설치대상 郡은 전국 1백37개 郡중 이미 소방관서가 설치돼있는 45개郡과 인접 소방관서로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 郡을 제외한 60개郡으로 △올해15개郡 △91년15개郡 △92년16개郡 △93년14개郡에 어달아 소방관서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내부부는 또 소방차량 5백63대를 구입, 오는93년까지 소방관서가 없이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화재진압체제를 갖추고있는 邑面지역을 대상으로 △인구1만명이상 邑面의용소방대에는 소방차량2대 △인구 5천~1만명의 邑面의용소방대에는 1대씩 배치키로 했다。

소방관서가 설치되는 郡지역은 다음과 같다。

60개 군에 소방서 신설 (동아일보 14면 1990.1.13.)



下位職공무원 자동昇進

7월부터 9級 7~8년이면 8級에

기능직 10등급·순경등 2萬3千명 혜택

정부는 31일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적체가 심한 하위직급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재직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승진토록 하는 하위직정원통합운영제를 실시키로했다.

이를위해 공무원임용령중 「행정기관의 조직및 정원에 관한 총칙」(대통령령) 과 「경찰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제도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최하위계급으로 10년을 근무하면 승진토록되던것이 7~8년이면 자동승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도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은 일반직 9급 4천여명, 기능직 10등급 3천명, 경찰직 순경 1만2천여명, 소방직 소방사 1백여명등 모두 2만3천여명이다.

이와 관련, 총무처의 한관계자는 『일반직공무원의 8급과 9급, 기능직의 9등급과 10등급, 경찰공무원의 경장과 순경,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와 소방사의 정원을 각각 통합운영함으로써 근속기간을 단축하게 된다』면서 『특히 일반직의 경우는 국세청, 관세청등 대민업무가 주로 많은 부처의 하위직공무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하위직공무원 자동승진 (경향신문 1면 1990.5.31.)



「소방민원직소실」 설치

非理전력자 전원교체

금품수수신고자에 포상금

내무부는 3일 소방관들의 부조리를 척결하기위해 건축허가 위험물설치허가 소방검사등의 소방민원을 둘러싸고 부조리와 관련돼 직계처분을 받은자, 민원인등으로부터 지탄을 받는자등 부적격자를 가려내 이달중 전원교체키로 했다.

또 내무부 소방국에 소방감찰과를, 대구 釜山 全北 全南 濟州등 5개道에 감찰계를 각각 신설하는 한편 오는 10일 내무부 소방국장과 각 市道소방본부장 또는 민방위국장실, 市郡의 소방서 장실에 「소방민원직소실」을 일제히 설치, 각종 소방민원을 둘러싼 소방관들의 비리를 민원인들로부터 접수해 조사처리키로 했다.

安應模내무부장관은 이날 내무부회의실에서 각 市道소방관계관회의를 소집, 소방부조리척결을 위한 이같은 대책들을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소방민원직소실」에 접수된 신고내용중 감찰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소방관의 금품수수행위에대한 신고자는 건당10만원씩, 소방미비시설등 인행위신고자는 건당 5만원씩의 포상금을 주기로했다.

또 건축시설후 위험물설치허가자 소방검사대상처등에 「소방민원물품신청서」를 보내 민원인들이 소방관들의 비리 여부와 민원물품사본등을 적어보내도록 하기로 했다.

소방민원 직소실 설치 (동아일보 22면 1991.4.3.)



소방본부 9곳 추가발족

경기·강원 등 전국의 9개 도단위 소방본부가 10일 일제히 발족돼 광역자치소방시대가 열렸다.

소방본부의 이런 추가발족은 지난해 12월 소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소방본부를 갖추게 됐다.

소방본부 9곳 추가발족 (한겨레 14면 1992.4.11.)



동네방네

형평잃은 징계와 소방공무원의 분노

"아무리 소방서가 힘이 없기로서니 '죄없는' 소방서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아파트 붕괴사고를 무마하려 하다니 말이 됩니까."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무부가 충북 소방본부장을 징계 및 전보발령하고 청주소방서장과 방호과장을 직위해제한 반면 도지사와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가볍게' 경고조처한 19일 청주소방서를 비롯한 각 소방파출소 직원들은 일손조차 놓은 채 분노를 털어놓고 있었다.

"화재원인·붕괴원인·부실시공 여부·관계자 신병확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아파트 안전실태를 믿으리라고 생각하나 보지요."

울분은 거셌다.

"우린 자동화재탐지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85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우암상가아파트에 보완 지시를 내릴 정도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했고 청주 리라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음중인 장현철(31)씨를 비롯해 5명의 소방대원이 중경상을 입을 만큼 진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이 났다고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왜 붕괴원인이 불인 것처럼 소방서만 매도해 사태를 호도하는 겁니까. 연 5일째 소방대원들이 경찰에 불려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직업에 대한 회의가 극도로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취해진 징계조처가 이들의 감정에 불을 지른 것이다. 지난 15일 이미 신아무개(30·청주소방서 중앙파출소)씨 등 2명의 소방대원이 사표를 냈다.

상당수의 젊은 소방대원들도 '살신성인'만을 강조하는 현실을 더이상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둥이 아닌 쓰레기투하구에 금 간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붕괴직전의 건물을 확인하고도 관계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처럼 사진까지 내가며 왜곡보도한 게 바로 언론입니다."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는 결국 붕괴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소방공무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유야무야돼 버렸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청주/황순구 기자

형평잃은 징계와 소방공무원의 분노(한겨레 14면 1993.1.20.)



大형災害 전담부서 전국 소방관서 설치

내무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각종 대형 재난·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발족된다.

내무부는 29일 내년 1월1일자로 전국 소방관서에 구조 및 구급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 1백5명, 각 지역 소방서에 4백53명 등 총 5백58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에 고속도로 구급대를 두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 9구조·구급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도시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구조·구급활동이 내년부터는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될 뿐 아니라 고속도로를 비롯, 전국 유명 유원지에서도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許 鎬 기자〉

대형재해 전담부서 전국 소방관서 설치 (매일경제 39면 1994.12.30.)



속초 주택가 7층화재 사다리차 접근못해

진화 '최첨병' 소방사 순직

14일 저녁 8시40분께 강원 속초시 동명동 로얄빌딩 7층 술집 나이아가라(주인 이종숙·38) 화재 현장에서 불끄기 작업에 나섰던 속초소방서 영랑파출소 소속 최복규(29) 소방사가 불길을 피하다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최 소방사는 화재 현장 확인을 위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순간 밀어닥친 불길을 피해 엘리베이터 유리창을 깨고 10여분 동안 창에 매달려 있다 떨어졌다.

최 소방사는 매달린 곳이 주택가여서 구조용 사다리차가 접근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힘이 빠져 손을 놓치고 말았다.

최 소방사는 미혼으로 지난 93년 11월 소방직에 투신해 소방 호스를 가지고 가장 먼저 화점에 접근하는 제1관창수의 임무를 맡아왔으며, 가족으로는 고향인 양양군에 할머니와 부모가 있다.

영랑소방파출소 이동하(32) 소방위는 "가정형편이 나빠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으나 진학의 꿈을 버리지 않고 틈틈이 영어책을 잡던 성실한 직원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속초소방서는 최 소방사에게 옥조근정훈장과 소방교로 일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16일 속초소방서장으로 장례를 치른 뒤 국립묘지에 안치할 방침이다.

불이 날 때 술집 안에는 종업원 11명이 있었으나 불이 나자 모두 대피해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속초/김정수 기자

속초 주택가 7층화재 사다리차 접근못해 진화'최첨병'소방사 순직 (한겨레 21면 1996.4.16.)

한국일보

2018년 10월 31일 (수)
충청/강원 13A면

"진정한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화염 뛰어들어 세 살배기 구조한 홍천소방대원 격려·응원 쏟아져

익명 시민 치킨·피자 선물 보따리 소방서 홈페이지 누리꾼 칭찬 글 소방관 처우 개선 희망도 담아 김부겸 행안부장관도 감동 메시지 소방관 국가직화 적극 추진 뜻도



지난 28일 강원 홍천군 홍천읍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 화염을 뚫고 불길을 잡고 세 살배기 아이를 구한 홍천소방서 소속 대원들. 왼쪽부터 이동현 소방교, 김덕성 소방교, 김연수 소방위, 박종민 소방교, 이재한 소방장, 박동천 소방장 강원소방본부 제공

"화염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진 당신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헬멧이 녹아 내릴 정도의 화염 속에 뛰어들어 세 살배기 아이를 구한 강원 홍천소방서 대원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5시30분쯤 홍천소방서에 치킨과 피자가 한아름 배달됐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이 홍천소방서 소속 대원 6명이 28일 오후 홍천읍의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아이를 극적으로 구한 언론보도를 본 뒤 간식을 선물한 것이다.

대원들은 당시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불속으로 몸을 던졌다. 아이는 여소연(25) 소방사 등 대원들의 빠른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했다. 대원들이 전화로라도 감사를 표하려고 했으나 이 시민은 이름이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 홍천소방서에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헬멧이 녹고 왼쪽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박동천(45) 소방장은 "주위에서 창찬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난다" 고 밝혔다. 그는 화재진압과 동료 대원 엄호를 맡았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구조된 아이를 먼저 걱정했다. 불길이 당신 방안에서 아이를 연고 탈출한 김연수(56) 소방위는 "무조건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어떻게 4층에서 뛰어 내려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원소방본부와 홍천소방서 홈페이지에도 화염에 기꺼이 몸을 던져 어린 생명을 구한 소방관들을 칭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홍천소방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누리꾼은 "당시 엄마나 위험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며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겉계 그을린 헬멧을 보니 감동적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며 "항상 내 가족처럼 다른 이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칭찬글을 올렸다. 또 이번 기회에 소방관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누리꾼들의 글도 이어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레 하늘색인 헬멧이 까맣게 그을린 사진과 보도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가 안에 있다'는 말에 서슴없이 불 속으로 뛰어든 '火벤저스'들의 계급 앞에 붉은 '지방'이라는 말을 뱉 때까지 열심히 뛰겠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진정한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국일보 13A면 2018.10.31.)

강원소방 100년사

부록 5

감사의 글

삼척, 도계 소방서분들 및 양양헬기조종사분들께 감사의 글 올립니다.

작성자 : 이석기 / 작성일 : 2006.5.6.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계에서 살고 있는 이석기라고 합니다.

지난달 29일날 일어난 60대 노인의 손목 절단사고가 일어났는데, 제 아버님이었습니다. 이에 감사하고자 짧은 글이나마 올리겠습니다.

도계 119 소방파출소 소장님이하 및 전 임직원 대원의 바쁜 일정에 불구하시고, 한 사람의 제 아버님을 위해 빠른 대처와 조취를 취해 주셔서 아버님께서는 일단 접합 수술을 잘 마치시고 계십니다.

또한 강릉에서 서울까지 빠른 후송을 해주신 소방헬기조종사 정성철 기장님, 이현수 기장님께 감사의 말 올립니다. 그때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아무말 못했는데, 이렇게나마 감사하다는 말 올립니다.

직접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면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로써 밖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 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은혜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고에 도와주신 모든 119 소방대원님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짧은글 마치겠습니다.

항상 몸 조심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휴가를 잊은 소방관

작성자 : 김삼영 / 작성일 : 2006.8.4.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삼영이라고 합니다. 그저께(8월 2일) 오후1시경 청천병력과도 같은 사고에 소름이 끼쳤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제 형님네 가족과 저희 가족이 영월군 대야리로 휴가를 가서 조카(12세,남)가 제 막내아들(7세-김범주)과 주부를 타고 놀던중 수중보 사이로 난 구멍으로 빨려들어가 보아래 물속에서 회전하며 자맥질을 하였습니다.

보의 상류쪽에서 큰 딸과 보트놀이를 하던 저는 사람들이 보에 줄서듯 서있는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진 제 아들을 찾아 달려왔으나 그땐 이미 어떤 아저씨께서 강가로 사지가 쳐진 아들을 안고 와 인공호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거나 일반인이었더라면 제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는 영원히 지워졌을 겁니다. 정식 휴가도 아닌 하루 낮에 그 시간마저도 인명구조에 헌신하신 영월소방서 김동훈님 그리고 동료소방관님(대야리 거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김동훈님 저희 가족은 휴가를 무사히 마치고 수원 집에 돌아왔습니다. 국가의 공복이전에 한분의 의인으로서 철학을 갖고 계신 귀하께 깊이 감명 받아 저도 학생들 교육에 더욱 정진하겠노라 다짐하며 그곳을 되돌아 오던중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직도 수해복구 등으로 인해 집에도 못가며 고생하신 소방관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될 제 아들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정으로 아는 바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번 여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이는 소방관, 바로 님들이었습니다.

항공대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영수/ 작성일 : 2006.12.25.

강원도 항공대원 여러분 이제야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제동생이 2006년 12월17일 강원도 정선에서 교통사고로 뇌출혈 및 많은 골절로 인하여 강원도 태백 중앙병원에서 응급수술 후 상태악화로 응급구조차로 이송 노력도 하였으나 구간경빙상태로 이송불가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19일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에서 소방헬기라도 부르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으로 동생을 안전하게 서울중앙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고~~현재 환자의 상태는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처치 및 환자 스스로 깨어 나길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금도 글을 쓰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손도 떨려서 어떻게 표현이 안되는군요 지금은 이렇게 짧은 글을 올리지만 환자상태을 봐서 자주 방문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공대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참! 제 기억에 헬멧에 문홍규 이렇게 씌여 있더군요 자주 방문하여 여러분에 노고에 감사 말씀 올리고 갈려니다~'그럼

보호자 김영수 올림

강원소방본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김선혜 / 작성일 : 2007.8.6.

은평구에 사는 김선혜라고 합니다. 어제 내린천에서 강원소방본부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서울에 도착하고, 오늘은 출근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오늘 출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어제 점심 때는 출근은 커녕 며칠을 더 있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헬기로 고립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제가 그 도움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보니 119하면 불을 끄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119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119에 구조 요청을 할 때, 어렸을 때 나쁜 일을 하다 들킨 것처럼 긴장되고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들 안전을 걱정하고 배려해 전원 이송시켜주신 것을 보고, 공공기관은 달리 방법이 없을 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항상 의논할 수 있는 곳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119라는 인식을 갖게 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뒤 그 결정과 집행이 신속했던 점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원소방본부 여러분과 차량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주셔서 저희들이 허둥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써주신 인제119안전센터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염찬수 춘천소방서장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최윤희 / 작성일 : 2007.10.31.

늘 지역사회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크신 춘천소방서의 염찬수 서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국가유공자 8명에 대하여 119무선페이징설치를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치매와 중풍 등으로 어려운 노후를 맞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에 가족과 보호자를 대신하여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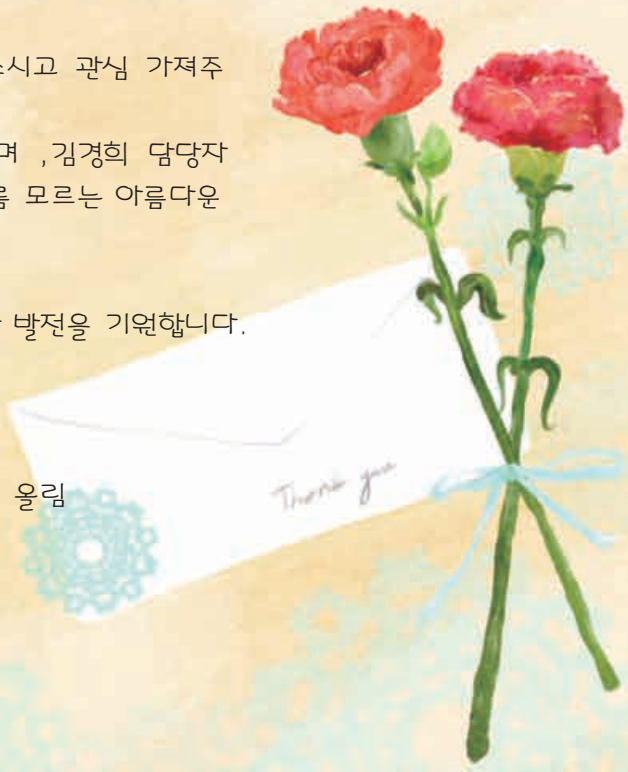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조례 등의 지역사회기관이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주신 그 마음에 건강을 잃고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에 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119무선페이징 설치를 위해 애쓰시고 관심 가져주신
소방관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김경희 담당자님, 설치를 위해 현장을 뛰신 이름 모르는 아름다운 손길에 박수를 보냅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10.31.일

춘천보훈지청 보훈복지사 최 윤희 올림



강원소방본부 견학을 마치고

작성자 : 김찬래 / 작성일 : 2008.2.28.

2.28(목) KT 강원본부 견학자 12명은 강원소방본부 상황실을 둘러보고 평소 소방대원들의 고마움을 잘 알지 못하였지만 오늘을 계기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소방대원의 모습을 보고 고마움을 느끼며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상황실에서 각자의 업무에 충실히 하시는 모습과 방호구조과장님의 친절한 설명, 유관기관과의 상호 공조하는 모습들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을 주며, 언제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견학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견학활동을 이끌어 주신 김숙자님께 고마움을 말로 표현합니다.

강원소방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모든분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드릴
려면 소방대원이 먼저 건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 11사단 헌병대 / 작성일 : 2008.5.31.

안녕하십니까 11사단 헌병대 특수임무대 상병 정낙창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소방관님들의 도움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기쁨이 큰 것 같습니다.

부대에서도 구급법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번 교육으로 인해 조금 더 자세히 배우게 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심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요령과 호흡의정도 맥박확인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시 압박의 정도를 정확이 알게 되서 만약 실제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잘 해낼수 있을꺼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로프매듭법 또한 좋은 교육이였습니다.

그동안 지내오면서 매듭을 많이 지었는데 바른매듭법도 모르고 있었다는게 창피했지만 매듭법 교육으로 인해 바른매듭법과 쓰러진 환자나 발목이 부상당한환자를 이송시키는 매듭법등 많은걸 배우게 되서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에 또 참여하게 되면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

119소방관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작성자 : 정은재 / 작성일 : 2008.9.7.

안녕하세요..

제9회 소방동요제에 참여한 황지어린이집입니다.

이번 소방동요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며, 평소 느낄 수 없었던 소방관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위험이 따르는 단지 하나의 직업,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보며 여러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태백소방서 이기욱과장님 이용길계장님 권지혜소방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소방동요제때 땀을 벌벌 흘리면 쌘곰이 잰곰이 속에서 고생하신 두분들께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늘 언제나 당신들이 있어 든든함을 느낍니다.

소방관님들 사랑합니다.

양구119구조대원들게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작성자 : 임재룡 / 작성일 : 2008.9.24.

안녕하세요?

9월 22일 공수리에서 말벌에 쏘여 119 대원들게 수고를 끼친 임재룡입니다.

비까지 내리는 밤 신속한 출동으로 말벌에 쏘인 쇼크에서 빨리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날 말벌집도 제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송될 때 너무도 편안했고 뒷처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건강하게 서울로 귀경할 수 있었답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리며 후일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다시 고마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구 119 구조대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008년 9월 24일

서울에서 임재룡 올림.

강릉소방서 119 구급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작성자 : 김경대 / 작성일 : 2009.2.1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김경대(53)입니다.

저는 2월 12일날 고향에 계신 어머님께서 중풍에 의한 왼쪽마비증세로 몸이 불편해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93세의 노령이라 한의원에 모셔서 한방 치료를 받으시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자가용으로 모시기에는 불편함이 많아 119에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윽고 강릉소방서 옥계파출소에서 두분의 119 구급대원분들이 오셨고 그 분들의 도움을 빌어 강릉의 한 한의원에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구급대원분께서는 진료가 끝난 후에도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시며, 강릉소방서에 있는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용운반차량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한방치료가 끝난 후, 금방 노인전용운반차량은 도착했고 덕분에 강릉에서 옥계면 금진3리까지 안전하게 어머님을 다시 모실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119 구급대원분들께서 힘써주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시고, 불철주야 힘든 업무 속에서도 미소와 친절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강릉소방서 119 구급대원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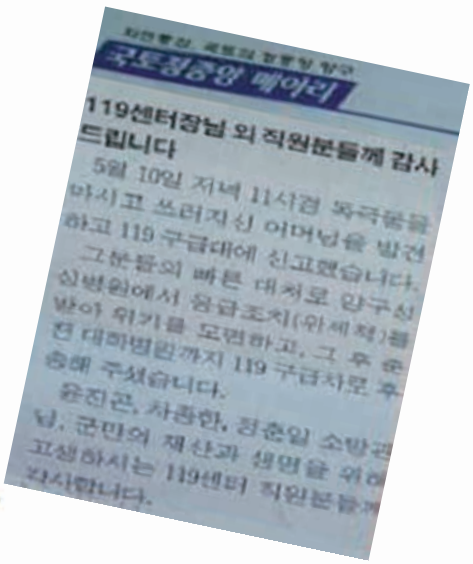
119센터장님 외 직원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성자 : 국토정중앙 메아리 캡쳐 / 작성일 : 2009.6.

5월 10일 저녁 11시경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지신 어머님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그분들의 빠르 대처로 양구성심병원에서 응급조치(위세척)를 받아 위기를 모면하고,
그 후 춘천대학병원까지 119 구급차로 후송해주셨습니다.

윤진곤, 차종한, 정춘일 소방관님,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고생하시는
119 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

119센터장님 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10일 저녁 11시경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지신 어머님을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습니다.

그분들의 빠른 대처로 양구성심병원에서 응급조치(위세척)를 받아 위기를 모면하고, 그 후 춘천대학병원까지 119 구급차로 후송해 주셨습니다.

윤진곤, 차종한, 정춘일 소방관님,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고생하시는 119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평창 119소방서의 <김정욱> 대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김예리 / 작성일 : 2009.9.9.

안녕하세요!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119대원님께 꼭! 감사했다는 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지난 주 화요일...9월 2일이었죠..
저희 어머니, 이모님, 제 동생과 동생의 애기 그리고 저 이렇게 가족이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 2리 대미동에 시골집이 있어 내려갔는데, 해가 질 무렵 집의 벽(아궁이)에서 자꾸 말벌들이 나와서 119에 급하게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어머니가 말벌에게 2방이나 쏘이셨고, 애기도 있고 해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전화받으시던 담당자님께서는 벌집이 있냐고 물으셨고, 참 애매하게도 벌집은 없고 아궁이 옆쪽의 조그만 구멍에서 벌이 나오고 있다고 하자 벌집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난처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말벌이 너무 무서워 꼭 좀 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평창119소방서에서 출발하겠다는 전화를 주시고, 혹시 모르니 구급차로 (어머니가 쏘이셨으므로) 오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분의 소방대원님이 와주셨어요. 해는 이미 넘어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시골은 해지면 유난히 깜깜하죠. ^^) 두 분의 소방대원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말벌이 어디서 오는지 검사해 주셨죠. 하지만 여전히 벌집은 없었고, 말벌은 계속 날아다니고...미궁으로 빠지고 있던차에 <김정욱>대원님께서 아궁이 안쪽에 벌집을 지어놨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궁이를 일부 허물어서라도 벌집을 제거하는게 좋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쇠지렛대 같은 걸 달라시며 그 무거운 돌을 지렛대로 허물어가며 말그대로 고된 일을 다..해주셨답니다. T_T
게다가 쇠지렛대를 찾기 전엔 시멘트라도 발라주시겠다고 하시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 모시고 급히 평창의료원에 가고, 김대원님께서는 벌집을 무사히 제거해셨습니다. 그리고 더 눈물나게 감사한건, 걱정하는 식구들을 위해 남아있는 식구들을 평창의료원까지 차로 데려다주신 점입니다.
오후 9시가 넘어가는 시간에...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김정욱>대원님!!!
저희 식구들은 정말 너무나 고마워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사실 요즘 말벌때문에 골치를 ?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벌집이 있긴 한건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다저녁에 오셔서 아궁이를 허무는 힘든 노동을 해가면서 어 그 안에 숨어있는 벌집을 제거해주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진정한 프로정신과 봉사정신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감사함 두고 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신속한 긴급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성자 : 정종학 / 작성일 : 2009.10.12.

10월11일(일) 오후 4시경, 저의 딸아이가(4세) 운행중인 차의 뒷좌석에서 창문을 오르내리는 장난을 치다가 손가락 검지가 유리문 사이에 끼어 매우 당황스럽고 어찌할바를 몰라 119에 긴급요청을 하였는데,

119구조대원(효자파출소에서 출동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신속하게 출동하시어, 어린딸을 안심시키고 아무 이상없이 조치해주시고 인근 병원까지 이송해주시어, 다행이도 큰 문제없이 조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당시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료수 한잔이라도 건내드리지 못한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이렇게 게시판에 글로 대신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119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구요, 신속하게 출동하시고 친절하게 안내하시고, 정확하게 조치하시는 모습을 보고 119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다시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119소방대원님들 화이팅하시구요.....항상 건강하시고 근무중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느 공무원 보다도 소방공무원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셔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십시오...

한달정도 지난 일이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작성자 : 우영민 / 작성일 : 2011.1.21.

안녕하세요?
먼저 고마움을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토요일 오전에 초록봉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분이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늦었어도 이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저의 아버지를 구조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도 저의 아버지가 계신거라 생각합니다.

1년 365일 더울때나 추울때나 어떠한 열악한 상황일지라도 굴하지 않고 고생하시는 119 구조대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아버지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치료를 잘 받아야겠지만, 일단 저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에서 들것을 들고 내려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거라 생각됩니다.

119 구조대원님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대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 한해도 아무런 사고없이 지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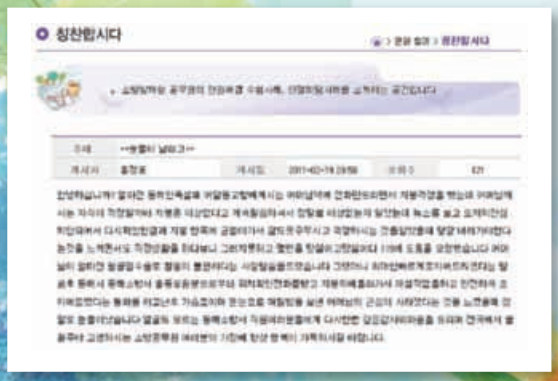
이 글을 빨리 올리고 싶었지만, 그동안 정신이 없었네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ㅎ

소방재청 칭찬합시다.

작성자 : 홍정표 / 작성일 : 201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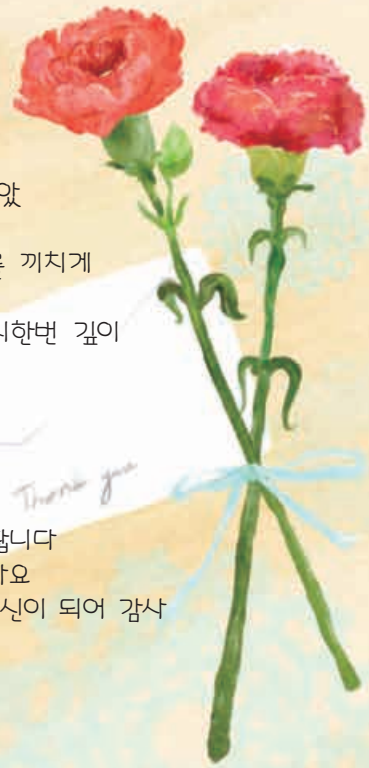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동해안 폭설때 어달동 고행에 계시는 어머님댁에 전화만 드리면서 지붕걱적을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자식이 걱정할까봐 지붕은 이상 없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정말로 이상없는지 알았는데 뉴스를 보고 도저히 안심이 안돼어서 다시확인한 결과 지붕 한쪽에 균열이가서 잠도 못주무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알았을때 당장 내려가야한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그러지 못하고 몇번을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전 팔골절수술로 활동이 불편하다는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드리겠다는 말씀 후 동해시 동해소방서 출동요원으로부터 위치확인 전화를 받고 지붕위에 올라가서 재설작업을 하고 안전하게 조치해드렸다는 통화를 하고난 후 가슴조이며 뜬눈으로 며칠밤을 보낸 어머님의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때 정말로 눈물이 났습니다.
얼굴조 모르는 동해소방서 직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전국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칭찬합시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경희 / 작성일 : 2011.8.12.

안녕하세요~~~
8월 6일 용화산에서 구조된 이경희입니다
너무 늦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시경에 용화산 정상을 20여분 남겨놓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라 헬기는 불가능하다하시고 대원출동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나긴 시간(고통스러우니까~~제생각으로는.....)을 기다렸습니다
산행식구들과 비를 맞으며 대원님들의 애타게 기다렸어요
1시간30여분을 헐레벌떡 도착하신 대원님들께 저는 곱지않은 소리를 냈었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춘천소방서에서 2명....화천의용소방대원님들.....
비속에 식사도 못하시고 빵과 물만으로 허기를 달래시면서 하산길을 서두르셨답니다
10여명이 넘는 대원들이 끌고 밀고 당기고 계곡에 여러번 빠지시고 바위를 엉덩이로 지탱하시면서 "어이쿠~~"를 연발 하셨지요
힘드신 가운데도 저에게는 " 길이험해서 그래요...참으세요."라며 위로해주셨지요
10여분 가다 쉬고 10여분 가다 쉬고를 수십차례.....저는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제발 이분들이 안전하게 하산하게 도와주세요"
1시간30여분의 하산길이 4시간이 넘게 걸려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시는 중간중간 말걸리라도 대접하고 싶은 심정이 삘딩같았답니다
무거운 제가 너무 죄송했구여 부주의해서 여러분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어 죄송했구여...
묵묵히 도움을 주시는 님들이 계셔서 사회가 따뜻함을 다시한번 깊이 느꼈답니다
화천의용소방대원님들의 평균연령이 높으시더라구여.....
그날 출동하여 애써주신 대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꾸~~뻑~~~^^



저는요 강원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하구여 뼈에는 이상이 없답니다
타박상의 정도가 8주정도(제 진단으로는~~~) 나온거 같아요
집에와서는 병원으로 한방병원으로 치료받고 이제서야 제정신이 되어 감사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김명심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소연 / 작성일 : 2011.8.22.

어제 친구결혼식에 참석하고 오는길에 영월에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요~
주말이라 세살짜리 아이도 동행하게 되었지요.
아이스크림사달라는 아이에 말에 영월에 잠깐들리게 되었는데요~
초입에서 소방차를 보곤 무한사랑을 보내는 우리아이 때문에 염치불고하고 영월소방서에 차를 댔지요~~
소방차를 가까이에서 보곤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니 저희도 맘이 좋더라구요~~

그런데.... 소방관한분이 웃으며 "소방차 한번 타볼래"하며 다가오시더군요~
덕분에 우리아이는 단독체험학습을 하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항상 궁금해하던 구급차 뒤에 머가 있는지도 실제로 보구요^^

날씨도 덥고 주말에 근무서시느라 힘드실텐데도 반갑게 맞아주신 김명심소방관님 정말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부모가 된듯하여 우리부부도 행복했습니다~~

다시한번 김명심소방관님의 친절함에 감사드리고 ~~ 그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9월 2일 옥계 석벽산 실종사건 - 대원님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권현순 / 작성일 : 2012.9.7.

2012년 9월 2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와 슬픔이 우리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평소 산을 좋아하던 형부가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7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며 언니가 전화를했습니다. 옥계 석벽산이라는 악산이있습니다.
올봄에도 한분이 사망하고 작년에도 ... 그산은 들어가긴 쉬우나 나오긴 쉽지 않은 산이라며 옥계주민들 조차도 모르거나 오르지 않는 산이라 할머니 한분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산짐승(멧돼지)이 많아 더 무서운 산이라며 충고까지..해주시더군요
형부 차를 찾아 헤맨 몇시간 후....
석벽산 근처 조루조(물을 가둬두는곳)에서 형부 차를 발견했습니다.
낯은 곳은 이미 119 대원들이 수색을 마친터라 방법은 산을 오르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이재호부장님께서 산이 워낙 험하고 또한 어두워 만약 수색을 하다 실종자의 흔적을 지우면 수색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 또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하셨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손호윤 팀장님과 이재호부장님 최승섭 대원님 새내기 산악구조원 두분 그리고 저희 남편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낫을 가지고 여러가지 장애물을 치며 가던 중...
손호윤 팀장님과 이재호부장님께서 낭떠러지 밑에 무언가 물체가 보인다며 말씀 해 주셨고 로프를 이용해 낭떠러지로 내려가 형부임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친 형부를 우선 응급처리를 하고 끌어 올려 하산 시작~!!!!
악산인지라 100M를 이동하는데 20~3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차에서도 형부가 의식을 잃지않도록 "계속 말을 시켜주세요"라고 하시며 이재호 부장님은 체온과 혈압을 체크해가며 형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유도하셨습니다.
환자가 불편하지않도록 최대한 조심히 운전하시라고 말씀도 하시고
"이정도면 천운입니다. 다행히 젊은분이니 병원에서 치료만 잘 받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거예요"라며 격려도 해주셨어요
평소 멀게만 느껴지던 119대원이였는데... 이번 기회에 다정다감하시고 섬세한 분들이란걸 다시한번 느끼게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가장 높으신분 서장님 맞죠?ㅎㅎㅎ
서장님 손호윤팀장님 이재호부장님 최승섭대원님 그리고 새내기 대원 두분(성함을 몰라서..)
많이 칭찬해주시고 잘했다고 정말 장한일했다고 박수도 쳐주세요.
정말이지 사명감이 없으면 119대원은 못할것 같아요
여러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선뜻 손을 내밀어준곳은 119와 경찰서였습니다.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족 영원히~~ 가슴 한켠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이 아빠입니다..

작성자 : 선재훈 / 작성일 : 2013.2.11.

안녕하세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원주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인사 올립니다.

지난 2월 6일 오후 4시경, 단구동 한일아파트 집에서 와이프가 둘째딸(튼튼이)을 출산했습니다. 12시경, 와이프가 진통이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전했을 때, 현장 영업사원인 저는 인제 부근에 있었고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복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4시 20분, 와이프는 1~2분 전 화장실 앞에서 둘째를 이미 낳았습니다. 양수가 터지고 태반도 흘러내려 있는 현장은 차마 설명키도 어렵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어찌할 바 모르는 와이프와, 그 앞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첫째를 보며 저 역시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119가 떠올랐고, 지역번호도 없이 무작정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서가 연결되었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상담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시키는대로 움직이고, 기다렸습니다.

2~3분만에 도착한 소방요원들, 여성 1분과 남성 2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저보다도 나이 어려 보였습니다만 침착하게 아기를 받아주고, 와이프를 옮길 것에 태워주고, 병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분들의 움직임에 저희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히 퇴원했습니다. 3.78kg의 우량아로 태어난 둘째딸은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급했나봅니다. 제대로된 진통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당황할 수 밖에 없었던 시간에 소방요원들의 발빠른 조치 덕분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이런 마음이 그 분들에게 작은 보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기간 동안 편히 쉬셨는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활동에 큰 보람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튼튼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 18일 그날.. 감사인사 이제 드려요

작성자 : 선재훈 / 작성일 : 2013.2.11.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8일 양수가 터져서 급히 서울 강남성심병원으로 가야했던 산모입니다. 정말 곤란하고 긴급하고 너무 황당하고 놀라고...정신없이 혼란한 상태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날 119 구급대원분들께서 서울 강남 성심병원까지 안전하게 갈 수있도록 도와주셔서...ㅜ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가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셨을텐데... 먼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수시로 혈압체크및 신경써 주신... 성함은 모르지만 여자구급대원분과 안전하게 갈수있도록 운전해주신 분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너무 무섭고 겁이났는데 구급대원의 경험담도 들려 주시면서 안정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119 구급대원분들 덕분에 1월 23일 아가도 자연분만으로 잘 태어나고.. 지금은 퇴원해서 함께 있답니다. 아가를 볼때마다 ... 정말 많은 분들때 감사드려요~
119 구급상황들.. 텔레비젼에서만 봤었는데... 정말 제가 이럴줄 몰랐네요..
그런데... 정말 든든합니다!!!



복받으실꺼에요~ 정말 구급대원분들 감사드려요.. 첨부는 우리 아가 사진입니다. 벌써 3.6kg의 아가가 되었네요~

우리 아가가 크면 지금의 감사함 꼭 전할 께요~ 우리 아가도 여러분들처럼 훌륭하게 자라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펜션에 작은 생명을 구하러 와주신 소방대원분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정은 / 작성일 : 2013.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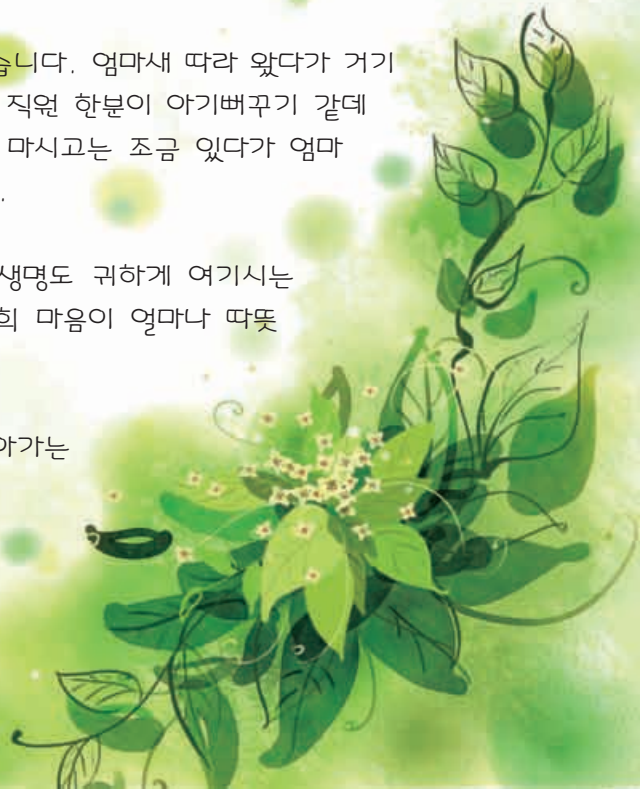
7.11 장마비가 오는 어제 오후 라구나힐 펜션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아닌 작은새 한 마리였습니다. 언제 날아왔는지 까페 메뉴판 뒤에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꺼내 줄수도 없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팠는데..

아! 119에 도움을 청하자 해서 모두 마음을 모아 조심스럽게 연락드렸습니다.

천사같은 소방대원 세분이 오셔서 메뉴판 틈새로 후레쉬 빛을 비추어 입구를 찾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작은 한쪽 틈새밖에 없었거든요...

나온 새를 보니 아주 예쁜 작은 새였습니다. 엄마새 따라 왔다가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직원 한분이 아기버꾸기 같데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 물을 마시고는 조금 있다가 엄마새 소리를 듣고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횡성 소방대원님들 모두 아주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던지요...

요즘 세상에 이기적인 마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고마운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구나힐 펜션 직원 일동

감사 & 화이팅 119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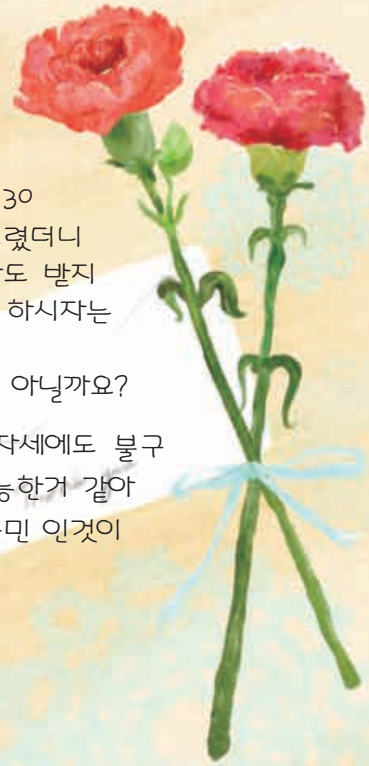
작성자 : 김영배 / 작성일 : 2013.8.19.

안녕하세요 팀장님이신 서상실 소방위, 이광현 소방사, 민중기 의무소방, 김정진 의무소방님!
어제 한계령 9-2 포인트 조금지난 지점에서 도움을 받은 김영배 & 오의숙 부부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매스컴에서나 보았던 조난도움을 60년 평생처음으로 받아보았습니다.
도움요청에서부터 구조와 그이후의 모든상황 참으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도움 요청 후 문자와 폰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확인하면서 안심을 시켜 산중에서 추위에 떨어야할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여주신거 하며 도착 이후에도 안전지대인 한계령주차장까지 안전하게 하산하게 하여주셨고(이과정에서도 업어내려가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고마웠읍니다.)

하산이후에도 집으로 갈수있는 방법안내며 원통 버스터미널까지 119차량으로 데려다 주신것 우리에게는 참으로 생명같은 베품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복통과 어지러움증이어서 식사를 함께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어 이른아침이어서 아마도 7시30분경으로 생각되느데 아침식사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금품뿐만 아니라 식사대접도 사양하시며 그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며 나중에 이쪽에 올 기회가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시자는 그 말 한마디.
이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안이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굳건한건 이러한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거 같아 대한민국의 국민 한사람으로서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의 119대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2013년 8월 19일 김영배 & 오의숙 부부 드림

**다시한번 감사의 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희섭 / 작성일 : 2013.9.17.

9월1일 푸른솔산악회에서 백우산 등반하는날~~
아름다운 계곡과 비온끝에 화창한 날씨에 모두가 기분좋게 산행을 하였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길...
비에 불어난 계곡을 건너면서, 쎈물살에 조금은 걱정스런 마음이였습니다..
회원 한분이 계곡물 바위를 건너다, 미끄덩~
악소리와 함께 주저앉아서는 오도가도 못하게 되였습니다.
산악회산행 5년만에 처음으로 119를 떠올리면서, 산아래 본부에 무전기로 SOS를...
산아래서는 119에 신고하고 안절부절하는 마음...
구급대원님들께서 오시고, 회장님은 구급대원님들과 함께 부상자를 찾아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부상자는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님들이 도착하셔서, 부상자를 교대로 업고 내려오시는데,.....
부상자의 무게감이 보통을 넘는지라..한분이 업고는10M 내려오시는것도 고전분투....
교대로 업고 내려오시다가, 한밤중이 돼어도 내려갈수없다는 결론에, 헬기를 불러주셨습니다...
헬기에 줄을 달고 부상자는 홍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예전 한라산에서 부상자가 생겼을때, 헬기도 띠울수없고, 부상자를 레일이있는곳까지 무조건 데리고 와야한다는 말에 모두가 부상자를 레일있는곳까지 데리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 홍천 소방서에서 좁은 산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등에 업어서 오기에는 너무 듬직한...(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였거든요....)
그래도 불평한마디 없이 땀을 흘리시면서 애써주시던 구급대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환한 미소로 괘유를 빌어주시던 모습...정말 감사합니다~!
용상순대원님~ 최영수대원님~김창호대원님~박현석대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헬기에 메달려오던 부상자는 발이 2군데 골절이 돼서, 병원에 입원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대원님들이 안계셨다면,...생각만 해도 끔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신 국가에 감사드리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않는곳이 많은데,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홍천소방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임해주시는 우리의 구급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천소방서...만세~~~!!!
구급대원님들...만세~~!!!
즐거운 추석명절보내세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진부소방서 119대원님께 드립니다...

작성자 : 김상규 / 작성일 : 2013.9.24.

고마우신 119대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위가 한창이던 2013. 8. 2. 피서를 위하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계곡을 찾았다가, 당일 낮 12:00 - 13:00 경 순식간에 사고를 당하여 지금까지 8주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산길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발을 헛디뎌 심한 부상(가슴뼈 및 오른손목 골절, 눈위 부상 등)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특유의 복장을 한 119대원님들이 도착하였고, 휴가철 복잡한 교통 길과 좁은 산길을 경광음을 울리면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분의 대원님께서 저의 목에 응급조치한 후 어렵게 길 위로 올려 구급차에 실은 후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한분이 동승하여 질문도하고 대화도 하여 마음의 안정을 주어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19대원님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집근처인 서울세브란스 병원 로 옮겨져 수술 등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며, 어제 9. 23. 힘든 팔목 깁스를 풀고서야 늦게나마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가슴뼈를 다쳐 숨도 쉬기가 어려워 대원님들의 성함도 알아볼 경황도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진부소방서 라는 기억(정확지 않음)이 있어 위 제목으로 글을 올립니다.
119 조직을 잘 몰라 여기에 이렇게 글을 드리니, 이글이 당시의 고마운 대원님들과 해당 기관에 전달되어 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밤과 낮, 산과 들, 집과 도로, 강과 계곡 등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라도 출동하는 119대원님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거듭 감사합니다....

2013. 9. 24. 김상규 드림즐거운 추석명절보내세요.....^^*

신홍모님, 김식님, 김대형님 외 1분(이름을..) 119 대원님께 어머니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김은미 / 작성일 : 2013.10.1.

안녕하세요?
주말 오대산 산행길에 다리를 다치셔서 대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하산하신, 김도연씨의 딸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2013년 9월 28일 오전 열시경 동창분들과 진고개-노인봉-소금강 주차장으로 산행 중 노인봉에서 하산하다 넘어지셔서 무릎을 다치셨다고 하셨어요. 주말엔 높은 산을 잘 다니시곤 하셨는데 충격이 크셨는지 이런 일로 바쁜 119를 부른 당신께 용서가 안된다면서도 도와 주시던 대원님들께 감격하셨나봅니다.

119를 부르자는 친구들을 만류하며 진통제, 붕대를 감고 다리를 끌며 하산하시다 가도가도 끝없이 나오는 계곡길에 지치고, 흩뿌리는 빗발, 점점 어두워지는 날씨에 겁도 나고 모두에게 미안스러워 울고 싶어지셨답니다. 결국에는 걷기를 포기하고, 119 구급대원님께 업혀 내려오시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에 '괜찮습니다. 저희 업인데요'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옷 앞자락이 땀으로 흥건하더라..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더 힘들게 했어.. 그 내리막길을 업고 내려오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찡해서... 아들 같은 분들..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다시는 높은 산엔 안 갈란다..'라고 말씀 하시네요ㅠㅠ

저희 어머니 무사히 내려오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머니 생명의 은인과도 같으신 대원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신홍모 대원님, 김식 대원님, 김대형 대원님. 이름은 모르지만 또 한명의 대원님

항상 건강하시고 몸도 아껴가면서 구조활동 해 주세요.
환자도 중하지만 그 환자를 살리시는 대원님들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강원소방 119구조대 2항공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훈남 / 작성일 : 2013.10.13..

저희 부부(50대 후반)는 그간 동경해 오던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을 하기 위하여 가을 단풍철에는 그 어렵다는 국립공원 설악산 대피소 예약을 위하여 오전 10시만 되면 예약일 15일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4일째 시도 끝에 10월10일 희운각 대피소와 10월 11일 수렴동 대피소 예약에 성공하였습니다. 10월9일 공원내 숙박시설에서 1박후 10월 10일 이른 아침에 소공원을 출발하였습니다.

비선대에서 마등령을 거쳐 공룡능선 나한봉 지나고부터 왼쪽 다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여 걱정이 되었으나, 근육을 풀어가며 속도를 줄이고 등산을 계속 하던중 왼쪽다리가 불편하여, 오른쪽 다리에 더 힘을 주며 걷다보니 오른쪽 다리까지 쥐가 나버렸습니다.

중간 중간 힘든 코스를 오르락 내리락 하니 10여회 이상 쥐가 반복되고 급기야 1275봉 지나고 내리막 구간에서는 양쪽 다리가 뻣뻣해지고 통증이 수반되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국립공원 희운각 대피소에 연락하니 자기들도 그곳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린다고 하여 제가 119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요청 후 담당자들의 친절한 전화와 자세한 설명에 이어 빠른 출동에 감사드립니다. 바람도 불고 바위도 많고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저희 부부를 구해 주시고, 특별히 당황하고 경황이 없었던 저를 위로하고 안정시키며 밧줄에 매달아 구조해 주신 이현수 팀장님과 또 한분의 구조대원님 감사합니다.

2박 3일간의 등산일정으로 음식과 장비가 있어 배낭 무게가 무거워 체력에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욕심으로 화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11일 오후 늦게 광주에 도착하여 병원 치료하며 빠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기 도착 즉시 저희 부부 몸 상태를 체크하고 목적지 까지 데려다 주시며 걱정해 주시던 여성 대원님과 얼굴도 이름도 모른 119 구급차 대원님 모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동안 잊지 못할 이번 일을 통하여 저희 부부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_ 광주광역시에서 박훈남 드림 __

春川 消防署長님 貴下

国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켜주시는 署長님을 비롯 職員 분들의 労苦에 感謝를 드립니다...

저는 春川市 新北邑 上泉2길 52 101 - 1411(해강A.)에 居住하는 李鶴珪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2013.10.26일 午後3時頃에 갑지니 脳硬塞이 発生하였슬 때 119救急車를 보내주시어 親切과 迅速한 機動力으로

病院에 移送하여 저의 生命을 求해주심에 再三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筆記가 서툴러 打字로 便紙를 올려 罪悚합니다.

2013 . 11 . 5

이번 폭설 제설 작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조미령 / 작성일 : 2014.2.1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번 겨울, 포근하던 동해의 날씨가 이어지다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할머니와 함께 동해에 계셨는데요. 엊요일날(10일)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다음날 많이 쌓인 눈 탓에 병원에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격일로 꼭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말이죠. 다음날이 되고 치료를 받으실 시간에 아버지께서 오지 않으시자 병원 측에서는 소방서에 연락을 드렸고, 북삼소방파출소에서 12시 경 4명의 소방관분들이 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30분 뒤, 고마우신 분들이 허리까지 쌓인 눈을 다 치워주셔서 다행히 아버지는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도 많이 춥고 힘드셨을 텐데 연락을 받으시자마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지만 서울에 살아서 폭설이 내렸다는 얘기만 듣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에 어제 치료를 받고 오셨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추운 요즘, 이런 상황을 직접 겪게 되어서 추운 날 심적으로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정말 귀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구요.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하셨지만 여의치 않으셔서 제 마음을 함께 담아 글을 적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겠습니다. 짧고 그 분들의 노고를 다 설명하기엔 부족한 글이지만 그 분들께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성함을 알지는 못 하지만 꼭이요.

이번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경포119센터 직원분들 칭찬합니다.

작성자 : 최윤희 / 작성일 : 2014.2.14.

안녕하세요

강릉시 강릉병원 뒤쪽 가마골길 60번에 홀로사는데 몇일전 폭설이 내려서 저희집 지붕에 눈이 너무많이쌓여서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결국 119에 전화를 걸게되었습니다.

지붕이 오래된건물이라서 휘청휘청 거리는데도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센터장님과 직원분들 4분께서 바로달려와주셔서 몸을 사리지 않고 무너질것같은 지붕위에 올라가셔서 눈을 치우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뻔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애써주신 119직원분들 덕분에 사고없이 무사히 겨울을 보낼것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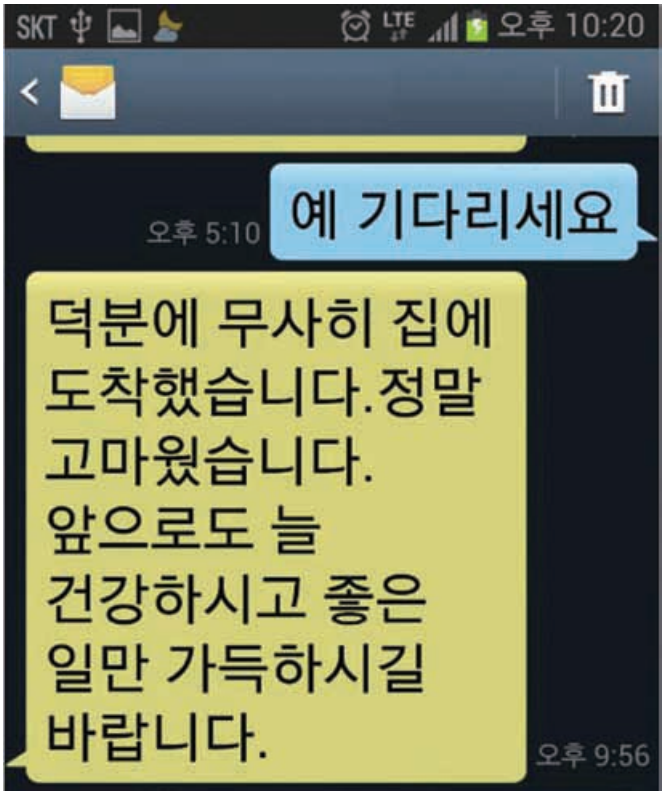
감사드립니다.

경포센터119직원여러분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윤희 드림



2014년 5월 명성산 산안계곡 산악구조
(감사의 글)



2014.8.5 .

권영철소방관님과 지준영소방관님께

저는 원주 청솔4차아파트 [redacted]서 2011년 11월 13일 저녁에 119에 전화를 하여 두분의 도움으로 살아난 한흥수라고 합니다.

물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시느라 기억도 못하시겠지요.

그 날 저녁에 아무래도 몸이 정상이 아닌 것이 느껴지며 불안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독병원 아는분께 연락을 해서 응급실에 준비를 시켰지요. 그 후부터는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불안은 잠시후 두분 소방관님께서 빛과 같은 속도로 응급출동을 해주신 덕에 금방 안정감을 느끼며 순식간에 응급실에 갈 수 있었고 검사결과,당시 혈압이 210이 넘은 상태였고 뇌에 출혈이 생겼다고 하더군요.흔히 말하는 뇌출혈.

지금은 아주 건강합니다만 당시 병원관계자가 하는 말이 워낙 빨리 와서 수술없이 치료가 가능했다고 합니다.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19와 통화하고 옷 갈아입은 후에 바로 두분이 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면서도 환자를 안심시키고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친절하셨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또렷이 기억납니다. 그만큼 너무도 감사했고 감사하고 있고요.

불철주야,열악한근무환경,아무도 협조해주지 않는 곳.

이런 말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사고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는 더욱더)

1인시위를 비롯해서 얼마 전의 소방헬기사고 등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접하는 모습들에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고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전에 농담으로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밥값 제대로 하는 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뿐이라고.

사고 이후로는 그런 농담을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위험할 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소방관들 뿐이라고.

진즉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게 도리라 생각했고 사실은 지난해 11월 13일(2년차)에도 원주소방서로 전화를 해서 사연을 말하고 두분을 뵙고싶다고 했더니 두분 모두 전출을 가셔서 연락도 힘들고 이런 전화 하나면 된다고 말씀을 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드리면 평생 한이 될것같아 소방서에 다시 전화를 드려서 사정얘기를 했더니 소방행정과 용정진 소방관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은인들의 성함과 근무지를 알게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도와주신 용정진소방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영철소방관님 그리고 지준영소방관님.

두 분의 신속한 출동 덕분에 전 이렇게 후유장애 없이 건강히 살고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방관님들과 그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워낙 졸필이라 친필로 글을 올리지 못해서 부끄러움에 사죄를 드립니다.

타인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두 분의 건강에도 신경 좀 쓰시구요.

최악의 조건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님들께 존경한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2014년 8월 5일 한흥수 드림

주문진 119소방서의 급수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박종훈 / 작성일 : 2015.6.12.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면 하시동3리 이장 박종훈입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논,밭이 메말라 농작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우리마을의 감자밭과 논에 소방차를 이용해 물대기 작업을 해주신

주문진 119안전센터장님과 소방대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동네에서 혼자농사를 지으시는 80세 할머니의 논 1500평의 바닥이 갈라질정도로 가뭄이 심하여 농사를 포기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주문진소방대의 급수작업으로 모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의 어려움에 두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소방대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문진 119소방서 화이팅!!!

2015.7.

안녕하십니까 ?

너무나 늦게 인사 드려 죄송 합니다

이제서야 안전 하다는 의사의 확진을 받고 보니 119대원의 신속한 출동 으로 인하여 생명을 구조함은 뒤늦게 깨다랐습니다 물론 자식들도 많은데 같은 시간에 연락을 하였어도 40~50분이나 걸려 뒤늦게 응급실 도착 하였으나 119대원은 불과 3분도 않되는 시간에 출동 하여 환자를 수송하고 인명을 구조함은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으로 자식들 보다 낳은 효도하는 효자들이라 칭할수 있겠습니다

현실은 서구사상인 개인의 절대주의는 우리나라의 "효" 사상을 완전히 밀어내고 사회의 기본질서 인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 시키고 말았고 겉으로는 예의와 범절을 지키고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모는 부모" "나는 나" "너는 너" 라는 생각이 기본이 되고 극히 이기적이며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도 남을 보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며 인간성을 찾아 볼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자유주의 현상은 개인화 며 이러한 개인의 절대화는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결국 공익을 희생 시키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골몰하는 천박한 이기주의로 변질 되였고,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절대화 하는 자유와 정등은 인간사회에서 상호신뢰를 침식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사회 속에서도 119가 화재를 진압하는 용감 무쌍한 대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백절불굴의 갑후 정신을 발휘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조하는 헌신 봉사자들을 생각하면 마음 든든 하고 감개 무량 합니다

일전에도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의기 양양하게 음료수 한박스를 사들고 방문 했으나 서장님 께서는 우리는 할일을 마땅히 했는데 무슨 사례냐 하시면서 끝까지 거절 하심을 생각할때 너무나 청렴 결백 하심을 느꼈습니다

소방서 라는 기관은 권력기관도 아니고 사업기관도 아니고 청탁기관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만을 구조하는 기관인데 왜 이렇게 완강히 거절 하는가 하고 서운 했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환자를 방문하러 갔을 때도 보았습니다 마는 119대원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환자를 응급실로 수송을 했어도 어느누가 음료수 한캔을 마시라고 주는것을 못보았습니다

현실 사회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천박한 이기주의로 변질되여 훈훈한 인간성을 찾아 볼수없는 삭막한 세상이 돼 버린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장님! 용기를 갖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우리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조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 하시여 살기 좋은 이 사회를 창조 하시는데 선구자가 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두서 없이 자필로서 상서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서기 2016년 7월 5일

이 순 일 배상

2015.8.3.

119구조대 貴中

7월 25일 본인은 아내와 함께 벽파령에서 출발하여 청옥산 (아래) 삼거리봉을 올랐다가, 하산 하던 중 길을 잃어 우왕좌왕하다 할 수 없이 비상탈출을 감행하였는바 천만다행으로 산중턱 임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귀 119구조대에서 그곳에서 안전한 평창시내까지 구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올리고자합니다.
주말에도 격무에 시달리는 119대원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사은품을 보냅니다.

8월 3일 이상문

황일기 소방관님과 119 소방관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작성자 : 이대섭 / 작성일 : 2015.8.13.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 사는 이대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8월 첫째주 저희 가족들과 강릉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로 큰 애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7월 31일 17시 영진해수욕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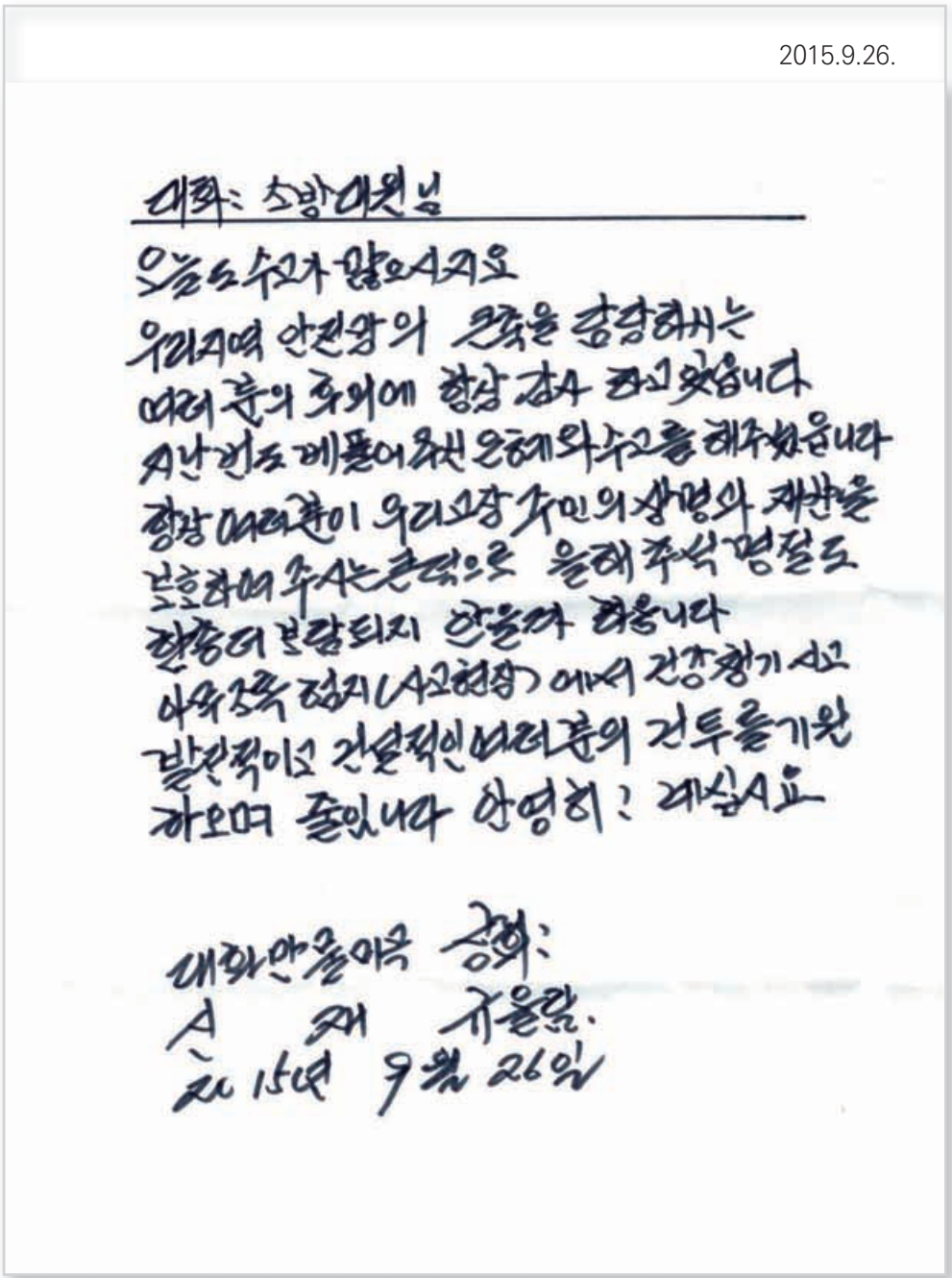
아이 실종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서 황일기 소방관님과 119 소방관님들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후 1시간 만에 극적으로 아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사의 마음을 홈페이지에 남기고자 합니다.

황일기 소방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는 바입니다.

최초 장소에서 아이가 발견된 곳까지 1킬로가 넘는 거리를 저와 함께 뛰어 주시며 제가 정신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황일기 소방관님이 제 옆에서 뛰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아이를 찾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지 기약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출동해주신 119구급차 소방관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와 제 아내를 태어주셔서 저희가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119소방대원님들의 살신성인의 정신 경험했습니다.
그 헌신적인 은혜 죽을 때 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강릉 여행때 찾아뵙고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운 날씨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에서 이대섭 올림



2015.9.26.

대상: 소방대원님

오늘도 수고하 많으셨어요
우리지역 안전망의 큰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메풀어진 온정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우리고장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시는 큰덕으로 올해 추석 명절도
한층더 보람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정지 (사고현장) 에서 건강하기 바라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
하오며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대화만을 이곡 승화:
A 외 1명.
2015년 9월 26일

2015.12.21.

안녕하십니까!

지난 12.14 새벽 2시에
119 세분 대원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촌각을
다투는 저의 남편은 살아서 퇴원
했읍니다. 고맙습니다.

포스코 111-1008 최정자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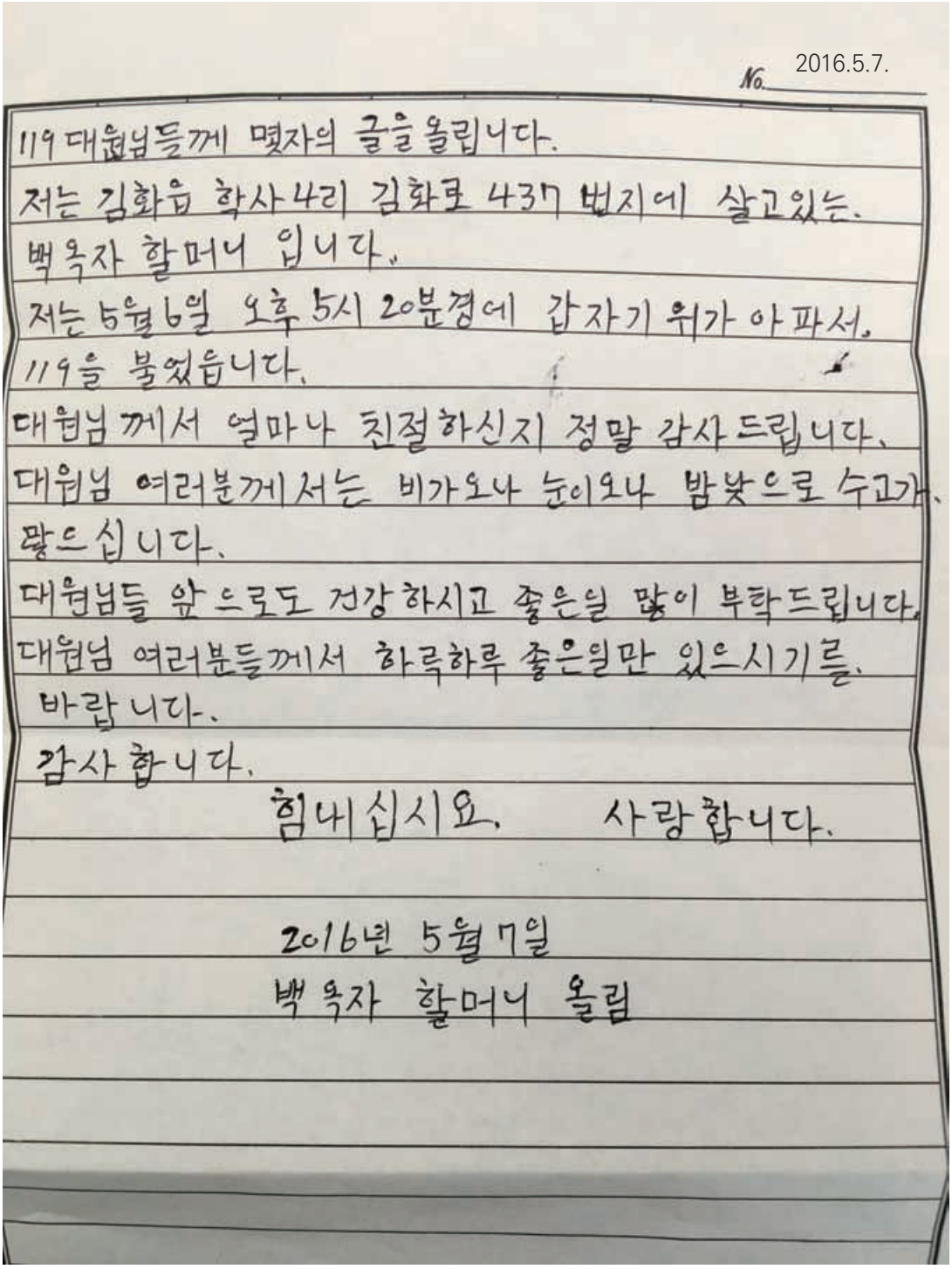
2016.4.12.

너무 감사함으로 평창군 군수님께 이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탄면 이주소에
살고있는 정길영입니다
이웃에 친정어머니가 살고계시고 남편박봉인 농사를
짓고 소를기르고 있던 남편이 작년 9월10일날 뇌수술을
하고 11월20일 퇴원을 해서 간병을 하면서 살고있었습니다
이웃에 살고계신 어머니가 저의일을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어머니 많이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7일 오후 저 모르게 일을도와주시려고 외양간에
가셔서 소먹이를 끼우기를 하다가 큰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 썰고 밑에 떨어진 볏스러기 주으시다가 손이 끼우기 벨트에
끼어서 엄지손가락만 제외하고 나머지 네손가락은 잘 눈으로
볼수 없을정도였습니다 정말 저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고 가가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택지를 몰라야 될지 ..... 계속한참을 울다가
생각나는게 119였습니다 119대원들이 그렇게 잘해주시는줄
정말몰랐습니다 정말 너무고맙고 제가 생각못하는 모든것을 ...
119대원들이 헬기까지 불러서 서울까지 빠르게 운송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도 못했던 어떤 혜택을 받게됨을 정말너무 상상밖에
혜택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119대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잘해주시고
좋은 분들인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에 사는것이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급할때
어찌할바를 모르고 앞이 캄캄하기만 하던 저에게 저는정말 너무감격스러워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평창군에 감사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 돌아가실수도 있었던 저의어머니가 119에 빠른
조치로 손가락은 잃었지만 생명은 건질수 있었음을 너무감사드립니다
저도 힘을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군수님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정길영 올림



No. 2016.5.7.

119 대원님들께 몇자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김화읍 학사4리 김화로 437 번지에 살고있는.
백옥자 할머니 입니다.
저는 5월 6일 오후 5시 20분경에 갑자기 위가 아파서.
119을 불렀읍니다.
대원님 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원님 여러분께서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원님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일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원님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좋은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요. 사랑합니다.

2016년 5월 7일
백옥자 할머니 올림

故 허승민 소방위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최창희 / 작성일 : 2016.5.13.안녕하세요..

저는 허승민 소방위님이 마지막까지 애써주시던 연립에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
지난 4일 허승민 소방위님의 소식을 어머님께 전해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자식도 하지 못하는 일을..

깊은 밤 그 강풍에도 애써주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그뒤로 내심 동네주민 분들도 허승민 소방위님이 무사하길 그토록 기도 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역시도.. 제발 무사하시길.. 멀리서나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들려온 소식은 동네 주민분들도 저도 너무 가슴아파 원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멀리 있는 자식이여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설령 가까이 있다해도 할수 없었던 일들을..
허승민 소방위님은 본인의 안전도 뒤로한채 2차 사고 발생을 막으시려 그리 애쓰셨는데..
이 감사함을 어찌 다 표현할수 할수까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어서.... 더 가슴이 아파옵니다.

허승민 소방위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주민분들께서도 애통해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허승민 소방위님을 끝내 데려가신 하늘이 어찌 이리도 원망 스러울까요...
마지막까지 허승민 소방위님이 지켜주신 소중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저 감사하는 말밖에 할수 없어 죄송합니다 ..
부디 편히 좋은곳에서 잠드소서...

바람이 잠드는 날까지 허승민 소방위님을 비롯하여
출동하여 주민분들을 지켜주신 모든 소방관님들께
멀리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16일 저희 어머니를 구조해주신 대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박수정 / 작성일 : 2016.9.29.

안녕하세요. 멀리 캐나다에서 인사 드립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 저희 어머니를 구조해 주셨던 설악산 산악 구조대원 분들께 이렇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저희 어머님을 구조해 주신 대원님들에게 꼭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학업 중인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뵈지 못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주로 카카오 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는 부모님께서 설악산 등반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경남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시는 길 중간 중간 음식 사진도 보내주시고 풍경 사진도 보내주시면서 연락을 주셨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다음 날까지 부모님께서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걱정할까 봐 사고연락을 하지 않으셨던 거였고,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구조대원 분들께서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도 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머니조차도 당시 구조대원 분들이 힘들게 등반하고 오셔서 구조 하시면서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안전하게 처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당신이 하지 못하니 저보고 대신 감사인사를 올려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헬기 안에서 구조대원 분께서 주신 물 한 병이,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계실 때 불안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셨다며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모든 구조대원 분들의 친절함과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추석 연휴 9월16일11시45분경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발목 골절 되셨던 김재숙 저희 어머니를 구조해주신 구조대원(성함을 몰라 너무 아쉽습니다.) 4분 정말 감사 드립니다. 현재 어머니는 구조대원 분들의 멋진 응급처치 덕분에 병원으로 잘 이송되어 골절 수술을 잘 마치고 요양 중에 계십니다.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구조에 힘써주시고 국민들을 신경 써주시는 119구조대원 분들에게 정말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안 그래도 딸이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죄송한데, 이번 일로도 함께 계셔드리지 못한 마음이 불효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저 대신 구조대원 분들이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해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조대원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국민들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지시고 119 최고 입니다!

캐나다에서, 박 수정 드림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소방대원분들께

작성자 : 이석정 / 작성일 : 2016.10.6.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에 사는 이석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린것은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소방대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소양구급대에 계시는 권동기 선생님과 김남진선생님 ,춘천구급대에 계시는 최용운선생님과 안재호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6년 8월 13일 아침 잠을 자는 도중에 심장정지가 발생했고 옆에서 잠을 자던 아내가 숨을 쉬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차를 통해 춘천한림성심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의식불명상태라 저의 주치의로 부터 직접 저의 상태를 전달받은 것은 저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에 의하면 처음 응급실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사가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그대로 영원히 호흡을 못할수 있으며, 혹시 호흡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고, 의식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생활하던 상태의 행동과 지능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3주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추석도 일가친척과 함께 보내었으며 회사에도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께서 심정지를 겪고난후 이렇게 기존 상태 그대로 회복한 것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고 말하시면서, 처음 심정지 발생 후 초반 대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빠른것 같다고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119 구급대원분들과 의료진에게 감사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옮겨지는 과정을 목격한 아내가 말하기를 본인은 경황이 없는 상태로 119에 전화했고 상담원이 말해주는 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자, 신속하게 도착한 구급대원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들쳐업고 바닥으로 내려서 신속하게 제세동을 실시하고서 병원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졌다면서... 나중에라도 꼭 그 때 출동하셨던 구급대원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땀을 흘리시고, 위험을 무릅쓰시는 대한민국 구급대원 분들의 노고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119 대원 두 분을 칭찬합니다^^

작성자 : 최미진 / 작성일 : 2017.1.23.

저희 가족은 1월 20일 자동차로 한계령를 넘다가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눈길에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많이 파손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폭설로 인해 보험회사 측에서도 저희 가족이 있는 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9 대원 두 분이 저희를 구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집(서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두 분이 없었다면..
저희 네 식구는 따뜻한 저희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성함을 여쭈어 보았으나 괜찮다고 극구 사양을 하시어 성함을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없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119 대원 분들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을 구조해 주신 119 대원 분들은

2시30분~2시45분 사이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민도연 / 작성일 : 2017.4.17.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검색 해 보니 위와 같은 기관명이 나와서, 위치와 모든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일, 벚꽃을 보고자 들뜬 마음에 춘천을 방문하였다가 소양호 주변 선착장에서 가지고 간 차량 타이어가 모래밭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운전자였던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후륜(?)이라서 모래나 흙밭에 들어가면 빠져나올수가 없다더군요. 불과 한 달 전에 차를 구입한 것이기에 이 사실을 간과하고 모래밭에 들어갔다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저와 남자친구 둘이서만 차를 밀어 빼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근처 선착장에 찾아가 도움을 부탁드렸으나 다들 바쁘시다고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ㅠ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에 근처 소방관에 방문 하였는데,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차가 있는곳으로 같이 가 주셔서, 맨손으로 타이어 근처의 흙을 다 파내 주시고, 넙적한 돌을 활용하여 타이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시는 등 저희는 상상도 못했을 방법으로 차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후진 할 때 계속 앞에서 차를 밀어주셔서 무사히 차량을 도로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말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다 표현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 때 도와주신 분 성함을 저희가 미처 못 여쭤보았는데, 아마 제일 막내이신 대원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훈훈하신 소방관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바쁘실텐데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춘천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찰나의 순간에 친구의 목숨을살린 전순옥님의 이야기

작성자 : 조창현 / 작성일 : 2017.5.3.

사실 이글을 올리는데 있어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만 좋은일이기에 올려 봅니다.

얼마 전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과 1박2일로 강원도 삼척에 있는 콘도에 친구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해신당 공원에 들려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환선굴 구경도하고 참으로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임원항에 들려 횟집에서 회를 주문해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갑자기 한 친구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갔는지 켁켁거리며 숨을 못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갑작스런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도 들고 등을 두들겨 주어야하나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편 다른 친구들을 쳐다보니 당황해서인지 모두 앉아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횟집주인도 뛰어오고 친구들이 119구급대 빨리 부르라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순옥님이 상을 건너 뛰어 오더니 친구머리를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등 뒤에서 손을 깍지 낀 자세로 팔로 친구 배를 안은 자세로 들었다 내려 놓았다를 반복하니 친구가 음식물이 기도 밖으로 나왔는지 숨을 쉬기 시작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생각지도 못한 돌발상황에서 찰나의 순간에 사람목숨이 결정될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친구는 참 운이 좋은 친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응급처치술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친구는 불행한 일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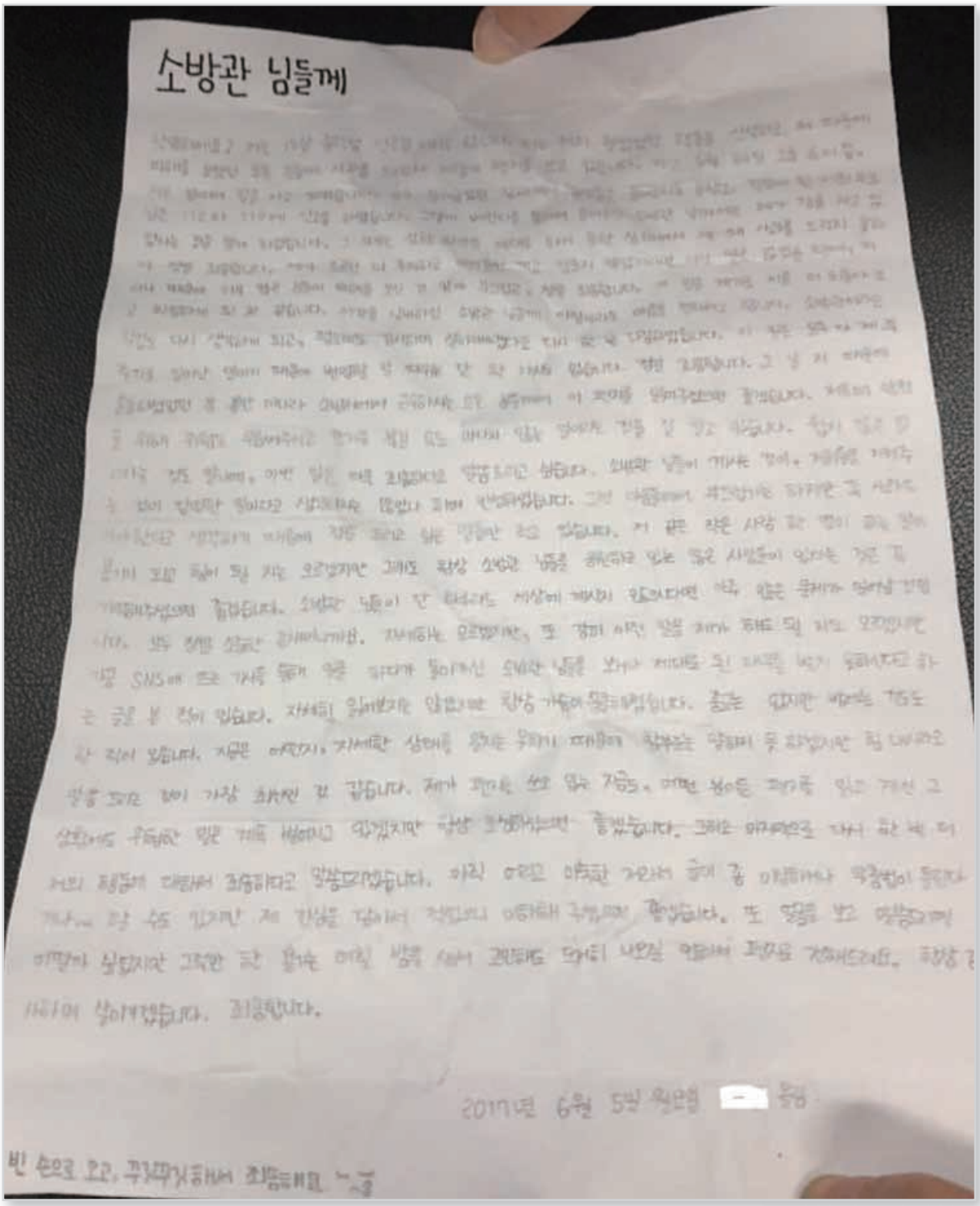
제 서울 친구도 사업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는데 가족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몰라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조문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휴일 날 집에서 낭만닥터 김사부 1회분 재방을 보다가 음식을 급하게 먹다 기도가 막혔는데 낭만닥터 김사부가 전순옥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 목숨을 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 그때 전순옥님의 응급 처치방법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을때 나는 이런 일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순옥님으로 인해 응급처치술이나 심폐소생술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게되는 순간 이었습니다.

도계 여성 의용 소방대 부대장 전순옥님 ~~ 친구의 목숨을 살려주신데 대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순옥님 * 화이팅 * 그리고 건강하십시요~~~~^^

201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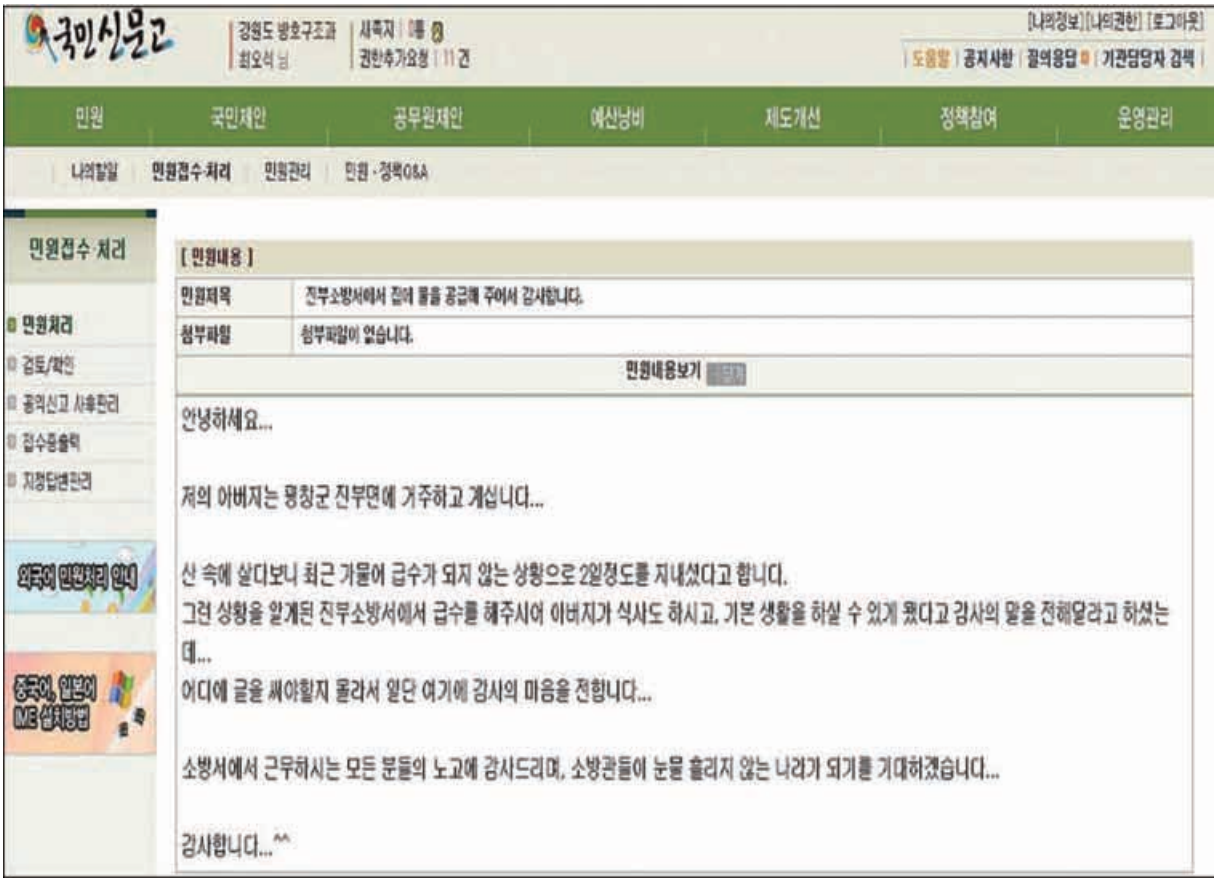


소방관 님들께

2017년 6월 5일 목요일 [redacted] 올림

빈 손으로 오고, 꽃다발등에서 초콜릿까지 ~~~

2017.7.4.


국민신문고
강원도 방호구조과
최오식 님
새쪽지 | 0통
권한추가요청 | 11건
[나의정보] [나의권한] [로그아웃]
도움말 | 공지사항 | 질의응답 | 기관담당자 검색
민원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예산낭비
제도개선
정책참여
운영관리
나의할일
민원접수·처리
민원관리
민원·정책Q&A
민원접수·처리
민원처리
검토/확인
공익신고 사후관리
접수종결처리
지정담변관리
외국어 민원처리 안내
중국어, 일본어 IME 설치방법
[민원내용]
민원제목
진부소방서에서 집에 물을 공급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평창군 진부면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산 속에 살다보니 최근 가물어 급수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2일정도를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알게된 진부소방서에서 급수를 해주시어 아버지가 식사도 하시고, 기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글을 써야할지 몰라서 일단 여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방관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고성 소방대원님들 칭찬합니다.

작성자 : 제형곤 / 작성일 : 2017.7.25.

안녕하세요.
이번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설악썬밸리에서 휴가를 보내다 온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원도 고성 소방관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요 : 설악썬밸리 입구쪽 천장에서 제비새끼 한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니 너무 안쓰럽더라구요. 누가 보면 먹 제비새끼 한마리때문에 바쁘신 소방관 분들을 부르냐 하지만... 애키우다보니 부모입장에서 안타깝더라구요.

처음에 소방서에 전화를 했더니 군청에 연결을 해주시더라구요.(3자통화로) 군청에선 장비가 없다고 출동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원도 동물보호협회에 전화를 했더니 지사가 춘천에 있어서 와줄순 있지만 2시간 가량 걸리니 그시간은 가만해 달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다시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바쁘신데 부탁 드린다 했더니 바로 출동해서 10분도 안되 오셨습니다.



물론, 오지랖이지만 부모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어미새는 계속 지켜보고 있고... 하여간 소방관 5분께서 오셔서 제비새끼를 제비둥지에 다시 잘 넣어 주시고 가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며 "고성소방대원분들" 복 받으실꺼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방관님들 정보가 없어 차량번호 씁니다 : 고성 7호 (99로5719)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마장터 산행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희수 / 작성일 : 2017.8.23.

안녕하세요. ^^

지난 8/14 마장터에 갔다가 계곡에 물어 불어서 하루정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마장터는 전화 수신도 되지 않는 곳이라,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가 다음날 겨우 물이 줄어서 긴급히 계곡물을 건너서 내려오는데, 119 구급대원 분들을 만났습니다.

전날 밤 폭우가 왔고 연락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신고를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물이 줄어서 다행히 저희는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또 119 구급대원분들 덕분에 초입에 있는 계곡도 우회해서 무사히 잘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희 찾으러 다니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 감사함을 어찌 전할 길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항상 인제를 지나다닐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7.9.22.

안녕하세요!

지난 16일 비상대 못미쳐서 엽혀 내려왔던 50대 아줌마입니다.

20대 동생들이 , 막내분을 부르시던 이름이 생각나서 검색해보니,

산악구조대 3팀이시더군요~

팀장님 을 비롯하여 대원분들께 감사감사드립니다.

좀 창피하였지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포기하고픈 갈등하거나 ㅠㅠ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그다음날 강릉산불부에 참담한일이 발생하여 피해가 큰곳은

먼 지역이라서 지나칠수도 없지만, 제가 덕고에 인연맺을 곳이라서

너무나 가슴아팠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구조대분들도 항상 조심하셔서 구조에 완벽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신 최희성 천서준 119구급대원님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종욱 / 작성일 : 2017.10.11.

저는 김종욱씨의 부인입니다.

지난 9월 26일 새벽 속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남편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했고 함께 수영하시던 분께서 119에 연락을 하고 수영회원께서 심폐소생술을 하시던 중에 이원신, 최희성, 천서준 119구급대원 분들께서 오셔서 빨리 심폐소생술 시행과 제세동기 사용 등의 응급조치를 해주셨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주셨습니다.

어떤 후유증도 없이 건강하게 병원에서 퇴원한 후 너무 고마워서 속초소방서로 찾아갔었는데 감사의 선물을 일체 거절하시고 남편이 살아난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더욱 더 고마웠습니다. 평소에 '119구급차를 탈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는데 이번 응급상황으로 119구급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속초 119 대원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경남 / 작성일 : 2017.10.12.

지난 10월 3일 저희 가족은 한계령에서 대청봉까지 등반을 했답니다.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대청봉에 도착했지요.
꿈에 그리던 대청봉!
간간이 비도 내리고 오르는 중간중간 단풍은 어찌 그리 아름답던지요.

하지만 무리한 등반으로 우리가족 3명은 내려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답니다.
후레쉬도 없고 비는오고 깜깜해지고 무서움이 밀려 오더군요.
민폐인걸 알면서도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한계령에 내려 오니 오후 10시가 되었답니다.

3분의 119대원님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한 것은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휴게소가 다 문을 닫아서 시원한 음료수도 대접 못 한 것이네요.

평상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스티브 잡스의 "끊임없이 갈망하라 끊임없이 무모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해 주었는데 이번일을 계기로 자신의 능력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졌답니다.

처음으로 119를 이용해 보았는데 대한민국이 참 좋은나라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속초 119 대원님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요.

저희가족을 도와주신 119대원님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동탄 김경남~

함백산에서 수고하신 구급대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작성자 : 이화자 / 작성일 : 2018.2.1.

저는 서울에 있는 산수산악회에서 산행을 진행하는 해바라기 남편입니다.
이렇게 강원소방본부에 글을 올리게 된 사연은 구급대원님들의 소속은 어딘가는 모르지만 성함이 홍성범 대원님과 함께 하셨던 대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입니다.(고한읍 소방대 소속으로 짐작함)
2018년 2월 10일 산악회 회원 36명과 함께 함백산을 산행하였습니다. 산행을 하기 전 버스 안에서 산행코스 설명과 함께 산행 시 돌발되는 사고 등, 사례를 들어 안전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지금에 현실인 것이었습니다.
진행자인 저는 만항재에서 11시 전/후에 산행을 시작하여 저는 후미에서 회원들을 살피며 하산지점인 적조암으로 내려왔는데 앞서간 여성회원이 적조암 갈림길에서 적조암으로 내려오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는 탓에 길을 잃고 헤매다 걱정되어 119에 신고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는 소모되었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어 길을 잃은 회원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과 길을 잃은 회원의 위치 추적이 어렵다는 구조대 대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걱정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대원님들이 침착하면서 길을 잃은 여성 회원의 위치를 찾으려고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안심이 되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첩첩산중에서 다른 산악회 왔던 회원을 만나게 되어 함께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구급대원님께 전해 들었을 때. 그 때 그 기분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발하였던 인원의 회원 모두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지만 길을 잃은 여성회원을 구출하려고 출동하셨던 구급대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였는데
짧은 글로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들었습니다.
사고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초조하면서 피가 마르는 것을.....
다시 한 번 출동하셨던 구급대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훌륭하신 구급대원님이 계셔서 따뜻한 방에서 감사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구급대원님의 희생에서입니다.
대한민국 강원소방서 대원님들 파이팅입니다.

다시 시작된 삶

작성자 : 윤용녀/ 작성일 : 2018.5.3.

저는 강릉시청에 근무하는 윤용녀입니다.

2017.8.9 오전 7시경 심장에 이상이 생겨 꺾어졌던 생명이 강릉소방서 관할 내곡동에 위치한 소방서 구급대원들께서 응급조치를 잘해 주셔서 16일만에 다시 깨어나 2018.1.1자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곡동소방서 구급대원들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살수 없었다고 남편이 전합니다.

이동하는 구급차속에서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로 제가 살수 있었다 합니다.

우리가족에 큰 희망을 주신 강릉소방서 내곡동대(?) 계시는 구급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도 작게나마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신림119)구급대

작성자 : LI ZHONGHUA / 작성일 : 2018.5.24.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온 동포 이종화 이라고 합니다.

2015년 9월 16일은 저에게는 평생 못있는 날입이다

원주호림이엔씨 일을 했씁니다. 저녁 업무를 마물이하고 기계를 청소하는 중 동료가 기계를 작동하는 바람에 양팔이 절단했씁니다.

119를 신고를 했더니. 구급대원들이 왔더니. 기계 앞쪽에서 구조해주시고 헬기를 요청해서 서울로 왔씁니다.

그동안 재활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감사한 인사를 못들였씁니다.

신림119구급대 고맙습니다.

재활치료 끝난 후 꼭 인사 들이어 가겠습니다. 연락처만 알려주세요

정장훈 기장님 및 소방대원선생님들께 감사인사 드려요

작성자 : 박태향 / 작성일 : 2018.5.30.

경북대학교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박태향입니다.

우리병원 환자분이 이식을 위해서 기다리던 중 지난 5월23일 강릉에 있는 기증자분의 소중한 장기를 대구까지 헬기로 이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훈 소방헬기 기장님과 같이 탑승했던 소방대원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1분1초의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고 힘써주신 덕분에 무사히 이식수술이 끝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환자분의 경과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생명존엄의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어제 대관령 옛길에 출동해준 대원님들 감사해요.

작성자 : 이지은 / 작성일 : 2018.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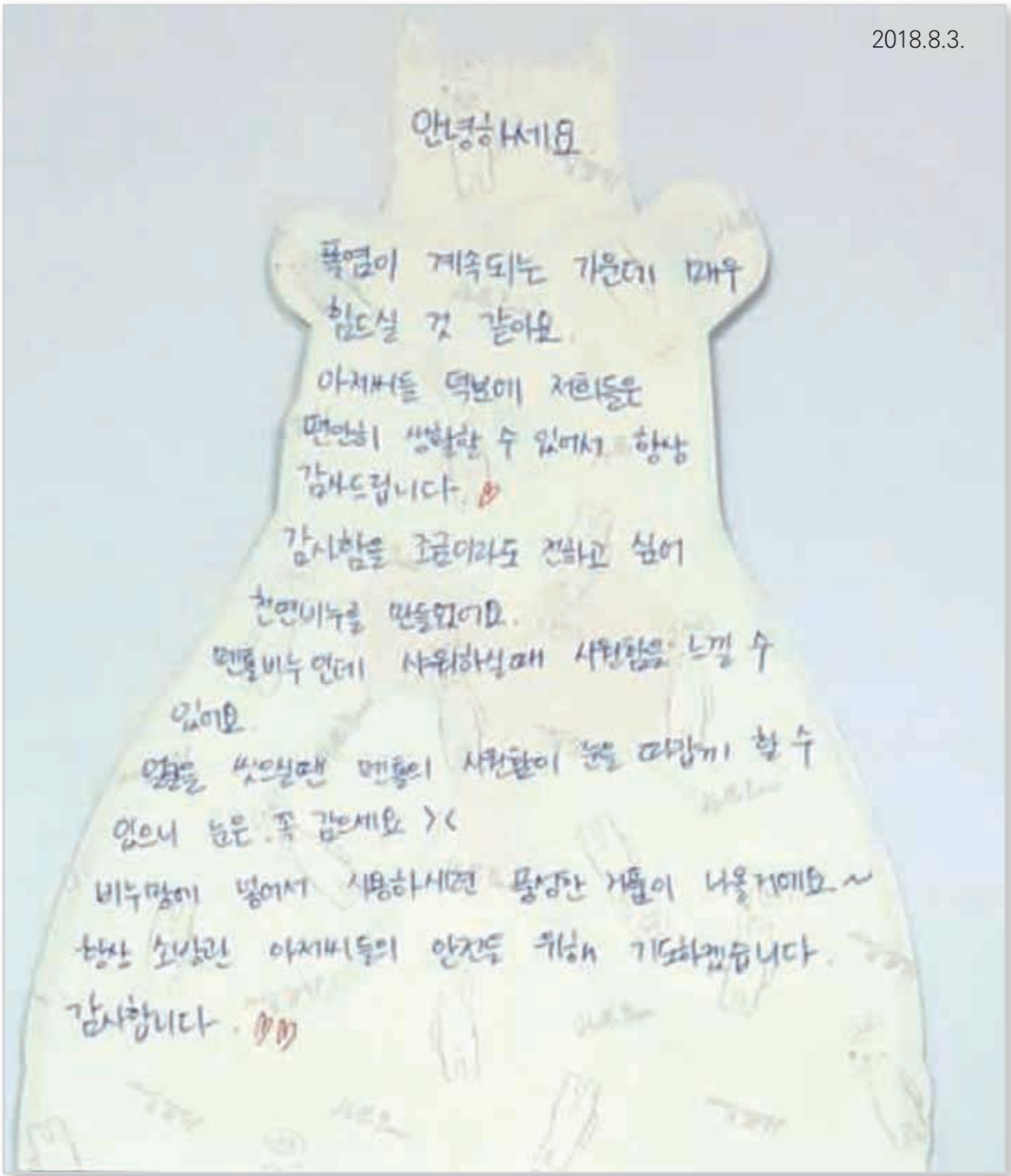
저는 어제 대관령 옛길에서 발목이 꺾이며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여 구조대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읍니다.

최용범 팀장님과 함께 와주신 대원님 (안타깝게도 제가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네요)들이 한시간 이상 번갈아가며 험난한 자갈산길을 저를 업고 내려와 주셨습니다.

두분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힘든 내색 하시지 않으시고 무거운 저를 차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주셨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잘 조치를 받았습니다.

더운 땡볕에 수고 많이 해주신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2018.8.3.

안녕하세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매우
힘드실 것 같아요.
아저씨들 덕분에 저희들은
편안히 생활할 수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
천연비누를 만들었어요.
핸드비누인데 사용하실때 사탕향을 느낄 수
있어요.
열을 씻으실땐 핸드의 사탕향이 눈을 따갑게 할 수
있으니 눈은 꼭 감으세요 >.<
비누망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풍성한 거품이 나올거에요~
항상 소방관 아저씨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8.30.

No.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등산객들의 안전 구조에 시간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금년 5월 29일 친구들과 대천봉을 등정하고, 하산길에 천당폭포 상부 100여 미터 지점에서 낙상하여 머리, 목, 어깨등에 부상을 입은 부산에서 온 69세의 남자 등산객입니다.

그날 양폭대피소의 구조대와 119 구조대의 신속한 응급처치 (목 보호대 등)와 도움으로 울산기독병원으로 헬기로 이송하고, 다시 부산의 성심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경추 6번 신장 골절로 3주간 입원하고 8월 말일부로 통원치료도 끝이 보입니다.

다시한번 119 구조대의 정성어린 구조에 감사 드립니다.

(23×14)

김덕성, 박종민, 김인수, 이동현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작성자 : 고아라 / 작성일 : 2018.10.29.

안녕하세요?

여러 기사를 읽던 중 홍천소방서의 소방관님들의 기사를 보고 감동받아 몇자 적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홍천에서 큰 불이나 3살짜리 아이를 화염속에서 구조하고 화상까지 입어가며 구조활동을 하셨다는 기사를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검게 그을린 헬멧이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는것 같습니다.

4분께서 서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스럽기도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사실, 소방관님들은 으레 이런일은 당연히 하는거 아니야? 하겠지만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고있습니다. 더운날 추운날 가리지 않고 항상 내 가족처럼 다른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들께서도 튼튼한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두 전달하기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것 같아 미안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미약한 글이나마 선생님들께 조그만 미소라도 띄울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소방관 선생님들께 힘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 감기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몸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9월 14일 정선하이원 감전사고 출동하셨던 대원님

작성자 : 이수정 / 작성일 : 2018.10.30

9/14일 밤 9경쯤 정선 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에서 감전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글을 올렸다가 너무 길게 쓰는 바람에 글이 날아가서 몇일이 지난후에야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쓰는 시간이 20분을 넘겨서 날아가버렸어요 ㅎㅎ)

그때 119 구급대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집 올라올때라도 들려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몸이 엉망이라 그냥 올라오게 돼었네요. 아직 먼거리는 가기가 힘들어 몸 회복되면 꼭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제 몸이 마비가 되고 숨이 막혀 너무 공포스러울때 옆에서 괜찮다며 절 안정시켜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굳어가는 손도 주물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 정말정말 무서웠는데 옆에 구급대원님께서 계셔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릴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처음 구급차 타러 가는 동안도~ 구급차안에서도~ 내릴때까지도 응급실까지 정말 옆에서 계속 말걸어 주시고 정신잃지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 상태 안좋아서 더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한대서 사설구급차를 탔는데 정말 너무 비교가 되더라구요.

옆에서 응급조치해주시고 같이 호흡해주시고 굳어가는 몸 주물러주셨던 정선 119 구급대원님과는 너무도 비교되게 사설 구급차 직원분은 옆에서 저보다 더 안절부절 하시며 그냥 앉아만 계시더라구요. 그러다 결국 사설구급차안에서 마지막에 정신을 잃어서 기억은 잘 안납니다.

눈떠보니 제천 명지병원 응급실이더라구요. 정말 119 구급대원님과 얼마나 비교가 될지 모릅니다. (우스개소리지만 사설구급차 운전하시는 남자분은 저 차에 태우면서 어디아프세요? 하길래 샤워중 감전됐어요 하니까 '와 물에 감전되면 다 죽는데 운좋으시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 그소리듣고 무서워 죽는줄 알았습니다 ㅎㅎ)

하이원리조트에서 정선군립병원까지 정말 너무 무서웠지만 구급대원님들 덕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인사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공황장애가 와서 아직 정선까지 못가지만 꼭 늦더라도 꼭 가서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꼭 찾아뵐게요.

2018년 9월 14일 금요일 밤 9시경쯤 정선 하이원리조트 감전으로 출동해주셨던 구급대원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홍천 3살 아이 구하신 소방관분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혜미 / 작성일 : 2018.11.15

어제 저녁 mbc 실화탐사대를 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살 난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혼자 불구덩이 속에 있던 3살 아이를 구출해 낸 소방관님들을 보자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뜨거웠을까요... 일분일초가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아이를 구조해서 아이가 무사히 부모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 얘기를 듣고 제 딸아이를 괜시리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다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목숨만큼 아끼는 가족들일 소방관님들께서, 오로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그 화염 속을 헤쳐 뛰어들어가신 것 또한 정말 쉽지않은 순간적 결단이고 판단이었을텐데..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김덕성, 박종민, 김인수, 이동현 소방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덧붙여 하나 바라는 것은, 강원도에서든 국가에서든 낡은 장비나 부족한 인력 등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필요시에 즉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목숨걸고 일하시는 소방관님들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안전하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언제든지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말 안심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화재로 고생 많이하신 네명의 소방관님들을 비롯하여 현장에 계셔서 같이 불끄느라 고생하신 동료 소방관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시어머니의 고향인 홍천이라 더더욱 애착 가고 마음 쓰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강원소방 100년사

부록 6

강원소방인 현황

강원도소방본부

2019.1.2. 기준

소방감 김충식 소방정 진형민 소방정 고창호 소방정 이동학 소방정 김형도 소방정 김동기 소방정 염홍림
소방정 소기웅 소방령 김재석 소방령 남종훈 소방령 정종호 소방령 허강영 소방령 박순걸 소방령 이광순
소방령 최식봉 소방령 한광모 소방령 김숙자 소방령 심규삼 소방령 정재덕 소방령 강경훈 소방령 김흥석
소방령 용석진 소방령 유남권 소방령 정만수 소방령 최임수 소방령 문흥규 소방령 박세영 소방령 이기정
소방령 최영수 소방령 홍순도 소방령 김춘식 소방령 윤종진 소방령 최종순 소방령 한상철 소방령 김창현
소방령 정희정 소방경 신영섭 소방경 엄석원 소방경 이상호 소방경 허병열 소방경 김명희 소방경 김정기
소방경 김현기 소방경 유영민 소방경 최승철 소방경 김진술 소방경 변성엽 소방경 김연옥 소방경 고주천
소방경 민병옥 소방경 박정빈 소방경 신우교 소방경 이상호 소방경 최종길 소방경 최진호 소방경 김상규
소방경 김진문 소방경 김희진 소방경 안남호 소방경 윤기성 소방경 윤석남 소방경 조용철 소방경 마기완
소방경 안주석 소방경 이광빈 소방경 최강식 소방경 심성용 소방경 황기성 소방경 엄영섭소방경 이경오
소방경 이평우 소방경 김진규 소방위 강구손 소방위 김남억 소방위 김명호 소방위 박배갑 소방위 엄혜진
소방위 여상구 소방위 전찬영 소방위 지인호 소방위 최지만 소방위 김경희 소방위 김용현 소방위 김원형
소방위 이상현 소방위 손대규 소방위 신창환 소방위 강태석 소방위 김양래 소방위 김연준 소방위 김태용
소방위 박근철 소방위 서경우 소방위 오광택 소방위 오영택 소방위 임정태 소방위 장기수 소방위 장영훈
소방위 정경수 소방위 조주희 소방위 최우영 소방위 최지만 소방위 고광수 소방위 김경철 소방위 김병영
소방위 김운용 소방위 문병원 소방위 박강열 소방위 박재광 소방위 배상익 소방위 변창수 소방위 심재용
소방위 윤보성 소방위 이명환 소방위 이호성 소방위 임봉규 소방위 전제호 소방위 정인화 소방위 황일근
소방위 김철민 소방위 김흥빈 소방위 문덕기 소방위 박영호 소방위 신중교 소방위 신홍모 소방위 엄진용
소방위 이윤봉 소방위 임덕 소방위 조춘남 소방위 최두선 소방위 최종국 소방위 전찬주 소방위 조홍식
소방장 김도윤 소방장 김민수 소방장 김성준 소방장 김천재 소방장 박재창 소방장 허지영 소방장 김선욱
소방장 남권혁 소방장 임명규 소방장 김경민 소방장 김성엽 소방장 김철호 소방장 나연수 소방장 노민정
소방장 박경한 소방장 박상록 소방장 박순남 소방장 박인철 소방장 박호동 소방장 신동철 소방장 여상훈
소방장 이명구 소방장 이미나 소방장 이영찬 소방장 전종완 소방장 정창근 소방장 채상훈 소방장 최영민
소방장 최영우 소방장 최창범 소방장 허기영 소방장 강우석 소방장 강창훈 소방장 고종완 소방장 곽희봉
소방장 김길녕 소방장 김병철 소방장 김상현 소방장 김영하 소방장 김용식 소방장 김희석 소방장 박만석
소방장 박민재 소방장 박종선 소방장 박현수 소방장 양승현 소방장 오현철 소방장 이건희 소방장 이구현

소방장 전덕원 소방장 정장훈 소방장 조동민 소방장 최헌 소방장 한용규 소방장 홍동식 소방장 김갑기 소방장 김남웅 소방장 김영래 소방장 김재효 소방장 박종은 소방장 이종화 소방장 최범선 소방장 최유선 소방장 허태원 소방교 이재훈 소방장 전한국 소방장 박순성 소방장 계영인 소방교 권영미 소방교 김웅 소방교 김유미 소방교 남가람 소방교 백승규 소방교 신해진 소방장 안성호 소방교 정래준 소방교 최용운 소방교 홍용기 소방교 강태현 소방교 권순길 소방장 김동찬 소방장 김수영 소방교 김재현 소방교 김태우 소방장 김현호 소방교 문명기 소방교 서영진 소방교 양슬람 소방교 양제영 소방교 엄준호 소방교 오인택 소방교 전민우 소방장 전인술 소방장 주현우 소방교 최문영 소방교 홍승완 소방장 김건학 소방교 김명건 소방장 김의준 소방교 김지환 소방장 민준식 소방장 심재관 소방교 윤대규 소방교 전형진 소방사 김재림 소방사 신남선 소방사 유지혜 소방사 이상종 소방사 이은주 소방사 김장환 소방사 엄익태 소방사 유기훈 방송통신서기 김태현 사무운영주사보 원이정 전산주사보 류무진 소방사 김정주 소방교 김석환 통신사무관 권명순 소방위 이현승 소방위 김남섭 소방교 박영훈 시설주사 김영재 소방사 방경모 소방사 이재주 소방교 정석현 소방장 최현자 소방장 이강운 소방경 이원재 소방위 신형우 소방위 손승헌



강원도소방학교

2019. 1. 31. 기준

소방정 박태원 소방령 남창진 소방령 김진호 소방경 김진욱 소방경 이광섭 소방경 이윤열 소방경 이정호 소방경 황재식 소방경 이태희 소방위 김관해 소방위 김용기 소방위 김용남 소방위 남석창 소방위 백광현 소방위 백승민 소방위 이주한 소방위 최승수 소방위 최일순 소방위 엄석철 소방위 이경덕 소방위 장바우 소방위 정세교 소방장 경영규 소방장 김남준 소방장 심준모 소방장 안재호 소방장 한현섭 소방장 허윤영 소방장 권기선 소방장 김주완 소방교 이배성 소방교 고경호 소방장 김무종 소방장 김용운 소방교 김유섭 소방교 방진철 소방교 안지원 소방교 이명후 소방교 김재환 소방교 오치용 소방교 조태훈 공업서기 이원우 운전서기보 이영수



동해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박흥목 소방령 김상래 소방령 이상현 소방령 오성환 소방경 김동준 소방경 이형옥 소방경 옥미라
소방경 홍용식 소방경 홍이표 소방경 권성철 소방경 김기문 소방경 정운교 소방경 이철기 소방경 김진욱
소방경 김 준 소방경 박명철 소방경 김동진 소방위 권오덕 소방위 김현애 소방위 이재일 소방위 박철호
소방위 이강수 소방위 정이화 소방위 강태영 소방위 이주현 소방위 임귀철 소방위 정의학 소방위 최왕득
소방위 최종혁 소방위 김흥묵 소방위 안장익 소방위 이창주 소방위 김동일 소방위 정해일 소방위 최종성
소방위 김남수 소방위 박종열 소방위 양찬모 소방위 이종학 소방위 임한혁 소방위 전억중 소방위 정연수
소방위 조황순 소방위 홍순문 소방위 방훈일 소방위 이효산 소방위 김규형 소방위 김대원 소방위 박상문
소방위 박정근 소방위 박철진 소방위 유병권 소방위 정해일 소방위 천윤재 소방위 최철희 소방위 함영남
소방장 이상희 소방장 이영근 소방장 김상은 소방장 김영석 소방장 김태우 소방장 유재희 소방장 최정열
소방장 김광규 소방장 김지남 소방장 김형래 소방장 윤순모 소방장 박창화 소방장 이석하 소방장 김주형
소방장 김형철 소방장 전영복 소방장 김범현 소방장 이영규 소방장 김성훈 소방장 김정원 소방장 김정익
소방장 심재형 소방장 조훈기 소방교 김희수 소방교 이준수 소방교 구민성 소방교 김상현 소방교 이정곤
소방교 전성표 소방교 전철용 소방교 정창우 소방교 함형보 소방교 김성욱 소방장 김일수 소방교 심주성
소방교 황운기 소방교 김래정 소방교 안성현 소방교 원창성 소방교 이기용 소방교 조윤상 소방장 김건호
소방교 마재형 소방교 신호승 소방교 이종서 소방교 전지혁 소방교 최재원 소방교 김창근 소방교 이동주
소방교 전민석 소방교 김광수 소방교 김옥자 소방교 우희명 소방교 이창호 소방교 진소연 소방교 최용규
소방사 박준진 소방사 양대호 소방사 이원욱 소방사 정종용 소방사 권윤성 소방사 서유성 소방사 어성제
소방사 김래용 소방사 이준황 소방사 한수빈 소방사 김규태 소방사 김동현 소방사 김수아 소방사 남현수
소방사 최윤선 소방사 최재봉 소방위 최성순 소방사 강진기 소방사 김광현 소방사 김남헌 소방사 김동우
소방사 김용석 소방사 김용수 소방사 김정원 소방사 김찬진 소방사 서창석 소방사 이선규 소방사 이영석
소방사 이우재 소방사 장성룡 소방사 최영빈 소방사 함형민 소방위 최종우 소방장 이준철 소방사 양승국



춘천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정광현 소방령 송병익 소방령 조현국 소방령 최영철 소방령 유승용 소방경 엄재현 소방경 최봉석
소방경 이상준 소방경 정재필 소방경 박부근 소방경 김정엽 소방경 윤흥묵 소방경 조봉형 소방경 조정수
소방경 윤용섭 소방경 이호석 소방경 홍중기 소방경 김영태 소방경 문도권 소방경 김호연 소방경 유재연
소방경 홍헌표 소방경 정석찬 소방경 이강춘 소방위 김남형 소방위 이주희 소방위 강중열 소방위 손병운
소방위 원종오 소방위 이은경 소방위 임춘우 소방위 최철호 소방위 박민화 소방위 이상근 소방위 고석영
소방위 안상식 소방위 엄성용 소방위 우인철 소방위 김영신 소방위 변인수 소방위 차종한 소방위 최승복
소방위 함승권 소방위 이철한 소방위 정종필 소방위 최승교 소방위 김순기 소방위 문영권 소방위 사석훈
소방위 신준민 소방위 유만열 소방위 조성남 소방위 박광훈 소방위 엄재남 소방위 이효종 소방위 임청모
소방위 김영갑 소방위 김영회 소방위 김종윤 소방위 김진화 소방위 라창주 소방위 박상림 소방위 배일한
소방위 임현빈 소방위 전재범 소방위 최종환 소방위 최홍식 소방위 최 훈 소방위 김인수 소방위 김휘섭
소방위 변종섭 소방위 신동학 소방위 이동규 소방위 이순열 소방위 이승무 소방위 조동희 소방위 조윤형
소방위 한순모 소방위 박종만 소방위 손병호 소방위 이연학 소방위 이한석 소방위 허원재 소방위 권혁남
소방위 류왕식 소방위 박인철 소방위 윤현한 소방위 임영환 소방위 조용희 소방위 조희재 소방장 박용대
소방장 정혜경 소방장 유동근 소방장 박종상 소방장 박호윤 소방장 전남 소방장 조영민 소방장 최영섭
소방장 강민성 소방장 이광진 소방장 장태경 소방장 정광훈 소방장 김병준 소방교 원유정 소방장 김석중
소방장 윤정식 소방장 이선종 소방장 홍순규 소방장 김기철 소방장 최창성 소방장 홍성철 소방장 김효래
소방장 오원택 소방장 이승우 소방장 전공영 소방장 최동수 소방장 김종수 소방장 김종철 소방장 윤태균
소방장 채진태 소방장 강성혁 소방장 김진호 소방장 신지용 소방장 정철호 소방장 김영준 소방장 김완수
소방장 김종화 소방장 류봉길 소방장 윤진곤 소방장 윤호국 소방장 이형균 소방장 정춘일 소방장 조영일
소방장 종일선 소방장 최진선 소방장 한종근 소방장 고석호 소방장 남궁병훈 소방장 이선행 소방장 정의호
소방장 정준섭 소방장 지숭욱 소방장 최형일 소방장 함장근 소방장 김선호 소방장 박다일 소방장 박충환
소방장 이병철 소방장 김성재 소방장 김재권 소방장 김흥태 소방장 박동진 소방장 변두섭 소방장 이호영
소방장 인홍희 소방장 전태민 소방장 정재용 소방장 지종현 소방장 황익수 소방장 강현규 소방교 김정식
소방장 이명범 소방교 김진명 소방교 오경미 소방교 유재형 소방교 김경필 소방교 신보국 소방교 이정헌
소방장 장민규 소방교 진기영 소방장 최문수 소방교 김병관 소방교 유승환 소방교 윤병재 소방장 이진숙
소방장 김교범 소방교 김재민 소방장 박현석 소방교 박형기 소방교 반민수 소방교 송현진 소방교 어재일
소방교 강성혁 소방장 김준기 소방교 김현태 소방교 송민우 소방교 이민수 소방교 이성재 소방교 임우철

소방교 전진욱 소방교 신민규 소방장 유동환 소방교 조윤후 소방교 조효진 소방교 김기현 소방교 김영웅
소방교 서현수 소방교 안재광 소방교 이원표 소방교 이한주 소방교 장인재 소방교 김동인 소방교 김영신
소방교 김형일 소방교 박기범 소방장 안근호 소방교 임형빈 소방교 김영훈 소방교 박관양 소방교 박준식
소방장 성한용 소방장 엄지용 소방교 이승엽 소방교 장한솔 소방교 권봉기 소방교 김영록 소방교 김재식
소방교 김형수 소방교 박동철 소방교 박수환 소방교 송한근 소방교 유재민 소방교 이우람 소방교 이현희
소방교 임동선 소방교 전두봉 소방교 전상근 소방교 전성표 소방교 전은균 소방교 전재홍 소방장 전호진
소방교 차봉택 소방교 최승욱 소방장 탁동욱 소방교 한국환 소방장 홍경식 소방장 김동근 소방교 김보현
소방교 김선용 소방교 김지동 소방교 문성일 소방교 박종범 소방교 신승하 소방교 안동현 소방교 윤성준
소방교 이수민 소방교 이원종 소방교 장건우 소방교 정기룡 소방교 주영선 소방교 최기훈 소방교 김상철
소방교 김준혁 소방교 김형순 소방교 안창헌 소방교 유현나 소방교 이동인 소방교 최성락 소방교 강기성
소방교 강하영 소방교 강현근 소방교 김민석 소방교 문상헌 소방교 박문현 소방장 박용상 소방교 박정익
소방교 윤명덕 소방사 유효진 소방교 박효근 소방사 최성훈 소방교 김영훈 소방사 박지수 소방사 전욱재
소방사 최현주 소방교 함대준 소방사 김운경 소방교 남윤석 소방사 이태오 소방교 신재문 소방교 윤현기
소방사 조남우 소방교 최재만 소방사 송우근 소방사 이상현 소방사 한세현 소방사 김성민 소방교 김현우
소방사 오동파 소방사 조세빈 소방사 김은호 소방사 남궁승 소방사 박성관 소방사 이중경 소방사 김선경
소방교 박종민 소방사 김경래 소방사 김기훈 소방사 김다영 소방사 박현근 소방사 진주 소방사 안창범
소방사 유영원 소방사 이 선 소방사 정은정 소방사 정훈재 소방사 최재원 소방사 강인식 소방사 구본혁
소방사 김문선 소방사 김진영 소방사 김태호 소방사 남재일 소방사 박성준 소방사 신동연 소방사 신승일
소방사 윤종현 소방사 이명규 소방사 이민호 소방사 이승민 소방사 이원영 소방사 정세환 소방사 최기철
소방사 최 현 소방사 함영래 소방사 허현만 소방장 서무송 소방교 호천기 소방장 허희명 소방사 홍성훈
소방교 오주찬 소방교 이진환 소방위 신희왕 소방사 박지선 소방정 안중석 소방령 박원규 소방령 서해진
소방령 최성민





원주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이병은 소방령 한대식 소방령 강병국 소방령 최봉식 소방령 김창섭 소방경 김동훈 소방경 이영숙
소방경 이영희 소방경 지형기 소방경 이창근 소방경 권병국 소방경 남동희 소방경 엄재홍 소방경 최봉택
소방경 김복영 소방경 신승은 소방경 방성이 소방경 홍병권 소방경 전인표 소방경 김영호 소방경 김경진
소방경 홍기영 소방경 전인덕 소방위 전민정 소방위 김철영 소방위 김광호 소방위 박호군 소방위 엄우열
소방위 하승성 소방위 홍성국 소방위 김대겸 소방위 김동열 소방위 이석환 소방위 김덕용 소방위 김옥동
소방위 김재훈 소방위 유홍열 소방위 임재윤 소방위 정정교 소방위 강성호 소방위 박용익 소방위 백송이
소방위 임석환 소방위 정상영 소방위 조찬업 소방위 김남일 소방위 박미선 소방위 심재형 소방위 장영욱
소방위 전준탁 소방위 지성진 소방위 지준영 소방위 차인환 소방위 최형근 소방위 함연태 소방위 박학철
소방위 서영석 소방위 신관호 소방위 한재권 소방위 박충서 소방위 석지호 소방위 안효근 소방위 이영국
소방위 조성만 소방위 박상문 소방위 윤보희 소방위 장문경 소방위 추성수 소방위 홍순탁 소방위 권혁진
소방위 장춘근 소방위 함일석 소방위 김성윤 소방위 박낙겸 소방위 박병호 소방위 성대완 소방위 송석만
소방위 전종표 소방위 전형일 소방위 최정호 소방장 안정기 소방장 장현태 소방장 김종혁 소방장 정소진
소방장 정완영 소방장 지희용 소방장 김동일 소방장 김민섭 소방장 김영주 소방장 맹정아 소방장 신정아
소방장 용태우 소방장 김성일 소방장 박일호 소방장 이상진 소방장 정강표 소방장 정두화 소방장 조성식
소방장 한대근 소방장 고경춘 소방장 박현근 소방장 신동윤 소방장 이경수 소방장 임창희 소방장 조경구
소방장 나문영 소방장 마순환 소방장 박태웅 소방장 유정호 소방장 이승기 소방장 장호현 소방장 김용철
소방장 조용기 소방장 홍성용 소방장 김남윤 소방장 김창은 소방장 변현수 소방장 권혁범 소방장 김순철
소방장 박재형 소방장 송형근 소방장 최근혁 소방장 김강민 소방장 안상구 소방장 유병호 소방장 고주석
소방장 김유석 소방장 김현호 소방장 김민규 소방장 김헌기 소방교 이영범 소방장 최서윤 소방교 이상민
소방교 한호진 소방교 고백규 소방교 김뵈뵈 소방장 변덕환 소방교 이상엽 소방교 이성원 소방교 최배형
소방장 최지윤 소방교 홍성민 소방교 김승수 소방교 김 용 소방교 문정필 소방교 이 훈 소방교 장세용
소방교 김재경 소방교 김진현 소방교 오현석 소방교 이경수 소방장 전상민 소방교 지승희 소방교 최병일
소방장 홍기대 소방교 황서현 소방교 김기승 소방장 김기웅 소방교 김대훈 소방교 박철인 소방교 정영훈
소방교 최철민 소방장 김상효 소방교 김호경 소방교 신소희 소방교 양금상 소방교 이대우 소방교 이동규
소방교 이왕우 소방교 이호주 소방교 조진현 소방교 한상규 소방교 김경태 소방교 김래현 소방교 김병만
소방교 김봉경 소방교 서승학 소방교 오승진 소방장 우현우 소방교 이정국 소방교 하정훈 소방교 황정주

소방교 김진호 소방교 변동균 소방교 전상현 소방교 최창식 소방장 김대성 소방교 김은식 소방교 전찬호
소방교 조환두 소방교 황현석 소방교 김길중 소방교 윤광석 소방교 조해연 소방교 허준영 소방장 김대군
소방교 김도윤 소방교 배주성 소방교 이인용 소방교 정의현 소방교 주재용 소방교 최윤기 소방교 최종빈
소방교 김태환 소방교 박웅식 소방교 손병훈 소방교 이상현 소방교 정성철 소방교 정우식 소방사 길진철
소방교 김흥철 소방사 박성경 소방교 김달현 소방사 김종인 소방교 남병길 소방사 손형준 소방교 이수정
소방사 이유미 소방교 이형식 소방교 전준병 소방교 김현준 소방사 최근호 소방사 박재한 소방사 위서현
소방사 한덕헌 소방사 김명석 소방사 심대룡 소방사 안영훈 소방교 장재석 소방교 김동우 소방교 이기훈
소방위 임현탁 소방교 서영진 소방교 신인석 소방사 강호정 소방사 고대현 소방사 김동현 소방사 김성민
소방사 김영수 소방사 문무성 소방사 박진호 소방사 소성용 소방사 신지운 소방사 이건형 소방사 이동철
소방사 이승영 소방사 이우영 소방사 임병준 소방사 정범주 소방사 정해주 소방사 지형배 소방사 한상만
소방사 한상우 소방사 황병연 소방교 오유경 소방사 김상훈 소방장 김창우 소방사 이주연 소방장 정연희
소방정 원미숙 소방령 이종하



강릉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이진호 소방령 김근태 소방령 정맹교 소방령 최종철 소방령 박흥석 소방경 선봉주 소방경 조영건
소방경 전찬호 소방경 이석주 소방경 김남홍 소방경 박유삼 소방경 박광용 소방경 이상호 소방경 전현철
소방경 최승주 소방경 장충열 소방경 박동석 소방경 이상훈 소방경 조병삼 소방경 최송락 소방경 최돈선
소방경 최상규 소방위 임창선 소방위 진재찬 소방위 이상인 소방위 이석무 소방위 이동운 소방위 이규홍
소방위 이용국 소방위 김은수 소방위 심재범 소방위 심재영 소방위 원우식 소방위 임돈순 소방위 정승태
소방위 김관래 소방위 김승준 소방위 안상용 소방위 이원빈 소방위 김재만 소방위 유명준 소방위 최진근
소방위 김남철 소방위 최승덕 소방위 안병길 소방위 최상희 소방위 홍호표 소방위 김남현 소방위 김동희
소방위 남건율 소방위 황수도 소방위 이재훈 소방위 이중열 소방위 진재흥 소방위 금석중 소방위 김명진
소방위 김주범 소방위 박수일 소방위 배강주 소방위 윤구석 소방위 지정국 소방위 최두길 소방위 김근주
소방위 김남국 소방위 이광춘 소방위 황윤주 소방위 권영민 소방위 김광수 소방위 김택주 소방장 정연오
소방장 김남민 소방장 김민주 소방장 김은경 소방장 권경희 소방장 정연돈 소방장 김영일 소방장 이창석
소방장 이해길 소방장 최영민 소방장 황영래 소방장 김재삼 소방장 이길용 소방장 이동열 소방장 이원학
소방장 박정제 소방장 전상표 소방장 조성근 소방장 권승호 소방장 김유신 소방장 박근식 소방장 박재홍
소방장 백종용 소방장 이충원 소방장 허성회 소방장 김동호 소방장 김종무 소방장 이승만 소방장 권병용
소방장 김왕규 소방장 김진범 소방장 서복원 소방장 오운택 소방장 정병규 소방장 조영삼 소방장 최재선
소방장 김진철 소방장 김형래 소방장 김홍렬 소방장 박용헌 소방장 이윤재 소방장 조강식 소방장 함정식
소방장 김 민 소방장 김황래 소방장 백경태 소방교 김승주 소방교 박기억 소방교 박지연 소방장 최중호
소방교 배중화 소방교 손영호 소방교 유호준 소방교 이성군 소방교 권하나 소방교 이상민 소방교 김민준
소방교 유태근 소방교 허 균 소방교 홍승준 소방교 박상은 소방교 김창연 소방교 이용기 소방교 김석곤
소방교 박민수 소방교 양재훈 소방교 최호산 소방장 강종철 소방교 김준일 소방교 최시영 소방교 강대순
소방교 손용빈 소방교 안태영 소방교 임지환 소방교 전명문 소방교 정의진 소방교 김대기 소방장 김지남
소방교 김혁수 소방교 최준혁 소방교 허진혁 소방교 김용웅 소방교 김윤하 소방교 변정희 소방교 원성범
소방교 이재우 소방교 김동수 소방교 신현호 소방교 이경민 소방장 이지훈 소방장 이성찬 소방교 최슬기
소방사 강환범 소방사 조인수 소방사 최유림 소방사 김영훈 소방사 김장한 소방사 윤신우 소방사 최용범
소방교 김민철 소방사 조민근 소방사 최민순 소방사 황동휘 소방사 김갑철 소방사 박범준 소방교 박재민
소방사 정성훈 소방사 최종윤 소방사 황준동 소방교 금기득 소방사 김지훈 소방사 박성수 소방사 이덕우

소방사 이정규 소방사 한규호 소방사 허형규 소방사 강명수 소방사 이재완 소방사 조태상 소방사 최　훈
소방사 김경식 소방사 김무진 소방사 박지현 소방사 신우용 소방사 이규철 소방사 이민규 소방사 이보라
소방사 이용선 소방사 이현교 소방사 김남윤 소방사 김범준 소방교 김영균 소방사 김정래 소방사 마준형
소방사 이도현 소방사 이철주 소방사 정왕철 소방사 황현숙 소방사 김승민 소방사 선상규 소방사 이지훈
소방사 장동욱 소방사 최승남 소방교 최용준 소방장 원효식 소방장 김부호 소방위 천정권 소방교 김제형
소방위 김경수 소방위 최선규 소방장 장유환 소방교 정의학 소방경 채인천 소방사 김종협 소방사 김진억
소방사 김호남 소방사 민경태 소방사 신동진 소방사 안종길 소방사 이승원 소방사 이재환 소방사 전병준
소방사 전성식 소방사 조용익 소방사 채낙훈 소방사 최종윤 소방사 홍지수 소방교 정보람 소방사 김보희
소방교 권혁준 소방교 이장훈



태백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이수남 소방령 엄영기 소방령 이영목 소방령 이재동 소방경 김현수 소방경 정재원 소방경 권봉중
소방경 김상수 소방경 박치환 소방경 박찬업 소방경 이흥우 소방경 장병기 소방경 이유철 소방경 김영훈
소방경 김진환 소방경 황현 소방경 전종칠 소방위 심경숙 소방위 김우영 소방위 우창진 소방위 육천우
소방위 최성훈 소방위 권지혜 소방위 권현주 소방위 김성원 소방위 김윤기 소방위 이석종 소방위 이준열
소방위 정태연 소방위 한정현 소방위 김복수 소방위 이상운 소방위 김운석 소방위 김윤하 소방위 박재순
소방위 신현철 소방위 심대영 소방위 이광형 소방위 채정호 소방위 최행열 소방위 김남한 소방위 김천수
소방위 박상형 소방위 하태우 소방위 한덕현 소방위 김경우 소방위 김용호 소방위 박병섭 소방위 안동춘
소방위 윤영인 소방위 김대수 소방위 김태선 소방위 노권호 소방위 박수진 소방위 박홍규 소방위 윤창민
소방위 임영철 소방위 전인광 소방위 최정기 소방위 한재국 소방장 서정만 소방장 박영서 소방장 박준철
소방장 이희연 소방장 강내용 소방장 김재호 소방장 심순윤 소방장 이율구 소방장 최정환 소방장 이길우
소방장 강태희 소방장 양청목 소방장 황병일 소방장 김진호 소방장 김찬수 소방장 서상우 소방장 석상덕
소방장 남용국 소방장 라현인 소방장 장진우 소방장 조성철 소방교 심대보 소방장 이강훈 소방교 이상철
소방장 홍종수 소방교 권오룡 소방장 한미진 소방장 한승묵 소방교 황두선 소방장 김기만 소방교 김중수
소방교 김상호 소방장 김성수 소방장 김수훈 소방교 박상권 소방교 김진수 소방교 이휘우 소방교 김원근
소방장 이성우 소방교 김치훈 소방교 전재원 소방교 김선태 소방교 김영엽 소방교 박용선 소방교 서달식
소방교 장형용 소방교 황현웅 소방사 오동찬 소방사 김용현 소방사 구장권 소방사 이승호 소방사 전상재
소방사 황수민 소방사 김영수 소방사 이종걸 소방사 임주영 소방사 전태승 소방사 배경호 소방사 이재규
소방사 임동건 소방사 강월주 소방사 강택민 소방사 김민혁 소방사 김영경 소방사 김영민 소방사 박현욱
소방사 박형진 소방사 유승학 소방사 윤성용 소방사 은성현 소방사 전덕현 소방사 최우현 소방사 김기철
소방사 김락용 소방사 김영진 소방사 김현수 소방사 민경록 소방사 박현경 소방사 유현상 소방사 이윤복
소방사 이주원 소방사 임철홍 소방사 정찬희 소방사 조주영



속초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김영조 소방령 정대옥 소방령 정호봉 소방령 장상훈 소방경 김달수 소방경 신성일 소방경 이인기
소방경 김명섭 소방경 이태우 소방경 허명수 소방경 정상수 소방경 박정훈 소방경 이관용 소방경 전운태
소방경 전준호 소방위 김윤경 소방위 전제렬 소방위 김상욱 소방위 박덕균 소방위 김동환 소방위 이지주
소방위 이창연 소방위 최제헌 소방위 라상식 소방위 최종민 소방위 김동식 소방위 김창래 소방위 박도원
소방위 엄태준 소방위 원준호 소방위 최창옥 소방위 최형석 소방위 김동화 소방위 정상교 소방위 최화섭
소방위 김만하 소방위 김진열 소방위 신동승 소방위 황영태 소방장 김소양 소방장 최효정 소방장 김남경
소방장 김동우 소방장 김흥석 소방장 박지선 소방장 신은정 소방장 이명진 소방장 김부석 소방장 박기동
소방장 안영재 소방장 정해권 소방장 지영석 소방장 권건호 소방장 박제승 소방장 박주철 소방장 안영찬
소방장 이승형 소방장 이정민 소방장 최승현 소방장 최연덕 소방장 최종길 소방장 김동현 소방장 양동주
소방장 조광희 소방장 박종민 소방장 이성철 소방장 이종철 소방교 민준영 소방교 이진희 소방장 정철영
소방교 노래균 소방교 우성환 소방교 이규혁 소방교 장수명 소방교 최희영 소방장 함운형 소방교 박정진
소방교 박치우 소방교 오동규 소방교 길정영 소방교 김태호 소방교 남형곤 소방교 박규선 소방교 박상원
소방교 박종문 소방교 신지수 소방교 윤예원 소방교 이유철 소방교 이창협 소방교 임동규 소방장 최동열
소방교 최상윤 소방교 박균철 소방교 이원신 소방교 최승훈 소방사 최효선 소방사 라진영 소방사 전형진
소방사 김도선 소방사 김병수 소방사 김주현 소방사 박수연 소방사 유은수 소방교 유진욱 소방사 윤병오
소방사 이동기 소방사 전대환 소방사 전명옥 소방사 조영주 소방사 주성령 소방사 최형두 소방사 허석근
소방사 박직 소방사 이용길 소방사 전규민 소방사 홍원준 소방사 홍관표 소방사 김태형 소방사 노영래
소방사 박상범 소방사 박현권 소방사 서장호 소방사 심수현 소방사 오제권 소방사 이창주 소방사 정병곤
소방교 박원경 소방교 유명빈



삼척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주진복 소방령 이용길 소방령 김진문 소방령 김진성 소방경 김상진 소방경 전창규 소방경 김성기
소방경 박재진 소방경 김상진 소방경 김종회 소방경 박태규 소방경 우남철 소방경 박명희 소방경 이승원
소방경 김진영 소방경 곽복규 소방경 김동기 소방위 강대균 소방위 김남수 소방위 김운갑 소방위 김달우
소방위 김동준 소방위 김부기 소방위 김부영 소방위 김영수 소방위 이흥우 소방위 채희창 소방위 최재훈
소방위 고보현 소방위 김동희 소방위 김영목 소방위 김헌용 소방위 이원영 소방위 최은주 소방위 송재삼
소방위 이재택 소방위 전찬덕 소방위 김용길 소방위 김진국 소방위 김흥기 소방위 이문환 소방위 한기동
소방위 김재양 소방위 윤진희 소방위 이국교 소방위 이철하 소방위 전대중 소방위 최재덕 소방위 최재경
소방위 홍재의 소방위 황봉현 소방위 강만윤 소방위 김동준 소방위 김진조 소방위 김진태 소방위 김진협
소방위 박주용 소방위 안삼일 소방위 이수영 소방위 강동석 소방위 곽호철 소방위 김호창 소방위 박병준
소방위 이두우 소방위 임덕성 소방위 정윤일 소방장 김수만 소방장 백승복 소방장 이종범 소방장 김 구
소방장 권기정 소방장 김덕근 소방장 이회정 소방장 박은서 소방장 진한득 소방장 권영기 소방장 김성윤
소방장 백기웅 소방장 정선희 소방위 신재영 소방장 최승석 소방장 한재호 소방장 강현수 소방장 김경태
소방장 전상구 소방장 권혁민 소방장 김상섭 소방장 조기범 소방장 최광석 소방장 김수만 소방장 남근혁
소방장 백승대 소방장 홍대웅 소방교 홍성철 소방교 권겨레 소방교 김문석 소방교 김지훈 소방교 박학웅
소방장 윤수호 소방교 김주혁 소방교 오태권 소방교 진성국 소방교 한진아 소방교 강형진 소방교 김동엽
소방교 남동림 소방교 박두철 소방교 이종영 소방교 김명진 소방교 송민휘 소방교 오용진 소방장 이창우
소방장 정강학 소방교 조연경 소방교 최훈식 소방교 홍세환 소방장 김규태 소방교 김동철 소방교 김용균
소방교 김현호 소방장 변길우 소방교 원동욱 소방교 이병구 소방교 이재순 소방교 정해윤 소방교 조덕현
소방교 강효권 소방교 김동현 소방교 김석호 소방교 김평래 소방교 김현서 소방교 심유진 소방교 정의현
소방교 최동민 소방교 황성재 소방교 김덕수 소방교 김도윤 소방교 김정휘 소방교 노윤한 소방교 박길용
소방교 배도형 소방교 안원모 소방교 이재규 소방교 인한교 소방교 정상헌 소방교 최윤섭 소방사 김무홍
소방사 김민성 소방사 안주열 소방사 정성모 소방사 권영하 소방사 김예진 소방사 박기성 소방사 심규학
소방사 연주흠 소방사 윤현길 소방사 이경미 소방사 전찬우 소방사 김경수 소방사 김선호 소방사 김완규
소방사 박지은 소방사 방채원 소방사 변성혁 소방교 손창목 소방사 윤희조 소방사 임동환 소방사 전은성
소방사 김현구 소방사 박윤재 소방사 이기정 소방교 이진영 소방사 이진호 소방사 임희준 소방사 조재우
소방사 강병호 소방사 권혁진 소방사 김상우 소방사 김준한 소방사 김현성 소방사 문준혁 소방사 심세호
소방사 우승호 소방사 조정호 소방사 최주락 소방장 윤금화 소방사 김동욱 소방사 안현보 소방령 김해수





홍천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남궁규 소방령 정종근 소방령 박계형 소방령 권혁범 소방경 김용준 소방경 안정수 소방경 김관식
소방경 김봉배 소방경 임재명 소방경 김형기 소방경 박재홍 소방경 반종군 소방경 김은철 소방경 이원영
소방경 김상용 소방경 고기봉 소방위 김재관 소방위 최정인 소방위 황영구 소방위 심은희 소방위 강승헌
소방위 김재혁 소방위 신용주 소방위 엄재복 소방위 유득상 소방위 최안 소방위 김인수 소방위 용상순
소방위 천용규 소방위 권혁인 소방위 김광연 소방위 김영웅 소방위 김주동 소방위 신용운 소방위 이선관
소방위 정승철 소방위 강맹훈 소방위 김경태 소방위 김영규 소방위 심영보 소방위 이건배 소방위 정광우
소방위 함진영 소방위 고영일 소방위 김연선 소방위 김영주 소방위 박용한 소방위 박재근 소방위 이강택
소방위 이영복 소방위 이준호 소방위 이철규 소방위 이철우 소방위 이희찬 소방위 최동만 소방위 한만복
소방위 허송구 소방장 김찬호 소방장 김경환 소방장 김민섭 소방장 박성제 소방장 용상수 소방장 이규원
소방장 이대만 소방장 한경진 소방장 송유신 소방장 이범성 소방장 조병수 소방장 차은영 소방장 황현석
소방장 김창호 소방장 오영록 소방장 장광수 소방장 권혁일 소방장 김학수 소방장 박용범 소방장 박정민
소방장 염성훈 소방장 최우준 소방장 고두환 소방장 박동천 소방장 이영기 소방장 김용국 소방장 김태랑
소방장 박종보 소방장 전상윤 소방장 정흥삼 소방장 최재만 소방장 최해식 소방장 심영석 소방교 안은희
소방장 안성우 소방교 오수민 소방교 이현석 소방교 최봉근 소방교 김덕성 소방장 김찬후 소방교 마재범
소방장 박종민 소방교 이동현 소방교 최성수 소방교 김태현 소방교 김홍기 소방교 김희탁 소방교 이동희
소방교 이성철 소방교 이수창 소방교 이영준 소방교 지윤배 소방장 최수한 소방장 한창진 소방교 김건우
소방교 김병성 소방교 김인수 소방교 김진학 소방교 김현호 소방교 노지영 소방교 박세영 소방교 유승환
소방장 김동후 소방교 김승현 소방교 김영석 소방교 김준호 소방교 남명수 소방교 박재문 소방교 송준용
소방교 신상민 소방교 용중순 소방교 유기선 소방교 이은관 소방장 이정석 소방교 임상순 소방교 임현규
소방교 조영욱 소방교 최경신 소방교 최민석 소방장 홍순학 소방사 홍동임 소방사 양승범 소방사 김태곤
소방사 심한슬 소방사 이광현 소방교 이정우 소방사 장원상 소방사 김민식 소방사 남윤호 소방교 박종국
소방사 여소연 소방사 온명진 소방사 윤기문 소방사 이종규 소방교 이충희 소방사 임주영 소방교 전병욱
소방사 최희준 소방사 권낙현 소방사 김상원 소방사 문지원 소방사 박한준 소방사 유인균 소방사 유현석
소방사 이유성 소방사 최돈호 소방사 최성광 소방사 박창현 소방사 김동현 소방사 신나영 소방령 신건호





횡성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유중근 소방령 이호일 소방령 윤재용 소방령 최성욱 소방경 신형민 소방경 원동표 소방경 유일수
소방경 이승훈 소방경 황성백 소방경 정창동 소방경 조현선 소방경 최광모 소방경 최상원 소방경 박성순
소방경 김정림 소방위 김봉중 소방위 이정권 소방위 김수장 소방위 서서일 소방위 서용복 소방위 이광호
소방위 임채환 소방위 최창수 소방위 김동현 소방위 박동준 소방위 최상국 소방위 권경민 소방위 신희진
소방위 이창민 소방위 최희경 소방위 김용학 소방위 김은하 소방위 박용식 소방위 신승규 소방위 엄순열
소방위 윤태호 소방위 이병득 소방위 전훈준 소방위 조영민 소방위 강신정 소방위 김태현 소방위 박광기
소방위 박병락 소방위 박찬호 소방위 신형주 소방위 용정진 소방위 원홍식 소방위 유승열 소방위 이영록
소방위 이용식 소방위 이원국 소방위 이해윤 소방위 김광춘 소방위 김기태 소방위 김문성 소방위 김성기
소방위 김유동 소방위 김종범 소방위 김학영 소방위 변형근 소방위 이광우 소방위 이철희 소방위 이춘성
소방위 정진화 소방위 조성현 소방위 한덕곤 소방위 황태윤 소방장 신충열 소방장 유태현 소방장 임성환
소방장 권선양 소방장 이만규 소방장 김영민 소방장 김종서 소방장 엄미현 소방장 조규식 소방장 강병일
소방장 김광호 소방장 김양섭 소방장 오성 소방장 허성구 소방장 권용훈 소방장 윤석윤 소방장 이창환
소방장 지덕용 소방장 강희석 소방장 김종현 소방장 박흥규 소방장 신광열 소방장 안승현 소방장 박성남
소방장 박용호 소방장 이재문 소방장 이재용 소방장 이철승 소방위 조현선 소방장 김대유 소방교 김동석
소방교 김한수 소방장 이상준 소방교 최정한 소방장 한나래 소방교 김광현 소방교 이영진 소방교 김정호
소방교 배진우 소방교 신호성 소방교 윤영현 소방교 이상화 소방교 조영준 소방장 김대영 소방교 김병주
소방장 김영면 소방교 박한몽 소방교 이정현 소방교 이진완 소방교 강성진 소방교 김아름 소방교 김영권
소방교 손병국 소방교 심범석 소방교 이병주 소방교 이상훈 소방교 이진형 소방교 전은재 소방교 정승교
소방교 조광호 소방교 조광희 소방교 조호진 소방교 진윤식 소방교 표창현 소방교 한 대산 소방사 장성수
소방사 김민우 소방사 김수동 소방사 김진현 소방사 김홍구 소방교 박태용 소방사 조원빈 소방사 이윤호
소방사 이주형 소방교 이형철 소방사 임석현 소방사 정장원 소방사 홍성준 소방사 계기훈 소방사 금한국
소방사 김병진 소방사 김소라 소방교 신구선 소방사 이용재 소방사 장현우 소방사 하주원 소방사 홍동기
소방사 구준희 소방사 김병호 소방사 김진혁 소방사 박명배 소방사 박찬연 소방사 서희철 소방사 유병윤
소방사 이병주 소방사 이호철 소방사 김성래 소방교 경경수 소방교 안효영 소방장 박소라



영월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이기중 소방령 서강원 소방령 이규인 소방령 김태환 소방경 문진영 소방경 윤성찬 소방경 김성규
소방경 김희성 소방경 김진각 소방경 유광재 소방경 전영환 소방경 은경수 소방경 이병주 소방경 김용식
소방경 이중환 소방경 임재열 소방위 김숙영 소방위 박승호 소방위 조근천 소방위 서준형 소방위 엄두권
소방위 이정규 소방위 정훈 소방위 김상국 소방위 김진용 소방위 김현섭 소방위 이수연 소방위 한재섭
소방위 황보근 소방위 오정근 소방위 오창훈 소방위 정상진 소방위 김동국 소방위 김보성 소방위 김정욱
소방위 배동기 소방위 신현섭 소방위 윤수태 소방위 이한림 소방위 현상헌 소방위 홍창기 소방위 김대수
소방위 김대현 소방위 김두영 소방위 엄태면 소방위 최일권 소방위 함덕권 소방위 김종익 소방위 김희수
소방위 신동수 소방위 엄주천 소방위 이종관 소방위 진광태 소방장 고만석 소방장 신동근 소방장 진대현
소방장 고치순 소방장 함승훈 소방장 권영철 소방장 김선기 소방장 김승우 소방장 박상범 소방장 백철현
소방장 엄주환 소방장 김상식 소방장 김정대 소방장 김진호 소방장 안병인 소방장 윤주민 소방장 김남수
소방장 이병준 소방장 정윤근 소방장 최승섭 소방장 김광일 소방장 김현식 소방장 박종인 소방장 이영규
소방장 이은중 소방장 이진범 소방장 이춘장 소방장 이호건 소방장 임성은 소방장 황창호 소방장 엄경호
소방장 이재열 소방장 이준규 소방장 전찬수 소방장 조동식 소방교 신근영 소방교 이충성 소방교 전인술
소방교 엄인수 소방교 이영민 소방교 김지연 소방교 이옥희 소방교 이규범 소방교 이주형 소방교 전호식
소방장 강덕철 소방교 김동현 소방교 김승연 소방교 김승우 소방교 김정찬 소방교 김준호 소방교 손진현
소방교 신영규 소방교 우제익 소방교 원주연 소방교 이태규 소방교 한영규 소방교 허현규 소방교 권오근
소방교 김은미 소방장 김종훈 소방교 박종래 소방교 백승일 소방교 엄영식 소방교 조하나 소방장 지성현
소방교 최대신 소방교 김동구 소방교 김두영 소방교 김웅종 소방장 김주용 소방교 김지훈 소방교 도주현
소방교 여운조 소방교 장영민 소방교 장종순 소방교 하준희 소방교 허유환 소방사 장용문 소방사 김보선
소방사 김윤미 소방교 김형만 소방사 문성우 소방사 문예종 소방사 박홍선 소방사 설진호 소방사 이소망
소방사 이소현 소방사 이한솔 소방사 이호상 소방사 임재경 소방사 장상규 소방사 최종윤 소방사 나혜선
소방사 윤대석 소방교 정연서 소방사 김찬명 소방사 남영석 소방사 최해성 소방사 강장원 소방사 김동현
소방사 김학열 소방사 우세영 소방사 유천권 소방사 이석현 소방사 전재옥 소방사 정용욱 소방사 엄원용
소방장 이종인 소방장 신선민 소방정 정효수



평창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김정희 소방령 안종록 소방령 이순균 소방령 함남식 소방경 김완기 소방경 전상봉 소방경 신동화
소방경 원정연 소방경 한규영 소방경 김법영 소방경 이정기 소방경 전동수 소방경 김정기 소방경 배선호
소방경 김기복 소방경 최영호 소방경 전필성 소방경 우창호 소방경 안윤용 소방위 김광래 소방위 김동신
소방위 권순빈 소방위 최연규 소방위 곽봉근 소방위 이재길 소방위 한상대 소방위 함정희 소방위 박윤희
소방위 박종남 소방위 이승주 소방위 최영환 소방위 황일기 소방위 김태곤 소방위 박병만 소방위 심종호
소방위 최정남 소방위 황정구 소방위 김기훈 소방위 김동신 소방위 김영수 소방위 박근화 소방위 윤석중
소방위 진선용 소방위 고원기 소방위 김영한 소방위 신재두 소방위 김현묵 소방위 손호윤 소방위 엄경열
소방위 엄상용 소방위 한기빈 소방위 권영배 소방위 김광년 소방위 김명심 소방위 김영상 소방위 김형철
소방위 석태윤 소방위 심준택 소방위 이윤희 소방위 조순환 소방장 원은희 소방장 이성용 소방장 김현숙
소방장 이경한 소방장 이현철 소방장 김태인 소방장 최오식 소방장 김문수 소방장 김진유 소방장 고은송
소방장 권오덕 소방장 신세호 소방장 김상만 소방장 하대일 소방교 김다호 소방장 유영준 소방장 김두열
소방장 김신규 소방장 김용섭 소방장 이정훈 소방장 김경호 소방장 김대기 소방장 김영승 소방장 공성욱
소방장 신의환 소방장 유영민 소방장 이윤범 소방장 정성규 소방장 조경인 소방장 김경수 소방장 김덕수
소방장 안수형 소방장 전재현 소방장 최상운 소방장 김남균 소방장 양숙진 소방장 윤대원 소방장 진두용
소방교 권오성 소방교 김대현 소방교 정유찬 소방교 지다정 소방교 김문종 소방장 신문선 소방교 이강현
소방교 이서아 소방교 이종명 소방장 한주리 소방장 김식 소방장 김준웅 소방교 전준현 소방교 정호진
소방교 최 혁 소방교 김상희 소방장 김창섭 소방교 문병환 소방교 최민석 소방교 황병훈 소방교 김기영
소방교 김대호 소방교 김주성 소방교 김진덕 소방교 김현식 소방교 서해창 소방교 안상준 소방교 양재순
소방교 이상윤 소방교 이선영 소방교 정유철 소방교 김석구 소방교 김창규 소방교 송대웅 소방교 송의석
소방교 정승원 소방교 정재환 소방교 김현수 소방교 박재성 소방교 신상근 소방교 주봉환 소방교 최선윤
소방교 김기태 소방교 박병석 소방장 엄태경 소방교 윤석경 소방교 이승주 소방교 이충희 소방교 임광규
소방교 임수진 소방사 이정우 소방교 서경원 소방교 신현우 소방사 양훈철 소방사 이호성 소방사 박원민
소방사 최진영 소방사 하용호 소방사 권민성 소방교 이강영 소방교 이동훈 소방사 김영갑 소방사 김진일
소방사 김진호 소방사 김한래 소방사 신영근 소방교 이신찬 소방사 전병훈 소방사 박근원 소방사 이영환
소방사 이우승 소방사 정민규 소방사 고은성 소방사 김준성 소방교 김필균 소방사 도명석 소방사 박건태
소방사 박현수 소방사 이재복 소방사 지은석 소방사 김광범 소방사 김종수 소방사 류준선 소방사 박보성
소방사 박상우 소방사 신성민 소방사 이승민 소방사 이종배 소방사 정승원 소방사 홍기원 소방교 박슬기
소방교 박미경 소방교 김보현 소방교 조제성



정선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김용한 소방령 서정일 소방령 서명석 소방령 정대동 소방경 김남호 소방경 현종우 소방경 김주현
소방경 심진석 소방경 정선정 소방경 안효선 소방경 양대석 소방경 이경우 소방경 이병국 소방경 홍병화
소방경 최충열 소방경 김대웅 소방경 박건용 소방위 박종구 소방위 전문표 소방위 김은경 소방위 장윤성
소방위 정연천 소방위 김주엽 소방위 박태진 소방위 신재학 소방위 이종태 소방위 강석제 소방위 김세현
소방위 김동현 소방위 정의만 소방장 임동일 소방위 이홍재 소방위 임탁위 소방위 전종열 소방위 최승웅
소방위 고창수 소방위 김원연 소방위 박진석 소방위 엄현찬 소방위 임명혁 소방위 진경호 소방위 김창규
소방위 박원석 소방위 엄정택 소방위 유영운 소방위 함영재 소방위 강영효 소방위 김건호 소방위 김성수
소방위 문순기 소방위 박재근 소방위 박재순 소방위 송일선 소방위 이경락 소방위 이성빈 소방위 이종명
소방위 최정철 소방위 홍성태 소방위 고근오 소방위 남기열 소방위 박용선 소방위 박인규 소방위 방상연
소방위 신봉규 소방위 유재곤 소방위 이재현 소방위 이종명 소방위 이학래 소방위 전돈택 소방위 전윤표
소방위 전철한 소방장 강신문 소방장 김광래 소방장 이상범 소방장 최승표 소방장 안보라 소방장 권성현
소방장 김정배 소방장 박근희 소방장 정원용 소방장 한순범 소방장 홍성범 소방장 김정우 소방장 김진희
소방장 김왕현 소방장 김진성 소방장 김진운 소방장 박병기 소방장 심영호 소방장 안승유 소방장 이지수
소방장 임철위 소방장 전진만 소방장 황호석 소방장 유영도 소방장 유영운 소방장 김효원 소방장 남관형
소방장 최준일 소방장 권순홍 소방장 권오석 소방장 박성일 소방장 박순용 소방장 이상재 소방장 임정호
소방장 조형섭 소방장 한명규 소방장 최만철 소방교 최준석 소방교 변종철 소방교 유도임 소방교 이영석
소방교 이필용 소방교 전민철 소방교 김정무 소방교 김민영 소방교 김태성 소방교 김희찬 소방교 최종일
소방교 서지원 소방교 오승도 소방교 유덕환 소방교 이종찬 소방교 김영훈 소방교 송창종 소방교 신석철
소방교 전경택 소방교 임일규 소방장 전주희 소방교 권혁준 소방장 박용정 소방교 장성종 소방교 김상광
소방장 김주영 소방교 박성현 소방교 박진선 소방교 백형근 소방교 송호진 소방교 정성진 소방교 정의원
소방교 조윤호 소방교 진달래 소방사 한동호 소방사 김지용 소방사 박재우 소방사 이재성 소방사 윤병욱
소방사 현정한 소방사 김영호 소방사 김형민 소방사 안형빈 소방교 이정환 소방사 김요한 소방사 김찬희
소방사 민경빈 소방사 이광표 소방사 이민철 소방사 이우준 소방사 장명재 소방사 김동현 소방사 김준호
소방사 박석원 소방사 최부선 소방사 탁지훈 소방사 권나연 소방사 김대복 소방사 김정훈 소방사 박서진
소방사 양성호 소방사 윤재환 소방사 이상훈 소방사 이슬기 소방사 이영윤 소방사 정현빈 소방사 최상규
소방사 최유진 소방사 하민지 소방사 황상현 소방사 김용희 소방사 김태현 소방사 남우석 소방사 오승민
소방사 유병조 소방사 이동준 소방사 정지용 소방사 조정환 소방사 주성민 소방사 황지현 소방사 강민태



철원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남흥우 소방령 이종일 소방령 천정덕 소방령 허호영 소방경 이상철 소방경 현종찬 소방경 김도철
소방경 박상춘 소방경 전종하 소방경 김명규 소방경 원종철 소방경 유근윤 소방경 고진모 소방경 이상근
소방경 서상실 소방경 박상일 소방경 손 완 소방위 허경애 소방위 강인숙 소방위 김이현 소방위 이윤성
소방위 황병기 소방위 고병각 소방위 김영필 소방위 박민오 소방위 박상섭 소방위 최영진 소방위 노홍방
소방위 배기찬 소방위 선남식 소방위 송연철 소방위 신동규 소방위 경태현 소방위 박주희 소방위 유배현
소방위 이광용 소방위 전영신 소방위 조정수 소방위 최윤식 소방위 홍순걸 소방위 길 충 소방위 박성우
소방위 유호진 소방위 이 규 소방위 장우석 소방위 정재필 소방위 지혁중 소방위 진기배 소방위 최수용
소방위 김상덕 소방위 김용원 소방위 이용호 소방위 최재만 소방장 최현진 소방장 김대영 소방장 박덕희
소방장 박상진 소방장 안세철 소방장 민선규 소방장 김철손 소방장 강근준 소방장 이건원 소방장 최돈엽
소방장 김남진 소방장 이진석 소방장 김창래 소방장 박성혁 소방장 오광익 소방장 용태성 소방장 최영민
소방장 한성대 소방장 홍준호 소방장 이철호 소방장 이동환 소방장 이정규 소방장 이충식 소방장 이홍종
소방장 정해민 소방장 박기창 소방장 이성재 소방장 이재윤 소방장 지성원 소방장 김윤철 소방장 용 현
소방장 권 욱 소방교 김두현 소방교 박성진 소방교 왕슬기 소방교 이화명 소방교 조현중 소방교 유재호
소방교 강용우 소방장 정선익 소방교 김정년 소방교 남궁균 소방교 박제환 소방교 안태주 소방장 정민수
소방교 정재훈 소방교 홍성우 소방교 홍세원 소방장 김민수 소방교 김정곤 소방교 오원석 소방교 이경복
소방교 이대경 소방교 조대형 소방교 최진웅 소방교 임형주 소방교 정영화 소방교 정종한 소방교 조범식
소방교 김탁호 소방사 김태우 소방사 박자혁 소방사 안성욱 소방사 정은채 소방사 최경삼 소방사 강석우
소방사 고주희 소방사 김태현 소방사 박종환 소방사 설현수 소방교 유근택 소방사 이대한 소방사 정수영
소방사 김미영 소방교 류인영 소방사 여현구 소방사 윤정훈 소방사 이상훈 소방교 임현규 소방사 민병관
소방사 엄세영 소방사 오용상 소방교 최은애 소방사 길형준 소방사 김범호 소방사 박 준 소방사 백충현
소방사 유익한 소방사 이상훈 소방사 임경수 소방사 조규석 소방사 조민수 소방사 박명우 소방교 장요셉
소방장 엄이슬 소방위 이재성 소방교 성열림





인제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김재홍 소방령 이강우 소방령 김양수 소방령 이규석 소방경 박춘근 소방경 홍회정 소방경 송병건
소방경 이태윤 소방경 장한석 소방경 박종욱 소방경 이운성 소방경 조주현 소방경 박정훈 소방경 김영식
소방경 반종범 소방경 고진호 소방위 엄영복 소방위 유동호 소방위 유호창 소방위 이재화 소방위 지영길
소방위 최영수 소방위 황정기 소방위 김관하 소방위 김병조 소방위 김상현 소방위 김주석 소방위 김진덕
소방위 박용호 소방위 윤돈규 소방위 이재만 소방위 김경윤 소방위 박근석 소방위 박부근 소방위 송병천
소방위 이왕모 소방위 허수부 소방위 김학수 소방위 백승덕 소방위 이건필 소방위 이기성 소방위 이순일
소방위 이영재 소방위 한민석 소방위 함동화 소방장 오종윤 소방장 전수호 소방장 김현성 소방장 정원철
소방장 김성열 소방장 이길훈 소방장 조상남 소방장 이창연 소방장 이영훈 소방장 이용수 소방장 이종세
소방장 최천용 소방장 김용운 소방장 이중재 소방장 조성호 소방장 조자연 소방장 최용운 소방장 김두회
소방교 도경수 소방교 이용희 소방교 곽민겸 소방장 김순희 소방교 박원용 소방교 김경한 소방교 박지훈
소방교 이건웅 소방교 이지수 소방교 전재희 소방교 황석재 소방교 김일권 소방장 김지원 소방교 최승원
소방교 백종효 소방장 성기완 소방교 이원빈 소방교 임경운 소방교 길상민 소방교 김남돈 소방교 김민수
소방교 김수인 소방교 박태무 소방장 송영호 소방교 양은혁 소방교 엄태원 소방교 이병주 소방교 이현태
소방교 이호찬 소방교 정지호 소방교 최정호 소방교 황인용 소방교 고진경 소방교 김종현 소방교 김지환
소방교 박재성 소방교 양오석 소방교 이재원 소방교 정기준 소방교 강경필 소방교 최웅비 소방교 박성진
소방장 박승지 소방교 송현정 소방교 심주용 소방장 윤동민 소방교 조선행 소방교 김영준 소방교 윤성일
소방사 김재백 소방교 양광모 소방사 장민구 소방사 홍지환 소방사 김성현 소방사 김승규 소방사 마동희
소방사 기경민 소방사 전천후 소방사 조동규 소방사 강민호 소방교 길준상 소방사 김병호 소방사 김시윤
소방교 김지성 소방사 김지현 소방사 엄선미 소방사 이숙영 소방사 최승창 소방사 최용식 소방사 최흰샘
소방사 고가인 소방사 김군찬 소방사 김길중 소방사 김태훈 소방사 박남영 소방사 박상천 소방사 안창길
소방사 이대우 소방사 이재환 소방장 조연희 소방교 신현근



고성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이석철 소방령 권학주 소방령 최동혁 소방령 장상훈 소방경 곽인식 소방경 최미선 소방경 전상표
소방경 전형윤 소방경 고동준 소방경 곽희태 소방경 김병령 소방경 장대종 소방경 김승철 소방경 김현철
소방경 김연수 소방경 배명진 소방위 김진석 소방위 가기수 소방위 고석빈 소방위 안종대 소방위 최운출
소방위 김종근 소방위 권혁창 소방위 오정기 소방위 이상구 소방위 이주일 소방위 유수현 소방위 이광원
소방위 임동빈 소방위 장재호 소방위 정병기 소방위 박제동 소방위 송길동 소방위 위경현 소방위 윤일환
소방위 윤중현 소방위 한성필 소방위 김귀환 소방위 남상춘 소방위 이영규 소방위 이재순 소방위 최창용
소방장 윤대준 소방장 이장춘 소방장 정영일 소방장 박철훈 소방장 최병택 소방장 임채청 소방장 최승환
소방장 김덕래 소방장 이상명 소방장 이상원 소방장 전은정 소방장 유대진 소방장 조우형 소방장 김선식
소방장 김일우 소방교 김우준 소방교 남택일 소방장 서한규 소방교 장우진 소방교 조정일 소방교 김민정
소방교 서영민 소방교 이동우 소방교 최복영 소방장 최수석 소방교 강민구 소방교 신형진 소방교 조종화
소방장 최원순 소방교 김남원 소방교 김동호 소방교 김만식 소방교 김민섭 소방교 김민수 소방교 김지왕
소방교 김종섭 소방교 박석균 소방교 성호원 소방교 송건우 소방교 심상운 소방교 김유영 소방교 김창회
소방교 남귀형 소방교 송태원 소방장 이장근 소방교 장의빈 소방장 조영화 소방교 최원용 소방교 강태순
소방교 김용우 소방교 박순철 소방교 우용희 소방교 이상원 소방교 조형익 소방사 김동식 소방사 배진우
소방사 김선경 소방사 김순주 소방사 손세영 소방사 엄용남 소방사 이충현 소방사 이태준 소방사 전현준
소방교 최재호 소방사 김진형 소방사 박창호 소방사 서경훈 소방사 윤병국 소방사 전정표 소방사 전진도
소방사 한기섭 소방사 권혁언 소방사 조창훈 소방사 함주형 소방사 김우현 소방사 김현기 소방사 박경남
소방사 이기광 소방사 이수민 소방사 장기영 소방사 장영희 소방사 최일준 소방사 김슬빈 소방사 김영범
소방교 민경일 소방장 허광현



양양소방서

2019.1.2. 기준

소방정 조환근 소방령 강윤혁 소방령 김남기 소방령 윤재갑 소방경 박형진 소방경 이영주 소방경 전동우
소방경 차재호 소방경 최영상 소방경 김명규 소방경 김진업 소방경 김흥권 소방경 최돈재 소방경 김록기
소방경 김병익 소방위 심호남 소방위 손상기 소방위 정백교 소방위 최창동 소방위 장용익 소방장 이호현
소방사 윤혜연 소방위 황규진 소방교 천 인 소방경 정병찬 소방교 전현택 소방장 정은지 소방장 최형두
소방장 이성림 소방장 김준한 소방위 이주희 소방위 장남중 소방위 권영각 소방위 이수택 소방위 이유표
소방위 정석환 소방위 김기종 소방위 김은선 소방위 김재현 소방위 김종래 소방위 박용원 소방위 오종현
소방위 이재호 소방위 이창희 소방위 이화현 소방위 임익순 소방위 김석주 소방위 안희철 소방위 유태열
소방위 윤종호 소방위 이상준 소방위 정용수 소방위 정진원 소방장 김석래 소방장 박승철 소방장 권오하
소방장 박근홍 소방장 박미령 소방장 이기호 소방장 이현태 소방장 김규성 소방장 김효남 소방위 이재동
소방장 강영석 소방장 서금돌 소방장 유기정 소방장 조정우 소방장 김형섭 소방장 이광현 소방장 박권원
소방장 우원기 소방장 임병조 소방장 조석두 소방장 강영진 소방장 전 훈 소방장 최선호 소방교 장태섭
소방교 최희성 소방교 김택형 소방장 박진용 소방장 송지훈 소방교 김영진 소방교 홍석영 소방교 권순호
소방교 장대근 소방장 김정섭 소방장 김현기 소방교 이동규 소방교 천충호 소방사 김주성 소방사 이학재
소방사 마성민 소방사 지세환 소방사 고현수 소방사 김설희 소방사 김윤형 소방사 김한석 소방사 박현수
소방사 송승연 소방사 안홍남 소방사 이유림 소방사 이재범 소방사 이현준 소방사 장원준 소방사 최대순
소방사 최선태 소방사 김태우 소방사 김태진 소방사 노선영 소방사 신우성 소방사 심재돈 소방사 이동현
소방사 이문규 소방사 이상현 소방사 이수철 소방사 장유진 소방사 정 연 소방사 조영화 소방사 최범석
소방사 한승희 소방사 홍성민 소방사 허준범 소방교 손덕영 소방령 권 철



강원소방인 현황
(퇴직·전출 등)

1972~1979년

소방경위 최홍순 유급상비대원 조병천 소방원 김선동 유급상비대원 김남옥 소방원 이재한 소방사 김학진 유급상비대원 안명자 유급상비대원 김영수 소방원 정규영 소방원 오인택 소방경감 김경원 유급상비대원 피명기 소방사 유영재 유급상비대원 김미순 유급상비대원 경기성 소방장 윤용희 소방원 김병호 유급상비대원 박순희 사환 최부자 소방수 박진관 소방수 박수만 소방수 황만선 소방원 원흥민 소방수 황만선 유급상비대원 이규홍 소방경감 문태섭 소방원 이진우 소방경위 권병춘 소방사시보 정만형 소방정 김건수 소방정 김덕배 소방령 정기섭 소방사시보 유진규 소방사시보 조용운 소방사시보 장경선 소방사시보 박찬희 소방사시보 박동주 소방사시보 김현수 소방사시보 최영재 소방사시보 정종구 소방사시보 심수종 소방사시보 신영철 소방사시보 김동호 소방사시보 김일하 소방사시보 홍순남 소방사시보 현명선 소방사시보 황규하 소방사시보 강치용 소방사시보 박영호 소방사시보 이상열 소방사시보 안치근 소방사시보 윤풍식 소방사시보 이헌천 소방사시보 홍종각






1980~1989년

소방사시보 양대현 소방사시보 이명순 소방사 허만식 소방사 지용철 소방사시보 강진성 소방사시보 연순례 소방교 조흥규 소방경 김춘식 소방사시보 유기철 소방사시보 이광순 소방사시보 엄주원 소방사시보 박종학 소방사 정의천 소방사시보 김종길 소방사시보 권완근 소방사시보 장윤식 소방사시보 서행권 소방사시보 탁승란 소방장 여운덕 소방정 유상록 소방사 김종문 소방사시보 정충환 소방사시보 임일영 소방사시보 이재규 소방정 진중환 소방사 이운규 소방사 권혁진 소방사 권용태 소방사시보 전택환 소방장 박흥교 소방사시보 김석복 소방사 최선상 소방사시보 선우동환 소방정 이원조 소방경 정응성 소방사시보 김인태 소방사시보 변병용 소방사시보 기병갑 소방교 박춘영 소방사시보 홍성희 소방교 김현모 소방사시보 이동욱 소방사시보 성은옥 소방사시보 김용훈 소방교 최완섭 소방사시보 이태근 소방사 정인화 소방교 정연준 소방사시보 왕재섭 소방사시보 채경남 소방사시보 최영규 소방사시보 박승준 소방사시보 한재덕 소방사 박시준 소방사시보 김길수 고용원 정혜원 소방사 류제형 소방위 백현기 소방사시보 김용태 소방사 정상순 소방사 박동호 소방사시보 김진호 소방사 백승혁 소방사시보 박희재 소방사 심교석 소방사시보 홍재문 소방장 박헌호 소방사시보 김광일 소방사시보 이경림 소방장 김원섭 소방사시보 최찬종 소방사시보 이종렬 소방위 최영모 소방사시보 김남태 소방사 장한용 소방사 전성표 소방사시보 이성환 소방사시보 박두규 소방사 이춘수 소방사 한성수 소방교 오순길 소방사 장용운 소방사 염성애 소방사시보 박대성 소방장 김상용 소방사시보 이종현 소방사 김경숙 소방사 박문호 소방사 함영수 소방장 엄재원 소방사 김봉주 소방사 김광석 소방사 조성호 소방사시보 이원진 소방사 임찬경 소방사시보 신재호 소방사 김한기 소방사 장종순 소방정 김행교 소방사 김승택 소방정 최성한 소방사 조백송 소방사 최돈구 소방사 석정숙 소방사 송정대 소방교 김원영 소방사 임영빈 소방사시보 김재주 소방교 송효식 소방사시보 홍성익 소방교 차주원 소방사 윤돈규 소방사 홍석표 소방위 김유찬 소방사 김기수 소방사 윤원기 소방사 최창헌 소방사 함탁균 소방사 윤동천 소방사 원종화 소방사 오세웅 소방사 용석필





1990~1999년

소방사 김동연 소방교 배명수 소방교 윤용출 소방사 김상인 소방사시보 안기춘 소방사 김대용 소방정 문남현 소방사 최창수 소방교 김상현 소방사시보 강대현 소방사시보 이현석 소방사 김대연 소방경 권태종 소방사 김길수 소방사 최원길 소방사시보 전영한 소방사 양병국 소방장 김용인 소방사 김태진 고용원 정은주 소방사 곽동일 소방사 김영승 고용원 임춘남 소방교 박태원 소방장 홍성환 소방사 이영훈 소방교 김원영 소방사 이수창 소방사시보 이기삼 소방사 김 경우 소방장 김남용 소방사 최종근 소방사시보 이달수 소방사시보 정운섭 소방사 오현석 진정옥 소방교 황병표 소방사 남종훈 소방사시보 이일섭 소방사 김영현 소방사시보 신응섭 소방사 조병철 소방사 권일순 소방사시보 이동우 소방사 김선형 소방장 정연재 소방사시보 김운석 소방사 김상헌 소방교 이필재 소방사시보 배준호 소방사시보 김남섭 소방사 이강택 소방사 김흥진 소방교 정두열 소방교 김운기 소방사시보 박정근 소방사시보 이덕규 소방교 권형률 소방사 서대원 소방사 박철봉 소방사 최승준 소방사 최돈율 소방사시보 신욱철 소방사 금진섭 소방사 이상호 소방사 정진택 소방사시보 강도원 고용원 김선분 소방장 김선응 소방장 박영준 소방사 안기운 소방사시보 김국현 소방사 김억중 소방교 윤석근 소방사 오영택 소방사 최종호 소방사 용희중 고용원 오국희 소방사 이상수 소방사 김영권 소방교 김은경 소방장 정인수 소방장 곽동기 소방교 임창규 소방교 정용하 소방교 박순영 소방사 김영수 소방교 박용범 소방사 유연원 소방위 김남수 소방사 이상호 소방사시보 박용기 소방사시보 최재철 소방사시보 이정기 소방사시보 박승태 소방사시보 김현규 소방사시보 김영태 소방사시보 정영교 소방사 김용해 소방사 이태규 소방사 김용진 소방사 이명식 소방경 박상현 소방사시보 이승철 소방교 배영길 소방사 안종관 소방사 김명수 소방사 김종래 소방사 김병경 소방사 박상준 소방사시보 우진철 기능직 이병호 소방교 김병용 소방사 진영환 소방교 한경철 소방사시보 홍건표 소방교 권진원 소방사시보 김남수 소방장 김동한 소방사시보 강희석 소방사시보 사재성 소방사시보 정철주 소방사시보 김정우 소방교 허두영 소방사시보 이종태 소방사시보 박부형 소방교 김종태 소방교 김세윤 소방령 이태호 소방교 황태상 소방교 윤용병 소방사 이일열 소방사 신승만 소방장 송광용 소방사 김영진 소방사 심상규 소방사시보 정용교 소방사 임양호 소방사 김장훈 소방사 이종화 기능직 황효식 소방사 배인한 기능직 임정희 소방사시보 김병철 소방사시보 차호근 소방사 김인섭 소방교 김종봉 소방교 윤원규 소방령 권영표 소방사 최춘표 소방장 박동조 소방사시보 강민수 소방사시보 조상현 소방사 배연학 소방교 최용호 소방사 임정식 소방사시보 박진만 소방장 권혁장 소방교 김종식 소방장 조남수 소방장 김남준 소방교 권명수 소방교 이진동 소방사시보 손형욱 소방사시보 김상민 소방사 박용철 소방사 조규순 소방사 송영철 고용원 김성희 소방사 김경태 소방교 황고수 기능직 김현미 소방사시보 고진모 소방사시보 고정호 소방교 최효선 소방사시보 이지호 소방사시보 구숙희 기능직 이미경 소방사시보 전정석 소방사시보 이병로 소방교 이백규 기능직 김광래 소방사시보 김두수 소방교 강윤철 소방사 신성오 소방사 오흥유 소방사시보 이명희 소방사시보 강병재 소방사 한상훈 소방교 황길용 기능직 이동원 소방사 주경숙 소방장 김하동 소방사 권경렬 고용직 이미복 소방사시보 엄재명 소방사시보 김택윤 소방사 전형덕 기능직 민병호 기능직 김인영 소방사 심우하 소방장 전정치 소방장 신수근 소방교 윤대현 소방경 윤임구 지방기능9등급 이상태 지방기능10등급 박병만 지방기능10등급 홍호표 지방기능10등급 이수영 지방기능10등급 김종래 지방기능10등급 김원석 지방기능10등급 박재근 지방기능10등급 김정환 소방사 권오영 지방기능9등급 박주희 지방기능10등급 우인철 지방기능10등급 오인환 지방기능10등급 이순열 지방기능10등급 선남식 지방기능10등급 박미선 지방기능10등급 김성기 지방기능10등급 김형철 지방기능10등급 전돈택 소방사 하승완 지방기능10등급 김두영 지방기능10등급 최일권 지방기능10등급 박용선 지방기능10등급 엄현찬 소방장 김남익

지방기능10등급 이상구 지방기능10등급 심대영 지방기능10등급 이호섭 지방기능10등급 김종익 소방장 허옥 지방기능10등급 김진만 지방기능10등급 최선복 지방기능9등급 이현수 지방기능9등급 남동화 지방기능9등급 전제병 지방기능10등급 이종학 지방기능10등급 김세현 지방기능10등급 임덕경 소방사시보 박정근 소방장 차주범 소방정 이덕재 소방사 오창석 소방사 이창호 소방교 이동렬 소방사 정연창 소방사 김시성 소방장 정양옥 기능직 김선미 소방사 심미숙 소방사 임성태 소방사시보 김용섭 소방사시보 임동순 소방사 최근구 소방사 신우균 소방사시보 최현 소방장 이재수 소방사 배기환 소방사시보 최호근 소방사 김종일 소방교 허성준 소방사 정석구 소방장 김진욱 소방정 이종구 소방교 전원일 소방사 홍순영 소방사 김태범 소방사시보 박영준 소방사시보 이상혁 소방사시보 민경달 소방사시보 김원기 소방교 최태순 소방사 함재일 소방교 백의현 소방사 이영돈 소방사 김창성 소방사 김철 소방장 이학문 소방장 이상옥 소방사시보 이종원 소방사 최병현 소방장 최옥순 소방경 최병두 소방사 김경하 소방사 이덕균 소방교 송운규 소방장 홍재옥 소방사시보 경문성 소방장 지용봉 소방령 김숙영 소방사 조성구 소방교 이영찬 소방교 김명호 소방경 김동원 소방장 조중설 소방장 김진환 소방장 조성연 소방교 우길선 소방장 원영호 소방장 곽노홍 소방장 이용개 소방장 고연수 소방장 고명학 소방정 강수인 소방장 강영일 소방사 변병국 소방장 김영준 소방사 윤광헌 소방감 김용익 소방사 양성환 소방사 조봉식 소방장 심용운 소방교 김윤경 소방교 박주용 소방교 우진기 소방장 김호상 소방장 전인구 소방장 송의섭 소방장 김규남 소방장 권순호 소방장 박창서 소방장 김진태 소방령 신동준 소방사 김흥규 소방경 김원영 기능직 김종인 기능직 이오복 소방교 김미회 소방사 김선호 소방교 박해영 소방정 김원웅 소방위 이범우 소방장 최병화 소방장 이준기 소방장 신상균 소방사 전용택 소방정 구창회 소방사 엄창식 소방사 주광돈 소방사 김원기 소방교 이윤재 소방사 유호수 소방사 곽성규 기능직 박복순 소방경 박수호 소방위 이규홍 소방장 장덕노 소방위 이희만 소방위 서홍석 소방장 김남헌 소방위 송영화 기능직 이주호 소방위 신재천 소방장 김정덕 소방장 강태성 소방장 이길홍 소방경 김영준 소방위 최병도 소방장 이증수 소방위 전정창 소방장 최종순 소방정 정운화 소방령 경기하 소방사 고영진 소방사시보 김용훈 소방장 이기복 소방위 김용종 소방사시보 안흥열 소방사 노현수 소방사 이재은 소방경 이해성 소방위 김두일 소방위 유남수 소방장 김병창 소방장 장야신 소방장 김동식 소방장 김한기 소방사 임선주 소방경 고영기 소방교 최예자 소방위 김영호 소방경 원종옥 기능직 최명수 소방정 박길영 소방교 김미성 소방교 견덕만 소방사시보 김주명 소방사 박미정 소방장 최의규 소방교 최복규





2000~2009년

소방장 배경선 소방장 조영철 소방사 오병철 소방사 김진태 소방사시보 최성희 소방정 홍순창 소방사 황달주 소방위 김승덕 소방위 서관식 소방사 정흠재 소방사 민명식 소방장 이원춘 소방장 정병용 소방위 박봉식 소방위 이인기 소방위 심원보 소방정 맹영관 소방사 김창용 소방위 이세호 소방위 김진영 소방위 하정수 소방사 정길천 소방사 김병조 소방장 박용수 소방사 김영식 소방교 편준해 소방령 조규철 소방교 김병기 소방사 김희곤 소방장 강보영 기능직 탁동하 소방장 최종환 소방정 서정하 소방정 윤용근 소방교 이한남 소방교 고한영 소방교 이종섭 소방정 이기평 소방사시보 임동규 소방정 박창수 소방정 최고광 소방장 박광수 소방정 이규엽 소방정 원찬희 소방사시보 신봉희 소방교 이영록 소방위 서경석 소방사시보 권용섭 소방교 김성제 소방장 박상기 소방사시보 강재구 소방교 정덕교 소방교 강은원 소방위 김남규 소방령 김용선 소방위 박창우 소방위 김태홍 소방감 이규엽 소방위 박광수 소방정 원찬희 소방교 이효청 소방사 심종근 소방사 이광원 소방교 이영록 소방사시보 신봉희 소방위 서경석 소방위 최성범 소방사 권용섭 소방장 박상기 소방사 강재구 소방교 정덕교 소방교 김성제 소방감 제진주 소방교 강은원 소방경 김남규 소방령 김용선 소방경 마광락 소방사 이강희 소방교 김재도 소방교 지성연 소방사 김동수 소방사 안상화 소방사 이은상 소방사 송재열 소방사 이주용 소방위 최도식 소방사 김우헌 소방사 김기정 소방사 지희용 소방사 연규방 소방사 장선정 소방교 최우순 소방사 박성혁 소방사 김균택 소방사 박다일 소방사 김광석 소방사 유현재 소방위 최병근 소방경 김용래 소방장 최승범 소방감 나승환 소방위(추서) 김영수 소방교 박용석 소방교 이병준 소방사 임동규 소방사 최창석 소방사 김호영 소방사 최인철 소방장 최현재 소방정 지병일 소방장 김진수 소방위 김정경 소방정 왕재섭 소방위 박동하 소방교 위상범 소방정 문복기 소방장 최원순 기능9급 김순하 소방교 윤희정 소방사 정용수 소방사 김형근 소방장 정웅교 소방경 엄기종 소방경 김진삼 소방장 송태봉 소방사 주영철 소방교 이재칠 소방위 김용근 소방사 박준길 기능9급 최진아 소방교 이기우 소방사 이정삼 소방사 김도흥 소방사 노래섭 소방사 이영로 소방교 정호근 소방장 최순범 소방장 진원봉 소방경 심재언 소방장 김진정 소방장 김복기 소방령 이일 소방사 강기홍 소방사 이재하 소방사 송진수 소방사 김민정 소방사 조상현 소방위 김명국 소방사 이정재 소방사 김병렬 소방교 김기호 소방사 구희범 소방사 강지영 소방위 안영환 소방장 박창규 소방장 임병환 소방장 탁태원 소방위 이규훈 소방교 한동우 소방준감 변상호 소방사 구현수 기능8급 이미옥 소방정 이강일 소방위 김형국 소방장 최영 소방교 송근기 소방교 최진술 소방사 윤삼수 소방사 이병창 소방사 안승유 소방사 권오덕 소방위 김석수 소방위 김세권 소방경 김진성 행정사무관 정연무 소방위(추서) 허원배 소방사 김덕주 소방사 김정성 소방사 최창모 소방사 권순종

소방위 홍한표 소방장 박성호 소방장 김상래 소방경 윤원섭 소방경 이원호 기능9급 장진희 기능9급 윤호선 기능9급 김연숙 기능9급 김귀숙 소방교 김동섭 소방령 변수남 소방위 최성철 소방위 진정희 소방교 김창현 소방위 강남수 소방위 조병태 소방정 권영선 소방장 채정환 소방사 강신문 소방령 현용길 소방위 권혁창 소방경 엄경섭 소방교 김종빈 소방장 이명근 소방사 임재만 소방사 김수연 소방사 김현석 소방령 백성현 소방위 임재호 소방사 이정훈 소방령 박명식 소방위 김남종 소방위 이주원 소방위 장지복 기능8급 남기덕 소방정 김희근 소방위 최용호 소방위 민용남 소방교 정길례 기능8급 한미경 소방준감 이일섭 소방령 이길영 소방령 김상래 소방위 안기복 소방위 이용주 소방교 이영복 소방사 김수강 소방교 서명석 소방사 김백철 소방사 박성철 소방사 박용민 소방장 원유웅 소방교 이만수 소방령 이건원 소방준감 염찬수 소방준감 김전수 소방준감 김국현 소방정 최명규 소방경 홍순용 소방경 김정인 소방경 변경주 소방위 김일호 소방위 김해기 기능8(운전) 임정모 소방정 류연찬 소방위 박성순 소방장 김명준 소방장 조성도 소방사 김충기 소방사 박석준 소방사 엄태훈 소방령 최석봉 소방장 손영운 소방위 정태진 소방사 김정하 소방사 전찬근 소방사 고경석 소방경(추서) 차주문 소방정 이만형 소방경(추서) 서정국 소방위 서광택 소방정 엄영섭 소방령 김재원 소방위 한승석 소방장 최충식 소방사 박용호 소방교 김영록 소방사 김명진 소방령 박영준 소방위 손병은 소방사 최민석 소방장 김왈수 소방사 방경호 소방정 정경남 소방장 한진전 소방장 이정우 기능7급 김석래 소방교 송재남 소방사 김철수 소방사 이덕민 소방사 강택주 소방장 황석구








2010~2018년

능8급(필기) 황윤정 소방사 김영달 소방사 이승훈 소방정 김송희 소방경 박명호 소방사 최정윤 소방장 탁호준 소방교 안건찬 소방장 최병대 소방사 최인호 소방사 강희인 소방사 김상우 소방사 심휘 소방사 박승균 소방장 장한필 소방위 김진복 소방위 최지연 소방위 이흥수 소방정 이성묵 소방령 원미숙 소방위 임춘삼 소방정 김을래 소방교 이성만 소방사 윤두환 소방사 김선웅 소방교 김황래 소방교 민용기 소방교 지영석 소방교 김현태 소방교 오세헌 소방령 함규식 소방경 홍금표 소방위 지수천 소방위 이기만 소방위 이경수 소방교 김문수 소방장 이상빈 소방사 조영화 소방사 이영근 소방경 조성각 소방위 최수진 소방경 이천원 소방정 이흥교 소방장 김명학 소방감 왕재섭 소방장 이창호 소방정 유용현 소방령 허남호 소방사 최규하 소방사 김래욱 소방교 김종현 소방정 박병호 소방사 홍운화 소방사 조경근 소방사 장영준 소방위 이태규 소방준감 정승진 소방정 성대용 소방령 김종수 소방사 안규태 소방사 윤신혜 소방사 이원재 소방사 홍기혁 소방사 양성우 소방사 허범윤 소방사 이강원 소방사 김운경 기능8급 최정옥 소방사 이영철 소방사 박홍식 소방정 이갑규 소방사 조황희 소방장 신덕선 소방사 이은종 소방사 정재원 소방교 최현식 소방교 김형준 소방경 김화섭 소방정 남궁현 소방정 조근희 소방위 이춘길 소방위 이종인 소방위 석승남 소방교 심상영 소방교 조성환 소방장 박연경 소방교 전성구 소방사 김남훈 소방경 이준희 소방위 지태규 소방정 이철수 소방정 남화영 소방정 여윤길 소방위 한태종 소방사 조영구 소방위 김경렬 소방사 박무선 소방사 허남균 소방사 조철용 소방사 김양현 소방사 박지훈 소방교 박종관 소방사 허성영 소방교 최종길 기능9급 이기숙 소방경 양은규 소방장 김정록 소방령 이태업 소방경 최복규 소방위 장만석 소방장 김성현 소방장 최승윤 소방장 김석동 소방정 김진봉 기능9급 박희주 소방교 이주영 소방정 김기성 소방경 남궁덕석 소방정 조완구 소방경 김남훈 소방위 이상태 소방장 김동영 소방경 이왕용 소방위 이강우 소방준감 오대희 소방위 최재용 소방장 윤석중 소방경 권웅 소방교 이종우 소방사 진옥진 소방경 김용규 소방사 박근형 소방사 송영진 소방교 김영석 소방사 유병권 소방사 전대복 소방교 김용국 소방교 이강민 소방교 안형선 소방교 이주영 소방사 함의수 소방교 강호준 소방사 이민규 소방장 박정식 소방사 신종민 소방정 고영국 소방교 이철호 소방령 박용복 소방령 김교성 소방령 조규홍 소방령 김철만 소방정 김남백 소방사 조용석 소방장 정광수 소방정 전대봉 소방령 김성주 소방경 김학중 소방교 김정식 소방장 장철훈 소방장 이영호 소방사 윤종춘 소방교 오진욱 소방교 윤수형 소방사 홍인표 소방정 이병광 소방령 길종철 소방령 이용환 소방경 이록성 소방경 심병수 소방위 김흥진 소방장 김승관 소방정 최봉규 소방령 박영재 소방경 송치면 소방경 권완근 소방경 황영덕 소방경 방인호 소방사 김대홍 소방령(추서) 정성철 소방경(추서) 박인돈 소방위(추서) 안병국 소방장(추서) 신영룡 소방교(추서) 이은교 소방준감 우원기 소방정 고현배 소방정 전석봉 소방정 심재천 소방령 최경균 소방령 최세헌 소방경 김일용 소방교 김욱진 소방사 임황 소방교 윤윤균 소방교 황문혁 소방사 한종수 소방사 성훈 소방정 박찬흥 소방경 김득수 소방경 송병규 소방경 장기준 소방위 조인일 소방장 전범석 소방경 김동헌 소방경 문종찬 소방경 김남극 소방장 최용규 소방정 김항수 소방경 신호선 소방정 김진우 소방령 박종덕 소방령 유영수 소방경 전상율 소방령 김광수 소방장 김종호 소방교 김선호 소방사 고정기 소방교 심만섭 소방정 최민철 소방령 권선욱 소방경 김문하 소방정 정병도 소방정 이상하 소방경 이광식 소방위 전제병 소방사 윤성민 소방교 이철호 소방교 김대우 소방사 박형규 소방사 허정민 소방령 김재운 소방사 김수환 소방사 이승민 소방사 옥재갑 소방사 주영경 소방사 김민석 소방사 윤호균 소방준감 김남숙 소방령 이정교 소방경 홍용식 소방경 강환배 소방경 정영길 소방경 박근욱 소방장 오인환 소방장 이연규 소방교 백영환 소방교 전덕재 소방사 박종민 소방교 오범식 소방사 임지후 소방준감 김성규

소방사 이상일 소방정 김병선 소방정 김조일 소방정 이지만 소방정 윤상기 소방위 오현철 소방경 이진복
소방사 김봉수 소방사 우제익 소방교 조원호 소방교 이동현 소방교 이정주 소방교 이동욱 소방사 김형진
소방위 황진중 소방경 이봉춘 소방정 박창진 소방정 김시균 소방령 김양호 소방령 김선화 소방경 김종문
소방경 김귀현 소방경 김우성 소방위 현종환 소방장 류정웅 소방준감 이강일 소방경 조재형 소방교 최지만
소방장 곽성일 소방교 권택준 소방교 이난영 소방교 강래춘 소방교 연정록 소방위(추서) 허승민 소방위 남동락
소방정 백승렬 소방정 김용락 소방령 이기욱 소방령 박길명 소방경 배영준 소방위 심상천 소방장 이종선
소방사 이은미 소방교 홍선호 소방장 이기웅 소방정 윤상기 소방사 고일엽 소방사 이재현 소방사 조상민
소방위 장필철 소방사 최정우 소방사 주형진 소방사 김동섭 소방교 박혜원 소방교 이영주 소방교 지수환
소방교 김재혁 소방교 최석운 소방사 최준영 소방교 고성민 소방사 박재천 소방경 송종찬 소방위 최지율
소방위 백승천 소방장 김원석 소방정 정은철 소방경 김성수 소방정 이기섭 소방정 정의규 소방정 손원섭
소방위 최동규 소방장 이현수 소방장 강충석 소방교 유호창 소방장 배상익 소방교 김성현 소방령 김남용
소방장 방무혁 소방교 강선구 소방준감 김상철 소방위 강신탁 소방령 방철근 소방경 하성업 소방경 황재춘
소방경 김윤환 소방경 박병희 소방경 박옥철 소방위 김한양 소방위 남동화 소방장 최선복 소방정 김강태
소방령 이현수 소방경 원범희 소방교 이민종 소방경 김금하 소방사 최중희 소방교 박준엽 소방사 김민재
소방사 배재형 소방사 서호윤 소방경 임경식 소방위 강영복 소방경(추서) 이영욱 소방교(추서) 이호현
소방정 김성주 소방준감 주항중 소방위 김상일 소방위 이재칠 소방위 정지원 소방사 원종훈 소방교 곽재근
소방장 조병일 소방사 김우경 소방교 노형준 소방경 이승철 소방경 박호경 소방위 이종기 소방위 최오규
소방위 김정환 소방위 임덕경 소방령 현영환 소방경 정원식 소방사 박중면 소방사 배계주 소방교 원상혁
소방교 송철의 소방경 김진만 소방사 이재범 소방장 최정훈 소방장 정종하 소방교 심민영 소방교 진중길
소방교 권지선 소방교 장석준 소방교 권혁원 소방교 권중호 소방사 박성민 소방사 배형환 소방위 최종임
소방사 이태관 소방정 이종진 소방령 권오익 소방령 신상건 소방령 이재수 소방령 장춘식 소방령 장재원
소방경 김광석 소방경 오세현 소방경 황선근 소방경 조규현 소방위 김원기 소방위 이창봉 소방경 김동하
소방위 김오진 소방사 김두영 소방사 박병선 소방교 김상협 소방령 김이구 소방경 엄승용 소방위 홍창
일지방운전서기보 하성래 소방감 이흥교 소방교 김길성 소방정 이종인 소방경 박현대 소방교 이동현
소방교 권석호 소방정 석교준 소방정 강윤종 소방령 전만택 소방령 김실용 소방령 박성일 소방경 민갑식
소방경 김택정 소방경 남영섭





참고문헌

행정자치부, 1999, 『한국소방행정사』.
소방방재청, 2009, 『한국소방행정사』.
소방방재청, 2013, 『재난상황관리 정보』.
행정자치부, 2005~2017, 『재해연보』.
보건복지부, 2016, 『2015 메르스백서』.
행정안전부, 2018, 『2017 포항지진백서』.
산림청, 2018, 『2017 산불통계연보』.
국민안전처, 2016, 『2016 소방장비통계집』.
기상청, 2011, 『태풍백서』.
강원도, 2010~2016, 『강원도사』.
강원도, 1983~2017, 『도정백서』.
강원도, 2007, 『2006 수해백서』.
강원도, 2001, 『2000 동해안산불백서』.
강원도, 2003, 『2002 강원동부지역 수해소방백서』.
강원도, 1960~2015, 『강원도 통계연보』.
강원도소방본부, 2017. 『강원소방 100년의 발자취』.
강원도소방본부, 2007, 『강원소방사』.
강원도소방본부, 2004~2016, 『강원도소방행정통계연보』.
강원도소방본부, 2010~2012,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강원도소방본부, 2016, 『지도와 그래프로 보는 강원화재 40년』.
강원소방본부, 2017, 『2017년도 소방업무추진계획』.
강원도소방본부, 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소방활동백서』.
강원도소방본부, 2018, 『2018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경상남도소방본부, 2017, 『2017 경상남도소방백서』.
경상북도소방본부, 2017, 『경북소방행정사』.
경상북도소방학교, 2014, 『경북소방학교 20년 발자취』.
춘천소방서, 2006, 『춘천소방60년사』.
동해소방서, 2010, 『동해소방 30년사』.
강릉소방서, 2016, 『강릉소방 50년사』.
홍천소방서, 2018, 『1993~2017 홍천소방사』.
고성군, 2002, 『2000년 4월 고성산불백서』.
한국방재협회, 2014, 『재난으로부터 배우다 소방방재청 10년사』.

사진출처

강원도 홍보관리시스템(http://106.0.2.50)
e영상역사관(http://ehistory.go.kr)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
강원도소방본부 및 도내 소방서 홈페이지

『강원소방100년사』 편찬위원

위 원 장 강원도소방본부장 소방감 김충식(前. 이홍교)

기획총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정 진형민(前. 이동학)

집필위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지방소방경 조용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위 고광수

편집위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허병렬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신영섭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김연옥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박정빈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경 엄석원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지방소방경 최승철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지방소방경 김정기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지방소방경 유영민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지방소방경 김현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경 민병옥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경 김진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경 변성엽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지방소방경 이상호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지방소방경 신우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지방소방경 고주천

『강원소방100년사』 편찬위원

편집위원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지방소방경 김진문
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지방소방경 안주석
소방학교 지방소방경 이광섭
소방학교 지방소방위 정세교
춘천소방서 지방소방위 김남형
원주소방서 지방소방위 전민정
강릉소방서 지방소방위 임창선
동해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영근
태백소방서 지방소방위 김우영
속초소방서 지방소방위 전제렬
삼척소방서 지방소방위 강대균
홍천소방서 지방소방위 황영구
횡성소방서 지방소방위 이정권
영월소방서 지방소방위 조근천
평창소방서 지방소방장 이성용
정선소방서 지방소방위 전문표
철원소방서 지방소방위 유배현
인제소방서 지방소방위 엄영복
고성소방서 지방소방위 김진석
양양소방서 지방소방위 심호남

사 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지방소방위 오광택

감수위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김동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학(역사)박사]
강원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공학박사]

자문위원 (前) 인제소방서장 김상철
홍천소방서 고기봉(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공학박사)

강원소방 100년사

발행일 | 2019년 3월

발행인 | 김 충 식

발행처 |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신관 1층 소방행정과
033-249-5425

편　집 | 강원소방100년사 발간 TF팀

Design & print | **문예당** 033-255-2379

저작권법에의해 이 책의 내용 및 사진은 강원도에 있으며 무단 사용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72-6420883-000003-01

ISBN 979-11-957320-6-7

ISBN 979-11-957320-5-0 (세트)